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김 주 희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茶事典籍을 通해 본 宋과 高麗의 茶文化 考察

200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 · 소비자학과

신 미 경

茶事典籍을 通해 본 宋과 高麗의 茶文化 考察

김 주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 · 소비자학과

신 미 경

인 준 서

신미경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

심사위원 _____ ㊞

심사위원 _____ ㊞

심사위원 _____ ㊞

심사위원 _____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論 文 槪 要

송나라와 고려는 차의 역사상 전성기라 할 수 있다. 송나라 때는 황제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차생활을 했고 차는 소금이나 쌀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품목으로 여겨졌다. 고려의 차문화는 궁중의 음차풍속이 관료에게로 다시 사대부와 일반백성에게로 전파된 것이었다. 이 시기 사람들의 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필요로 해 다서들이 출간되었는데, 송대에는 대부분 북원을 관리하는 전운사들이 북원의 차를 기록한 것이거나 사대부들의 전적(典籍)에 다사(茶事)와 다시(茶詩)가 많이 수록된 것이었다. 고려의 다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고려사류에 고려 왕실의 차의례가 기록되어 있다.

양국의 다사전적을 고찰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국의 차문화는 제차법이 엄격하였고, 점차법이 화려하고, 투차가 일반화 되었으며, 고급차가 발달하여 차의 종류는 다양하였고, 차도구는 화려하고 간결해졌다, 또한 차는 왕의 정치, 경제, 문화, 외교에까지 중요하게 쓰여졌다.

송대 차문화의 특징은 전운사, 백차, 다법, 제차법, 다마무역이라 할 수 있는데 전운사는 황제의 차밭인 북원을 관리하며 황제만을 위한 차를 만들고 공납하는 일을 전담하는 부서다. 송대 차문화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백차문화의 발달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휘종시기에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백차문화는 제차법, 차도구 투차문화 등에 영향을 미쳤다. 차(茶)의 판매를 국가가 전매하는 '각차법(榷茶法)'을 실시하였는데 이 다법은 차의 매매가 반드시 나라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로 이민족의 통치 및 회유에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다마무역은 청해(青海), 감숙(甘肅), 사천(四川), 서장(西藏) 등지의 소수 민족에 대한 마필(馬匹)정책과 무역제도로 송나라의 시급한 군마의 문제를 해결해 줌과 동시에 날로 그 세력을 팽창해가는 티벳을 회유하여 서북 변방의 안녕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동시에 국가의 재정에 큰 몫을 담당하기도 했다.

고려 차문화의 핵심은 궁중 차의례와 다방(茶房)제도라 할 수 있다. 고려는 궁중 의례에 차의례가 있었는데 그 중 중형주대의는 차생활을 얼마나 심오하고 진지한 일로 여겼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는 고려만의 독특한 문화이다. 고려의 다방은 궁중에서 행해지는 차의례를 준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고려의 차문화에 대한 기록들은 제차법과 음차법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 아쉬움이 있지만 분명히 송과 같은 문화를 공유하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송과 고려, 두 나라 차문화가 융성 · 쇠퇴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송의 차문화가 융성했던 것은 정치, 경제, 사회, 외교적으로 그 이유가 충분하다. 정치적으로는 왕이 신하와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차를 이용했고 경제적으로는 나라의 세원을 충당하는 중요한 재원이었다. 궁중의 생활양식이 서민에게까지 파급되어 투차문화가 사회적으로 일반화되었고, 외교적으로는 주변 이민족들을 회유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송의 차문화의 쇠퇴는 곧 단차문화의 쇠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지나친 공차로 사치에 빠져 나라를 통치하기 어려웠다는 정치적인 원인 때문이었다. 경제적으로는 차세금이 너무 비싸 공차민(貢茶民)의 반발이 커지고 생활이 어려워졌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비싼 단차보다는 질 좋은 산차가 많이 생산되었다.

고려의 차가 융성했던 이유는 정치적으로 왕실에서 차의 쓰임이 많았기 때문이다. 연등회나 팔관회에서 행하는 차의례는 궁중의 차풍습을 관료, 사대부, 서민에게까지 파급하는 역할을 하였다. 사신에게 행하는 빈례의식에 차의례가 있었고 주변국에 차를 보냄으로써 외교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융성했던 고려의 차문화가 서서히 쇠퇴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내적 원인이라기보다 조선시대의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의 외적 영향이라고 본다. 고려와 조선 초기 200여 년간 많던 다사가 왜침이후 거의 소멸된 점과 임진왜란이 끝난 후 경상도의 전답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던 데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정묘, 병자호란 후에 조공품으로 차를 바쳐야 했다는 사실, 조선 건국 이후 나라에서 차를 제지하고 마시지 못하게 한 기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문화가 결국 쇠퇴하게 된 것으로 미루어 외적인 영향이 컸다는 걸 알 수 있다.

目 次

論 文 概 要

Ⅰ. 序論 ····· 1
1. 序論 ····· 1
1) 硏究目的 ····· 1
2) 硏究方法 및 構成 ····· 3
3) 用語定義 ····· 6

Ⅱ. 茶事典籍에 관한 先行硏究考察 ····· 10

Ⅲ. 韓 · 中 茶文化의 傳來와 變遷 ····· 17
1. 中國의 茶文化 傳來와變遷 ····· 17
1) 茶의 起源및 發展 ····· 17
2) 唐 ····· 20
3) 宋 ····· 23
4) 元 明 靑 以後 ····· 28
2. 우리나라 茶文化의 傳來와 變遷 ····· 29
1) 茶의 起源및 發展 ····· 29
2) 四國時代 ····· 32
3) 高麗時代 ····· 36
4) 朝鮮時代 ····· 39

Ⅳ. 宋代의 茶書및 茶事典籍을 通해 본 茶文化 ····· 40
1. 宋代의 茶書및 茶事典籍 ····· 40
1) 宋代의 茶書目錄과 茶文化 背景 ····· 40
2) 宋代의 茶書目錄別 槪括 ····· 42
(1) 『茶茗錄』 ····· 42
(2) 『北苑茶錄』 ····· 42
(3) 『補茶經』 ····· 43
(4) 『述煮茶泉品』 ····· 43

(5) 『北苑拾遺』 ····· 44
(6) 『茶錄』 ····· 44
(7) 『東溪試茶錄』 ····· 45
(8) 『品茶要錄』 ····· 45
(9) 『本朝茶法』 ····· 46
(10) 『大觀茶論』 ····· 46
(11) 『鬪茶記』 ····· 48
(12) 『宣和北苑貢茶錄』 ····· 48
(13) 『續茶譜』 ····· 49
(14) 『北苑別錄』 ····· 50
(15) 『茶具圖贊』 ····· 52
3. 典籍에 나타난 北苑의茶事 典籍考 ····· 54
1) 製茶 ····· 54
2) 點茶 ····· 63
3) 茶의 種類 ····· 67
4) 鬪茶 ····· 70
5) 茶道具 ····· 75
6) 數量 單位 ····· 77
7) 皇室의 賜茶 ····· 78
8) 官 士 民 寺의 飮茶類 ····· 82
9) 白茶 ····· 90
10) 茶法 ····· 92
11) 茶馬貿易 ····· 95
Ⅴ. 古文獻에 나타난 高麗의 茶文化 ····· 100
1. 高麗의 文獻目錄과 茶文化 背景 ····· 100
2. 高麗文獻目錄 및 槪括 ····· 100
1) 高麗史類. ····· 100
2) 文集類 ····· 101
3) 高麗圖經 ····· 104
3. 文獻典籍에 나타난 高麗茶事 典籍考 ····· 105
1) 製茶 ····· 105
2) 點茶 ····· 106
3) 茶의 種類 ····· 110

4) 鬪茶 ····· 112
5) 茶道具 ····· 114
6) 數量單位 ····· 120
7) 王室의 賜茶 ····· 121
8) 官 士 民 寺의 飮茶類 ····· 123
9) 茶의效能 ····· 151
10) 茶店 ····· 153

Ⅵ. 典籍을 通해 본 宋과 高麗 茶文化의 特徵 ····· 155
1. 전적을 통해 본 송과 고려 차문화의 특징 ····· 155
1) 製茶 ····· 155
2) 點茶 ····· 156
3) 茶의 種類 ····· 156
4) 鬪茶 ····· 157
5) 茶道具 ····· 158
6) 數量單位 ····· 159
7) 賜茶 ····· 160
8) 王室의 茶文化 ····· 162
2. 宋과 高麗 茶文化의 特徵 ····· 163
1) 宋代 茶文化 特徵 ····· 163
2) 宋代 茶文化의 隆盛 ····· 165
3) 宋代 團茶의 衰退 ····· 166
4) 高麗 茶文化 特徵 ····· 167
5) 高麗 茶文化의 隆盛 ····· 168
6) 高麗 茶文化의 衰退 ····· 169

Ⅶ. 結 論 ····· 173

參 考 文 獻
ABSTRACT
부록
<부록 1>송대 다사연보
<부록 2>고려 다사연보

表 目 次

<표 1>『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차산지 ····· 37
<표 2>『선화북원공차록』의 세색, 추색차 ····· 49
<표 3>『북원별록』에 기록된 세색오강과 추색칠강 ····· 51
<표 4>『다구도찬』의 차도구 ····· 53
<표 5> 송대의 차도구 ····· 76
<표 6> 황실의 사차(賜茶) ····· 80
<표 7> 문인들이 남긴 다시 ····· 102
<표 8> 시에 기록된 점차용어 ····· 107
<표 9> 고려 차의 종류 ····· 111
<표 10> 고려도경에 나온 차도구 ····· 117
<표 11> 고려의 차도구 ····· 120
<표 12> 왕실의 사차 ····· 121
<표 13> 궁중의 차의례 ····· 125
<표 14> 왕실의 부차 ····· 141
<표 15> 선사들의 다시 ····· 151
<표 16> 송과 고려의 차도구 ····· 158
<표 17> 倭侵과 茶事및 王朝別 茶禮, 茶房의 記史 ····· 170

Ⅰ. 序　論

1. 序論

1) 硏究目的

세계의 3대 음료는 차, 커피, 코코아다. 또한 인류 역사상 100대 사건 중 차의 유럽 전래는 28위에 속한다(이광주. 2002: 205). 그만큼 차가 인류 문화에 끼친 영향이 크다고 한다. 차의 기원은 염제 신농씨부터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며 이는 동방의 차 기원이기도 하고 세계 차의 기원이기도 하다. 茶자가 정립된 것은 당나라 육우의 『다경(茶經)』이 후의 일이다.

육우『다경』의 출간 이후 차문화는 발전하여 송나라에 와서는 차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으며 차의 제조법에서 마시는 법까지 당나라와 비교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당나라와 구별되는 것은 '착차(搾茶)'[1]라는 과정을 거쳐 엽록소를 제거하여 백차를 추구했다는 점인데 이는 송나라 제차법의 주요한 특징이다. 후에 명나라에서는 송나라 차와 같은 지나친 사치를 경계하여 산차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송나라는 차문화사에서 지나친 사치로 인한 폐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차의 전성기를 이루는 시기였으며, 이후 어느 시대에도 송만큼 화려한 차문화는 없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송대의 연고차 제조법이나 송대 점차법의 정확한 규명은 없었다. 송대 차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이에 대한 논문은 다법(茶法)에 관한 것이었고 차문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것은 없었다. 송대의 화려하고 융성한 차문화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다사전적을 연구한 논문도 많지 않고, 다양한 다서를 고찰한 논문도 지금까지 없었다. 이에 연구자는 송대의 1차 문헌을 통해 당시 차문화를 심층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송대는 시대적으로 고려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송나라(960-1280)는 320년간, 고려(918-1392)는 487년간을 유지해온 국가로 두 나라는 상호교류가 많았고 그 중 차문화도 빼놓을 수 없다.

고려 또한 송에 뒤지지 않을 만큼 차를 즐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차가 있었다는 시기는 신라 선덕여왕(632-647) 때부터이고 차씨를 들여와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신라 흥덕왕 때 (828) 대렴이 당나라에서 차씨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을 때부터이다. 차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으나 차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고려시대에는 '다소(茶所)'라는 행정구역을 두고 매년 토산차를 진상하였으며 차를 관장하는 '다방(茶房)'의 직제가 확립되고 궁중의 모든 의례에 차가 등장했던 기록이 있다. 궁중과 사원에서 차를 중시하니 지배계층에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다점(茶店)'에서 차를 마시고 차제품을 사기도 했던 시기다. 이러한 고려의 차문화는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겪으며 점차 쇠퇴하였으나 20C 후반에 이르러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차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차문화 복원을 열망하는 독지가의 결속을 기점[2]으로 확산되었다.

---

1) 압황 (壓黃)이라고도 한다.
2) 1979년 1월20일 한국차인회가 결성되었다.

송나라와 같은 시대를 향유한 고려는 송과 같이 차문화가 융성하여 차가 정치, 사회, 외교적으로 다양하게 쓰였다. 이에 양국의 다사전적과 고문헌을 통하여 융성한 차문화 특징을 탐색하여 전향적 진로를 도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고려와 송은 같은 문자를 사용했으며 문화도 비슷하고 상호교류도 많았지만 현존하는 송나라의 다양한 다사전적에 비해 불행히도 고려시대 차에 관한 전문서는 남아있지 않다. 그 이유는 송의 다사전적까지도 함께 공유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송과 고려의 차문화 특징을 고찰하려는 목적은 첫째, 양국의 다사전적을 살펴 융성했던 차문화를 살펴보고 차문화가 발전한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전적에 기록된 송과 고려의 채차, 제차, 점차, 차도구등의 다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양국의 차문화의 특징을 고찰해 봄으로써 정치와 차문화의 연관성 및 영향을 살펴보려 한다. 넷째, 송과 고려의 융성한 차문화가 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를 규명하려 한다.

본 연구에서는 차문화가 성행했던 양국의 다서와 다사전적 및 고문헌의 원전을 보았고 이전에 연구된 적이 없는 양국의 문헌을 통한 차문화의 특징 및 융성과 쇠퇴를 고찰하여 현대의 차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2) 硏究方法 및 構成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송나라 다서와 고려의 고문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송나라 다서로는 도곡(陶穀)의『천명록(茶茗錄)』,정위(丁謂)의『북원다록(北苑茶錄)』,주강(周絳)의『보다경(補茶經)』,섭청신(葉淸臣)의『술자차천품(述煮茶泉品)』,유이(劉異)의『북원습유(北苑拾遺)』,채양(蔡襄)의『다록(茶錄)』,송자안(宋子安)의『동계시차록(東溪試茶錄)』,황유(黃儒)의『품차요록(品茶要錄)』,심괄(沈括)의『본조다법(本朝茶法)』,휘종조길(徽宗趙佶)의『대관다론(大觀茶論)』,당경(唐庚)의『투차기(鬪茶記)』,웅번(熊蕃)의『선화북원공차록(宣和北苑貢茶錄)』,조여려(趙汝礪)의『북원별록(北苑別錄)』, 심안노인(審安老人)의 다구도찬(茶具圖贊)』 등을 분석하였다.

다사전적으로는 고염무(顧炎武)의『일지록(日知錄)』,『舊唐書』<덕종기(德宗記)>, 구양수의『귀전록(歸田錄)』, 도곡(陶穀)의『청이록(淸異錄)』, 봉연(封演)의『봉씨문견기(封氏聞見記)』,『三國志』<위요전(偉曜傳)>, 신농(神農)의『식경(食經)』,심괄의『몽계필담(夢溪筆談』,상거의『화양국지(華陽國志)』,『宋會要』, 양시(楊時)의『구산집(龜山集)』, 육유의『입촉기(入蜀記)』,왕수(王洙)의『왕씨담록(王氏談錄)』,양억(楊億)의『양문공담원(楊文公談苑)』,왕벽지(王闢之)의『민수연담록(澠水燕談錄)』,오자목(吳自牧)의『몽양록(夢粱錄)』,이조(李肇)의 국사보(國史補)』,왕포(王褒)의『동약(僮約)』,주소명(朱小明)의『다사다전(茶史茶典)』,장읍(張揖)의『광아(廣雅)』,주밀(周密)의『계신잡지(葵辛雜識)』,진빈번(陳彬藩)의『중국차문화경전(中國茶文化經典)』,팽승(彭乘)의『묵객휘서(墨客揮書)』, 호자(胡仔)의『초계어은총화후집(苕溪漁隱叢話後集)』등과 송의 역사서인『송사(宋史)』를 분석하였다.

고려의 차에 관한 기록으로는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고려도경(高麗圖經)』이 주를 이루고 많은 문인들의 詩文을 모은 이규보의『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이제현의『익제집(益齋集)』,이인로의『파한집(破閑集)』,최자의『보한집(補

閑集)』,이색의『목은집(牧隱集)』,이숭인의『도은집(陶隱集)』서거정의『동문선(東文選)』등도 본 연구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추출했다.
근래에 출간된 다서로는 진조규, 주자진의 『중국다엽역사자료선집(中國茶葉歷史資料選集)』,『다향선미(茶香禪味)』의 원문을 참고하고, 민족문화추진위원회의『고전국역총서(古典國譯叢書)』와『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總刊)』및『고려사(高麗史)』,『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고려도경(高麗圖經)』,『삼국유사(三國遺事)』,『삼국사기(三國史記)』및 양국의 단행본과 관련 논문을 참고하였다.
전체 논문은 서론부터 결론까지 모두 7장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찰하려 한다.
1장에서는 서론으로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과 용어를 정의하였다.
2장에서는 다사전적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3장에서는 한 중 차문화의 전래와 변천으로 중국차의 기원과 발전 및 음차의 발달을 당, 송, 원, 명, 청의 순으로 차문화사를 살펴 차문화의 변천과정을 알고자 한다. 우리나라 차의 기원 및 제차 음차의 발달을 시대별로 고찰하고 특히 고려시대의 차문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송과 고려시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차문화 발달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송나라 전, 후인 당, 원, 명, 청의 차문화도 살피고, 고려 전후인 사국시대와 조선시대까지도 확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송과 고려시대의 차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4장에서는 송대의 다서 및 다사 전적을 통해 차문화를 알아보려 한다. 그 내용으로는 다서를 간략히 소개하였고 그 외의 다사전적도 살펴보았다. 송대에 남겨진 다서와 다사 전적은 당시의 차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차, 점차는 물론 황실의 차문화부터 서민의 차문화에 이르기까지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5장에서는 고문헌에 나타난 고려의 차문화를 고찰하였다. 고려시대의 차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자료로 『고려사류』와 고려인들의 예의바름에 감탄했던 서긍의『고려도경』과 여러 문인들의 문집 등을 살펴보고 선사(禪師)의 다시(茶詩)나 문인(文人)들의 운문(韻文)도 살펴 고려의 제차, 점차 및 왕실의 차문화에서부터 서민과 사원의 차문화까지도 고찰해보고자 한다.

6장에서는 4장과 5장에서 살펴본 송과 고려의 차문화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차문화 범위는 제차법, 음차법, 차의 종류, 투차문화, 차도구, 다법 및 수량 단위에 이르기까지 두 나라의 차문화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양국 차문화의 융성과 쇠퇴에 대해서도 고찰하려 한다.
7장에서는 결론을 도출하려 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먼저 송대의 차문화에 대해 자세히 고찰하고, 고려의 차문화를 고찰함으로써 송과 고려의 차문화의 공통점과 특징을 알고 왜 차가 성행했는지, 왕실에서의 차의 쓰임은 어떠했는지, 차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규

명하고 두 나라 차의 융성과 쇠퇴를 밝혀 우리 차의 부흥기를 맞이하게 된 시점에서 온고지신(溫故知新)한 전향적진로(前向的進路)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3) 用語定義

(1) 茶와 茶字의 정의

차는 의미상 세 가지로 정의된다. 첫째는 식물로서의 차나무, 둘째는 차나무의 싹이나 잎을 따서 손질한 여러 가지 형태의 음료와 이를 탕수에 타거나(가루차의 경우) 침출시킨 차 음료 전반을 말한다. 세 번째는 찻물을 의미하는데 넓은 뜻으로는 대용음료도 포함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칭할 때는 두 번째 정의를 따른다.

차의 뜻을 살펴보면 『이아 (爾雅)』<석초 (釋草)>[3]에서 '도는 쓴 나물'이라 했고, <석목(釋木)>에는 '가는 쓴 씀바귀'라 하였다. 찻잎은 어릴 때 일찍 딴 것은 차(茶)라 하고 늦게 딴 것은 명(茗) 혹은 천(荈)이라고 한다. 『설문(說文)』에는 도(荼)는 쓴 씀바귀(苦荼)라 했고, 오늘날의 '茶'자 다, 명(茗)은 막형절(莫迥切)로 차아(茶芽)다[4] 『옥편(玉篇)』에 가(檟)는 음이 가아절(柯雅切)로 산추야(山楸也:산 가래나무)라 했고, 도(荼)는 음이 형도절(同都切)로 고채(苦菜:쓴 나물)라 했고, 명(茗)은 음이 명정절(冥頂切)로 명천(茗荈:늦차)이라 했다.[5]

『강희자전(康熙字典)』에 도(荼)는 절운(切韻)이 동도절(同都切)로 발음하면 도(荼), 치가절(直加切)로 발음하면 차(茶)이니, 도, 차의 두 글자가 다 오늘날 마시는 차라 하였다. 막형절(莫迥切)로 소리 나는 글자는 명(茗)으로 차 싹을 말하며 척언절(尺兗切)로 소리 나는 글자는 천(荈)으로 늦은 차를 말한다. 또한 육우『다경』에는

> 첫째가 차(茶)이고, 둘째가 가(檟.)이며, 셋째가 설(蔎), 넷째가 명(茗), 다섯째가 천(荈) 이라 하였다. [6]

차를 오늘날 마시는 차로 확정하여 쓰기는 육우와 노동 이후로 도를 차로 바꾸어 쓰게 되었다고 했다.

茶에 대한 한자의 원음은 '차' 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음을 함께 쓰고 있는데 용법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다. 차를 독립적으로 말하거나 순수한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차'[7]라고 하고 주로 한자 어휘로 표현하고자 할 때 '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의 발음은 단음절에서는 차, 이음절어는 앞소리는 다 뒷소리는 차 삼음절어는 복합명사일 때는 끊어서 말하고 사음절어는 이음절어를 기준으로 하였다.

---

3) 『이아』 <석초 釋草> '茶苦菜' <釋木> '檟苦茶'

4) 『說文解字』茶, '苦茶'也。从艸余聲. 同都切。注曰. 此卽今之'茶'字。**茗,** '茶芽'也。从艸名聲. 莫迥切。

5) 『玉篇』 檟, 柯雅切 山楸也..茶 同都切. 苦菜也荈 尺兗切. 茶葉老者。茗 冥頂切. 茗荈。

6) 『다경』, <일지원> 其名. 一曰茶. 二曰檟. 三曰蔎. 四曰茗. 五曰荈。

7) 손목이 쓴 『계림유사(고려譯語집)』에 고려인이 쓰는 단어 중 차는: 茶曰茶 라고 하여 차로 발음하였던 것 같다. 석용운은 다왈다라 해석하여 '다'로 읽는다고 하였다 (석용운19988:51, 하지만 茶의 중국발음은 '차'다.

(2) 다사(茶事)

차의 일로 차를 마시는 데는 여러 가지의 찻일이 있다. 차나무를 심고 가꾸며, 채차하여 끓인 물에 우려 마시는 행위에 관련된 모든 일을 다사라 하였다.

(3) 차문화(茶文化)

음차생활문화(飮茶生活文化)의 줄인 말로 종차(種茶), 채차(採茶), 제차(製茶), 음차생활(飮茶生活)에 수반된 정신적, 육체적인 행위를 포함한다. 본고에서는 다사를 포함한 왕실의 차의례 및 왕실의 차생활도 다 이에 속한다.

(4) 궁중차의례(宮中茶儀禮)

궁궐이란 군왕이 거처하는 집으로 궐내를 뜻한다. 궁궐은 왕과 왕실의 생활공간이자, 국정의 구상, 운영에서 최종시행에 이르기까지의 정치행정의 중심지이다. '궁중차의례'라 함은 궁중의 가례, 길례, 빈례, 흉례 의식 중 차를 올리고 마시는 행위가 있는 경우와 하늘에 대한 제사와 종묘에 대한 제사 등 궁중의례에 차로 예를 갖춘 의전 모두를 포함한다.

(5) 진차의례(進茶儀禮)

연등회나 팔관회 등 공동체 의식에서 군왕께 차를 올리는 예를 '진차'라고 하고, 이 진차 의식은 주로 가례, 길례, 빈례, 흉례 때에 행해졌다. 고려 때는 다례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은 시기이므로 차의례란 용어로 서술하고자 한다.

(6) 다방(茶房)

왕의 측근에서 시종(侍從)관계의 일을 하고, 특히 진차와 집례에 수반한 일을 맡았던 관서로 궁궐의 차의례와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서 했던 부서를 총칭한다.

(7) 사차(賜茶)

왕이 하사하는 품목 중에 차가 포함된 경우로『고려사』[8]의 기록처럼 왕이 차를 하사한 경우 '사차'로 표현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사차'[9] 용어 기록이 있다.

---

8) 태조 2년(931년) 가을 8월 포윤, 선규 등을 보내어 신라왕 에게 안장 갖춘 말과 능라, 채면을 하사하고 백관들에게는 채백을, 군민들에게는 茶와 복두를, 승려들에게는 차와 향을 각각 차등 있게 하사했다.

9)『조선왕조실록』 단종 009 01/11/14(병인)<원전>6 집 641p 三問更啓曰: "經筵非朝廷比, 或有時優假, 故古有賜茶、賜坐之禮。 臣自去年, 或間一日、二日, 每入進講, 未得仰覩龍顏。 請依古例賜坐" 傳曰: "予當從之" 성삼문이 다시 아뢰기를, "경연은 조정(朝廷)과 견줄 바가 아니므로 간혹 때때로 특별히 우대[優假]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사차(賜茶)·사좌(賜坐)의 예(禮)가 있었습니다. 신이 지난해부터 간혹 하루나 이틀 걸러서 매양 들어가 진강하였으나, 용안을 우러러 뵈올 수 없었으니, 청컨대 고례(古例)에 의하여 사좌(賜坐)하소서."하니, 전지하기를, "내 마땅히 따르겠다" 하였다.

(8) 부차(賻茶)

신하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부의품으로 왕이 하사하는 품목에 차가 포함되면 '부차'라 했다.

Ⅱ. 茶事典籍에 관한 先行硏究考察

차문화라 함은 종차(種茶), 채차(採茶), 제차(製茶), 음차생활(飮茶生活)에 수반된 모든 과정을 일컫는 용어다. 차는 파(巴) 촉(蜀), 강남(江南)[1]에서 시작하여 세계에 전파했다는 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곳에서 시작된 차는 약용, 식용, 음용의 단계를 거쳐 세계인의 기호음료로 자리잡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차문화에 대한 연구는 1979년 한국 차인연합회(당시는 한국 차인회)가 결성되면서부터 연구가 활발해졌다. 우리나라 차문화에 대한 연구를 크게 분류해보면 차의 역사와 다례(茶禮)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한 연구, 차의 성분과 효능을 중심으로 하는 식품 과학적 연구[2], 차문화와 차고전(茶古典)을 고찰한 연구[3]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중국에서는 육우의『다경』이후에 차에 대한 많은 다서들이 출간되고 차에 대한 논문들이 나왔다.

박준식외(2005:31-47)는 2003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차 관련 석·박사학위논문의 연구동향을 살펴본 결과 차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논문이 178편(64.4%)으로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의·약학적 관점의 논문이 148편으로 83%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다구, 제차, 차문화 일반에 관한 연구 순이었다고 하였으나[4]근래 들어서는 차문화에 관한 논문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차에 관한 박사학위논문으로는 중국다법(茶法)연구(오원경, 1996; 서은미, 1998) 다마무역에 대한 연구(박영환, 2003), 차고전 연구(김진숙, 2005) 찻자리 공간연구(이일희, 2004), 차의례 연구(구영본, 2007) 등이 있다.

석사 논문으로는 차고전 연구(김진숙, 2001; 신미경, 2002; 최진영, 2003), 차의례(茶儀禮)연구(허충순, 1989; 이영옥, 1999; 이은주, 2001; 홍금이, 2002; 한기정, 2003; 윤명희,2003; 박순주, 2003; 박양례, 2006; 김경희, 2006), 찻자리 공간연구(육선자, 2002; 김건우, 2006; 정재숙, 2007), 행차시 복식연구(이주향, 2002), 다악(茶樂)연구(장정현, 2003), 다시(茶詩)연구(이혜자, 1994; 김길자, 1998; 이일희, 2001; 최은하, 2005;강승희, 2006), 차도구 연구(이소영, 1990; 한승희, 2002; 강연숙, 2002; 김숙희, 2003; 김옥수, 2003; 안승엽, 2007), 다화(茶畵)연구(김재임, 2001; 김창배, 2006), 차문화 연구(정영선, 1993; 박옥녀, 1998; 김영인, 2005; 오미경, 2005; 한애란, 2007) 이외에도 일본차, 차교육, 차산업, 차예절, 차인연구, 차의 과학, 등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차문화에 대한 연구로는 (유정림,1986; 김길자, 1998; 이연희, 2004; 송해경, 2006; 윤석우, 2007; 김재남, 2007)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송과 고려의 차문화에 대한 고찰을 하기 위하여 차문화 고전에 관한 선행연구뿐 아니라 차문화 전반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 송대의 다사전적으로는 많은 다서와 전적을 참고하였다. 중국차문화에 대한 연구로 왕령(1995)은『중국차문화(中國茶文化)』

---

1) 현 중국의 四川省과 太湖光域 이다.
2) 한국식품과학회에서 「국제녹차심포지엄」은 1989년 제1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개최하여 2005년 8번째에 이르렀다. 이 심포지엄은 녹차의 효능을 널리 알리고 국내외 녹차 연구가들의 학술발표와 교류의 장이 되어왔다.
3) 한국차문화학회는 1986년에 창간되어 활동하다가 없어지고 (사)한국 차학회가 1995년부터 차에 관한 식물학적, 인문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차의 학문적 접근을 하고 있다.
4) 2001년 성신여대 문화산업대학원의 학생배출 이후 성균관대, 한서대, 원광대, 목포대, 부산여대에서도 차관련 학부과정과 대학원이 개설되어 매년 차에 관한 논문들이 축척되고 있다.

에서 중국차의 역사와 명차(名茶), 옛사람의 음차 풍습 및 찻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당대의 다구부터 명, 청 다구 및 다실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차문화를 서술하였다. 윤경혁(2006)은『차문화고전(茶文化古典)』에서『다경(茶經)』,『대관다론(大觀茶論)』,『다소(茶疏)』를 번역하고 우리나라 다서로 『동다송(東茶頌)』,『다부(茶賦)』,『다신전(茶神傳)』을 번역하였으며 부록으로 노동(盧仝)의 <다가(茶歌)>, 정다산의 <乞茗疎(걸명소)>, 굴원의 <귤송(橘頌)>, 범해선사 <다가(茶歌)> 등 많은 차 관계 자료를 수록하였다. 김명배(1985)는『중국의다도(中國의茶道)』에서 차를 마신 기원부터 위(魏), 진(晉), 남북조(南北朝), 당(唐), 송(宋), 금(金), 원(元), 명(明), 청(淸),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중국 차문화사를 설명하였고 오대(五代)의 장우신이 쓴『전다수기(煎茶水記)』부터,『대명수기(大明水記)』,『부차산수기(浮차山水記)』,『탕품(湯品)』,『다보(茶譜)』,『다록(茶錄)』,『용다록후서(龍茶錄後序)』,『대관다론』,『선화북원공차록(宣和北苑貢茶錄)』,『북원별록(北苑別錄)』,『제차신보(製茶新譜)』,『고반여사(考槃餘事)』,『자천소품(煮泉小品)』,명나라 허차서(許次紓)『다소(茶疏)』까지를 모두 번역해 놓아 중국 고전다서의 참고가 되었다. 진조규(陣祖槐), 주자진(朱自振)의 『중국다엽역사자료선집(中國茶葉歷史資料選集)』은 책 서문에 중국의 차문화 전반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본문에서는 다서(茶書), 다사(茶事), 다법(茶法)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다서로는 당나라『다경』부터 청나라『정칙환차문독(整飭皖茶文牘)』까지 58권의 다서를 수록하고, 다사 부분에서는 451가지의 다사가 실려 있다. 또한 67가지의 다법기사는 중국 차문화 문헌을 총망라하고 있어 차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는 책으로 널리 읽히고 있다. 진빕번의『중국차문화경전(中國茶文化經典)』은 중국의 차문화경전을 수록하고 수, 당, 오대부터 청대까지의 다저(茶著), 다문(茶文), 다시(茶詩), 잡저(雜著)를 모아 기록하였다. 부록으로 사고전서 총목(茶書)제요와 다서총목제요 및 일본의 중국다서연구 이외에도 많은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송의 역사서인『송사(宋史)』는 중국 송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정사(正史)의 하나로 본기(本紀) 47권, 지(志) 162권, 표(表) 32권, 열전(列傳) 255권의 총 496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십사사(二十四史)』가운데 가장 권수가 많으며 송나라 차의 역사와 다사, 다법이 기록되어 있다.

논문에 나타난 중국 차문화 연구로 오원경(1996)은 송대 차의 보급과 다법 연구에서 송대차의 생산량과 차의 종류를 논하고 북송조의 차의 전매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또한 사천의 다마무역과 다법에 대해 언급했으며 송대의 차를 매개로 하는 경제 및 외교적 교류는 이민족과의 사회문화적 통합을 가져오고 금, 원대의 정치적 통일을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결론지었다. 서은미(1998)는 송대 차 전매(專賣)시행 기반과 다법 변천에서 차전매는 희하로(熙河路) 건설에 따른 경비조달과 매마비용(買馬費用)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생겨났으며 군비조달과 재원의 확보를 위해 나라의 통제 하에 계속 시행되었다고 하였다. 김진숙(2001; 2005)은『다경』을 저술한 육우는 '茶'자의 정립과 다구, 제차, 음차 등을 정립시킴으로써 차의 이론과 실제를 체계화하였고 이로 인한 보편적인 차문화를 형성하여 중국 차문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또한 당조(唐朝) 음차문화 성행요인은 경제문화의 안정, 불

교와 도교의 성행, 과거제도와 시풍만연, 금주령, 온난한 기후 등이 차문화 발전에 영향을 미쳤으며, 궁정에서 일반 백성들까지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대중문화가 되었다고 하였다. 박영환(1999; 2003)은 한장다마무역(漢藏茶馬貿易)의 기원, 발전 과정, 명대의 차발마제도(差發馬制度)와 조공호시(朝貢互市), 청대 한장다마무역의 쇠락에 대해 말하고 한장다마무역은 당대로부터 송、원、명、청에 이르기까지 수대에 걸친 왕조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천여 년 동안을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청대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자신들의 영토마저 온전히 보존치 못하고 중국의 영토로 완전히 복속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중국의 역대 왕조들이 수차례의 왕조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장다마무역을 전승、발전시키고 시행해 온 주된 이유이며 정치적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송해경(2006)은 송대의 점차법의 발전을 당나라 이전부터 고찰하고 고전문헌에 나타난 점차문화의 의문에 육우『다경』의 소금 첨가가 맛과 빛깔을 위해서라고 하였고, 주권의『다보』에 나타난 병차는 원래는 단차(團茶)인데 원나라는 단차를 폐지하여 용어를 병차(餠茶)로 기술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재남(2007)은 복건의 다사(茶事)와 명, 청대 공부차(工夫茶)를 고찰하면서 송대 단병차의 '점차법(點茶法)'이 중국 약음법(瀹陰法)인 품차(品茶)의 시작이었고 송대 단병차 외에 증청엽차(蒸靑葉茶)인 산차(散茶)와 편차(片茶)도 각각 발전하였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차문화 고전에 관한 선행 연구 중 먼저 저서를 살펴보면 차문화에 대한 일반적 연구의 성과로 최범술(1973)은『한국의다도(韓國의 茶道)』에서 일본 유학에서 경험한 일본의 다도문화와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예속을 비교연구하고 구체적인 차생활로서, 차와 선, 차와 멋을 본지로 하여 접근을 시도하였다. 부록에 차 고전인『다경』과 『대관다론』,『다신전』과 『동다송』의 원문을 실었다. 최규용(1979)은『금당다화(金堂茶話)』에서 전시대(前時代)에 행해진 실제 차생활을 기록하고 문헌연구를 통하여 선조들의 차생활 흔적을 찾아내고자 했다. 석성우(1988)는『차와 선』에서 우리나라 차의 전래를 인도에서 온 것이라 주장하며, 차의 역사, 차와 인연이 있는 장소와 이야기, 시(詩)들을 모았다. 최계원(1983)은 『우리차의 재조명(再照明) 』에서 생활차의 정립을 위하여, 차의 전래와 분포, 차의 재배와 가공, 차와 건강 문제 등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박영희(1985)는『동차정통고(東茶正統考)』에서 초의(草衣)의 유작인 『동다송(東茶頌)』과 『다신전(茶神傳)』을 연구하였고, 차에 대하여 전해온 이야기와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면서 국적불명의 다도생활을 경계하였다. 위 연구서들은 근대 한국의 차문화 연구의 시작이 되는 것으로

다소 주관적 해석이 보이기도 한다. 김상현 외(1984)의 『생활다예(生活茶藝)』는 한국 차문화의 흐름을 다예사(茶藝史)라 하였으며, 고전과 문헌에 나타난 차의 효능을 정리하였고, 음차법의 고찰에서 차를 마시는 형식에 따라 생활차와 의식차로 구분하였다. 김명배(1984)는『다도학(茶道學)』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차에 학문적 접근을 '다도학'이라 칭한 후, 차의 식물학과 다도의 원리, 한국 다도의 역사 등을 연구하면서 개념을 통일하기 위한 다도와 다례(茶禮)의 정의를 내리기도 하였다. 석용운(1988)은『한국다예(韓國茶藝)』라는 실제 차생활을 위한 입문서를 출판하였는데, 차를 크게 대용차와 정통차로 구분하였고, 차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물, 불, 도구, 포법(泡法), 재배법, 제차법, 보관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일본인 諸岡 存, 家入一雄(모로오까 , 이에이리 가즈오,)는 조선 차의 역사와 분포를 연구하여 『조선의 차와 선(禪)』을 1940년에 출간하였다. 그들의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어(최순자,1982; 김명배,1983) 근대 차문화 연구의 업적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차문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류건집(2006)의『한국차문화사(韓國茶文化史) 上, 下』는 우리나라의 차문화사를 사국(四國)시대와 남북국시대 , 고려, 조선 전·후기로 나누어 문헌에 나타난 유가의 차인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과 가락국을 포함하여 사국시대로 고찰하였고 통일신라와 발해의 차문화를 남북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논문에 나타난 고려시대에 대한 연구로 이은주(2001)는 고려시대의 궁정(宮廷)의례에 나타난 다례는 조선과 송에 비해 다양하고 많은 분량의 궁정의례는 고려 음차문화의 적극성과 개성을 짐작 한다고 하였다. 홍금이(2002)는 고려의 궁궐 차의례의 종류와 절차를 상세하게 고찰하고 고려의 차생활 정신은 신라의 화랑정신이 고려의 차 정신으로 이어지고 삼신제천행사(三神祭天行祀)인 신라의 팔사제(八蜡際)[5]가 고려로 옮겨지면서 차문화의 사상적 기반을 다지게 되었고 유구한 민족역사와 고유문화를 함께 지니면서 약용으로 혹은 의례물로 혹은 생활음료로 그 맥을 이어왔다고 말하고 있다. 정영선(2002)은 『고려사』에 나타난 다례를 고려시대에는 의전다례와 수진(修眞)다례, 취미다례, 평소다례, 회연다례 등으로 구분하여 다례의 종류와 목적이 다양하였으며 독창적인 다례가 많았다고 하였다. 이일희(2002)는 고려시대 다승(茶僧)의 선다시(禪茶詩) 연구에서 승려들이 차생활에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고 하였다. 구영본(2007)은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의 차의례의 고찰로 우리나라에서의 차문화는 중국의 의례와는 다르게 격식을 갖춘 차의례는 발달했으나 일상적인 음차 문화에는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고, 차문화의 쇠퇴와 함께 일상에서의 차의례는 사라졌으나 의례 속에 좀 더 격식을 갖춘 문화가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

5) 팔사제(八蜡際)에서 사(蜡)는 납제(臘祭, 음력 12월에 지내는 제사)를 의미한다. 팔사제(八蜡際)란 곧 천주신(天主申), 지주신(地主神), 병주신(兵主神), 양주신(陽主神), 음주신(陰主神), 월주신(月主神), 일주신(日主神), 사시주신(四時主神)등에게 12월에 제사하였다는 뜻이다.

고려시대 다서는 특별히 따로 나오지는 않았으나 차문화를 파악하기 위한 문헌자료로는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자료를 검토하여 각기 그 시기와 지역의 특성에 합당한 사료와 객관적으로 검증될 만한 후대 사서, 문집류(史書, 文集類)로 한정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 중 송대의 연구는 다법, 점차법에 관한 연구가 있고 다사전적을 이용한 차문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고려차에 대한 연구는 선다시 연구와 궁정의 차의례에 관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 고려 이전의 연구는 사료가 많지 않아서인지 다양한 연구를 찾을 수 없다. 고려시대의 궁정의례에서는 차의례의 종류와 절차를 중심으로 연구하였을 뿐 차의례가 국가의 어떤 의미로 시행되었는지에 대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송과 고려의 차문화 특징을 연구한 논문은 없었기에 양국의 다사전적과 고문헌을 통하여 제차법, 음차법, 차의 종류, 투차문화, 연보를 중심으로 한 다사, 차도구, 다법 및 수량 단위에 이르기까지 두 나라의 차문화의 특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 송대의 차문화에 대해 자세히 고찰하고, 고려의 차문화를 고찰함으로써 송과 고려는 왜 차가 성행했는지, 왕실에서의 차의 쓰임을 어떠했는지, 차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규명하고 양국 차의 융성과 쇠퇴를 고찰해 보고 양국의 차문화 특징을 살펴 우리나라 차 부흥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Ⅲ. 韓 · 中 茶文化의 傳來와 變遷

1. 中原의 茶文化 傳來와 變遷

1) 茶의 起源및 發展

언제부터 차를 마셨는지에 대한 고대실록(古代實錄)의 여러 기원을 보면 차나무의 싹이 인간에게 유용하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찻잎을 대체로 세 가지의 양태로 이용하였다. 처음에는 약으로, 음식으로, 마지막으로 음용으로 변하면서(육천우, 1993 : 104-105)부터 차문화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오늘날의 차는 대체로 음용의 형태로 널리 애음되고 있으나, 당대 이전에는 귀중한 약재로서 복용되었다.
육우(陸羽, 727-803)는 B.C 약3000년 전 신농씨(神農氏)[6]가 처음 차를 마셨다고 하였다. 신농씨는 차를 해독제로 사용하였으니, 그로부터 차에는 독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다고 여겼으며, 신농의『식경(食經)』에는

차를 오래 마시면 힘이 솟고, 기분이 상쾌해진다.[7]

6) 신농씨는 고대 삼황오제의 한 사람으로 신농씨를 염제 곧 불꽃임금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그가 처음으로 불로 물을 끓여 먹는 방법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는 음식을 불에 익혀 먹는 방법을 세상에 전하기도 했다. 또 농사짓는 법을 백성들에게 알려 주었고 온갖 초목을 헤치고 다니며 수백 종의 식물을 맛보아 약초를 찾아내었다. 산야를 거닐면서 하루 칠십여 가지씩 풀잎, 나뭇잎을 씹어 그 효용을 알아보다가 독이 심한 것을 맛보고 중독이 되었는데 찻잎을 씹었더니 그 독이 사라졌다. 그로부터 신농씨는 찻잎에 해독의 효능이 있음을 알고 이를 세상에 널리 알렸다. 지금 중국에 있는 그의 능(陵)마저 야능(茶陵)이라 불리운다고 한다. 중국인들은 지금도 햇차가 나오면 제일 먼저 다신(茶神)인 신농씨에게 다례를 지내고 있다(『品茶設茶』(1999)).

고 하여 차가 인간의 심신을 안정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는 파촉지방의 재배설로 동진(東晋)의 상거(常璩)가 편찬한 <화양국지(華陽國志):파지(巴志)>편에[8] B.C. 1066년 서주(西周)의 파촉(巴蜀)지방에서 차의 재배가 행해졌으며 춘추전국시대에는 한족과 소수민족에 의해 본격적인 차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현존하는 차관련 자료 중 가장 오래된 것은 한대(漢代) 왕포(王褒)가 편찬한 동약(僮約)으로

> 성도에 사는 과부 양혜에게서 노비 편료를 사와서 노비의 할 일을 문서로 남겼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하고 밥 먹으면 설걷이하고...차를 끓이고 다구를 정리하여 잘 담아두고 .....무양(武陽)에서 차를 사온다... [9]

라는 기록은 서한시대 파촉(西漢時代 巴蜀)[10]에서는 음차풍속이 보편화되고 차가 사대부의 생활필수품으로 시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기록은 당시의 차문화 발전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많은 학자들이 이 시기를 중국 최초 음차시기로 인정하고 있다. 『삼국지(三國志)』권65〈위요전(偉曜傳)〉에는

> 오나라 군주인 손호(孫皓)는 매번 연회를 열 때면 손님들에게 7되의 술을 마시게 했는데 그가 총애하던 술을 못 마신 신하 위요에게는 몰래 차천(茶荈)을 내려 술 대신 차를 마시게 했다.[11]

위의 기록을 보아 삼국시대 강남지역[12]에서도 음차풍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널리 음용이 된 것은 당대(唐代)에서야 가능하였고, 그 이전 삼국시대(220-265)에는 찻잎을 가공한 후 끓여 마시는 방법을 일부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30년 전후로 삼국시대 위(魏)나라 장읍(張揖)의 『광아(廣雅)』에 처음 차를 만들어 가공한 과정이 기록되었는데

> 형주(荊州)와 파주(巴州) 일대에는 찻잎을 따서 떡 모양의 병차(餠茶)로 빚는다. 차를 마시려면 먼저 병차를 불에 빨갛게 구워 찧은 다음 그 가루를 자기 속에 넣어 끓는 물을 붓는다. 또한 파, 생강, 귤 등을 섞어 끓이기도 한다.[13]

---

7) 茶茗久服 令人有力悅志 (육우,『다경』 卷下 七之事)

8) ……武王旣克殷. 以其宗姬於巴。爵之以子。古者遠國雖大。爵不過子。故吳, 楚及巴皆曰子。其地東至魚腹. 西至楚道. 北接漢中. 南極黔涪。上植五穀. 牲具六畜。桑, 蠶, 麻, 紵, 魚, 鹽, 銅, 鐵, 丹漆, 茶, 蜜, 靈龜, 巨犀, 山雞, 白雉, 黃潤鮮粉, 皆納貢之 (文淵閣 『四庫全書』(民國75)臺灣: 臺灣商務印書館印行,)

9) 從成都安志里女子楊惠買亡夫時戶下髯奴便了. 決賈萬五千. 奴當從百役使. 不得有二言. 晨起早埽. 食了洗滌……烹茶盡具. 鋪已蓋藏……武陽買茶. 무양은 현재 팽주시 (彭州市)팽현(彭縣)이다. (주자진외 1981:278)

10) 파(巴)는 중경(重慶)이고 촉(蜀)은 성도(成都)로 현재 중국의 사천(四川) 지방일대를 말한다.

11) 孫晧每饗宴坐席. 無不率以七升爲限. 雖不盡入口. 皆澆灌取盡。曜飮酒不過二升。晧初禮異。密賜茶荈以代酒.. (육우,『다경』. 卷下 七之事)

12) 당시에 오나라는 남경이 수도였다.

광아의 내용은 현존하는 다서 중 차를 끓이는 방법을 소개한 최초의 기록이다. 이 기록을 통해 당시의 사람들은 찻잎을 찌거나 끓는 물에 데쳐서 부드럽게 한 후 눌러서 떡 모양을 만들고, 햇볕이나 바람에 말리는 가장 기초적인 가공 방법으로 차를 건조하였으며, 차를 마실 때는 가루를 만들어 마시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를 섞어 끓여 마셨음을 알 수 있다. 동진과 남북조시대에 장강 하류 의흥 일대의 차가 유명해지기 시작하였으나 형초(荊楚)와 장강 중류의 다업중심이 더 한층 동쪽으로 이전한 시기는 당대 중기 이후의 일이다. 이 중 서진 이후 다업의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한 시기는 위진남북조시대이다(진종무(陳宗懋)1993:17). 위진남북조 시기에 차는 약재 음료로 시장에서 채소처럼 상품으로 판매되었다. 차는 검소함을 대표하는 물품으로 표현되었으며 『晉書』卷98 <桓溫傳>[14]에

> 환온은 양주 목사로 성품이 검약하여 매번 잔치에 일곱 쟁반 이하의 茶菓뿐이었다.

고 하는 걸로 보아 손님에게 술과 음식 대신 차와 과일을 접대할 정도로 음차생활이 널리 퍼졌다는 걸 알 수 있다.

2) 唐

당대에는 음차풍습이 빠르게 전파하였다. 이 시기에 차생활이 일반화되고 차문화가 정착되기에 이른다. 정치적으로 진한(秦漢)으로부터 당대에 이르는 800년간 전쟁 중이었고 수나라 말기 농민기를 지나면서 비로소 당이 출현하게 되고 사회가 안정되면서 차엽의 생산, 소비도 발전하기 시작했다. 당대에 이르러 통일왕조가 생기고 사회가 안정되면서 음차풍습은 강남을 포함해 강북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른다. 음차풍습의 기록은 봉연(封演)의『봉씨문견기(封氏聞見記)』에

> 남녘 사람들은 차를 즐겨 마셨으나 북녘 사람들은 처음에 많이 마시지를 않았다. 개보 연간에 태산의 노암사에는 강마사가 있었는데 선교를 크게 일으켜 자지 않고 저녁밥을 먹지 않는데 힘쓰고, 차 마시기를 허락하였다. 사람들은 몸소 품속에 끼고서 가는 곳마다 달여 마셨다. 이후 따르고 본받아 흉내 내기에 마침내 풍속을 이루었다[15]

고 하였다. 당나라 현종의 개원(開元:713-741), 천보(天寶:742-755)연간에 음차 풍습이 하남뿐 아니라 하북(河北)에서도 성행했다는 기록이다.

한대(漢代)에 수입된 불교문화가 융성해지면서 특히 선종(禪宗)은 음차문화의 확산에

---

13) 邢巴閒采茶作餅, 成以米膏出之。若飮先炙令色赤, 擣末置瓷器中, 以湯澆覆之,用葱薑芼之。(육우, 『다경』. 卷下 七之事)

14) 桓溫爲揚州牧. 性儉. 每讌飮唯下七奠拌茶果而已.(육우, 『다경』. 卷下 七之事)

15) 南人好飮之. 北人初不多飮。開元中. 泰山靈巖寺有降魔 師.大興禪敎. 學禪。務於不寐. 又不夕食。皆許其飮茶。人自懷挾. 到處煮飮。從此轉相倣效. 遂成風俗。(封演,1963:47)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수양제(隋煬帝605-618)때 황하와 장강 을 지나 항주에 이르는 대운하의 건설은 남방의 인적 · 물적 문물이 적극적으로 북방으로 소개되고 이동되기 시작하였다. 북방인들은 남방의 문물에 익숙해지면서 물질이 아닌 정신적인 면을 추구하여 불교를 받아들이고 선종은 북방에 불교를 전파하게 된다. 선종의 전파는 차가 생산되지 않는 북방에까지도 차를 마시는 풍습[16]을 전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음차문화가 확산되면서 황실, 관리들도 차를 마시게 되자 차는 공납의 대상이 되었다. 공차의 시행은 다원의 관리 및 감독관을 두었으며 새로운 차를 만들기 위한 제차기술이 발달하고 차 재배 기술이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 중기(中期)에 이르러 음차가 성행하고 찻잎의 소비량이 늘면서 차세금을 징수하였는데『구당서(舊唐書)』권13 <덕종기(德宗記)>에는

> 정원(貞元)9년(793년)에 처음으로 차 세금을 받았는데 40만 꾸러미나 되었다.[17]

고 한 것으로 보아 이때부터 차 세금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중당대 육우의 『다경(茶經)』은 당나라에 차생활의 혁신을 가져왔다. 육우는 차에 관한 종합서인 『다경』을 저술해 비로소 제차법과 음차법이 체계화되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차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였다. 오늘날 차라는 의미의 글자가 『시경』[18],『초사(楚辭)』[19],『이아』[20],『동약』[21]등에서는 보이지만 모두 차 대신 도(茶)라고 했다. 육우의 『다경』에 의하면 고대에는 차(茶), 가(檟), 설(蔎), 명(茗), 천(荈)등 이라 했고[22] 진(晉)나라의 곽박(郭璞:276-324년)이『이아(爾雅)』〈석목(釋木)〉편의 '가(檟)고도(苦荼)'라는 문구를 설명한 주석(注釋)에서도

> 나무는 마치 치자와 같고, 겨울에도 푸르게 살며, 잎은 삶아서 국을 만들어 마실 수가 있다. 지금에 부르기를 일찍 딴 것은 도(茶)라고 하며, 늦게 취한 것은 명(茗)이라 하고, 일명 천(荈)이라 하며, 촉 땅의 사람들은 이것을 고도(苦荼)라고 이름 한다.[23]

고 했다. 이것은 도(茶)가 바로 다수(茶樹)였다는 사실을 최초로 기록한 것이다. 아울러, 이것은 최초로 다수(茶樹)의 특징을 설명함과 동시에 차의 채다 시기에 따라

---

16) 선종의 교리는 참선을 통하여 깨달은 을 얻는 것인데 깨달음을 위해서 참선수행을 했다. 수행 중에는 두 끼 식사가 제공되고 정신을 맑게 한다하여 차마시기는 허락하였다. 차를 마실 때는 다식도 함께 먹을 수 있어 두 끼로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었다. 이런 승려들의 음차풍속은 일반인들에게 자연히 전달되어 일반인도 가는 곳마다 차를 끓여 마시게 되었다(王玲, 1995: 36).

17) 貞元九年春正月.....癸卯. 初稅茶. 爲則錢四十萬貫. (舊唐書』,1991)

18) 誰謂荼苦, 其甘如薺 누가 씀바귀를 쓰다 했는가, 달기가 냉이와 같다.(시경』 권2-2, <谷風>)

19) 故荼苦, 不同畝兮. 권17, 九思章句 <悼亂> 菫荼茂兮敷疏(『초사』권4 九章章句 권4, <귤송>)

20) 荼苦菜 '도는 쓴 나물' 이라 했고, <釋木> 檟苦荼 가(檟)는 쓴 씀바귀라 했다. (『이아』 <석초 釋草>)

21) 武陽買荼.(왕포 『동약』)

22) 一曰茶. 二曰檟. 三曰蔎. 四曰茗. 五曰荈.(『다경』상권 <일지원>)

23) 樹小如梔子. 冬生葉. 可煮作羹飮。今呼早採者爲茶 晚取者爲茗. 一名荈. 蜀人名之苦荼.(『이아(爾雅)』郭璞註.)

각기 다른 명칭이 있음을 잘 설명해주는 기록이기도 하다. 그러나 차라는 글자가 확립된 것은 육우의 『다경』을 통해서다.

육우는 『다경』일지원(一之原)에서 '차(茶)'라는 글자의 뜻과 음을 정리하여 오늘날의 차(茶)가 된 것이다.[24] 육우가 저술한『다경』은 세계 최초 차 전문서로서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총 망라한 다서로 3권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25]

진사도(陳師道)는 <茶經序>에서

> 차에 대한 다서는 육우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책이 세상에 쓰여진 것도 육우 때부터였으니 우는 진실로 차의 공헌이 크다고 하겠다. 위로는 궁성에서부터 아래로는 도시와 시골에 이르기까지 밖으로는 이융만적(夷戎蠻狄)의 이민족에까지 미쳐 청객(請客), 제사(祭祀), 연회시(宴會時) 이 책을 미리 앞에 준비하였다. 차로 인해 산간평지 모두는 성시를 이루었고 상인은 가세를 이루었으니[26] 이 또한 사람에게도 공이 되었다.[27]

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을 통해 당나라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다. 육우의 『다경』저술과 함께 불교가 성행하여 사원에서는 수행을 하는데 차가 졸음을 막아주어 일상적으로 이용되었다. 과거시험에 참가하는 문인과 시험관인 한림관(翰林官)을 위로하기 위해 조정에서 차와 건과(乾果)를 하사하여 마음을 안정시켜 응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김진숙(2005:64)은 그 당시 엘리트 계층들이 차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일반인들에게 확산되는 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당대에 차가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또 다른 원인으로는 공차제도, 금주령, 남방의 개발과 인구 증가 그리고 대운하 개통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것은 문인의 시회(詩會), 선방(禪房), 조정(朝廷)과 외교,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차문화의 확산을 가져오게 하였다.

3) 宋

당나라가 망하고 약 반 세기동안 오대십국(907-960)의 혼란기를 겪고, 송(960-1279)이 천하를 다시 통일하게 된다. 당· 송의 정치적 변화는 정치, 사회적으로는 당현종(唐玄宗 712-756) 때의 안사의 난(安史亂755-756)과 환관의 횡포에 대항하는 황소의 난(黃

---

24) 글자는 혹 ++의 부수를 좇거나(其字或從++) 혹 '木' 부수를 따르거나(或從木) 혹 '++ · 木' 부수를 아우른다(或++木幷) '++' 부수를 따르면 마땅히 '茶'가 되는데(從初當作茶) 그 글자는 "開元文字音義"에 나오고(其字出開元文字音義 '木' 부수를 따르면 '木 茶'가 되는데(從木當作木茶) 그 글자는 "本草"에 나오며(其字出木草 '++ · 木'의 부수를 어우르면 '茶가 되는데(++木幷作茶) 그 글자는 "爾雅"에 나온다.(其字出爾雅)(『다경』상권 <일지원>)

25) 상권: 一之源 ,二之具 ,三之造 중권: 四之器 하권: 五之煮 ,六之飮 ,七之事 ,八之出, 九之略 ,十之圖 로 이해를 도왔다.

26) 차를 판매하는 집에서는 부엌옆에 도자기 인형을 만들어 두고 육홍점이라 불렀다.(진조규외 1999:309)

27) 呂祖謙, 『宋文鑑』권91<다경서>

巢의 亂 875 - 884)이 계기가 되었다. 또한 당 중기 이후의 명문귀족의 쇠퇴, 율령제 붕괴 등의 사건으로 신흥지배층인 사대부이 그들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도시민과 서민에게까지 전파되기에 이른다. 경제적으로는 농업이 발달하여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이를 토대로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으며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유입하게 되면서 도시화 현상이 일어났다. 생산물질이 다양해져 운하를 따라 남북무역이 강화되니 남쪽지방의 복건성, 절강성의 차도 세상에 알려지고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복건이 남당(南唐, 937-975)에 복속되면서 그 후 북원지방은 당나라의 정통 차문화를 계승하며 수많은 명차를 생산하게 되었다. 곽맹량(郭孟良)(2003: 76-77)은 복건(福建)의 건안에서 단병차의 모태인 연고차(硏膏茶)와 납면차(臘面茶)가 생산되면서 남당은 중국다사에 큰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고 하였다. 차가 궁정에서 의례와 사차(賜茶) 등으로 쓰임에 따라 공납(貢納)의 방법, 즉 다법(茶法)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송대 음차 문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황제부터 시중의 하층민까지 음차가 쌀이나 소금과 같이 빼놓을 수 없는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오원경(1996 : 32)은 차는 황실이나 관공서의 행사에는 반드시 제공되는 음료였다고 하였다. 또한 차는 이차대주(以茶代酒)라 하여 차로서 술을 대신하여 손님을 접대하였다. 학문, 수진(修眞), 수행(修行), 정서(情緖)생활을 풍부하게 하는데도 차가 큰 기여를 하였다. 일반사람들도 다관(茶館)[28]에서 차를 마시고 담소를 하며 휴식을 취하게 되었다. 무인이 득세한 오대에는 많은 문화 활동이 불가능하였으나, 남쪽지방에서는 문인들이 차모임을 하고, 차에 관한 저술활동도 지속하였다(왕령(王令),1988:53). 황제에서부터 사대부까지 투차(鬪茶)는 하나의 의례적 행사가 됨으로써 투차의 형식은 더욱 정교해지고 고아해졌으며 다구의 발달을 가져와 건잔(建盞)과 같은 훌륭한 찻잔을 탄생시켰다.

특히 당 중기 이후 불교가 중국화 되면서 유불도(儒佛道) 삼교는 상호간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융합과 합일을 하게 되었다. 상당수의 신유가(新儒家)는 불교나 도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승려 및 도인들과도 교유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음차풍속을 이어받게 되었다.

『대관다론』에서

> 송대에 차를 따서 만들기의 정성과 정교함, 품평의 훌륭함과 차 달이기의 묘함 등이 모두 극치에 달하고 있다[29]

는 휘종[30]의 송대 차문화를 평가하는 말로도 당시 차문화의 융성정도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투차는 송대의 차 품평 수준을 고양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선화북원공차록』의 기록을 보면 황실에 바치는 공차가 시대에 따라 얼마나 고급화되고 다양화되는가를 잘 보여준다. 당대의 공차가 시작된 이래 송대의 궁정생활에 공급된 것은 건주(建州)의 북원으로부터 진공된 납차(臘茶)[31] 등의 고급차였다. 당대 이후의 음차 풍속은

---

28) 다사(茶肆), 다방(茶坊) 이라고도 하였다.

29) 故近歲以來. 採擇之精. 製作之工 品第之勝. 烹點之妙. 莫不咸造其極.. (趙佶(宋), 『대관다론』)

30) 휘종황제는 원풍 5년(1082) 10월에 신종(神宗)인 조욱(趙頊)의 11번째 아들로 휘(諱)를 길(佶)이라 하였고 1100년 北宋의 제8대 황제로 등극하였다. 그는 재위 시 연호를 여러 개 사용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대관(大觀:1101-1110)이다.

31) 건주(建州)의 연고차(硏膏茶) 기술은 복주(福州)의 차 제조 기술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면서 유명해졌으며, 고형차 형태로 만들어 지면서 납면차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납면차의 납이라는 글자는 처음 蠟으로 쓰였는데,

지역적. 계층적 구분 없이 대중화 되었으며 당 후반 특히 송 이후가 되면 차는 필수품이 되며 정부의 과세 대상으로 징수되기 시작하였고, 송대는 모든 차가 나라에 서 전매하는 다법이 시행되었다.

상류층의 음차문화는 궁정에 보급되고 궁중에 들어간 차는 특별히 관리하여 황제께 바치는 '공차제도'[32]가 생겼다. 당대에는 호주 고저자순차(湖州 顧渚紫筍茶)가 공차 되었고 송대의 공차는 건주의 북원에서 진상된 납차가 최상품이었다. 납차의 기록으로는 양억의 『양문공담원』에 [33]

> 요즘 양자강 왼쪽에서 납차의 이름을 들었다. 이씨가 영을 받들어 유로 편을 만들었다. 혹 경정, 적유, 골자 등으로 부른다. 매해 5,6만근에 불과하고 오늘날 매년 30여 만근이 나온다. 십품(十品)에는 용차, 봉차, 경정, 적유, 석유, 두금, 백유, 납면, 골자, 차골이 있다[34]

고 하였다. 십품의 고급차는 여러 관료에게 하사되기도 하였는데『양문공담원』의 기록에는

> 용차는 수레에 실어 천자에게 바쳐지고 집정(執政), 친왕(親王), 장주(長主)에게 하사되고, 황족이나 학사(學士) 장수에게는 봉차(鳳茶)가 주어지며 사인(舍人)과 근신에게는 경정차와 적유차가 하사되고, 백유차는 관각(館閣)에게 하사된다.[35]

고 하였다. 하사된 차를 보면 등급에 따라 하사된 것을 알 수 있다. 오원경(1996:29)은 황제의 차 하사는 대신과 관료뿐 아니라 일반서민과 승려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흉례시 부의에도 사용한 기록이 보인다고 하였다.[36] 이러한 사차(賜茶)'의 관행은 궁중의 생활양식이 일반인에게 전파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사차는 외국 사신에게도 많이 행해졌는데, 이 경우는 차가 국외로 보급되는 데 큰 역할을 했음이 분명하다.

음차의 풍습이 사대부에게 전해지면서 시문의 내용에 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이는 차의 표면이 녹은 밀랍같이 광택과 윤기가 나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었다. 蠟을 臘으로 바꿔 쓴 것은 切韻이 같기 때문이다.

32)……武王既克殷. 以其宗姬於巴。爵之以子。古者遠 國雖大。爵不過子。故吳, 楚及巴皆曰子。其地東至魚腹. 西至楚道. 北接漢中. 南極黔涪。上植五穀. 牲具六畜。桑, 蠶, 麻, 紵, 魚, 鹽, 銅, 鐵, 丹漆, 茶, 蜜, 靈龜, 巨犀, 山雞, 白雉, 黃潤鮮粉, 皆納貢之. (常璩『華陽國志』[巴志])

33) 北宋 楊億 찬 (1010전후) 원전은 유실 되었으나 호자(胡仔)의 <초계어은총화후집(苕溪漁隱叢話後集)> 권11에 인용되었다. 양억의 字는 대년이요. 시호는 문공으로서 벼슬이 공부시랑까지 올랐다.

34) 江左近日方有蝎(蠟)面之號。李氏別令取其 乳作片. 或號曰京挺, 的乳, 及骨子等。每歲不過五六萬斤. 迄今歲出三十餘萬斤. 凡十品. 曰'龍茶, 鳳茶, 京挺, 的乳, 石乳, 頭金, 白乳, 蝎面, 頭骨, 次骨'. (文淵閣 ,『四庫全書』(民國75)臺灣: 臺灣商務印書館印行)

35) 龍茶以供乘輿. 及賜執政, 親王, 長主, 餘皇族, 學士, 將帥皆鳳茶. 舍人, 近臣賜京挺, 的乳. 館閣賜白乳。龍, 鳳, 石乳茶. 皆太宗令造. 江左有妍膏茶 供御. 卽龍茶之品也. (호자의 <초계어은총화>후집 권11)

36) 희령7년 정해진 새로운 법에 의하면 재상이 죽었을 경우 납면차 50근, 참지정사는 차 30근, 추밀사는 50근을 하사했다.『宋會要』 禮44 <贈茶>條.

있다. 차를 선물로 주고받으며 쓴 시나 차를 우려 마시며 경쟁했던 '투차'의 내용이 등장한다. 송대의 투차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상호간에 차를 다루는 솜씨를 겨루는 것이었다. 투차는 차의 제차를 발전시켰고 차도구에 영향을 미쳤으며 사람들은 '다관'에 모여 모임을 가졌고, 다관은 사대부들의 생활양식이 민간으로 전파되는 역할을 했다. 당, 오대 때부터 시작한 차 겨루기는 송대에는 황실[37]에서부터 민간으로, 도시에서 촌락까지 대소 규모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투차로 인하여 제차법이 발달하고 차도구가 발전했으며 차 끓이기와 함께 품평도 대단히 발전되었다. 차 종류의 다양화와 고급화에도 기여했다.

차는 궁중, 사대부 도시민이 아닌 시골사람들에게도 전파되었는데 그들이 마시는 차는 상류층에서 마시는 차와는 다른 것이었다. 당시의 차는 크게 편차[38]와 산차(散茶)[39]가 있었는데 일반인이 마시기에는 비싼 단차[40]보다 서민들은 찻잎을 찌고 말려서 간단히 마실 수 있고 값도 저렴한[41] 산차를 마셨다. 단차 한 덩이의 가격은 황금 2냥이었고, 용원승설은 한 덩이에 4만전이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산차의 가격은 저렴하여, 가난한 사람들도 차를 일상적으로 마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元 明 靑 以後

원대(元代,1279 -1368)에 이르러서는 주도세력이 한족에서 몽· 만족으로 바뀌면서 차문화는 변화를 맞이한다. 호쾌하고 소박한 유목민족인 몽· 만족들은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번거로운 것을 싫어하여, 복잡한 송대의 단차 대신에 산차가 빠른 속도로 유행하게 되었다.

평민 출신의 명나라(1368-1662) 건국태조인 주원장(朱元璋, 1368-1398)이 1391년 단차의 제조를 폐지하는 칙령을 내렸는데 이 칙령으로 약 400년간 중국 차문화를 이끌어 왔던 연고차의 점차법이 중국 역사에서 사라지고 포차법(泡茶法) 시대가 되었다. 잎차로 우려 마시는 포차법은 기존의 점차법보다 간편하고 차의 향기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기게 되었다. 특히 포차법은 찻잎을 그릇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우려내는 다호(茶壺)라는 다기가 생산되었고 의흥의 자사호는 오늘날까지 크게 유행하고 있다.

녹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황차(黃茶), 경발효차인 백차(白茶), 완전 발효차인 홍차(紅茶), 후발효차인 흑차(黑茶)도 생겨난다. 이것으로 귀족적이고 화려한 송대 차문화

---

37) 채양의 다록은 仁宗 이 건안의 공납차(貢納茶)와 시차(試茶)에 관해 묻자 이에 대한 답으로 지은 다서이다.

38) 덩어리 단차를 말한다. 후에 편은 단차를 세는 단위로 쓰여 송대의 차는 단차와 산차로 구분된다.

39) 산차(散茶)는 흩어진 잎 형태의 차이다. 단차(團茶)의 상대적 개념으로 신선한 찻잎을 살청공정(殺靑工程) 등을 거쳐 찧거나 압제하지도 않고 홍건(烘乾)하여 만든다. 육우는 다경에 마시는 차에는 산차, 말차(抹茶), 병차(餠茶)가 있다고 하였다. 당대에 마셨던 병차는 송대에 황실과 사대부 귀족에게 음용이 되던 단차로 바뀌었으며, 명대에 이르러 사대부와 민간을 중심으로 산차가 확산되었다.

40) 단차의 가격은 황금 2냥이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살 수는 없었다. 凡二十餠重一斤. 其價直金二兩. 然金可有. 而茶不可得. (구양수 <귀전록>)

41) 양절의 궁황민(窮荒民)들에게도 일 년 동안 소금을 먹지 않고는 지낼 수 있어도 차는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되었으니, 없으면 병이 날 정도였다. 전에는 늦봄에 따서 만든 차를 황차(黃茶)라 하였다. 한 근이 20~30전에 불과하였기에 영세민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었다.(진빈번,1999:119)

에서 본래의 차의 맛을 음미할 수 있으면서도 번잡하지 않은 서민들의 문화로 바뀌면서 차는 일반인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갔다. 심덕부(沈德符) 야획편(野獲編)의 '군왕에게 바치는 차(供御茶)'조에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건국 초기에 사방에서 바치던 차는 건령(福建省 건구현)과 양선(강소성 의흥현) 차의 품격을 으뜸으로 삼았다. 이때는 오히려 송대의 법도를 그대로 따라 진상하는 것은 모두 맷돌질을 하고 손질하여 크고 작은 용단차(龍團茶)를 만들었다. 홍무 24년(洪武, 1391) 9월에 이르러 태조는 민력(民力)의 중로(重勞)로 용단차 만들기를 그만두게 하고 오직 차싹을 딴 채로 진상케 하였다. [42]

위의 내용은 단차를 폐지한 시기의 황실 공차 방법을 기록한 것으로 산차를 마셨음을 알 수 있다. 청(淸, 1644-1911)나라에 이르러 청차(靑茶)도 나타나 오늘날 말하는 중국의 6대 다류(六代茶類)가 형성되었다. 또한 명대의 포차법을 발전시켜 공부차(工夫茶) 음차법[43]을 개발함으로써 다구와 다기의 품질과 예술적 가치를 높게 하였다.

2. 우리나라 茶文化의 傳來와 變遷

1) 茶의 起源 및 發展

우리나라 음차의 시초에 관해 세 가지 설이 주장되고 있다. 그 세 가지는 인도 전래설, 당나라 전래설, 자생설을 말한다. 인도 전래설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능화(李能和)는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敎通史)』에

> 김해의 백월산에 죽로차가 있다. 세상에서는 수로왕비인 허씨가 인도에서 가져온 차씨라고 전한다.[44]

고 하였다. 위 기록은 인도에서 차가 전래하였다고 보는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차가 인도에서 전래되면서 이어 토산차도 백월산에 재배되고 수로왕의 제사에도 바쳐졌다고 보는 석성우(1981:45-48)도 가야문화의 발전은 차로 시작되었다며 인도차의 전래를 주장한다. 일연의 『삼국유사』<가락국기>에

> 왕은 그렇게 여겨 유사(有司)를 거느리고 행차하였다. 그리고 대궐 아래로부터 서남쪽으로 60보 가량 되는 곳에 가서, 산 변두리에 장막의 궁전을 설치하여 기다렸다. 왕후가 산 밖의 별포진(別浦津) 머리에 배를 매고 육지로 올라와서 언덕

---

42) 供御茶 國初四方供茶. 以建寧陽羨茶品爲上. 時猶仍宋制. 所進者俱碾而揉之爲大小龍團. 至洪武二十四年九月. 上以重勞民力. 罷造龍團. 惟採茶芽以進'. (朱自振 외,1981:391)

43) 공부차 마시는 법은 작은 자사호(紫沙壺)를 사용하여 차를 우리고, 다선(茶船)이나 다지(茶池)를 이용하여 뜨거운 물을 다호(茶壺)의 겉과 안에 부어서 차의 맛과 향을 더욱 높게 하는 방법이다.

44) 金海白月山有竹露茶 世傳首露王妃許氏 自印度持來之茶種. (김명배 ,1996:169)

에서 쉬며 자기가 입었던 비단옷을 벗어서 그것을 폐백 삼아 산신에게 바치는 것이었다...이 외에 시종(侍從)해온 잉신(媵臣) 두 사람은 이름을 신보(申輔)·조광(趙匡)이라 했고, 그들의 아내 두 사람은 모정(慕貞)·모량(慕良)이며, 노비까지 합해서 20여 명이었다. 가지고 온 금수(錦繡)·능라(綾羅)와 옷· 필단(疋緞)이며 금은·주옥과 경구복(瓊玖服)· 완기(玩器)등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었다(최호:1991:157).

는 기록에는 아쉽게도 차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가락국기>의 또 다른 기록에는

신라 제30대 법민왕(法敏王, 文武王)은 용삭 원년 신유 3월 어느 날에 조서를 내렸다. "...시조 수로왕은 나에게 있어서 15대의 시조가 된다. 그 나라는 이미 망했으나 그 묘는 아직 남아 있으니, 종묘에 합하여 계속 제사를 지내도록 하라"...수로왕의 17대손 갱세급간(賡世級干)은 조정의 명을 받들어 그 제전(祭典)을 주관하여 매년 명절마다 술과 단술을 만들고 떡·밥·차·과자 따위의 많은 제물로써 제사를 지냈으며 매년 빠뜨리지 않았다(최호:1991:161).

고 했다. 위의 기록을 보면 왕의 제사에 차가 있다는 것은 이미 차를 마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류건집(2007: 36)은 허황후에 대해 불확실한 기록이라 보는 견해도 있으나 허황후의 해로 입국은 근래 김병모를 위시한 학자들의 노력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능화의 견해를 뒷받침해 줄 사료가 없는 상태에서 인도에서의 전래는 모두 13세기 후기와 20세기 기록이며 식물학적 정론이 아니어서 더 연구해 보아야 할 숙제로 남는다.
당나라에서의 전래설은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신라 42대 흥덕왕 3년(828년)에 대렴(大廉)이 당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차의 종자를 가지고 와서 왕명으로 지리산에 심었다. 차는 선덕여왕 때부터 있었지만 이때에 이르러 성하였다 (최호,1994:229).

는 기록이 있는데 흥덕왕 이전에 이미 차가 있었지만 대렴이 차씨를 가져온 이후에 차가 흥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차가 언제 처음 음용되었는지 에 대한 정확한 사료는 없다. 그러나 충담사(忠談師)가 경덕왕(景德王)에게 차를 올린 사례나 경덕왕이 월명사(月明師)에게 차일습(茶一襲)을 하사(760년)한 기록[45], 연기조사(緣起祖師)가 모친에게 헌차공양(獻茶供養)하였다는 사전(寺傳)의 기록(755년)[46] 등 백제 · 신라의 사관으로 보면 의문이 쉽게 풀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생설이 있다. 류건집(2007:30-31)은 3세기에 왕인이 일본에 갔고 4세기에는 고구려와 백제에 불교 사찰이 건립되었고 4세기말에는 고구려에 향과 다기가 있었으니 우리의 음차생활이 3, 4세기를 상회한다고 보았다. 또한 문화란 항상 교류하기 마련

45) 일연, 『삼국유사』 권5,<월명사도솔가>
46) 남효온, 『추강집』<秋江先生文集 卷六>,

이니 자연의 소산물로서 분포지역 어디서나 자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생하였을 오래된 차나무가 없는 것은 기후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경혁(2005: 56-63;118-120)은 차에 관한 기록이 적은 것은 1350년대 이후 1945년 광복까지 수 백, 수 천회의 왜구의 삼남 침략으로 사서, 문집, 불구, 다구 등의 피탈에 의한 일실(逸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의 내용으로는 자생설을 주장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며 어디에선가 근거를 발견하거나 과학적으로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다.
위의 세 가지 전래설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흥덕왕 때 대렴이 당나라에서 차씨를 가져왔다는 당나라 전래설이다.

2) 四 國 時 代

(1) 고구려

고구려는 수렵생활을 경제기반으로 삼는 나라로 기원전 37년 주몽이 졸본부여에 건립하였다. 용맹한 그들의 영토는 북으로는 송화강에서 남으로는 삼척과 아산까지, 서로는 요하를 넘어서 거대한 영토의 제국이 된다. 국토 뿐 아니라 선진문물을 접할 수도 있고 이웃 연(燕)과 교류하여 공물이 오갔으며 대방, 현토의 태수가 귀화하여 귀족관료들의 문화가 유입되었고 불교, 유교, 도교가 유입되었다. 불교는 제 17대 소수림왕 2년 (372년)에 전진(前秦)의 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順道)를 보내 불상과 경전을 전했다. 불교와 차는 연관이 있고 후에 도교가 들어온 것도 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47]. 그러나 차나무의 재배가 불가능한 추운 지방이어서 차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다. 차학자 일본인 靑木正兒(아오끼 마사루 1887-1964)는 그의 저서에 “가지고 있었던 고구려의 옛무덤에서 출토된 전차(錢茶)가 유일하게 전해진 유물이다”라고 적고 있다.

> 나는 고구려의 고분에서 나왔다는 소형박편(小形薄片)의 병차(餠茶)를 표본으로 간직하고 있는데, 4cm 남짓의 전형(錢形)으로서 중량(重量)은 닷 푼 가량이다.

고 증언하고 있다(김명배,1986:44). 이에 관한 논문들은 아오끼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그 병차의 출처를 밝히지 않음이 아쉽다. 무덤에서 차가 나왔다는 것은 일상생활에 사용했다는 증거이고 그래서 부장품으로 매장했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묘에 매장된 인물이 생전에 차를 좋아하였거나 불교나 도교의 영향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백제

차문화의 원류는 불교와 연관하여 들어왔을 가능성이 가장 많다. 백제는 침류왕(枕流王) 원년(384)에 동진으로부터 인도의 승려 마라난타가 들어와 불교를 전하니 왕이 그를 궁안에 머물게 하고 이듬해 한산(寒山)에 절을 세우게 했다. 성왕(聖王)때는 노리사치계가 불상과 불경을 일본에 전하였다. 백제의 차문화에 대한 기록과 유적을 찾기는 어려우나 백제사회는 일찍이 중국 남조와 활발한 문화 교류로 학문, 예술, 산업 전반이 발달되고

47) 육우『다경』칠지사의 단구자는 도교가 배경이다.

귀족사회가 정착되었다. 그리고 4세기 후반 불교의 전래에 의하여 궁정과 귀족, 사찰에 음차풍속이 생겨났다고 한다.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은 양(梁,502-577)나라에서 연기조사(煙氣, 緣起)가 열반경(涅槃經)을 가져오면서 차도 함께 들여온 것을 보여주는 유적으로 경내에 세워진 4사자 석탑이 있는데, 연기조사가 어머니에게 차를 올리고 있는 효대(孝臺)가 있어 차문화의 흔적을 알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426년에 정관존자(淨觀尊者)가 만일암(挽日庵)을 창건하고, 527년에는 대통사와 대조사가 선암사(仙巖寺)를 창건하고 544년에 화엄사가 창건된다. 이때 연기조사가 장죽전에 차를 심었다는 이야기는 일제 강점기 때 화엄사 주지를 지낸 만우 정병헌(曼宇 鄭秉憲) 스님이 편찬한 『해동호남도지이산화엄사사적(海東湖南道地異山華嚴寺事蹟)』에 기록되어 있는데(류건집,2007:63),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대렴의 차씨 전래설보다 280년이나 앞선 기록이지만 이 기록이 후대에 쓰여 진 것이고 전해진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어서 증명할 길은 없다. 백제는 신라에 비하면 중국과의 거리도 가까운 위치에 있었으나, 다만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차에 대한 문헌이 전하지 않기 때문에 차의 전래를 고증할 수 없다.

그러나『일본서기(日本書紀)』에 백제 성왕(聖王30년, 552년)의 명으로 담혜화상(曇惠和尙) 등 13명의 스님이 불구(佛具)와 차, 향, 꽃, 연등, 쌀, 과일의 육법공양물(六法供養物)을 일본에 전했으며, 그들에게 차를 내렸다는 기록(김명배,1987:34;석성우,1981:70)이 있어 백제는 오래 전부터 차를 마셨고 일본과 차문화를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기록으로 보아 백제의 차생활은 승려, 사원과 연관이 깊으며, 일본과 차문화의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신라

신라는 지리적으로 중원과 먼 위치로 사회 · 문화적으로 발전이 고구려와 백제에 비하여 뒤떨어졌다. 527년 불교의 공인[48]과 532년 가야 병합과 더불어 왕권의 강화와 귀족사회의 안정으로 문화는 전반적으로 발전되었다. 특히 진흥왕(眞興王, 579-632) 이후 화랑제도는 청소년들의 인재 양성과 호국신앙으로서의 불교가 국가발전과 삼국통일의 토대가 되었다. 법흥왕(法興王, 514-540) 19년에 금관가야(金官伽倻) 합병과 진흥왕(眞興王, 540-576) 23년에 대가야 정복으로 신라는 낙동강 유역의 가야지방을 완전히 귀속시켰고 당과의 교류에 의한 여러 문화의 유입과 함께 차가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다. 법흥왕의 금관가야 합병은 신라 차문화 발달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리라 사료된다. 앞서도 말했지만 가야는 일찍부터 제사에 차를 사용하였고 생활음료로 음용되었기 때문에 신라에 끼친 영향이 컸다고 본다.

차문화의 생성은 『삼국사기』의 기록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신라 선덕왕 시대(632-647)부터이다. 그 무렵은 중국의 당 태종(太宗, 627-649) 연간으로 궁정과 귀족, 민간에 음차풍속이 성행하였으며,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에 대항하기 위해 나당 사이에 외교적 교류를 많이 하였다. 차는 불교문화와 함께 신라에 전래되었으며, 사원을 중심으로 불교가 번창하면서 많은 스님들이 당나라 혹은 인도까지 불법을 공부하고자 왕래하였다.

진감선사(眞鑑禪師, 774-850)가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한명(漢茗)'을 마신 기록[49]이 있고, 신라 35대 경덕왕(景德王, 742-765)은 중구일에 남산 삼화령의 미륵세존

48) 신라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5세기 초였으나 거의 1세기 동안 귀족들의 견제를 받으며 민간에 조금씩 퍼지다가 이차돈의 순교(527년)가 있은 후에 법흥왕 20년(533년)에야 비로소 국교로 인정을 받았다.

49) 진감국사는 문성왕12년(850)에 입적하였다. 대렴의 차씨 전래시는 그의 나이 55세 였다. 최치원이 쓴 <진

에게 차를 올리고 돌아오는 충담사(忠談師)에게 [50]요청하여 차를 마셨으며, 충담사는 안민가(安民歌)를 지어 바쳤다. 월명사(月明師)는 경덕왕에게 도솔가(兜率歌)를 지어 바치고 차와 염주를 하사받았다. 설총(薛聰)은 신문왕(新文王, 681-692)에게 '차와 술로서 정신을 맑게 하라'는 「화왕계(花王戒)」[51]를 지어 올린 것으로 보면 신라궁중의 차문화를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성주사사적비편(聖住寺事蹟碑片)』의 '다향수(茶香樹)'라는 문구(文句)와 경주 창림사지(昌林寺址)에서 발견된 '다연원(茶淵院)'[52](석용운,1988:46-47)이라는 명문이 있는 기와 조각 등은 신라시대의 차생활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이다.

(4) 가락국

가락국의 차문화에 대해서 이능화는 그의 저서 『조선불교통사』에서

> 김해의 백월산에 죽로차가 있다. 세상에서는 수로왕비인 허씨가 인도에서 가져온 차씨라고 전한다.

고 말한다. 차가 재배되는 가야지방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여 토지가 비옥하고 중국 남쪽과 교역이 성하였으며, 철기문화와 벼농사를 들여와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이 발달하였다는 사실과 연관이 있다.

일연의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 신라 제30대 법민왕(法敏王, 文武王)은 용삭 원년 신유 3월 어느 날에 조서를 내렸다. ...시조 수로왕은 나에게는 15대의 시조가 된다. 그 나라는 이미 멸망했으나 그 묘는 아직 남아 있으니, 종묘에 합하여 제사를 계속하게 하겠다....수로왕의 17대손 갱세급간(賡世級干)은 조정의 명을 받들어 그 제전(祭典)을 주관하여 매년 명절마다 술과 단술을 만들고 떡·밥·차·과자 따위의 많은 제물로써 제사를 지냈으며 매년 빠뜨리지 않았다.

는 기록이 있다. 왕의 제사에 차가 있다는 것은 이미 차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가락국의 고대사와 다사의 재정립은 금후 중요한 연구과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3) 高麗時代

감국사비문>에 "혹 누가 한명을 보내오면 그것을 돌가마에 넣고 섶을 때서 삶으며, 가루를 만들지 않고 달였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 그저 배가 느긋할 뿐이다"라고 했다.

50) 更有一僧 被衲衣 負櫻筒 從南而來 王喜見之 邀致樓上 視其筒中 盛茶具已 曰 汝爲誰耶 僧曰 忠談 曰 何所歸來 僧曰 僧每重三重九之日 烹茶饗南山三花嶺彌勒世尊 今玆旣獻而還矣. (일연『삼국유사』권2 『경덕왕 충담사<표훈대덕>』).

51) 삼국사기 설총편에 "...고량진미로 배를 채우고 차와 술로서 정신을 맑게 하더라도..."

52) 보령의 성주사에서 발견된 비문의 조각에서 '茶'字가 발견되어 지금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었다.

태조(太祖, 918-944) 왕건에 의해 고려왕조가 탄생하게 되었고 생활문화와 전통은 찬란하였던 신라의 것을 이어받아 계승 발전시켰다. 윤경혁(2005:19)은 고려 오백년을 '끽다왕국(喫茶王國)'이라 하였다. 차생산량은 알 수 없으나 왕의 사차기록을 보아도 그 양은 실로 엄청나다.[53]차산지는『세종실록지리지』(1454)에 아래 <표1>과 같이 당시 차산지의 수는 35곳으로 토공(土貢)이나 약재(藥材)로 나라에 진상되었다. 고려시대에는 토산차의 개발에도 전력을 다했고, 송나라 차의 수입도 활발했다. 차는 왕실에서나 사원, 그리고 귀족 문인들까지 마셨다. 이같이 차가 융성했던 배경은 태조 왕건이 국교로 삼았던 불교에서 찾을 수 있다. 고려는 사직(社稷)의 운명을 다할 때까지 고려의 불교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으며 불교 승려들에 의해 전해오던 차문화도 불교와 함께 성행했다.

<표 1>『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차산지

道名	産地數	記載條	茶名	茶産地
경남	8	土貢	雀舌茶	고성 밀양 산음 울산 진주 진해 하동 함양
전북	8	土貢	雀舌茶	고창 무장 순창 흥덕
			茶	부안 정읍
		藥材	雀舌茶	고부
		土宜	茶	옥구
전남	19	土貢	雀舌茶	강진 구례 나주 남평 무안 영광 영암 장성 함평
			茶	고흥 낙안 담양 동복 무진 순천 장흥 진원
		藥材	茶	광양 보성
계	35			

왕실은 불교사원을 신임하여 왕이 직접 수계를 받고 왕자를 출가시키기도 했다. 불교 선종의 음차풍습은 왕공귀족으로 확대되고 국교가 불교로 확립되면서 태조의 가르침을 따라 나라의 중요한 행사로 궁중에서는 봄에는 상원(上元=1월 15일)의 연등회(燃燈會), 겨울에는 중동(中冬=11월 15일)의 팔관회(八關會)가 대대적으로 베풀어졌다.

고려시대 진차의식(進茶儀式)은 신라의 헌차의식이 발전된 것으로 국가의 많은 의식에 차를 올리는 의식을 말한다. 석용운(1988: 331)에 따르면 차를 올리는 진차의식의 대상은 신불(神佛), 선왕(先王), 외국에서 온 사신(使臣), 군왕(君王), 오악삼신(五嶽三神)[54]등이었고, 그 의식이 거행될 때마다 진차의식의 절차도 달랐다고 한다. 또한 공이 있는 신하, 승려, 학생, 노약자에게도 차가 하사품으로 내려졌다. 이렇듯 차의 소비가 늘게 되자 궁중의 여러 행사를 준비하는 다방(茶房)이란 관청을 두게 되었다.

53) <표12>참조

54) 오악신(五嶽神)이란 『삼국사기』 <제사지>에 의하면 동악인 토함산(吐含山), 남악인 지리산(智異山), 서악인 계룡산(鷄龍山), 북악인 태백산(太白山), 중악인 부악(父岳 : 지금의 팔공산)을 합쳐 부르던 명칭이다. 5악은 삼국통일 직후에 성립되어 국가적으로 중요한 제사인 중사(中祀)가 행해졌다. (참조: 브리테니커 온라인 사전) 삼산(三山은 경주의 남산, 영주의 금강산, 청도의 부산의 神들을 말한다(참조: 金明培,1984:211).

국교가 불교인 고려 때는 승려들이 국사(國師), 왕사(王師)로서 국태민안(國泰民安)에 힘썼다. 승려들은 사원에서는 연등회와 팔관회 등의 국가행사의 의례를 주관하고 차생활을 통하여 선(禪)의 경지를 추구하였으며, 문인들과 교유하며 많은 다시를 남겼다. 사원전(寺院田)이 있는 고려시대의 절에서는 차밭의 조성이 가능하였다. 통도사(通度寺) 주변의 다촌(茶村), 금어사 주변의 다전(茶田), 경남 남해군 다정리(茶丁里), 남해 용문사 주변의 다면(茶面) 등 사찰을 중심으로 한 다소(茶所)[55]가 생겨났으며, 차를 생산하여 공물로 나라에 바치고, 사원의 의식과 승려들의 차생활에 썼다.
고려의 문인들은 승려들과의 교유를 통하여 명전회(茗戰會)를 만들기도 하였다. 명전회는 송의 투차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송나라의 궁정과 사대부 중심의 투차문화가 고려에 와서는 사원에서 행해진 것이다.
원(院)이란 왕이나 관원 혹은 승려를 포함한 귀족이 먼 길을 가다가 도중에 쉬는 집으로, 샘물이나 정자가 유명한 원을 다원(茶院)이라 하였다. 한편 차를 구입할 수 있는 다점(茶店)이 생겨났고, 성종(成宗, 982-997) 때에는 차를 파는 좌상(坐商)이 생겼으며 돈 대신 포(布)를 주고 차를 살 수 있게 해 행인들은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였다. 이처럼 고려에서는 궁중에서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차를 마시고 있었다.

4) 朝鮮時代

고려에서 발전된 차문화는 초기 조선왕조의 궁정에서 그대로 계승되었다. 궁정에서 국가적 의례에 차를 올리는 의식은 조선시대에도 이어졌는데, 신라시대에 '헌차'라는 이름으로, 고려시대에는 '진차'로, 조선시대에 이르러 '다례'란 이름으로 행하여졌다.『조선왕조실록』에는 궁중의 모든 의식이 매우 엄격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왕조는 명 · 청과는 예속, 일본과는 교린 관계에 있어 사신을 맞이하는 빈례에 다례를 행하였다. 사헌부에서는 관원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는 '다시(茶時)'라는 풍속이 있었다. 사헌부의 관원들은 다시청(茶時廳)에 모여 차를 마셨는데 이와 같은 풍속은 고려의례 중 중형주대의(重刑奏對儀)에서 연원한 것이다.
조선의 유교정책은 사원차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지만 음차풍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조선 중기에는 양반들의 음차는 줄어들고, 사원 승려들의 헌차로 그 명맥을 이어 나갔다. 후기에 초의선사는『동다송』을 저술하여 우리나라의 차문화를 정립하였고 선문(禪門)에서는 다선일미(茶禪一味)사상을 이어받아 유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다산과 초의, 추사가 차인의 길을 걷게 되면서 차의 명맥이 이어져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Ⅳ. 宋代의 茶書및 茶事典籍을 通해 본 茶文化

55)『신증동국여지승람』권36 <全羅道 南平縣>

1. 宋代의 茶書및 茶事典籍

1) 宋代의 茶書目錄과 茶文化 背景

중국의 다서는 당나라 육우의『다경』을 시작으로 많은 찬편(撰編)이 출간되었다.[56] 당대는 다업(茶業)및 다업생산기술이 발전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당 이전에 음차생활과 다업은 파 촉 남방(巴 蜀 南方)의 전유물이었고 北方은 차를 마시지 않았다가[57] 개원연간(開元年間:713-741)에 북방에 불교 선종(禪宗)이 전파되면서 승려들을 통한 음차풍속이 급속도로 전파되었다. 이런 북방의 음차풍습은 남방의 다업생산과 차무역의 발전을 가져다주었다.

전해져 내려오는 다학(茶學)의 대표적인 전서로는 당나라 때는 육우의『다경(茶經)』등 7종이 있고, 오대(五代) 때는 전촉(前蜀)의 모문석(毛文錫)의『다보(茶譜)』,송대는 휘종황제 조길(趙佶)의『대관다론』등 26종, 명대는 허차서(許次紓)의『다소(茶疏)』,나름(羅廩)의『다해(茶解)』등 56종, 청대(淸代) 진감(陳鑒)의『호구다경주보(虎丘茶經注補)』등 11종이 있다. 이상의 전서들 외에도 역대 사적(史籍), 필기(筆記), 잡고(雜考), 자서(字書), 류서(類書), 문예(文藝) 등에 이르기까지 차에 관한 수많은 기록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만 해도 수백 종에 이른다(박영환,2005:84). 『다경』과 같이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다서나 복건지역의 차를 말하는 지방성 다서[58]들이 있고, 종차(種茶)와 다원(茶園) 관리내용[59], 채차(採茶)와 제차(製茶)에 관한 내용[60], 수질(水質) 품평과 다탕(茶湯) 조제에 관한 내용[61], 품차(品茶)와 팽차 및 음차 용기(用器)에 대한 내용[62]을 담은 다서 등 다양하다. 이러한 다서가 많이 쓰여 졌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 많은 사람이 음차 생활을 하였고 그를 위한 소개서가 필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송나라 때는 고대 다서의 30%를 점유할 정도로 다서가 많았으며 중원의 차 역사상 가장 특별한 제차법과 점차법이 발달했다.

---

56) 당대의 다서: 茶經(758前後), 茶器(760前後), 顧渚山記(760前後), 煎茶水記(825前後), 菜茶錄 (860前後)十六湯品(900前後).

57)『 卷三城南 報德寺… …肅初入國. 不食羊肉及酪漿等物. 常飯鯽魚羹. 渴飮茗汁。京師士子見肅一飮一斗. 號爲“漏巵”。經數年已後. 肅與高祖殿會. 食羊肉酪粥甚多. 高祖怪之. 謂肅曰. 卿中國之味也. 羊肉何如魚羹. 茗飮何如酪漿。肅對曰.‘羊者是 陸産之最. 魚者乃水族之長. 所好不同. 並各稱珍. 以味言之. 是有優劣. 羊比齊魯大邦. 魚比邾莒小國. 惟茗不中與酪作奴’。 高祖大笑……彭城王謂肅曰.‘卿不重齊魯大邦. 而愛邾莒小國’(楊(羊)衒之 撰 『洛陽伽藍記』四部備要』,1965)).

58) 복건지역의 차에 대한 기록은『동계시차록』『품차요록』『선화북원공차록』등이 있다.

59) 종차와 다원관리기록은『북원별록』『사시비요(四時備要)』『농서(農書)』『농상촬요 (農桑撮要)』등이 있다.

60) 채차에 관한기록은『다경』『다소』등이 있고 재차에 관한 기록은『북원별록』『품차요록』『대관다론』등이 있다.

61) 수질품평기록은『십육탕품』『전차수기』『자천소품』등이 있고 차탕 조제기록은『십육탕품』『술자차천품』『다료기』등이 있다.

62) 품차(品茶)와 팽차 및 음차 용기(用器)에 대한기록은『투차기』,『다록』,『다구도찬』등이 있다.

송대의 차문화를 알기 위해서 다서를 살펴보고 다사(茶事)기록도 간과할 수 없기에 다사전적도 추가하여 송대의 차문화를 살펴보려 한다. 本考는 宋代의 다사전적 중 그 기록이 남아있는『천명록(荈茗錄)』『북원다록(北苑茶錄)』『보다경(補茶經)』『술자차천품(述煮茶泉品)』『북원습유(北苑拾遺)』『다록(茶錄)』『동계시차록(東溪試茶錄)』『품차요록(品茶要錄)』『본조다법(本朝茶法)』『대관다론(大觀茶論)』『투차기(鬪茶記)』『선화북원공차록(宣和北苑貢茶錄)』『속다보(續茶譜)』『북원별록(北苑別錄)』『다구도찬(茶具圖贊)』과 다사전적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엄밀히 말하면 위에 열거한 것은 모두 다서(茶書)라고 하기에는 미흡하고 다문(茶文)에 해당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많은 자료가 유실되어 현존하는 다서는 많지 않다. 유실된 다서는 다른 책에 인용되어 일부가 남아 있으나 전문(全文)은 알 수 없는 것도 있다.

2) 宋代의 茶書目錄別 概括

(1) 도곡(陶穀)의 『천명록』(963-970)

도곡의 『천명록』은 『청이록(淸異錄)』의 일부분이었던 것을 명대에 와서 차관련 부분만 모아 분리하여 다서에 포함시켰다. 오대와 송대 다인들이 즐기던 다명(茶名)과 차유희(茶遊戱), 투차, 다회(茶會) 등을 기록하고 있다.

투차의 모체가 된 탕사(湯社)와 유요(乳妖), 차백희(茶百戱), 루영춘(漏影春), 생성잔(生成盞)이 소개되었다.

다회로는 경관회가 있고 차이름에 용파산자차(龍坡山子茶), 성양화(聖楊花), 루금내중아(縷金耐重兒), 옥선고(玉蟬膏), 삼백송(森伯頌), 수표낭(水豹囊), 불야후(不夜候), 계소불(鷄蘇佛), 만감후(晩甘候), 고구사(苦口師), 냉면초(冷面草), 감초벽(甘草癖) 길상예(吉祥蘂)나 여감씨(餘甘氏)가 있다. 다회를 열고 차유희를 즐기며 명차를 마셨던 송대의 일반인들의 차생활 중 특히 투차의 연원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자료라 할 수 있다.

(2) 정위(丁謂)의 『북원다록』(999년경)

정위가 지도년간(至道年間:995-997)과 함평(咸平:998-1003) 초에 복건 전운사로 파견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다서는 유실되었으나 건안차에 대한 내용이 일부 있고『동계시차록』과『선화북원공차록』『다록』에 그 내용의 일부를 볼 수 있다.[63] 북원의 차에 대한 기록이다. 북원의 차는 왕실에 진공하는 차인데 그 차를 왜 북원이라 했는지 그 내력을 적은 글이 심괄(沈括)의 『보필담』에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64]북원은 원래 왕의 사냥터였던 곳이고 황제만이 머물던 곳이었는데 잘 만든 차를 왕만이 마실 수 있다고

---

63)丁謂茶圖 獨論採造之本 - 至於烹詩 曾未有問 (채양 『다록』).

64)沈括 『보필담』 卷一故事3. 建茶之美者. 號北苑茶. 今建州鳳凰山. 土人相傳謂之北苑。言江南嘗置宮領之. 謂之北苑使。予因讀李後主文集. 有[北苑詩] 及 [文苑紀]. 知北苑乃江南禁苑. 在金陵非建安也。江南北苑使. 正如今之內園使。 李氏時有北苑使. 善製茶. 人競貴之. 謂之北苑茶。 如今茶器中有學士甌之類。 皆因人得名. 非地名也。丁晉公爲[北怨茶錄]云. '北怨, 地名也。今日龍焙'。又云. '苑者, 天子園囿之名. 此在列郡之東隅. 緣何却名北苑?' 丁亦自疑之。蓋不知北苑茶本非地名。始因誤傳. 自晉公實之於書。至今遂謂之北苑 (주자진외,1995:317).

하여 북원이라 이름 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여기서 북원은 지방이름이 아니다. 이후 황제께 바치는 차는 모두 북원차라 불렀다.

(3) 주강(周絳)의 『보다경』(1012년 전후)

주강이 지은 것으로 원본은 유실되었으나 그 내용의 일부가 『선화북원공차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芽茶는 오직 早茶로만 만든다. 천자만이 맛볼 수 있다. 一槍一旗로 만들어 기이한 차라 할 만 하다.[65]

『보다경(補茶經)』은 다경을 보충한다는 의미이니 내용이 기대되나 천자만을 위한 차를 만드는 기록만이 일부 전하여 아쉽다.

(4) 섭청신(葉淸臣)의 『술자차천품』(1040년 전후)[66]

이 책은 오백여자(五百餘字)의 단문으로 되어 있다. 도정중(陶珽重)이 교정한 설부(設郛)에 수록되어 있는데 모든 식물이 적당한 자연환경에서 생장이 가능하듯이 차의 풍미도 차의 품질뿐 아니라 끓이는 기술과 더불어 물과의 관계가 크게 작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샘물의 품질은 당대 장우신이 쓴 『전차수기(煎茶水記)』에 구분해 놓은 물의 20등급[67]과 모문석의『다보(茶譜)』에 기록된 차의 효능에 대해 동의하며 차 감상의 경지를 논하였다.

(5) 유이(劉異)의『북원습유』(1041년)

정위(정진공)가 지은『茶錄』의 보유(補遺)로서 지어졌던 다서인데『송사(宋史)』의「예문지(藝文志)」나 남송 사람인 조공무(晁公武)의『군제독서지(郡齊讀書志)』에도 책의 이름이 보이지만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그 내용 중 백차의 기록이 인용되어 전한다.

> 관가의 차밭에는 대 여섯 그루의 백차가 있는데 북돋우기가 시원치 못하다. 차 농사꾼 茶户 중에는 王免 이라는 사람의 집에 한 그루 있는데 이른 봄에는 썰렁한 집의 바람과 햇살을 막고 있다.

---

65) 『선화북원공차록』芽茶只作早茶. 駝奉萬乘嘗之可矣.如一旗一槍. 可謂奇茶也..

66) 편명은 “천품(泉品)”이고 원작은 “소품(小品)”이다. 『신각다집(新刻茶集)』및 다른 책에는 “천품(泉品)”이다. 내용중 “천품이십(泉品二十)”을 합해서 자차천품(煮茶泉品) 이라 하였다.

67) 전다수기의 육우 다경 20가지 水品은 다음과 같다. ① 려산 강왕곡 수렴수 (廬山 康王谷 水簾水) ② 무석현 혜산사 석천수 ③ 기주 난계 석하수 ④ 협주 선자산하 하마구수 ⑤ 소주 호구사 석천수 ⑥ 여산 초현사하 방교담수 ⑦ 양자강 남령수 ⑧ 홍주 서산 서동폭포수 ⑨ 당주 백암현 회수원 ⑩ 여주 용지산 령수 ⑪ 단양현 관음사수 ⑫ 양주 대명사수 ⑬ 한강 금주 상류 중령수 ⑭ 귀주 옥허동하 향계수 ⑮ 상주 무관 서낙수 ⑯ 오송 강수 ⑰ 천태산 서남봉 천장 폭포수 ⑱침주
원천수 ⑲ 동려 엄릉 난수 ⑳ 설수
유백추의 水目7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양자강 남령수 ②무석 혜산사 석천수 ③소주 호구사 석천수 ④단양현 관음사수 ⑤양주 대명사수 ⑥오송 강수 ⑦회수가 최하위다.

고 기록되었는데 백차에 대해 말하고 있다. 당시의 백차는 나라 전체에 많지 않았으나 휘종황제가 백차를 귀히 여겨 차중의 으뜸이 되었다. 제차법은 '압황(壓黃)'과 '씻기'를 반복하여 진액을 다 짜내어 버리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제차과정은 북원차의 특징이다.

(6) 채양(蔡襄)의『다록』 (1049-53년)

인종이 건안의 공납차와 시차(試茶)에 관해 묻자 이에 대한 답을 적은 것으로 내용은 상, 하편으로 상편의 논차(論茶)조목에 차의 색, 향, 미, 장차(藏茶), 자차(炙茶), 연차(碾茶), 라차(羅茶), 후탕(候湯), 협잔(熁盞), 점차(點茶)에 대해 설명해놓았다.

하편은 논다기(論茶器)조목으로 점차법에 필요한 차도구인 다배(茶焙), 다롱(茶籠), 침추(砧椎), 다검(茶鈐), 다연(茶碾), 다라(茶羅), 다잔(茶盞), 다시(茶匙), 탕병(湯甁) 그리고 후서(後序)로 되어 있다.

제차하여 보관하는 차의 색, 향, 미, 장차, 점차법인 자차, 연차, 라차, 후탕, 협잔, 점차를 기록하고 점차법에 필요한 차도구로 다배, 다롱, 침추, 다검, 다연, 다라, 다잔, 다시, 탕병을 소개하는데 이는 당대의 자차법과 구별되고 차도구의 종류도 24기물이 9가지로 줄어들어 송대에 와서는 차도구가 간편해졌음을 알 수 있다.

(7) 송자안(宋子安)의『동계시차록』(1064년경)

건안에 있는 관배 38곳의 명칭과 관차원에 관해 기록되어 있다. 북원은 진공차만을 생산하는 곳인데 떡차만 만든다. 차를 만드는 기준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송대의 공차가 얼마나 섬세하고 조심스러웠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학원(壑源), 불령(佛嶺), 사계(沙溪)는 북원의 공차소로 차는 7가지가 있는데 백엽차(白葉茶), 감엽차(柑葉茶), 조차(早茶), 세엽차(細葉茶), 계차(稽茶), 만차(晩茶), 총차(叢茶)가 있다. 채차는 건계 다른 군(郡)보다 이르며 북원은 학원에서 가장 이르다. 해마다 따뜻하면 경칩 10일 전에 싹이 나오고, 추우면 경칩 5일 후에 싹이 나온다. 백합, 오체를 제거해야 차의 맛과 색이 좋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건안에 있는 북원의 기록으로 관배와 관차원에 관한 기록이다.

(8) 황유(黃儒)의 『품차요록』(1075년경)

『품차요록』은 황유가 육우의『다경』을 보고 건안(복건)의 차가 실려 있지 않은 걸 안타깝게 여기고 건안차에 대해 쓴 것이다. 육우 당시에는 건안차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었다. 황유는 이 책에서 제차법에 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채조과시(采造過時), 白合盜葉(백합도엽), 入雜(입잡), 蒸不熟(증불숙), 焦釜(초부), 壓黃(압황), 漬膏(지고), 傷培(상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모든 제차과정에 시차시(試茶時)에 주의해야 하는 것을 적었다. 이를 통해 당시 투차의 풍습이 일반화되고 투차로 인해 제차법이 정미해졌음을 알 수 있다.

(9) 심괄(沈括)의 『본조다법』(1091년경)

『몽계필담(夢溪筆談』에 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다. 설부(說郛)와 오대(五代) 소설에 실려 있다. 「몽계필담」에 다사가 기록된 것이 보인다.[68] 『본조다법』에서는 북원차의

우수함을 말하고 있다.

(10) 휘종조길(徽宗趙佶)의 『대관다론』(1107년)

송대 차문화사에서 휘종의 위치는 대단하다. 송대의 다서는 대부분 북원의 차에 관한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차에 관한 종합서가 아닌 건안차에 대한 기록이 주를 이룬다. 다서 저자들은 복건출신이거나 복건전운사를 지낸 사람이 많아[69] 황제에게 올린 차나, 공차제조 및 조달, 북원의 차에 대한 기록[70]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차의 종합서라고 하는 육우『다경』이후에 20편이나 된 긴 문장으로 산지, 채차, 제차, 감별, 차도구, 점차, 색, 향, 맛, 품평등 차에 관한 여러 가지를 모아서 지은 다서이기에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칠탕법에 대한 소개는 그 어떤 점차법보다 정미(精美)하다. 휘종 시기는 차가 가장 성했었고 차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 휘종 황제는 서문에

> 세상은 태평세월이요 백성은 안정되고 물자는 풍부하다. 선비는 학문에 힘써서 맑고 깨끗하게 몸을 닦고 한가한 풍류의 즐거움을 누리어 구슬을 부러뜨리고 금옥이 부딪치는 소리가 나고 꽃을 씹어 맛보고, 차상자속의 아름다움을 겨루며 감별의 묘를 다투지 않은 것이 없다. 초야의 선비라도 茶를 쌓아두지 않는 것을 수치로 여긴다.....한가한 날에 차 마시며 연구하여 얻은 바를 후세 사람에게 차의 利와 害를 알리려 한다. 20편을 지어 茶論이라 이름 했다.[71]

고 적고 있다. 초야의 선비까지도 차를 할 정도로 차는 세상에 널리 퍼졌다.
제차법에 관련해서는 지산(地産), 천시(天時), 채택(采擇), 증압(蒸壓), 제조(製造), 감변(鑑辨), 백차(白茶)에 대해 설명하고 차기구로 라(羅), 碾(연), 잔(盞), 선(筅), 병(餅), 표(杓), 미(味), 향(香), 색(色), 장배(藏焙), 品名(품명), 외배(外焙)를 소개하였다. 차 탕의 물은 맑고 가볍고 달며 깨끗해야 한다. 탕은 어안, 해안이 잇달아 솟구치면 사용하는데 과숙하여 노수(老水)가 되면 새 물을 붓고 다시 끓인 뒤 쓴다고 하였다. 차를 사랑한 황제의 관심은 가장 좋은 차를 만들고 또한 잘 만든 차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차를 마실 수 있는지에 대해 기술 했다. 또한 점차법에 대해서는 잘못된 방법인 '정면점(精面點)'과 '일발점(一發點)' 을 소개하고 있다. 가장 잘된 점차법은 칠탕법 이라고 하는데 젖 같은 안개가 끓어올라서 잔에 넘쳐서 일어나 둘레에 엉겨서 움직이지 않고 '교잔(咬盞)' 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잔이란 거품이 단단하여 다완에 꼭 붙어있는 상태를 말한

---

68) 심괄『몽계필담(夢溪筆談』 "卷二十五 雜誌二 古人論茶. 唯言陽羨, 顧渚, 天柱. 蒙頂之類. 都未言建溪. 然唐人中串茶粘黑者. 則已近乎建餅矣. 建茶皆喬木 吳蜀, 淮南, 唯叢茭而已. 品自居下. 建茶勝處曰郝源, 曾坑. 其間又岔根, 山頂二品尤勝. 李氏時號爲北苑. 置使領之" (진조규외1995:317) 옛사람이 차를 논하되 양선, 고저, 천주를 말할 뿐 몽정의 종류는 건계에서 아직 말하지 않았다. 당나라 사람들은 차 꾸러미로 흑차를 만든다. 건병에 가깝다. 건차는 모두 교목이다. 오촉, 회남은 오직 떨기나무일 뿐이다. 제품은 아래에 두었다. 건차의 승처는 적원, 증갱 이다. 그 사이에 분근, 산정의 두 품은 더욱 좋다. 江南李氏時(923-933)에는 北苑이라 불렀다. 조사를 두어 다스렸다.

69) 복건전운사는 채양, 황유, 정위, 여혜경, 웅번, 유이, 조여려, 송자안, 장병문 등이 있다.

70) 정위의 <北苑別錄>, 유이 <北苑拾遺>, 송자안 <東溪試茶錄>, 여혜경의 <建安茶記>, 웅번의 <宣和北苑貢茶錄>, 무명씨의<北苑煎茶法>, 조여려의 <北苑別錄>, 장병문 <壑源茶錄>이 북원에 대한 다서다.

71) 世旣累洽. 人恬物熙. 則常須而日用者. 固久厭飫狼藉。而天下之士. 勵志淸白. 競爲閒暇修索之玩. 莫不碎玉鏘金. 啜英咀華. 較筐篋之精. 爭鑑裁之別. 雖下士于此時. 不以蓄茶爲羞. 可謂盛世之淸尙也。 偶因暇日. 硏究精微. 所得之妙. 後人有不自知爲利害者. 敍本末列于二十篇. 號曰 茶論.(휘종 『대관다론』)

다. 더불어 점차법과 차도구 및 제차법의 정교함을 잘 말하고 있다.

(11) 당경(唐庚)의 『투차기』(1112년)

투차기는 402字로 된 단문으로 당경이 정화(政和) 2년(1112), 당경이 두, 세 친구들과 팽차하면서 비평해놓은 것이다. 당경은 좋은 차를 얻는 것보다 알맞은 물을 얻기가 더 어려운데, 차 맛을 내는 데는 물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 정화2년(1112년) 3월 임술일에 몇몇 군자와 투차 하였다. 나는 용당수(龍塘水)를 취해 팽차하여 그 품을 정했는데 모씨가 위이고, 모씨가 다음이며 모씨는 민인(복건성사람)이라 잘했는데도 다음이라 했다. 대체로 모두 정교하고 절묘했다(陳彬藩,1999:123).

민인은 차를 잘한다고 여겨 아주 특출 나지 않으면 잘한다고 하지 않은 듯하다. 차는 새것이 좋으며 차에 쓰이는 물은 강물과 우물물을 불문하고 활수(活水)여야 한다고 했다.

(12) 웅번(熊蕃)의『선화북원공차록』

선화년간(宣和年間 1119-1125) 북원의 공차가 전성기를 이룰 때의 상황을 적은 글이다. 북원차의 정교함과 공차의 발전과정을 논하고 다명과 차의 모양 및 크기를 도록으로 남겼다. 이를 통해 당시 공차의 모양과 무늬, 크기를 알 수 있다.

육우의『다경』이나 배문의『다술』에는 모두 건안차의 품격이 정해져 있지를 않으며, 건안차가『다경』에 실리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선화북원공차록』에 기록된 공차의 품목은 아래<표2>와 같다.[72]

<표 2>『선화북원공차록』의 세색, 추색차

강색	품수	차 명	비고
세색	36	공신과(貢新銙) 시신과(試新銙) 백차(白茶) 용원승설(龍苑勝雪) 어원옥아(御苑玉芽) 만수용아(萬壽龍芽) 상림제일(上林第一) 을야청공(乙夜淸供) 승평아완(承平雅玩) 용봉영화(龍鳳英華) 옥제청상(玉除淸賞) 계옥승은(啓沃承恩) 설영(雪英) 운엽(雲葉) 촉규(蜀葵) 금전(金錢) 옥화(玉華) 촌금(寸金) 무비수아(無比壽芽) 만춘은엽(萬春銀葉) 의년보옥(宜年寶玉) 옥청경운(玉淸慶雲) 무강수룡(無疆壽龍) 옥엽장춘(玉葉長春) 서운상룡(瑞雲翔龍) 장수옥규(長壽玉圭) 흥국암과(興國巖銙) 향구배과(香口焙銙) 상품간아(上品揀芽) 신수간아(新收揀芽) 태평가서(太平嘉瑞) 용원보춘(龍苑報春) 남산응서(南山應瑞) 흥국암간아(興國巖揀芽) 흥국암소룡(興國巖小	소성(소성) 2년(1095)부터 선화(선화) 4년(1122)까지 만든 것이다.

72) 범규의 『용배미성다록(龍焙美成茶錄)』에 기록된 공차명이다.

		龍) 흥국암소봉(興國巖小鳳)	
세색	10	경림육수(瓊林毓粹) 욕설정상(浴雪呈祥) 학원공수(壑源拱秀) 공비추선(貢篚推先) 가배남금(價倍南金) 양곡선춘(暘谷先春) 수암도승(壽巖都勝) 연평석유(延平石乳) 청백가감(淸白可鑑) 풍운심고(風韻甚高)	선화(선화) 2년(1120)에 만들어진 것으로, 5년 후 폐지하였다.
추색	5	간아(揀芽) 소룡(小龍) 소봉(小鳳) 대룡(大龍) 대봉(大鳳)	

(13) 장여지(莊茹芝)의 『속다보』(1127년 이후, 1223년?)

원본은 유실되었으나 가정(嘉定)16년 『적성지(赤城志)』에 '속보'라고 인용되었다. 『적성지』 외에도 만력(萬曆)의『천태산방외지(天台山方外志)』 강희(康熙)의『천태전지(天台全志)』,건륭의『천태산방외지요(天台山方外志要)』, 육정찬의『속다경(續茶經)』등에도 인용되었다. 천태산에서 나오는 차의 삼품(三品)인 '자응(紫凝)' '위령(魏嶺)' '소계(小溪)'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진빈번,1999:86).

(14) 조여려(趙汝礪)의 『북원별록』(1186년)

제차법은 황유(黃儒)의『품차요록』, 휘종조길(徽宗趙佶)의『대관다론』, 조여려(趙汝礪)의『북원별록』등 여러 다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 『북원별록』이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開焙(개배), 採茶(채차), 揀茶(간차), 蒸茶 (증차), 搾茶 (착차), 硏茶(연차), 造茶(조차), 過黃(과황)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차는 세색오강(細色五綱)과 추색칠강(麤色七綱)으로 나누어진다. 세색오강이란 고운 종류의 차로 공신과(貢新銙)를 으뜸으로 삼고, 차판을 벌인지 10일 만에 공차에 들어간다. 그리고 용원승설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삼는다. 건안 사람들에게는 용원승설 값이 4만전이라는 말이 있다. 추색칠강은 가린 싹은 40떡을 1각(角)으로 삼으며, 소용봉은 20떡을 1각으로 삼고, 부들의 싹으로 동여매고 붉은 실로 묶은 다음 붉은 종이로 싸서 선명한 비단으로 봉한다. 다만 가린 싹만은 모두 누런 빛깔로 한다.

『북원별록』에 소개된 공차의 목록은 <표3>과 같다.

<표 3>『북원별록』에 기록된 세색오강과 추색칠강

강차(綱茶)	품수(品數)	차 명(茶 名)
세색제일강(細色第一鋼)	1	용배공신(龍焙貢新)
세색제이강(細色第二鋼)	1	용배시신(龍焙試新)
세색제삼강(細色第三鋼)	16	용원승설(龍園勝雪), 백차(白茶), 어원옥아(御苑玉芽), 만수용아(萬壽龍芽), 상림제일(上林第一), 을야청공(乙夜淸供), 승평아완(承平雅玩), 용봉영화(龍鳳英華), 옥제청상(玉除淸賞), 계옥승은(啓沃承恩), 설영(雪英), 운엽(雲葉), 촉규(蜀葵), 금전(金錢), 옥엽(玉葉), 촌금(寸金)
세색제사강(細色第四鋼)	13	용원승설(龍園勝雪)), 무비수아(無比壽芽), 만춘은엽(萬春銀葉), 의년보옥(宜年寶玉), 옥청경운(玉淸慶雲), 무강수룡(無疆壽龍), 옥엽장춘(玉葉長春), 서운상룡(瑞雲翔龍), 장수옥규(長壽玉圭), 흥국암과(興國巖銙), 향구배과(香口焙銙), 상품간아(上品揀芽), 신수간아(新收揀芽)
세색제오강(細色第五鋼)	12	태평가서(太平嘉瑞), 용원보춘(龍苑報春), 남산응서(南山應瑞), 흥국암간아(興國巖揀芽), 흥국암소룡(興國巖小龍), 흥국암소봉(興國巖小鳳), 선춘태평가서(先春太平嘉瑞), 선춘장춘옥규(先春長春玉圭), 속입액어원옥아(續入額御苑玉芽), 속입액만수용아(續入額萬壽龍芽), 속입액무비수아(續入額無比壽芽), 속입액서운상룡(續入額瑞雲翔龍)
추색제일강정공(麤色第一綱正貢)	2	불입뇌자상품간아소룡(不入腦子上品揀芽小龍), 입뇌자소룡(入腦子小龍)
추색제일강증첨(麤色第一綱增添)	3	불입뇌자상품간아소룡(不入腦子上品揀芽小龍), 입뇌자소룡(入腦子小龍), 건녕부부발소룡차(建寧府附發小龍茶)
추색제이강정공(麤色第二綱正貢)	5	불입뇌자상품간아소룡(不入腦子上品揀芽小龍)), 입뇌자소룡(入腦子小龍)), 입뇌자소봉(入腦子小鳳), 입뇌자대룡(入腦子大龍), 입뇌자대봉(入腦子小大鳳)
추색제이강증첨(麤色第二綱增添)	3	불입뇌자상품간아소룡(不入腦子上品揀芽小龍)), 입뇌자소룡(入腦子小龍), 건녕부부발소봉차(建寧府附發小鳳茶)
추색제삼강정공(麤色第三綱正貢)	5	불입뇌자상품간아소룡(不入腦子上品揀芽小龍))), 입뇌자소룡(入腦子小龍), 입뇌자소봉(入腦子小鳳), 입뇌자대룡(入腦子小大龍), 입뇌자대봉(入腦子小大鳳
추색제삼강증첨(麤色第三綱增添)	4	불입뇌자상품간아소룡(不入腦子上品揀芽小龍)), 입뇌자소룡(入腦子小龍), 건녕부부발대룡차(建寧府附發大龍茶)), 건녕부부발대봉차(建寧府附發大鳳茶)

추색제사강정공(麤色第四綱正貢)	7	불입뇌자상품간아소룡(不入腦子上品揀芽小龍)) 입뇌자소룡(入腦子小龍), 입뇌자소봉(入腦子小鳳), 입뇌자대룡(入腦子小大龍), 입뇌자대봉(入腦子小大鳳), 건녕부부발대룡차(建寧府附發大龍茶), 건녕부부발대봉차(建寧府附發大鳳茶)
추색제오강정공(麤色第五綱正貢)	5	입뇌자대룡(入腦子小大龍), 입뇌자대봉(入腦子小大鳳), 경정개조대룡(京鋌改造大龍), 건녕부부발대룡차(建寧府附發大龍茶), 건녕부부발대봉차(建寧府附發大鳳茶)
추색제육강정공(麤色第六綱正貢)	6	입뇌자대룡(入腦子大龍), 입뇌자대봉(入腦子小大鳳), 경정개조대룡(京鋌改造大龍), 건녕부부발대룡차(建寧府附發大龍茶), 건녕부부발대봉차(建寧府附發大鳳茶), 건녕부부발경정개조대룡(建寧府附發京鋌改造大龍)
추색제칠강정공(麤色第七綱正貢)	6	입뇌자대룡(入腦子小大龍, 입뇌자대봉(入腦子小大鳳), 경정개조대룡(京鋌改造大龍), 건녕부부발대룡차(建寧府附發大龍茶), 건녕부부발대봉차(建寧府附發大鳳茶), 건녕부부발경정개조대룡(建寧府附發京鋌改造大龍)

(15) 심안노인(審安老人)의 『다구도찬』(1269년 이전)

송대 차도구를 소개한 책으로 차를 가루 내어 마시는 도구 12가지에 이름(姓名), 자(字), 호(號)를 붙이고 관직명을 붙여놓았다. 도록을 첨가하여 당시의 차도구를 잘 알 수 있다. 이 중 호원외의 용도가 약간 설명하기 어려운데 속이 빈 바가지로 가루차를 맷돌에 갈아서 다시 체에 칠 때 옮기는 도구인지, 아니면 가루차 뭉친 것을 풀어줄 때 쓰는 용도인지 자세히 규명하지 못했다. <표4>는 차도구의 이름, 자, 호를 정리한 것이다.

<표 4>『다구도찬』의 차도구

	이름(姓名)	자(字)	호(號)
韋鴻臚(위홍려) : 차롱(茶籠)	문정(文鼎)	경양(景暘),	사창한수(四窓閒叟)
木待制(목대제) : 침추	이제(利濟)	망기(忘機)	격죽거인(隔竹居人).
金法曹(금법조) : 다연	연고(硏古)와 역고(轢古)	무개(無鍇)와 중감(仲鑑)	옹지구민(雍之舊民)
石轉運(석전운) : 다마	착치(鑿齒)	천행(遄行)	향옥은거(香屋隱居)
胡員外(호원외)	유일(惟一)	종허(宗許)	저월선옹(貯月仙翁)
羅樞密(나추밀) : 라합	약약(若藥)	전사(傳師)	사은료장(思隱寮長)
宗從事(종종사) :	자불(子弗),	불유(不遺)	소운계우(掃雲溪友)

빗자루			
漆雕秘閣(칠조비각) : 다완받침	승지(承之)	이지(易持)	고대노인(古臺老人)
陶寶文(도보문) : 다완	거월(去越)	자후(自厚)	토원상객(兎園上客)
湯提點(탕제점) : 주전자	발신(發新)	일명(一鳴)	온곡유로(溫谷遺老)
竺副帥(축부수) : 차선	선조(善調)	희점(希點)	설도공자(雪濤公子)
司職方(사직방) : 행주	성식(成式)	여소(如素)	결재거사(潔齋居士)

3. 典籍에 나타난 北苑의 茶事 典籍考

송대에는 자차법이 점차법으로 바뀌면서 제차방법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 공차원이 있어 납차의 제조법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가격은 비싸졌으며 차에 대한 관심도 최고에 달했다. 왕실에서 일반인까지 투차의 풍습을 즐겼으며 다구 또한 당나라에 비해 간소해졌다. 송나라 특유의 백차가 출현하고 백차에 어울리는 토호무늬의 흑잔이 유행하였으며 다서의 출간도 많아졌다. 송대 차문화는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1) 제차(製茶)

송대에는 당 후기부터 찌고 갈아서 제작하는 연고차(硏膏茶)와 향과 고를 첨가하여 만드는 납면차가 등장하였다. 차 만드는 과정은 개배, 채차, 간차, 증차, 착차, 연차, 조차, 과황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송대에는 백색차를 귀하게 여겨 차의 엽록소를 제거하여 백차와 가깝게 하려 애쓴 흔적이 보인다. 『북원별록』『대관다론』『품차요록』의 다서에 기록된 송대 제차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배(開焙) [73]

경칩 에는 만물이 처음으로 움이 트므로 해마다 언제나 그 3일 전에 차판을 벌인다. 윤년은 이와 반대로 하는데 그 기후가 조금 늦어지기 때문이다.[74]

차 만들기는 경칩에 시작되는데 하늘이 주는 좋은 때를 얻는 것이 더욱 큰일이다. 추위가 풀리면 차가 빨리 자라니 자라지 않았을 때 힘을 다하여 만들면 색,

73) 개배를 『대관다론』에서는 天時, 『품차요록』에서는 菜造過時라고 한다.
74) 『北苑別錄』驚蟄節萬物始萌. 每歲常以前三日開焙。遇閏則反之。以其氣候少遲故也

맛이 다 온전하다. 만약 따뜻하면 차 싹이 빨리 돋아 만드는 시각을 재촉하게 되고 찌고 압(누르기)이 미흡하고 압해도 가는 게 미흡하고 빨리 만들지 않으면 차는 쌓여 황색이 되고 차의 빛과 맛을 잃는다.[75]

차의 일은 경칩 전에 시작한다.[76]

세 문헌 모두 차 따는 일을 시작하는 시기를 경칩 전이라 말했다. 경칩이 지나면 날씨가 따뜻해지고 날씨가 따뜻하면 차 싹이 빨리 자라게 되어 차의 색과 맛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좋은 때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2) 채차(採茶)

차를 따는 법은 모름지기 새벽에 따고 해를 보면 안 된다. 새벽에는 밤이슬에 젖어, 차싹이 살찌기 때문이다. 해가 나면 차싹의 기름기가 속으로 스며들어 차의 색이 선명치가 않다.[77] 그래서 언제나 오경(오전 3-5시)에 북을 쳐서 일꾼들을 봉황산에 모아놓고, 감독관이 일꾼들에게 표 하나를 주어 산에 들어가 차를 따게 한다. 진시(辰時, 오전 7-9시)가 되면 다시 꽹과리를 울려서 차 따는 걸 마치고 모이게 한다.[78]

차는 새벽에 따고 해가 뜨면 그친다. 손톱으로 따고 손가락은 안 된다. 더러운 냄새가 스며들어 차가 깨끗하지 못할까 염려해서다. 차싹은 물에 넣는데, 곡식알처럼 생긴 건 투차품으로 삼고 일창일기는 간아, 일창이기는 다음으로 삼는다. 그 나머지는 하등품으로 삼는다. [79]

차싹이 매 발톱 같을 때 따서 처음 만드는데 이를 시배(試焙)라 하고 또 일화(一火)라 한다. 따는 시기에 민감한데 그 시기를 맞추는 것은 차 색이 선백(鮮白)을 추구하며 그 시기를 놓치면 수각이 약간 홍색으로 시기를 놓친 탓이다.[80]

이와 같이 당시 문헌은 송대의 채차가 경칩을 전후로 새벽에 따고 해가 뜨면 그친다고 했다. 곡식알이나 매 발톱 같은 찻잎 즉 일창일기를 따서 만들고 그 때를 지나면 차의 빛과 맛을 잃는다는 시각을 가졌다. 그 시기를 지키는 것은 선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백차에 관한 관심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

75)『大觀茶論』茶工作于驚蟄. 尤以得天時爲急。輕寒. 英華漸長. 條達而不迫. 茶工從容致力. 故其色味兩全。若或時暘鬱燠. 芽甲奮暴. 促工暴力隨稾. 晷刻所迫. 有蒸而未及壓. 壓而未及硏. 硏而未及製. 茶黃留積. 其色味所失已半

76)『品茶要錄』茶事起於驚蟄前.

77)『북원별록』(1186)보다 먼저 저술된 송자안의 『동계시차록』(1064년 안팎)에도 보인다.

78)『北苑別錄』 須是侵晨. 不可見日。侵晨則夜露未晞. 茶芽肥潤. 見日則爲陽氣所薄. 使芽之膏腴內耗. 至受水而不鮮明。故每日常以五更撾鼓. 集羣夫于鳳凰山。山有打鼓亭。監採官人給一牌入山. 至辰刻則復鳴鑼以聚之.

79)『大觀茶論』 擷茶以黎明. 見日則止。用爪斷芽. 不以指揉. 慮氣汗熏漬. 茶不鮮潔。故茶工多以新汲水自隨. 得芽則投諸水。凡芽如雀舌穀粒者爲鬪品。一槍一旗爲揀芽. 一槍二旗爲次之. 餘斯爲下茶.

80)『品茶要錄』 茶事起於驚蟄前. 其采芽如鷹瓜. 初造曰試焙。采工亦優爲矣。凡試時泛色鮮白. 試時色非鮮白. 水脚微紅者. 過時之病也。

(3) 간차(揀茶, 入雜)

차에는 소아(小芽) · 중아(中芽)[81] · 자아(紫芽)[82] · 백합(白合)[83] · 오체(烏滯)[84]가 있다. 소아는 그 작기가 매 발톱과 같은데, 처음에 용원승설과 백차는 소아로 만든다. 먼저 찐 다음 물동이에 담아 겉 부분은 제거하고 겨우 침(針)과 같이 작은 것만을 발라낸 것을 수아(水芽)라고 한다. 이것이 소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싹을 면밀하게만 가리면 차의 빛깔과 맛이 좋지 않은 것이 없으나 만일 취할 바가 못 되는 것(자아, 백합, 오체)을 섞으면 찻물의 표면은 고르지 않게 되며, 빛깔은 흐리고 맛은 무거워진다. [85]

차싹이 나오면 백합이 있다. 이미 딴 줄기는 오대가 있다. 백합은 맛을 해치고 오대는 차색을 해친다.[86]

차의 정미한 것을 투(鬪)품 또는 아투(亞鬪)라고도 말한다. 그 다음이 간아(揀芽), 차아(茶芽)다. 투품으로 가장 좋다. 투품지가(鬪品之家)에서는 승부가 있기 전에 우열이 있을 뿐이다. 백합 도엽이 섞이면 색이 선백 이라도 맛이 떫다. 백합, 도엽이 들어간 병폐다.[87]

물건에서도 가짜가 용납되지 않은데 음식에서는 더욱 불가하다. 차에 다른 잎을 섞기도 하는데 건인들은 '입잡(入雜)'이라고 한다. 단차에 감나무잎을 넣고 품차에 부람잎을 넣는데 두 잎은 색이 번지기 쉽다. 원민(園民) 들이 속여 팔아도 시차시 좁쌀무늬와 감향이 없고 잔에 떠서 흩어져 버린다. 미세한 털이 있고 가는 솜이 성성한 것은 입잡의 병폐다.[88]

이와 같이 송대의 간차는 소아, 중아, 일창일기, 일창이기, 간아, 차아 모두를 좋은 찻잎으로 간주한다. 반면 백합, 오체는 맛을 버리고 자아는 색을 흐리게 한다 하여 취하지 않는다. 찻잎을 가리는 이유는 찻잎이 차색과 맛에 영향을 미치고 백합, 오체가 들어가면 투차시 색은 선백 이라도 맛이 떫기 때문이다.

---

81) 옛날에 일창 일기(一槍一旗)라고 부르던 것으로 웅번의 《선화북원공차록》에서 말하는 「가린 싹(芽揀)」이다.

82) 잎이 자줏빛 나는 것 당대는 자순을 귀히 여겼으나 송대는차색이 백색을 귀하게 여겨 취하지 않는다.

83) 소아에 이를 받들듯이 자라는 두 잎을 말한다.

84) 차의 체두(체頭)이다

85)『北苑別錄』茶有小芽. 有中芽. 有紫芽. 有白合. 有烏蔕. 此不可不辨。小芽者. 其小如鷹爪。初造龍園勝雪白茶. (編者按. 龍園別本作龍團. 下同). 以其芽先次蒸熱. 置之水盆中. 剔取其精英. 僅如鍼小. 謂之水芽. 是小芽中之最精者也。使其擇焉而精. 則茶之色味無不佳. 萬一雜之以所不取. 則首面不勻. 色濁而味重也.

86)『大觀茶論』 撮茶以黎明. 見日則止。用爪斷芽. 不以指揉. 慮氣汗熏漬. 茶不鮮潔。故茶工多以新汲水自隨. 得芽則投諸水。凡芽如雀舌穀粒者爲鬪品。一槍一旗爲揀芽. 一槍二旗爲次之. 餘斯爲下茶. 茶始芽萌. 則有白合. 其撮則有烏蔕。白合不去害茶味. 烏蔕不去害茶色.

87)『品茶要錄』其次揀芽, 茶芽. 鬪品雖最上. 故造鬪品之家. 有昔優而今劣. 前負而後勝者往往以白合盜葉間之. 試時色雖鮮白. 其味澁淡者.

88)『品茶要錄』 入雜 物固不可以容僞. 況飮食之物. 尤不可也。故茶有入他葉者. 建人號爲入雜。銙列入柿葉. 常品入桴檻葉。二葉易致. 又滋色澤。園民欺售直而爲之也。試時無粟紋甘香. 盞面浮散. 隱如微毛. 或星星如纖絮者. 入雜之病也

겉으로 좋은 차라고 하여도 다른 잎을 섞으면 잔의 면만 보아도 알 수 있고 시차시에 율문감향(粟紋甘香)이 없다.

(4) 증차(蒸茶)

찻싹은 네 번이나 씻어서 깨끗하게 한 뒤, 시루에 넣고 물이 끓기를 기다렸다가 차를 찐다. 그러나 찌기에는 지나치게 익는 병과 덜 익는 병이 있다. 지나치게 익으면 빛깔은 누르고 맛은 싱거우며, 덜 익으면 빛깔은 파랗고 가라앉기 쉬우며 풋내가 있다. 다만 중용을 이룬 것이 알맞다.[89]

설익게 찌면 차싹이 매끄럽고, 색이 맑으나 맛은 강렬하다. 과숙하면 싹이 문드러져 차빛은 붉고 엉겨 붙지 않는다. [90]

차는 따면 찌고, 찌면 간다. 찔때는 설익거나 과숙하는 병이 있다. 설익으면 비록 정미한 차라도 많은 것을 잃고, 시차시 차색은 청색이라도 가라앉기 쉽고 맛은 복숭아씨 같다. 불증숙(不蒸熟)의 병폐다. 정숙해야 감향이 있다. 차싹을 찔때는 잘 살펴야 한다. 시차시 노란색의 좁쌀무늬가 큰 것은 과숙의 병폐다. 과숙이 감향이 있고 맛이 좋다. 차를 찔때 오래두면 안 된다. 과숙하여 오래두면 물이 말라서 솥이 탄다. 차공(茶工)이 차 싹을 뜨게 할지라도 탄 냄새가 차황(茶黃)에는 손해고 시차시 색은 어두운 홍색이다. 그을리면 맛이 가장 나쁘다. 초부(焦釜)의 병폐다.[91]

증차는 제차법 중 가장 어렵다. 덜 익으면 색은 푸른색으로 좋으나 시차시 가라앉기 쉽고 풋내가 나며, 과숙하면 차빛이 누르고 맛은 담박하다. 과숙하여 솥이 타 버리면 차싹이 뜨더라도 탄 냄새가 나고 차색은 어두운 홍색이 나며 맛을 버리니 중용을 이루어야 한다.

(5) 착차, 압황(搾茶, 壓黃)

차가 익은 것을 차황(茶黃)이라고 한다. 찬 물에 여러 번 씻는다 (식지 않으면 색이 어둡다). 작은 압착기에 넣고 물기를 제거한다. 또 큰 압착기에 넣고 진액을 짜낸다. 수아(水芽)는 헝겊으로 싸고 대껍질로 묶은 다음 큰 짜는 틀에 넣고 누른다. 밤중에 꺼내어 고르게 주물러 부드럽게 하고 다시 짜는 틀에 넣는 것을 짜기라고 하는데, 밤을 새워 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한다. 진액이 다 없어지지 않으면 색과 맛이 무겁고 흐리다.[92]

---

89) 『北苑別錄』茶芽再四洗滌. 取令潔淨. 然後入甑. 俟湯沸蒸之. 然蒸有遇熟之患. 有不熟之患。過熟則色黃而味淡. 不熟則色靑易沈. 而有草木之氣. 唯在得中之爲當也.

90) 『大觀茶論』蒸太生則芽滑. 故色淸而味烈。過熟則芽爛. 故茶色赤而不膠.

91) 『品茶要錄』蒸不熟 旣采而蒸. 旣蒸而硏。蒸有不熟之病. 有過熟之病。蒸不熟. 則雖精芽. 所損已多。試時色靑易沈. 味爲桃仁之氣者. 不蒸熟之病也。惟正熟者. 味甘香。 茶芽方蒸. 以氣爲候. 視之不可以不謹也。試時色黃而粟紋大者. 過熟之病也。然雖過熟. 愈於不熟. 甘香之味勝也。故君謨論色. 則以靑白勝黃白. 予論味則以黃白勝靑白。茶蒸不可以逾久. 久而過熟. 又久則湯乾而焦釜之氣上。茶工有泛新湯以益之. 是致薰損茶黃。試時色多昏紅. 氣焦味惡者. 焦釜之病也。

차의 좋고 나쁨은 찌고, 압황하는 데 있다. 압을 오래 하면 맛이 엷고 압을 덜 하면 맛이 떫고 색이 어둡고 증압하고 잘 익으면 향이 난다. 압은 고가 다하면 그친다. 이와 같이 하면 제조의 공력은 10의 7, 8은 얻은 것이다.[93]

차는 찌면 황색이다. 틀에 넣어 눌러 만드는데, 청결하면 선명하고 색향이 좋은 것은 채차가 가품(佳品)이다. 시차시 색이 선명치 못하고 썩은 달걀 냄새가 나는 것은 압황의 병폐다. 병차의 빛깔이 황색이고 또 젖어있으면 마르도록 짜지 않은 것이다. 짤 때 고를 다 제거해야 한다. 고를 다 짜면 마른 대잎 색이다. 차의 면을 꾸며서 팔 때 이익 남기긴 쉬워도 마를 때까지 짜지 않으면 시차시 색이 선백이라도 그 맛은 쓰다. 지고(漬膏)의 병폐다. [94]

이와 같이 착차는 차의 고를 다 짜 내는 과정이다. 시루에 찐 차를 씻어 그 진액을 짜는데 그 진액이 다 없어지지 않으면 빛깔과 맛이 무겁고 흐리다. 압을 덜하면 맛이 쓰고, 진액을 다 짜면 쓴 맛도 사라지고 엽록소도 제거되어 백차에 가까운 차가 되었다. 후에 이 차에 용뇌와 사향을 넣기도 했는데 이는 진액이 다 빠져 새로운 향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투차시에는 진향을 선호하기 때문에 향을 첨가하지 않았다.

(6) 연차(硏茶)

연차의 도구는 나무로 만든 절굿공이와 진흙으로 만든 질동이다. 이것으로 착차한 차를 물을 부으면서 연 하는데, 차에 따라 물도 일정한 수량이 정해져있다. 용단승설과 백차는 16수, 간아는 6수, 소용단은 4수, 대용단은 2수이며, 나머지는 모두가 12수이다. 12수 이상은 하루에 한 덩어리를 연(硏)하고, 6수이하는 하루에 세 덩어리에서 일곱 덩어리까지 연한다. 연할 때는 물이 마르고 차가 한도에 이를 때까지 한다. 물이 마르지 않으면 차가 한도에 이르지 않고, 차가 한도에 이르지 않으면 완성된 차의 표면이 고르지 못하고 시음할 때 가라앉기가 쉽다. [95]

이와 같이 송대의 연차는 압황해서 물기가 전혀 없는 찻잎을 물을 부어가며 연했는데 용단승설과 백차는 16잔의 물을 붓고 대용단은 2잔의 물을 부었다. 고급차일수록 차잎이 부드러워 압황하면 더 딱딱해졌기 때문에 많은 물이 필요했다. 연할 때는 물이 마르고

---

92)『北苑別錄』茶旣熟. 謂茶黃. 須淋洗數過. 方入小榨以去其水. 又入大榨出其膏。先是包以布帛. 束以竹友. 然後入大榨壓之. 至中夜. 取出揉匀。復如前入榨. 謂之翻榨。徹曉奮擊. 必至于乾淨而後已。蓋建茶味遠而力厚. 非江茶之比。江茶畏流其膏. 建茶惟恐其膏之不盡. 膏不盡. 則色味重濁矣。

93) 『大觀茶論』壓久則氣竭味漓. 不及則色暗味澁。蒸芽欲及熟而香. 壓黃欲膏盡亟止. 如此. 則製造之功. 十已得七, 八矣。

94) 『品茶要錄』茶已蒸者爲黃. 黃細則已入捲模制之矣。蓋淸潔鮮明. 則香色如之。故采佳品者. 試時色不鮮明. 薄如壤卵氣者. 壓黃之病也。茶餠光黃. 又如蔭潤者. 榨不乾也。榨欲盡去其膏. 膏盡則有如乾竹葉之色. 唯飾首面者. 故榨不欲乾. 以利易售。試時色雖鮮白. 其味帶苦者. 漬膏之病也。

95)『北苑別錄』 硏茶之具. 以柯爲杵. 以瓦爲盆。分團酌水. 亦皆有數。上而勝雪白茶. 以十六水. 下而揀芽之水六. 小龍鳳四. 大龍鳳二. 其餘皆以十二焉。自十二水以上. 日硏一團。自六水而下. 日硏三團至七團。每水硏之. 必至干水乾茶熟而後已。水不乾則茶不熟. 茶不熟則首而不匀. 煎試易沈

차가 한도에 이를 때까지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물이 부족하면 차가 곱지 않고 곱지 않으면 완성된 차의 표면이 고르지 못하여 차 표면의 문양이 정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7) 조차(造茶)

질동이에서 꺼낸 차는 평평하게 주물러서 매끄럽게 한다. 그 후 누르는 틀에 넣고 차를 만들어 불 위에 통과시켜서 말리게 된다. 차의 모양은 네모난 차, 꽃모양의 차, 대룡, 소룡도 있는데, 품종도 같지 않고 그 이름 또한 다르다. 96)

햇볕의 길고 짧음을 헤아리고, 일하는 공력의 많고 부족함, 차잎 따기의 많고 적음을 헤아리면 하루에 완성된다. 차가 많아 묵히면 차색과 맛을 해친다.97)

차를 만들 때는 연(硏)한 차를 평평하게 주물러 틀에 넣어 여러 가지 모양의 고형차를 만든 후 불 위에서 말리는데 그 날 딴 차는 그날 다 만든다. 만약 차를 묵히면 차의 색과 맛을 해치게 된다.

(8) 과황(過黃)

차를 말리는 것은 처음에는 센 불에 말린 다음 끓는 물에 통과시킨다. 이와 같은 과정을 세 차례 반복한 후 하룻밤을 묵인 후 다음날 연배(煙焙)에 넣는다. 그러나 연배의 불이 세차서는 안 된다. 불이 강하면 차의 표면이 타서 빛깔이 검게 된다. 또 그을려서도 안 된다. 그을리면 향기는 다 없어지고 탄내가 난다. 배로는 따뜻하게 할 뿐이다 연배에 넣어두는 일수는 차가 두꺼운지 얇은지를 보아야 하는데 두꺼운 차는 10- 15일이며, 얇은 차는 6- 8일정도 이다. 일수가 지난 후에는 끓인 물 위를 통과시켜서 빛깔을 낸다. 빛깔을 낸 뒤에는 밀폐된 방에 넣고 빨리 부채질을 하면 윤기가 자연히 밝게 빛난다.98)

차나무는 차싹의 물건이니 말아졌을 때 취하여 펴지면 배한다. 불은 철저히 막고 재로 덮어 재의 화기로써 익힌다. 차 장수는 그 재 사용을 좋아하지 않는다. 차는 습기가 있는데 장사하는 이는 빨리 건조하려고 불꽃 있는 불을 사용한다. 불꽃이 많으면 살피기 조금 어렵다. 연기는 차에게는 손해며 차색이 어둡고 붉다. 탄 맛이 나는 것은 말리기가 잘못된 것이다.99)

과황은 만든 차를 말리는 과정이다. 센 불에 쬐여 말리다 다시 끓는 물 속에 넣어 통과시키고 이 과정을 세 번 되풀이 하여 하룻밤을 불에 묵혀서 다음날에 연배(煙焙)에 넣는

---

96)『北苑別錄』 凡茶之初出硏盆. 盪之欲其勻. 揉之欲其膩. 然後入圈製銙. 隨笪過黃。有方銙. 有花銙. 有大龍. 有小龍. 品色不同.

97)『大觀茶論』先度日晷之短長. 均工力之衆寡. 會採擇之多少. 使一日造成。恐茶過宿. 則害色味。

98) 『北苑別錄』茶之過黃. 初入烈火焙之. 次過拂湯爁之. 凡如是者三. 而後宿一火. 至翌日遂過煙焙焉。然煙焙之火不欲烈. 烈則面炮而色黑. 又不欲煙. 煙則香盡而味焦. 但取其溫溫而已。凡火數之多寡. 皆視其銙之厚薄. 銙之厚者. 有十火至於十五火。銙之薄者亦 八火至於六火。火數旣足. 然後過湯上出色。出色之後. 當置之密室. 急以扇扇之. 則色自然光瑩矣。

99) 『品茶要錄』夫茶木以芽葉之物. 就之捲模. 旣出捲. 上笪焙之. 用火務令通徹。卽以灰覆之. 虛其中以熱火氣. 然茶民不喜用實炭. 號爲冷火. 以茶餠新濕. 欲速乾以見售. 故用火常帶煙焰。 煙焰旣多. 稍失看候. 以故熏損茶餠. 試時其色昏紅. 氣味帶焦者. 傷焙之病也。

다. 이 과정을 거치면 빛깔이 나오고 윤기가 난다고 설명한다. 고형차일수록 오래 말리며, 연기는 차를 손상시키고 차색이 어둡고 붉게 만든다. 탄 맛이 나는 것은 말리기가 잘못된 것이다.

2) 점차 (點茶)

송대의 차종류는 크게 단차와 산차로 나뉜다. 두 차는 제차법은 차이가 있지만 점차법은 같다.

(1) 단차점차법

단차는 뜨거운 탕수를 다완에 부어 차선을 이용하여 격불한 후 유화(乳華)를 뜨게 하여 마시는 차이다. 송대 다서 중『다록』과『대관다론』에 점차법이 잘 설명되어 있다.

먼저『다록』에 기술된 가루차 만드는 법은 차굽기(炙茶), 차갈기(碾茶), 차체질(羅茶)이 있다.

자차(炙茶): 차는 해가 지나면 색, 향, 미가 변한다. 깨끗한 도자기 그릇에 끓는 물을 넣고 차를 적셔 고유를 한두 번 제거한 뒤 차 집게로 약한 불에서 마를 때까지 구워 부수어 다연에 간다. 햇차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는다.

묵은 차를 다시 따뜻한 물에 넣어 고유를 벗기고 습기를 제거하면 향이 새로워지듯 해가 지난 차를 겉면만 벗기고 구워 차를 마시면 신차(新茶)의 맛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신차는 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유를 벗길 필요가 없다.

연차(碾茶) : 차를 갈려면 깨끗한 종이에 싸서 부스러뜨리고 그런 다음 다연에 갈면 잘 갈린다. 빨리 갈면 빛깔이 희지만 혹 하룻밤을 묵히면 색은 어두워진다.

송대는 추구하는 차의 색이 백색이었기 때문에 색에 민감했다.

라차(羅茶) : 체가 가늘면 차가 뜨고, 체가 거칠면 물이 뜬다.

차가루가 미세하면 격불(擊拂)했을 때 차와 물이 잘 섞여 차가 위로 뜨지만 거칠면 찻가루가 무거워 아래로 가라앉는다.

차 우리는 법은 후탕(候湯), 협잔(燼盞), 점차(點茶)가 있다.

후탕: 후탕이 가장 어렵다. 아직 익지 않으면 말이 뜨고 너무 익으면 차가 가라앉는다. 전세에는 해안(蟹眼)[100]을 과숙탕(過熟湯)[101]이라 하여 차를 끓이면

---

100) 물 끓일때 물방울이 게눈처럼 올라오는 물끓임을 말한다.
101) 지나치게 익어버린 물을 말한다.

안 된다 하였다. 고로 후탕이 가장 어렵다.

물 끓이는 법은 시대마다 다르다. 당나라 때는 용천연주(湧泉連珠)[102], 등파고랑(騰波鼓浪)[103] 이후의 물을 사용했는데 송대에 이르러서는 해안의 전단계인 하안(蝦眼:새우눈)을 알맞은 물로 여겼다.

협잔(燸盞) : 점차를 하려면 먼저 협잔 하여 냉기를 없애야 한다. 냉하면 차의 거품이 뜨지 않는다.

협잔은 뜨거운 물을 잔에 부어 잔을 따뜻하게 데우는 작업을 말한다. 차는 물이 차가우면 유화가 뜨지 않는다. 뜨거운 물을 부어도 잔이 차가우면 유화가 뜨지 않고 만약 뜨더라도 오래 견디지 못하니 투차에서는 유화가 오래 견디면 이긴다.

점차(點茶) : 차가 적고 물이 많으면 거품이 흩어지고 물이 적고 차가 많으면 차가 죽처럼 모인다. 가루차 한돈중[104]을 넣고 먼저 탕을 부어 조절하고 고르게 섞는다. 잔의 물이 4부쯤 되게 물을 부어 둥글게 저으면서 격불한다. 그 점차한 차의 색은 백색이고 잔에 달라붙어서 수흔[105]이 없는 것이 정말 아름답다. 건안의 투차에서는 수흔이 없고 오래 견디면 이긴다. 고로 승부는 아주 작은 차이이다.

물은 두 번에 나누어 부어 차를 우렸으며 투차의 다풍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면 송대 사람들의 투차 열풍을 알 수 있다.

『대관다론』의 점차는 송대의 차문화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방법이라 하겠다. 점차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정면점(靜面點), 일발점(一發點), 칠탕법(七湯法)이 그것이다. 그 중 정면점과 일발점은 잘못된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칠탕법에 의해 '교잔(咬盞)'을 만드는 것이다.

정면점은 반죽을 갖추어 끓인 물을 붓고, 손은 무겁고 찻솔은 가볍게 하여 좁쌀무늬나 게눈이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발점은 끓인 물을 이어 부으면서 손과 찻솔을 모두 무겁게 격불하여 거품이 부글부글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칠탕법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제 1탕은 차의 양에 맞게 탕수를 부어 아교처럼 만든 다음 끈적한 차고(茶膏)를 만든다. 잔의 경계를 두르듯이 따라서 차를 적시지 않도록 하며 이 때 너무 빨리 따라서는 안 된다. 먼저 차반죽을 천천히 뒤섞으면서 점차적으로 격불을 가속화한다. 손은 가볍고 찻솔은 무겁게 하면서 손가락으로 차선을 에워싸듯이 잡고 빙글빙글 돌린다. 그러면 상층과 하층이 투명하게 되어 효모 넣은 밀가루가 발효되어 부풀어 오르듯, 별과 희고 밝은 달이 찬란하게 생긴다. 이렇게 되면 차의 근본이 선 것이다.

제 2탕은 차면에 탕수를 따르는데 둘레를 한번 돌리고 급하게 따르고 급히 올리면 차의 표면은 움직이지 않는다. 힘차게 격불하면 색에 윤이 나기 시작하여 둥글고 모난 구슬과

---

102) 물 끓는 모습이 물방울이 구슬처럼 연이어 나오는 모양을 말한다.
103) 물 끓는 모습이 파도가 일고 놀란 물결이 샘솟는 모양을 말한다.
104) 약 3.75g이다.
105) 물의 흔적으로 차물의 표면이 갈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같은 거품이 높이 쌓인다.
제 3탕도 탕수는 많이 넣고, 2탕과 같이 격불하는데 점점 가볍고 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돌아와 차의 표면에서 속까지 통하게 되면 좁쌀무늬나 게눈이 뜨고 모여서 뒤섞이며 일어난다. 차의 빛깔은 이미 십 중 육칠까지는 얻어진 것이다.
제 4탕은 아끼듯이 한다. 솥은 끝을 굴리듯이 느슨하게 하고 빨리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차의 깨끗하고도 순진하며 화려한 색채가 이미 환하게 나타나서 구름 안개와 같은 거품이 점차 생긴다.
제 5탕은 분량을 약간 멋대로 따른다. 솥은 가볍고 고르게 하여 뚫리게 한다. 혹시 거품 피워 세우기가 미진하면 부딪치기로 일으키고, 이미 지나쳤다면 떨어버리기로 거두어들인다. 그리하여 깊은 아지랑이가 모이고, 눈이 엉기어 모여서 향기가 극진하게 된다.
제 6탕은 거품 피워 세우기의 모양을 보고 젖 같은 액이 한도에 이르러 힘차게 일어나거든 솥로 붙여서 느슨하게 두르고 떨어버릴 뿐이다.
제 7탕은 가볍고도 맑은 것과 무겁고도 흐린 것을 분간하여 희박함과 조밀함을 자세히 보아 중용을 얻도록 따르고 소망스럽게 되면 멈춘다. 그러면 젖 같은 안개가 끓어올라서 잔을 넘쳐서 일어나 둘레에 엉겨서 움직이지 않게 된다. 이것을 '교잔' 이라고 한다.
『다록』(1049-1053)과『대관다론』(1107)의 연대는 50년의 차이가 있는 만큼『대관다론』의 점차법이 더 세밀하고 정교했던 걸 알 수 있다.

(2) 산차점차법
산차점차법은 찻잎을 시루에 찌고 말린 잎을 가루낸 뒤 탕수를 부어 격불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황정견의 『산곡전서(山曲全書)』의 기록에

하얀 털을 제거하고 차줄기를 골라낸 후 맷돌에 간다.

고 되어 있다(송혜경,2005:89). 특별히 산차의 점차법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제차법의 문제이지 점차법은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가루낸 차의 점차법은 단차와 같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3) 茶의 種類

송대 차는 기록에 의하면 크게 편차와 산차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 편차의 하나인 납차를 포함해 3종류로 나눌 수 있다. 납차는 진공용이고 편차는 차의 모양이 원형, 방형(方形)으로 되어있는데다 '편'으로 수량을 세었기 때문에 '편차'라 불렀다. 납차와 편차는 그 모양이 고형(固形)이기 때문에 단차라고 한다. 산차는 일반인이 마시는 차라고 할 수 있다는데, 이는 다시 잎차 산차와 말차 산차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단차의 종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단차의 종류
단차는

찻잎을 찌고 틀에 모양을 만들어 가운데 구멍을 내어 꿰었다. 오직 건 ,검주에서 찌고, 갈고 대나무틀로 모양을 만들어 배로를 설치한 방 중에 두어 가장 정결하여 다른 곳에서는 만들 수 없다.[106]

고 하였다. 다서에 나타난 차종류는『선화북원공차록』에 실린 용· 봉차, 석유차, 백유차, 백차, 용원승설차, 백유, 적유, 석유, 꽃모양 고형차 20여 종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종류가 대단히 다양하고, 새로운 단차가 끊임없이 개발되었다. 『문헌통고』에서는 차의 등급에 대해

용,봉, 석유, 적유, 백유, 두금, 납면, 두골, 차골, 말골, 산골, 산경 십 이 등급이다[107]

라고 기록하고 있고『선화북원공차록』과『북원별록』에 단차의 종류가 기록되어있다.[108]

(2) 산차의 종류

산차는 중국 차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차 형태이며 현재까지도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음차법이다. 차의 생잎을 말리거나 그을려서 먹는 쇄차(曬茶)나 고차(枯茶)의 옛날 방식도 있지만, 문화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산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송사(宋史)』「식화지(食貨志)」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산차는 회남, 귀주, 강남, 형호에서 나고 용계, 우전, 우후 등 11종류가 있다. 또한 강(江西 ,江蘇)과 절(浙江)에는 상 · 중 · 하 또는 제 1에서 제 5까지의 등급이 있다. 차를 (관에서) 살 때 납차는 한 근에 20전에서 190전까지 16등급, 편차는 65전에서 205전까지 55등급, 산차는 16전에서 38전 5분까지 59등급이 있다. 차를 (관에서) 팔 때, 납차는 한 근에 47전에서 420전까지 12등급이 있고, 편차는 17전부터 917전까지 65등급이 있으며, 산차는 15전부터 121전까지 109등급이 있다.[109]

『송사』를 보면 유명한 산차의 종류와 그 산지가 얼마나 넓게 퍼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산차는 강서성, 강소성, 안휘성, 귀주성, 절강성, 호남성 등에서 생산되고 있었다. 송

106) 茶有二類, 曰片茶 曰散茶 片茶蒸造 實捲模中串之 唯建劍則卽蒸而硏 編竹爲格 置焙室中 最爲精潔 他處不能造. (方豪(1988)『송사』<茶上>)

107) 龍,鳳, 石乳, 的乳, 白乳, 頭金, 蠟面, 頭骨, 次骨, 末骨, 麤骨, 山挺 十二等(『문헌통고』<각차> 주자진외,1995: 599)

108) <표2><표3>참조

109) 散茶出淮南, 歸州, 江南, 荊湖, 有龍溪, 雨前, 雨後之類十一等, 江 浙又有以上, 中, 下或第一至第五爲號者. 買臘茶斤自二十錢至一百九十錢有十六等, 片茶大片自六十五錢至二百五錢有五十五等, 散茶斤自十六錢至三十八錢五分有五十九等. 鬻臘茶斤自四十七錢至四百二十錢有十二等, 片茶自十七錢至九百一十七錢有六十五等, 散茶自十五錢至一百二十日錢有入百九等.(方豪::1988)

해경(2005: 63)은 당대에 비해 송대에 산차가 더 확산되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산차가 확산된 것에 대해 음차풍습이 당대보다 많이 보급된 상황에서 편차의 제차법과 가격이 일반인이 마실 수 없었던 수준이었다는 이유도 있지만 당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들이 송대에 와서 알려지게 된 것이라 여겼다. 육우도 『다경』에서 건계의 차를 말하지 않았다. 당대의 병차와 송나라 단차는 일부의 계층을 위한 차였고 일반 서민들은 산차를 음용하고 있었다. 양시의 『구산집』에

> 양절의 궁황민에게는 일 년 동안 소금을 먹지 않고 지낼수 있어도 하루라도 차가 없어서는 안 되었으며 하루라도 차가 없으면 병이 날 정도였다. 늦봄에 따서 만든 차를 황차라 하는데 한 근에 20-30전에 불과하여 가난한 백성들도 마실 수 있었다.[110]

라고 한 것으로 보아도 산차는 단차보다 더 많았으리라 사료된다.

4) 鬪茶

투차는 시차(試茶), 명전(茗戰)이라고도 부른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상호간에 차의 품질을 겨루는 시합이다. 투차로 인하여 놀이문화가 탄생되었고, 차의 고급화와 차색, 도자기, 물의 품질, 제차법, 음차법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투차는 당대에도 있었으나 송대에 이르러 고급화되고 민간에서 문인에게로 옮겨가며 대중화되었다. 투차가 일반화되면서 차의 품질이 향상되었고 차는 놀이문화로 정착되었다. 명전의 시작은 화응(和凝)이 양 정명 2년(貞明 2년, 916년)에 결성한 차 동호인 단체인 '탕사(湯社)'[111]로부터이다. 탕사란 관리나 문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여가생활의 하나로 차문화를 교유, 보급하거나 차의 품질을 비교 시합(梁子,1997:157)하는 행사였다. 이는 이후 송나라에서 크게 유행한 투차의 모태가 되었다.

강휴복(江休復)의『가우잡지(嘉祐雜志)』에 채군모[112]와 투차하는 기록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소재옹(소순원의 아들)이 채군모와 투차 하였는데 채군모의 차는 정미하였다. 혜산천을 사용했다. 소재옹의 차는 못하다. 다시 대나무 잎에서 떨어지는 물로 차를 달이니 능히 이길 수 있었다.[113]

위 기록은 투차시 물의 중요함을 말한다. 투차는 차, 물의 품질, 차도구를 겨루는 것 이

---

110) 二浙窮荒之民 有經歲不食鹽者 茶則不可一日無也. 一日無之 則病矣. 昔時晩春采造謂之黃茶 每斤不過二三十錢 故細民得以厭食 (진빈번,1999:119)

111) 和凝在朝. 率同列遞日以茶相飮. 味劣者有罰. 號爲湯社。,陳組槃·朱自振 編, 前揭書104p "화응이 조정에 있을 때 동료들과 함께 차를 마셨는데 차 맛이 없는 사람에게 벌을 주었다. 이름하여 湯社라 하였다"(도곡『천명록』<탕사>)

112) 복건의 전운사로 용봉소단이 채군모로부터 시작되었다.

113) 蘇才翁嘗與蔡君謨鬥茶. 蔡茶精. 用惠山泉. 蘇茶劣. 改用竹瀝水煎. 遂能取勝.(陳組槃외,1995:306)

외에 많은 역할을 하였는데 특히 송대에 음차풍습이 황실, 사대부에서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대중화되는 데에 큰 영향을 끼쳤다. 당, 오대 때부터 시작한 차 겨루기가 송대에는 황실에서부터 민간에게까지, 도시에서 작은 촌락까지 대, 소규모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투차를 위해 좋은 차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짐으로써 차의 공급이 확산되었다. 문인들에게는 취미요, 교양이었으며 서민들 역시 새로운 놀이문화로 정착되었다. 『천명록』의 탕사(湯社), 생성잔(生成盞), 차백희(茶百戲)에 대한 기록은 차가 음료보다는 놀이문화임을 보여준다.
투차의 유희(遊戲)적인 면으로는 차백희가 있다.

> 탕을 부어 차솔을 움직여 묘결을 시험했는데 탕의 무늬와 수맥으로 금수, 벌레, 물고기, 화초의 형상을 만들었다. 섬세함이 그림 같고 순식간에 흩어져 사라지지만 이것은 차의 변화다. 사람들은 차백희라 했다. [114]

차가 음료보다는 즐기는 오락적인 사교와 놀이로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승려의 투차를 보면 당시의 절에도 투차문화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 오나라 승려 문자가 차 끓이기를 좋아했는데 형남에 머물 때 고보면의 맏이인 계흥이 자운암을 지었다. 하루는 文子의 재주를 시험했는데 보면의 父子가 湯神이라 하고 그 절의 華定水大師로 받들고 유요(乳妖)라 했다.[115]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차가 있고 차가 있는 곳이면 투차를 하였다. 단순히 차의 품질만 겨루는 것이 아니라 차로 인한 모임도 하고 그 자리에서 고향의 소식도 접할 수 있었다. 투차는 차의 색에 영향을 미쳤다. 차는 백색을 귀하게 여겨 투차가들의 사랑을 받았다. 채양의『다록』에

> 차의 색은 백색을 귀히 여긴다.[116]

고 하여 송대에는 백차를 만들려고 한 기록이 자주 보인다. 또한 투차는 차의 '고급화와 다양함'에도 기여했다. 제차법의 정미함은『대관다론』,『품차요록』,『북원별록』의 기록만으로도 잘 알 수 있으며 더 좋은 차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음도 알 수 있다. 『선화북원공차록』의 기록에 적힌 '용원승설차' 만드는 법은 송대 차의 고급스러움을 대변해준다.

> 은선수아를 가려 찌고 익은 싹을 다시 껍질을 벗겨내고 심의 한 가닥만 남겨 진기한 그릇에 담은 맑은 물에 담가서 밝게 윤이 나고 깨끗한 은실처럼 만드는

---

114) 茶至唐始盛。近世有下湯運匕. 別施妙訣. 使湯紋水脈成物象者. 禽獸虫魚花草之屬. 纖巧如畫. 但須臾卽就散滅。此茶之變也. 時人謂茶百戲。(『천명록』<차백희>)
115) 吳僧文了善烹茶. 游荊南. 高保勉伯子季興延置紫雲庵。日試其藝。保勉父子呼爲湯神。奏授華定水大師上人. 目曰乳妖。(『천명록』 <유요>)
116) 茶色貴白.(『다록』)

것으로 이것으로 사방 한 치의 새로운 고형차를 만들어 그 위에 꿈틀거리는 작은 용무늬를 새겨 용원승설차 라고 했다. 117)

투차는 차도구 특히 다기(茶器)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 『다록』의 <다잔(茶盞)>의 내용을 보면 차색과 잔의 색이 언급되어 있다.

차는 백색이고 잔은 흑색이 좋다. 건안의 잔은 검게 만든다. 문양은 토끼털이고 잔은 약간 두껍다. 협잔 하면 오랫동안 따뜻하고 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다른 지역에서는 자색을 사용하는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 청백잔은 투시가들이 사용하지 않는다. 118)

백차에 어울리는 흑잔에 토끼털 문양을 넣고, 오랫동안 따뜻하도록 약간 두꺼운 잔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청백잔은 투차에서 사용하지 않았다. 백차가 가장 돋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차기구의 제작은 더욱 정교해지고 가격도 높아졌다. 요국곤(姚國坤)의 『중국고대다구(中國古代茶具)』에서는

송대 상류인사들의 음차 다구는 당대와 비교하여 특별히 질을 더욱 중시 여기고, 또한 제작은 더욱 정교하고 세밀해졌다.

고 했다. 이러한 차기구로 차를 마시는 송대의 특이한 점차풍은 『대관다론』의 '칠탕법'에서 찾을 수 있다. 무려 다섯 번 물을 붓고 일곱 단계를 거쳐 한 잔의 차를 만드는 방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당, 오대 그리고 송대의 점차법에 관한 기록을 비교하면 당, 오대, 송대로 시대가 변하면서 차 끓이는 방법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했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점차가 정미하니 품평 또한 발달했다. 『묵객휘서(墨客揮書)』의 기록에 채군모의 감별에 대한 기록이 있다.

복당 채엽승이 과거에 등과하여 군모를 불러 소단을 마셨는데 오래 앉아 있으니 다시 손님 한 분이 왔다. 공이 차를 마시고 맛을 보며 왈: 소단 맛이 아닙니다. 반드시 대단을 섞었습니다. 승이 놀라 아이를 불렀다. 아이 왈: 두 사람분의 차를 갈았는데 계속 한 분이 오시니 다시 만들 수 없어 대단을 조금 섞었습니다. 승(채엽승)은 공(채군모)의 감별에 탄복하였다.119)

채군모는 전운사이니 감별에도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송대 투차에는 진향을 살리기

---

117) 始創爲銀線水芽。蓋將已揀熟芽再剔去. 祇取其心一縷. 用珍器貯淸泉漬之. 光明瑩潔. 若銀線然。其制方寸新銙. 有小龍蜿蜒其上. 號龍園勝雪. (『선화북원공차록』)

118) 茶色白. 宜黑盞. 建安所造者紺黑. 紋如兎毫. 其坯微厚. 熁之久熱難冷. 最爲要用。出他處者. 或薄或色紫. 皆不及也。其靑白盞. 鬪試家自不用。(『다록』<茶盞>)

119) 一日. 福唐蔡葉丞秘敎召公啜小團. 坐久. 復有一客至. 公啜而味之曰. 非獨小團. 必有大團雜之. 丞驚呼. 童曰. 本碾造二人茶. 繼有一客至. 造不及. 乃以大團兼之. 丞神服公之明審 (진조규외,1995: 310)

위해 향을 첨가하지 않았으나 공차에는 향을 첨가하였다가 휘종대에 이를 폐지하였다. 당대에는 순수한 차 이외에 파, 생강, 대추, 귤껍질, 수유, 박하 등을 차에 넣고 끓이는 습속이 만연했다. 송대에도 그런 습속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왕수의 『왕씨담록』의 기록을 보면

> 초봄에 새 차싹을 취해 가볍게 굽고 다른 것과 섞어 삶으면 기미가 자연히 회복된다.[120]

고 하였고 또 육유의 『입촉기』에서는

> 건차는 옛날에 쌀가루를 섞었다. 다시 참마를 더했다. 2년(1167-1170)에 와서는 또 닥나무 싹을 섞었다. 차맛은 서로 들어가니 좋고 또 다유가 많다. 오직 매화를 많이 넣으면 기미가 회복되지 않는다. 잘 알지 못하는 바이다. 바꾸기가 어렵다.[121]

고 하였는데 이것은 단차를 만들기 쉽게 하려고 미분을 넣은 것이 아닌가 사료되나 송대에도 여전히 당대 풍습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공하는 차에도 향을 가미했는데 채양의 『다록』에

> 차에는 진향이 있다. 입공(入貢)하는 경우 용뇌와 기름을 조금 넣어 그 향을 돕고자 한다. 건안 민간에는 시차(試茶)할 때 모두 향을 넣지 않는다. 그 진향(眞香)을 빼앗길까 해서다.[122]

고 하였다. 당시의 진공차는 향을 첨가한 것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진공하였는데, 휘종 시기에 황실 공차에 용뇌 등의 향료 첨가를 그만두게 하였다. 건안에서는 초기부터 투차시 진향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 일체의 첨가물을 넣지 않게 되었다.『대관다론』에서 송대에 차를 따서 만들기의 정성과 정교함, 품평의 훌륭함과 차 달이기의 묘함 등이 모두 극치에 달하고 있다는 휘종의 말이 송대 차문화를 대변해 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화려하고 정미한 차문화에 투차가 일조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투차는 제차, 점차, 음차의 수준을 높은 단계로 끌어올렸다.

5) 茶道具

점차법의 변화는 차도구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송대에는 당대에 비해 차도구가 간

---

120) 春初取新芽輕炙. 雜而烹之. 氣味自復(陳組槃외,1995: 305)
121) 卷一 建茶舊雜以米粉. 復更以薯蕷. 兩年來. 又更以楮芽. 與茶味頗相入. 且多乳. 惟過梅則無復氣味矣. 非精識者. 未易察也 (陳組槃외,1995: 343)
122) 茶有眞香. 而入貢者微以龍腦和膏. 欲助其香。建安民間試茶. 皆不入香. 恐奪其眞(『다록』<향>)

편해졌다. 당대의 24기물이 송대에 와서는 『다구도찬』은 12가지로, 채양의『다록』은 9가지로,『대관다론』은 6가지로 변모하였다. 당대 사용한 24기물중 16가지의 차도구는 사라지고[123] 송대에는 침추, 차선, 탕병이 새로이 등장하였다. 탕병이 나온 것은 자차법(煮茶法)이 점차법(點茶法)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찻잔은 도자기가 일반적이었으며 탕병은 황금제가 상품이라 하였고 은, 철, 자기나 돌이 사용되었다. 다롱과 다선은 대나무로 만들었고 탕병, 다연, 다시는 은제품이 많았다.

『다록』『대관다론』『다구도찬』에 소개된 차도구는 제차법부터 기록한 것인지 점차법부터 기록한 것인지의 차이가 있다. 세 권의 다서 저술 연대는 『다록』(1049-53), 『대관다론』(1107), 『다구도찬』(1269)의 순이다. 『다록』, 『대관다론』까지도 50년이 넘게 차이가 난다. 『다록』과 『다구도찬』은 200년이 넘게 차이가 있다. 송대에 차선이 등장하였다고 하였으나 『다록』이 쓰여진 시기 이후다. 『다록』 이후 200여년이 지난 후에 쓰여진 『다구도찬』은 송대 다구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만든 단차를 갈아서 점차하는 모든 다구가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이전에 볼 수 없던 잔탁이 등장했는데 그만큼 차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이며 차솔의 등장은 찻가루가 얼마나 미세했는지를 알게 한다. 차행주는 이전에도 사용하였으리라 짐작되지만 정식 다구의 명칭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차의 정미하고 청결함을 말하려 한 것으로 여겨진다.

세 문헌에 나타난 차도구의 명칭은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그 사용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다. <표5>는『다록』,『대관다론』,『다구도찬』에 기록된 차도구를 정리한 것이다.

<표 5> 송대의 차도구

123) 풍로, 숯광주리, 숯치게, 부젖가락, 솥, 교상, 종이주머니, 물통, 물수머니, 죽협, 차궤, 숙우, 삼태기, 척방, 재방, 도람이다.

차도구	다록(茶錄)	대관다론(大觀茶論)	다구도찬(茶具圖讚)
1. 다롱(茶籠:차찔때)	○		○
2. 침추(砧推:차부술때)	○		○
3. 다금(茶鈐:구울때)	○		
4. 다연(茶碾:차갈 때)	○	○	○
5. 다마(茶磨:차갈 때)			○
6. 수표(水杓:물바가지)		○	○
7.다라(茶羅:체질할 때)	○	○	○
8.다선(茶筅:격불할 때)		○	○
9.다잔(茶盞:다완)	○	○	○
10.잔탁(盞托:다완받침)			○
11.다소(茶掃:차빗자루)			○
12.탕병(湯甁:물주전자)	○	○	○
13.다시(茶匙:휘저을때)	○		
14.다건(茶巾:행주)			○
15.다배(茶焙:차건조)	○		

송대에는 건요에서 생산되는 흑유찻잔인 토호잔이 유행하였다. 이전에는 소수의 귀족들의 요구에 따라 생산하던 것이 송대에 이르러 차와 함께 사회 수요에 의해 생산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도자기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요주요(饒州窯)가 당대는 1곳이고 오대는 2곳이었는데 송대는 12곳이 운영되었고 요주, 익주요(益州窯)의 규모는 이전보다 10배 정도 증가하여 100여개 현(縣)에서 수백 개의 요장(窯場)이 운영되고 있었다(愛宕松男,1978:264;서은미,2005). 금제 차기구도 제작되었는데 서민의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신분에 상관없이 고가의 다구를 구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밀(周密)의 『계신잡지(癸辛雜識)』의 기록에

> 장사(長沙) 다구는 정교함이 천하의 제일이고, (다구를 모두 갖추는데) 백금 300성(星) 또는 500성이 들었고 겉을 은으로 장식한 은제합에 보관하였다.[124]

고 하여 고가의 화려한 차도구를 선호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송대의 도자색은 당대의 당삼채나 청화백자가 아닌 청, 백, 흑색의 단색이 주류를 이루었다. 화려한 색상이 아닌 단색의 다기가 유행한 것은 정행검덕(正行儉德)한 차의 정신과 불교의 검소한 정신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투차의 영향이라 본다.

---

124) 長沙茶具精妙甲天下. 每副用白金三百星. 或五百星. 凡茶之具悉備。外則以大縷銀合貯之"(陳組槃·외,1995:358)

6) 數量單位

차의 수량단위는 구양수 『귀전록』기록에 의하면

> 차의 품질은 용봉을 귀하게 여긴다. 단차라 말한다. 8병을 한 근으로 삼는다. 경력(1041-1048)중에 채군모는 복건의 전운사가 되었다. 소편용차를 만들어 진공한 것이 시작으로 그 품은 정미하다. 소단이라 불렀다. 20병을 한 근으로 한다.

라고 했다. 인종조 부차(賻茶)한 기록에 의하면

> 희령 7년에 정해진 새로운 법에 의하면 재상이 죽었을 경우 납면차[125] 50근, 참지정사는 차 30근, 추밀사는 50근을 하사했다.

라고 하였다. 위의 내용에 납면차는 단차가 확실하며 귀전록에 근거하여 수량을 계산하면 재상에게 대단(大團)을 하사할 경우 400병, 참지정사는 240병, 추밀사에게는 400병을 하사했다는 말이다.
『송회요(宋會要)』권 29에 남송, 고종의 소흥 32년(1162)에 호부(戶部)에서 집계한 주요 산지 생산량이 기록되어 있는데,

> 절동로(浙東路) 1,063,020근. 강남동로(江南東路) 3,759,226근. 형호남로(荊湖南路) 1,125, 846근. 절서로(浙西路) 4,484,615근. 강남서로(江南西路) 5,383,468근 형호북로(형호북로) 905,845근 .

이라고 하였다(김명배, 1985 : 38). 위의 기록으로 보면 이곳의 차가 단차였는지 산차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귀전록』의 기록에 1근의 수량은 대단일 경우 8병, 소단은 20병이라 했으니 그 생산량이 실로 대단했으리라 짐작된다.

7) 皇室의 賜茶

황제에게 바치는 차를 공차라 하며, 진공된 차를 황제가 관료들에게 하사함으로써 자신의 두터운 은혜를 표하는 것을 '사차'라 한다. 이같은 사차의 행위는 특히 어용차원인 관배가 설치되고 공차제도가 정비되면서 관행이 되었다. 양억은『양문공담원』에서

> 요즘 양자강 왼쪽에서 납차의 이름을 들었다. 이씨가 영을 받들어 유로 편을 만들었다. 혹 경정, 적유, 골자 등으로 부른다. 매해 5,6만근에 불과하고 오늘날

---

125) 원래 랍면차(蠟面茶) 였다가 납월(臘月)에 싹을 따서 진상하게 되어 납면차(臘面茶)라고 이름하였다.

매년 30여 만근이 나온다. 십품 에는 용차, 봉차, 경정, 적유, 석유, 두금, 백유, 납면, 골자, 차골이 있다. 용차는 수레에 실어 천자에게 바쳐지고 집정(執政), 친왕(親王), 장주(長主)에게 하사되고, 황족이나 학사(學士) 장수에게는 봉차가 주어지며 사인(舍人)[126]과 근신에게는 경정차와 적유차가 하사되고, 백유차는 관각(館閣)에게 하사된다. 용봉 석유차는 모두 태조 명령으로 만들었다. 강좌(양자강 하류남쪽)에서는 연고차를 임금께 바친다. 이것은 용차지품이다. 십품의 차생산량은 극히 적어 일반인이 마실 수 있는 차가 아니었다.[127]

고 하였다. 비록 위의 기록이 태종 때의 것이지만 공차는 10등급으로 나뉘어졌고, 종족 · 관료의 순위에 의해 하사된 차의 등급에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차의 관례가 친왕 · 근신 · 대신 · 장수에게만 행해진 것은 아니었다. '사차'는 여러 문헌에 산재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송태조 부터 철종 때까지 7帝동안 행해진 사차의 예를 『속자치통감장편(續資治通鑑長編)』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사차'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아래 <표 6>과 같다(오원경, 1996 :29 재인용).

<표 6> 황실의 사차(賜茶)

제호	연대				사차대상자	출처
太祖	乾德 元	(963)	4月	11日	湖南行營將士(將士)	卷 4
	2	(964)	正	28	京城役兵(將士)	5
	3	(965)	4	25	西川行營將士(將士)	6
	4	(966)	3	14	沿邊將士(將士)	7
太宗	太平興國					
	5	(980)	10	24	沿邊行營將校(將士)	21
	淳化 5	(994)	10	初2	西夏李繼遷(異民族)	36
眞宗	咸平 2	(999)	12	13	澶州父老(庶民)	45
	4	(1001)	11	27	西蕃諸族(異民族)	50
	5	(1002)	正	19	西夏李繼遷部下外46人(異民族)	51
			6	初3	豊州團練使王承美(異民族)	52
			8	23	河西藩部指揮使外(異民族)	52
					六谷首領博囉齊(異民族)	53

126) 고려시대 정4품(正四品) 벼슬을 지낸 사람이다.

127) 江左近日方有蝎(蠟)面之號。李氏別令取其乳作片. 或號曰京挺, 的乳, 及骨子等。每歲不過五六萬斤. 迄今歲出三十餘萬斤。凡十品. 曰'龍茶, 鳳茶, 京挺, 的乳, 石乳, 頭金, 白乳, 蝎面, 頭骨, 次骨'。龍茶以供乘輿. 及賜執政, 親王, 長主, 餘皇族, 學士, 將帥皆鳳茶. 舍人, 近臣賜京挺, 的乳. 館閣賜白乳。龍, 鳳, 石乳茶. 皆太宗令造. 江左有姸膏茶供御. 卽龍茶之品也 (호자『초계어은총화』후집 권11)

			11	初3	京城老人祝道嵒(庶民)	53
			12	22	藩部牛羊蘇家等族(異民族)	54
		6 (1003)	2	28	靈· 夏 · 綏等州蕃族(異民族)	56
	景德 元	(1004)	2	初2	西涼府六谷首領斯多特(異民族)	59
	2	(1005)	2	初8	西夏趙德明(異民族)	60
			6	18	契丹主異民族(異民族)	61
			10	11	密鄂克延家碩克威等族(異民族)	63
	3	(1006)	5	28	西夏趙德明異民族(異民族)	64
			10	初8	西涼府六谷首領斯多特(異民族)	66
	4	(1007)	9	24		
	大中祥符					
	元	(1008)	10	26	泰山父老(庶民)	70
	3	(1010)	6	初3	汝州防禦使高文岯(將士)	73
	4	(1011)	2	26	隱士鄭隱 · 李寗(僧道)	75
				27	承天觀道士柴通元(僧道)	75
			16	初2	知河南府憑拯(大臣)	76
仁宗	天禧 元	(1017)	6	初5	西京父老年八十者(庶民)	90
			8	병인삭	陽翟縣僧懷嶠(僧道)	90
	天聖 元	(1023)	3	13	西京父老年八十者(庶民)	100
	3	(1025)	正	12	總喝爾埒克遵(異民族)	103
			4	初2	漢州德陽縣均渠鄉邑民張勝(庶民)	103
	明道 2	(1033)	3	初8	幸洪福寺,還賜道旁耕者(庶民)	112
	景祐 元	(1034)	4	初5	三路綠邊郡署 ·鈐轄 · 將校(將士)	114
	寶元 元	(1038)	12	23	邈川首領嘉勒斯賚(異民族)	122
	康定 元	(1040)	7	初4	戌邊諸軍在營家屬將士(將士)	128
	慶曆 3	(1043)	4	初6	西夏主趙元昊異民族(異民族)	140
	4	(1044)	10	初2	西夏主趙元昊(異民族)	152
			12	初8	西夏主趙元昊(異民族)	155
	至和 元	(1054)	4	16	吐藩首領轄戩외 2名(異民族)	172
英宗	治平 元	(1064)	6	17	邈川首領嘉勒斯賚外異民族(異民族)	202
神宗	熙寧 5	(1072)	5	14	摩正弟董谷以下諸首領(異民族)	233
	元豊 元	(1078)	7	25	邈川首領董戩(異民族)	290
	3	(1080)	2	23	潁昌符父老(庶民)	304
			6	初7	邈川城主會州團練使外(異民族)	305
	5	(1082)	2	21	邈川首領董戩	
					進奉使李察勒沁(異民族)	323
			12	14	劉摯奉使契丹(大臣)	330
	7	(1084)	4	23	朝獻景靈宮從官(大臣)	345
哲宗	元祐 元	(1086)	2	28	邈川首領鄂特凌古(異民族)	367

			6	21	邈川進奉大首領李沙勒瑪(異民族)	380
	4	(1089)	正	27	溫錫沁妻轄索諾木布摩(異民族)	421
	6	(1091)	10	初4	宰臣 ·執政官及三省編修官(大臣)	467

오원경(1996:29-30)은 태조 건덕 원년(963)부터 철종 원우 6년(1091)까지의 7황제 약 130년 동안 실시된 '사차'의 건수를 문헌『장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여 통계를 냈다. 위의 통계 전체는 모두 51건으로, 이민족 28건, 장사 8건, 서민 8건, 승도 3건이다. 황제의 '사차'가 대신, 관료들뿐 아니라 서민 · 승도에게도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민족에게 행해졌던 사차의 건수가 무려 28건으로 전체 중에서 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당시 북송조가 북방의 이민족에게 차를 이용하여 외교를 펼치고 회유정책을 펼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예로 '한장다마무역'을 들 수 있다. 차는 당시 변방의 통치와 안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정치, 경제적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외교 등 여러 방면에서 정치적인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이용하였다.

8) 官 士 民 寺의 飮茶類

(1) 황실의 차문화

송대에는 황실을 위한 공차제도가 있었는데 차의 고급화와 사치가 극에 달했다. 『선화북원공차록』의 용원승설차는 왕실을 위해 만들어진 진공(進貢)차이고 이러한 공차의 종류는 『선화북원공차록』과 『북원별록』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100가지가 넘는다. 공차의 수량에 대해 『선화북원공차록』의 기록을 보면

> 건주북원 공다의 수량은 초기에 극히 적었는데 계속 증가하여 원부년간(1098~1100)에 18,000근으로 초기에 비해 수배로 증가하였지만, 아직 성행하지 않았다가, 지금(선화년간:1119~25)에 이르러 즉 47,100편에 달하였다,[128]

또한

> 성조(즉 송조) 개보말 하남당, 태평흥국초에 이르러 특별히 용봉모를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 북원에서 단차를 제조케 함으로써 일반 서민들이 마시는 것과 구별을 하였다. 그리하여 용봉차는 대개 이에서 시작하였다[129]

고 했다. 태종 때 강남이 평정되면서 북원은 송조의 통치 관할 하에 들어오게 되었고, 송조는 태평흥국초년에 비로소 관리를 파견하여 특별히 진공차인 용봉차를 제조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후 공차의 품종개량과 신품종 개발의 주력으로 공차의 등급과 종류

128) 貢數殊少累增至元符. 計者一萬八千。視初已加數倍. 而猶未盛。今則爲四萬七千一百片 (『선화북원공차록』)
129) 聖朝開寶末. 下南唐。太平興國初. 特置龍鳳模. 遣使卽北苑造團茶. 以別庶飮。龍鳳茶蓋始于此(『선화북원공차록』)

는 상당히 다양해졌다.
송대 공차의 번성은 휘종 시기가 전성기로 역대 제황 중 휘종만큼 차를 즐긴 사람이 없었다. 다서인 『대관다론』을 지을 정도였다. 휘종 선화시 북원 공차의 양은 약 47,100근으로 철종 원북(18,000근)시의 2.6배였고, 인종(15,860근)시의 3배였으며, 위에서 언급한 당 건중 2년(3,800근)에 비해서는 무려 13배 정도의 수량이 진공되었다.
태평흥국 2년 북원에서 공차가 제조되기 시작된 후 진공되는 제품은 전운사인 채양, 황유, 여혜경, 웅번, 조여려 등에 의해 생산된 용봉단(大龍團)· 소용단(小龍團)· 밀운룡(密雲龍)· 서운상룡(瑞雲翔龍)· 백차(白茶)· 삼색세아(三色細芽)· 시신과(試新銙)· 공신과(貢新銙) 등이 있었는데 여기에 신품이 계속 잇달아 제조되어 휘종시에는 공차가 89품목이었고, 궁정으로 운반되는 차의 운송조직인 '강'의 순서도 세색오강과 추색칠강을 합하여 12강이 조직되어 여름까지 진공이 계속되었다. 이와 동시에 진공의 시기도 앞당겨져 결국 휘종 때에는 중춘(음력 2월)에 최초의 제1강이 경사인 개봉에 도착되었는데 이를 '두강(頭綱)'이라 했다. 개봉에 도착된 공차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양수 『귀전록』에

> 소단이라 불렀다. 20병을 한 근으로 한다. 그 가치는 금 두 냥이다. 금이 있어도 차를 얻을 수 없다. 매년 남교치 재각 중서추밀원에 각 일병씩 하사하면 4인이 나누었다 130)

고 하였다. 또한 방원영(龐元英) 『문창잡록(文昌雜錄)』의 기록을 보면

> 해마다 진공하였는데 올해는 남교의 대례로 종실 가까운 신하에게 나누어 하사했다131)

고 하여 대개 일반적으로 먼저 종묘에 봉납된 후 천자의 옥식으로 제공되고 외척에게 하사되었으며 그 외에 차 소비 중의 많은 양이 사차의 용도로 쓰였다. 왕의 사차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가장 좋은 차는 재각이나 제례에 하사하여 조상을 받들고 신께 제사 드리는 모범을 보여 신하들로 하여금 황제를 공경케 했다. 둘째, 차는 음료가 아니라 왕의 정치적인 도구이며 나라의 경제를 담당하는 물품이었다. 왕이 고급차를 만들어 신하에게 하사함으로써 신하는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되는, 결국 군신간의 의리를 조성하는 정치수단의 역할을 담당했다. 셋째, 궁중에서의 차생활은 궁중의 생활양식이 사회적으로 파급되기 시작한 요인이 되었다. 황실에서 마시는 차가 귀족이나 관료에게 하사되어 이것이 왕실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넷째, 외국사신과 주변 이민족에게의 사차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왕의 외교정책으로 쓰였다. 후에 이민족을 상대로 차와 말을 바꾸는 다마무역(茶馬貿易)으로 발전하게 되어 국방과 나라세원에 도움이 됐다.
황실에서의 차는 단순한 음료 그 이상으로, 정치적으로는 군신간의 충성을 맹세하며 경제적으로 나라의 세원을 담당하고, 외교적으로는 차를 예물로 사용하게 하고 다마무역으

---

130) 茶之品莫貴于龍鳳. 謂之團茶. 凡八餅重一斤. 慶曆中. 蔡君謨爲福建路轉運使. 始造小片龍茶以進. 其品絶精. 謂之小團. 凡二十餅重一斤. 其價直金二兩. 然金可有. 而茶不可得. 每因南郊致齋. 中書樞密院各賜一餅. 四人分之(『四部備要』,1965)
131) 頗如歲進者. 是年. 南郊大禮. 多分賜宗室近臣.(陳組梁외,1995:315)

로 군마를 보충하고 이민족을 다스리며 변방을 지킬 수 있게 했다. 황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치적인 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2) 사대부 차문화

궁정에서의 차문화와 사차문화는 귀족뿐만 아니라 사대부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문인 사대부들의 생활양식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

이차대주(以茶代酒)라 하여 손님을 접대할 때 술 대신에 차를 대접하기 시작하였고 문학 정서를 풍부하게 하는데도 차가 큰 기여를 하였다. 일반사람들도 다관(茶館, 茶肆 茶坊)에서 차를 마시고 담소를 하며 휴식을 취했다. 또한 황실에서부터 사대부들에게까지 투차가 하나의 의례적 행사가 됨으로써 그 형식이 더욱 정교해지고 고아해졌으며, 다구의 발달을 가져와 건잔(建盞)과 같은 훌륭한 찻잔을 탄생시켰다. 제차법의 기교는 뛰어나고, 많은 다서의 등장은 차나무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였다. 또한 사대부들은 황제의 하사품인 차를 귀하게 여겼다. 왕벽지(王闢之)의 『민수연담록(澠水燕談錄)』의 기록을 보면

> 인종은 아끼고 진귀하게 여겼다. 비록 재상과 신하는 하사하여 맛보지 못하였으나 교례제사에 보냈다. 양부각 4인에게 1병씩을 하사했다. 궁인들이 금을 잘라 용봉화를 그 위에 붙였다. 8사람이 나누어 두고 기이함을 완상하며 감히 시음하지 못했다. 가객이 있으면 가지고 나와 구경시켰다.[132]

왕이 하사한 차는 완상품(玩賞品)이지 음료가 아니었다. 황실의 '사차'는 황실문화가 사대부에게로 전해진 것이나 다름없어 그들의 시에는 차에 대한 것이 많았고 선물로 받은 차에 대한 감사와 진귀하고 좋은 차에 대한 것 등이 시의 소재가 되었다. 사대부들의 투차 풍습은 대단한 열풍을 일으켜 모든 계급으로 퍼졌는데 북송 범중엄(范仲淹)이 쓴 <화장민종사투차가(和章岷從事鬪茶歌)>라는 시를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 숲에서 나리들이 먼저 차의 우열을 가린다네
> 수산의 구리로 만든 차 풍로에는 구름이 조각되어 있고
> 찻병에는 진강중령천의 물을 가져온 거라네
> 맷돌가에는 찻가루 날리고
> 흑유다완에는 흰 물결 일어나네
> 맛을 겨루니 제호(醍醐)보다 부드럽고
> 향을 겨루니 난지(蘭芝)보다 은은하다
> 그것들의 등급을 어찌 속일 수 있으랴
> 열 개의 눈이 열 개의 손가락을 지켜보는데
> 이기면 그 기상이 등선(登仙)처럼 하늘을 날 듯 하고
> 진차면 그 심경이 패장처럼 부끄럽다네.(陳彬藩,1999:136)

---

132) 仁宗尤所珍惜. 雖宰臣未嘗輒賜. 惟郊禮致齊之夕. 兩府各四人共賜一餅. 宮人翦金爲龍鳳花貼其上. 八人分蓄之. 以爲奇玩. 不敢自試. 有嘉客出而傳玩.(陳組槃외,1995:318)

투차에서 이기면 신선이 되고, 지면 패장이 되는 것으로 비유한 것을 보면 송대의 사대부들이 투차에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를 알 수 있다. 사대부들의 이러한 놀이문화는 성도에 있는 다관에 모여 도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점차 확산되었다.

(3) 서민들의 차문화

다관을 통해서 사대부의 음차풍습이 퍼지고 다관을 출입하는 모든 이들이 음차생활을 교류하게 되었다. 당대(唐代) 봉연(封演)이 쓴『봉씨문견록(封氏聞見錄)』에 의하면

> 많은 점포들이 문을 열고 차를 끓여 팔았는데 도속[133](道俗)을 불문하고 모두 돈을 내고 차를 마셨다.[134]

고 하여 당대부터 신분을 불문하고 거리의 상점에서 차를 사서 마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곳에 모인 손님들의 계급, 직업, 신분에 누구도 구애받지 않았고 자연히 다관은 사대부와 서민의 문화교류 장소가 되었다. 또한 다관에서 모두 돈을 내고 차를 마셨다는 것은 서민들의 경제가 어렵지 않았다는 뜻도 된다. 차는 서민들에게 음료 이상의 계급간의 소통 통로이고 만남의 매개물이었다.

또 다른 기록으로 오자목(吳自牧)의 『몽양록(夢粱錄)』에서도

> 대부분의 사람들 집에 매일 필요한 것은 땔감, 쌀, 기름, 소금, 술, 간장, 식초, 차다(郭孟良, 2003:77).

라고 하여 차가 서민생활의 필수품의 하나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차는 서민에게도 매일 마셔야 하는 음료가 되었다.

(4) 사원의 차문화

중국에 최초로 전래되었을 무렵 불교는 궁중이나 귀족들의 자손번창과 국가안녕 및 자신들의 복을 비는 기복적인 종교였다. 이후 선종불교가 들어와 당대 차문화를 급속히 발전시킴은 물론 차풍(茶風)을 중국 전역으로 확산 유행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선승(禪僧) 교연(皎然)이 최초로 '다도'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부터 중국의 음차문화는 일반적 기예에서 고도의 정신적 경지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송록(宋錄)』에서는

> 신안왕(新安王)인 자란(子鸞)과 예장왕(豫章王)인 자상(子尙)이 팔공산의 담제 도인(曇濟道人)을 참예하였다. 도인이 차를 베풀자 자상이 이를 맛보고 말하길,

133) 승려와 민간인을 말한다.

134) 多開店鋪 煎茶賣之 不問道俗 投錢取飮.

이것은 감로(甘露)요 어찌 차(茶)라고 하리까?[135]

라고 하였다. 이러한 문헌의 기록(남조 송나라 때의 기록)들은 대략 위진남북조 시기에 이미 승려들 사이에서 음차풍습이 널리 형성되었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당나라의 차문화를 정착한 육우도 어릴 적 교연스님 밑에서 차 심부름을 하였다. 후에 그가『다경』에서 차의 정신을 '정행검덕(正行儉德)' 이라고 한 것도 불교의 수행에서 기인된 것이다. 사찰에서의 음차생활은 수행과 관련이 있었는데 참선 수행 중에 정신을 맑게 하고 잠을 적게 하는 차의 효능이 그들의 수행에 도움을 주었다. 수행 이외에도 하루 두 끼 식사만이 허락된 승려들의 계율이 차를 마시게 했는데 본래 참선수행 중에는 일체의 간식을 금지하고 있으나 차 마시는 것은 허락하였다(왕령,1995: 35). 간식은 계율을 어긴다하여 금지되었지만 간식은 '약석(藥石)'이라 하고 다식은 '다약(茶藥)'이라 하여 계율을 어기지 않고 음식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이었다(孔令敬,2002:58).

당송(唐宋) 때에는 불교 사원에서 대규모의 차연(茶宴)을 자주 거행하였다.[136] 당시의 차연에서는 주로 불경과 다도를 이야기하고 시를 짓고 읊기도 하였다. 이것은 차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민간다례의 형성에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조정의 다의(茶儀)가 형식이 복잡하고 어려운 반면, 불교 선원(禪院)의 다례는 그 형식이 요점적이고 간결하여 일반 백성들이 쉽게 다가가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남방에서는 거의 모든 사원 주변에 직접 차를 심고 재배했다. 사천성(四川省) 아안(雅安) 몽산(또는 蒙頂山)에서 생산되는 몽산차(蒙山茶)는 '선차(仙茶)'라고도 하는데 당시 승려들이 차를 기호(嗜好)하는 정도가 어떠했는가를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다(박영환,2006:104). 중국의 불교사원에서는 차를 심고 재배하고 만드는 기술이 독특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음차에서부터 다도까지도 매우 연구적이었다.

사찰 안에는 '다당(茶堂)'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선승들은 전문적인 불교 교리에 대한 각자의 변론을 펼치기도 하고, 또 속가의 시주들을 초대하여 대접하기도 하며 차향을 음미하고 차를 품미(品味)하였다. 법당 안에는 '다고(茶鼓)'가 있어 승려들에게 음차소집을 알릴 때 두드리는 북으로 사용하였다. 이밖에도 사원 안에는 '다두(茶頭)'가 설치되어 있어 물을 끓이고 차를 달여 손님에게 대접하였다. 아울러 사원의 문 앞 일주문 밖까지 약간 명의 시차승(施茶僧)을 보내어 사람들에게 차를 대접하도록 하였다. 사원에서 직접 생산을 했든 외부에서 반입된 차든 간에 사원 내에서 마시는 차를 모두 사원차라고 하며 『만구지(蛮甌志)』에 따르면 그 용도는

각림원(覺林院)의 지승은 삼등급의 차를 수확한다. 손님에게 경뇌협을 접대하

135) 新安王子鸞, 豫章王子尙. 詣曇濟道人於八公山. 道人設茶茗。子尙味之曰. 此甘露也. 何言茶茗? (육우『다경』. 칠지사 <송록(宋錄>)

136) 오자목, 『夢梁錄』권19, <社會>에 남송 임안부의 사원에서 축일에 '다탕회'라 하여 대중에게 '차탕'을 대접하는 의식이 있었다 (박영환,2006:104).

고 자신은 훤초대를 마시며 자용향은 부처님께 공양한다. 137)

고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많은 불문성지(佛門聖地)와 명산대찰 주변에는 대부분 차나무가 심어져있고, 승려들이 직접 찻잎을 따고 만들어 왔으며 이러한 관습은 오래도록 이어져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불교 승려들의 오랜 음차습관은 무수한 고령의 승려들의 장수 비결과도 결코 무관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북송 전이(錢易)의 『남부신서(南部新書)』에

> 대중3년 (1010) 동도(어전)에 한 승려가 나아갔는데 나이가 120살 이었다. 선황(진종)이 무슨 약을 먹어 이와 같은가 물으니 승 왈: 신은 천하고 가난하여 약은 모릅니다. 본성은 차를 좋아합니다. 오직 차를 구하여 마십니다. 나가면 하루에 100여잔 마십니다. 항상 하루에 4, 50잔을 마십니다. 왕은 차 50근을 하사했다. 138)

는 기록이 있다. 차를 심고 재배하기, 음차습속의 확산, 차문화의 대외적인 전파와 보급 등 모든 분야에서 불교가 차에 미친 공헌은 실로 지대하다 할 수 있다. 이렇듯 차와 불교의 불가분의 관계에서 차는 불교와 결합하여 승려들에게는 수행의 도구로 일반인에게는 포교의 도구로 그 역할을 다했다.

9) 白茶

차의 고급화와 다양화는 송대에 최고에 달했는데 백차는 단지 휘종황제가 귀히 여겨 백차가 차중의 최고의 자리에 머물게 되었다. 백차는 녹차의 별종으로 나라에 몇 그루 있지 않았다. 백차는 투차의 풍습과 결합되어 빠르게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었고 백차의 선호는 제차법에 영향을 주어 차의 고를 다 짜내어 버리고 물에 담가 씻고 며칠 밤을 씻고 말리기를 반복하여 차의 엽록소를 제거하고 차의 쓴 맛을 (카페인이 다 빠져 버려서) 없앴다. 이 모든 과정이 백차와 가깝게 하려한 제차법이다.

백차에 대한 기록은 『선화북원공차록』의

> 대관 (1107-1110)초년에 이르러 휘종께서 친히 다론 20편을 지으사 백차는 보통차와는 달라서 우연하게 생긴 것이지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셔서 백차가 마침내 첫째가 되었다.139)

라는 기록은 차맛이 아닌 색깔과 희소성이 귀한 백차를 선호하게 된 과정을 보여준

---

137) 覺林院志崇收茶三等。. 待客以驚雷莢. 自奉以 萱草帶. 供佛以紫茸香. 蓋最上以供佛(초의 『동다송』) 覺林院的僧人待客中等茶、自奉以下等茶、供佛以上等茶 (육우 『다경 』<칠지사>)

138) 大中三年. 東都進一僧. 年一百二十歲. 宣皇問服何藥而至此. 僧對曰. 臣少也賤. 素不知藥. 性本好茶. 至處唯茶是求. 或出亦日遇百餘椀. 如常日亦不下四, 五十椀. 因賜茶五十斤.(陳組槃외,1995: 304<卷辛>)

139) 至大觀初 今上親製 [茶論]二十篇。以白茶與常茶不同. 偶然生出. 非人力可致. 於是白茶遂爲第一 (『선화북원공차록』)

다. 채양의『다록』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 차의 색은 백색을 귀히 여긴다.
> 점차한 차의 색은 백색이고 잔은 수흔이 잔에 달라붙지 않으면 정말 아름답다.[140]

또 백차의 선호는 도자기 산업에 영향을 미쳤는데 송대는 건요(建窯)가 가장 대표적인 곳이었다. 건요는 흑자(黑磁)의 생산지로 흑유찻잔(黑釉茶盞)인 토호잔(兎毫盞)을 생산하였는데 백차의 색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로 건요의 흑자는 송대 투차와 연결되어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다.

백차의 가치를 논한 매요신[141]의 왕중의기투차(王仲儀寄鬪茶)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白乳葉家春　백유는 섭씨집 봄차요
> 銖兩直錢萬　두푼 값이 만전이라
> 資之石泉味　돌샘이 도우니
> 特以陽芽嫩　특별히 양선의 움이라
> 宜言雜購多　많이 섞인 것 구입 했다고 말하나
> 串片大可寸　싹은 커도 1촌이다.
> 謬爲識別人　잘못됨을 식별할 줄 알면
> 予生固無恨　내 생에 진실로 한이 없으리.

이 시에 백차가 민가에 몇 그루 있었는데 왕씨 집과 섭씨 집에 있었다고 한다. 백차의 가치가 두 푼에 만전이니 당시의 백차의 가치를 알 수 있겠고 감별을 중시한 시인의 의중이 드러난다.

10) 茶法

차는 당대부터 과세의 대상이 되었다. 송대에 와서는 국가의 전매품으로 확대되면서 소금, 철과 함께 국가의 주요 세원이 되었다. 또한 차는 사차를 통하여 통치의 수단이 되고 이민족과는 외교의 도구였으며 국가의 정치 군사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안사의 난후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정부는 건중연간(建中年間:780-83) 호부시랑(戶部侍郎) 조찬(趙贊)의 건의로 차를 과세의 대상으로 삼았다. 차세는 흥원원년(興元元年:784)에 일시적으로 폐지되었으나 다시 감철사(監鐵使) 장방의 건의로 다시 징수되었다. 목종(穆宗) 장경년간(長慶年間:821) 전국 차의 세율이 50% 증가하여 세수는 늘었지만 차가

---

140) 茶色貴白. 而餅茶多以珍膏油其面 (『다록』<색 >)
141) 北宋・梅堯臣 (1002-1060) 다시(茶詩)를가장 많이 쓴 시인이다.(陳組槃외,1995: 306)

미염(米鹽)과 같아서 하루라도 없으면 안 되는 일반인들에게는 큰 타격이 되었다. 신하들의 다세 인하의 간언에도 불구하고 문종(文宗) 태화(太和) 9년(835)에 왕애(王涯)의 건의에 의해 차의 전매제도인 '각차법(榷茶法)'이 실시되었다. 정부는 강남 민간소유의 다원을 전부 정부 경영으로 전환하고 그 가격을 참작하여 가치를 보상할 것을 명하였다. 그리하여 민간의 다수는 모두 정부가 수매하였고 정부는 수매한 민간의 다수를 관장으로 옮겨 심고 재배하여 이후 차리는 정부에 의해 독점되면서 차는 국가 재정상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이 같은 칙령이 내려진 후 민간에서는 다수 이식이 금지되었고 이미 저장되었던 다엽은 모두 불에 태워 보유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강남의 다수는 거의 다 파괴되고, 파산한 차산주(茶山主)와 작방주(作坊主)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오원경, 1996:61).

송대의 다법은 각차법(榷茶法)과 통상법(通商法) 두 종류였다. 두 다법은 엄격한 행정구역이 있으며 구역을 벗어날 수 없었고 벗어나면 벌을 받았다.[142] 각차법은 차의 생산, 운반, 판매가 정부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며 통상법이란 정부가 상인에게 차를 매도할 때 장사꾼들이 돈이나 황금, 비단을 주고 13개 산장(山場)[143] 과 6개 각화무(榷貨務)에서 차를 불하 받는 것이다. 13개 산장에는 차를 재배하는 원호(園戶)[144]들이 있고 원호들이 일정량의 차를 나라에 현물세로 바치는데 남으면 나라에서 모두 수매하였다. 후에는 차인(茶引)[145]을 가진 장사꾼과의 거래는 허용하였다. 이러한 차 전매 목적은 지방과 정부의 재정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 『문헌통고』의 기록에

> 무릇 차의 영리(營利)는 첫째 관이 판매하여 주현의 재정을 實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연변의 양초(운송) 중에 넣어 계산하면 보내는 운반비를 줄이는 것이며, 셋째는 각화무로 입납되는 금,은전 비단으로 계산하여 경사의 재정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다[146]

고 기록된바 차 전매는 주, 현과 경사의 재정을 돕는 것이었다. 차 전매제도의 또 다른 목적은 거란과 서하의 국경수비대의 군비조달을 위한 것이었다. 국가의 재정 및 군비의 도움 말고도 차 전매는 차를 이용하여 이민족의 외교에 유리한 고지에 있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이민족들도 음차풍습에 젖어 차를 마시기 위해서는 무역을 해야만 했고 차와 맞바꿀 만한 것은 말이었다. 다마무역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정부가 차를 전매하여 이민족이 차를 사려면 나라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하였다.

송대는 당대에 비해 차의 세원으로서의 가치가 훨씬 중시되어 전매제도는 8세기 이후부터 국가의 세차와 전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송대에 제도적인 완비단계에 도달하였다. 송대 완비된 제도는 그 후 명청대(明淸代)에 이르기까지 제도적인 틀이 더 강화되고 유지되었다.

---

142) 『중국대백과전서』(1992: 66)

143) 13산장은 모두 淮南지역에 설치되었는데 黃州의 麻城, 蘄州의 洗馬, 石橋, 王祺 壽州에 작山, 麻步, 開順 光州에 光山, 商城, 子安 舒州에 羅原, 太湖 盧州에 王同으로 13곳의 산장을 두었다.

144) 국영차밭에 속한 농사꾼을 말한다.

145) 차 장사꾼이 세금을 내고 받는 허가증을 말한다.

146) <榷茶> 凡茶之利, 一則官賣以實州縣, 一則沿邊入中粮草, 算請以省餽運, 一則榷貨務入納金銀錢帛, 算請以贍京師 (陳祖槃 외,1995:602)

송 조정에서 형성된 제도의 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송대가 차 전매의 재정적 군사적 필요성 뿐 아니라 말 구입의 필요성에 따라 다마무역 및 차 전매의 운영이 어느 때보다도 중시되었던 때이므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 제도가 완비되었다는 데 있었다. 송대의 다법은 시기와 지역, 시행 대상을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전매시행에 있어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송 조정은 일정 지역산(地域産) 차를 대상으로 하거나 일정 지역을 제외시키거나 하였던 것이다.

각차법(榷茶法)은 지역별로 동남다법(東南茶法), 사천다법(四川茶法), 수마다법(水磨茶法)이 시행되었다. 그런데 관이 차를 살 때와 팔 때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남으로써 관의 폭리가 심했다. 편차 상등품의 경우 구입가는 205전이었으나 판매가는 917전이었으므로 무려 4배 가까운 폭리를 취한 것이다. 박영환(2003:40)은 이러한 송대 관원들의 차폭리 비리사건들은 명대에 와서 '차발마제도(差發馬制度)[147]'와 '금패신부(金牌信符)[148]'가 탄생 하는데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참고할 때 한때 송나라 전매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가 차지하였다(소금, 철 전매 수입을 상회). 송대 다법이 시행된 것은 차가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고, 군인들의 군비를 충당했으며 외교관계에서 중요한 외교수단으로서 변방의 통치와 안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정치 경제적 수단이었을 뿐 아니라 나라의 중요한 재원이었다.

11) 茶馬貿易

차가 나라의 세원으로서의 역할도 컸지만 정치적으로 이민족을 다스리는데 더 큰 공헌을 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다마무역이 있었다. 다마무역은 청해(靑海), 감숙(甘肅), 사천(四川), 서장(西藏) 등지의 소수민족에 대한 마필(馬匹)의 정책과 무역제도다. 송 신종 희령7년(1074) 다마법이 행해졌다.[149] 다마무역의 기원은 토번(吐蕃: 지금의 티벳)[150]왕국이 수시로 당의 변경을 침략하여 당나라 왕실의 공주와 혼인할 것을 요구하니 이를 허락한 당태종은 정관(貞觀) 15年(서기641년)에 문성공주를 토번의 대왕인 송찬간포(松贊干布)에게 출가를 시켰으며, 이 시기는 바로 중국 내지(內地)의 차가 티벳으로 전파되는 시기이며, 바로 티벳인의 음차기원이 비롯된 시기이다.

그 후 경룡(景隆) 원년(서기707년)에 당중종이 금성공주를 토번왕국으로 다시 출가

147) '차발(差發)'은 부렴(賦斂), 즉 부세(賦稅)를 의미한다. 명나라는 바로 이 '차발마제도'를 통해 티벳인들에게 말(馬)을 세금으로 상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서 차(茶)를 하사품으로 주었다.

148)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마패(馬牌)의 성격과 흡사한 것으로서, 티벳 각 부족의 수령과 승려들에게 발급해 주었다. 티벳의 각 부족들이 변방으로 파견된 관원들에게 말을 상납하거나 차를 하사받을 때 자신의 금패와 관원의 것을 반드시 대조하도록 하였다.

149) 중국대백과전서(1992), 69p

150) 티벳을 당송대는 토번, 원명대는 오사장(烏思藏), 청대이후는 서장(西藏:) 이라한다.

시킴으로써, 양국의 관계는 그야말로 아주 밀접한 구생(舅甥: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시작된 한장(漢藏)의 역사는 한장다마무역의 관계를 통해 일천여 년 동안이나 일관성있게 진행되어 온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다.

'한장다마무역(漢藏茶馬貿易)'[151]이란 바로 티벳인(西藏人)들이 말(馬)이나 기타의 토산품을 이용하여 중국 내지(內地)에서 생산되는 차(茶)를 교환해 간 일종의 '물물교역'형식의 경제활동이었다. 교역의 처음엔 주변 이민족이 필요한 것은 비단이었고 당나라는 초원의 말이었다. (賈大泉,陳一石,1988:68;서은미,1999:130)는 말과 비단이 교역되어 '견마무역(絹馬貿易)'이었다가 내지에 차가 많이 생산되고 비단의 소비는 한계가 있어 대체물품으로 비단대신 말이 되었다고 하였다.

당대 이래, 중국은 군마의 중요성과 그 수요에 대한 인식이 절박해지면서부터 서북 변방민족에 대해 '이차역마(以茶易馬:차로써 말을 바꾸다)'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시행하게 된다. 송대에서는 티벳과의 접경지역에 다마사(茶馬司)를 건립하고 '다법'을 제정하여 차(茶)의 판매를 국가의 전매로 하는 '각차법'을 실시하였다. 이는 송나라의 시급한 군마의 문제를 해결해 줌과 동시에 날로 그 세력을 팽창해가는 티벳을 회유하여 서북 변방의 안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수입에 있어서도 한 몫을 하게 된다.

명대는 역대 '한장다마무역'의 최고 전성기로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세밀함을 보였는데 차발마제도(差發馬制度)의 건립과 금패신부(金牌信符)의 제작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이는 당송 때에 있었던 단순한 물물교역형태와 다마호시(茶馬互市)의 다마사제도(茶馬司制度)가 아닌 부세(賦稅)의 제도로서 티벳의 각 부족에게 조공이 아닌 부세의 의무를 떠맡기는 획기적인 제도였다.

명나라는 차상(茶商)들이 개인적으로 차를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시키는 '사차금지(私茶禁止)'의 조치를 내려 티벳은 중국의 국가기관(다마사(茶馬司)등의 정부기구)을 통해서만 차를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중국이 차를 미끼로 변방의 소수민족을 회유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통치권 안에 귀속시켜 변방의 안녕을 도모하고 국방에 필요한 군마를 손쉽게 얻으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티벳인들에게 있어 차는 매우 절실한 생활필수품이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생명

151) 한장(漢藏)은 중국한족(漢族)과 서장(西藏: 티벳)을 말한다. 중국과 티벳과의 다마무역을 '한장다마무역' 이라한다.

의 약처럼 중요시되어져 왔다. 그 이유에 대해 박영환(2004:9-10)은 첫째, 티벳인들은 유(乳)、육류(肉類)를 주식으로 하는 유목민족으로서 채소나 과일의 섭취는 거의 불가능했다.[152] 둘째, 티벳 고원은 공기가 매우 희박한데다가 기압이 낮고 기후가 건조하며 연평균 상대습도가 4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인체에 충분한 음료를 별도로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153] 셋째, 차는 의약이 낙후된 티벳인들에게 있어서는 잡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약품[154]과도 같은 것이었다고 하였다.

이상의 서술한 세 가지 주요 원인은 마침내 티벳인들로 하여금 '불가일일무차이생(不可一日無茶以生:차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155]의 상태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티벳인들의 차에 대한 절실한 요구는 때마침 군마의 수요가 시급했던 중국과 그 조건이 잘 부합되었다. 이러한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 한장다마무역은 당대로부터 송, 원, 명, 청에 이르기까지 수대에 걸친 왕조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천여 년 동안을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게 된다.

명대의 한장다마무역의 관계는 얼핏 보면 일종의 단순한 경제활동에 불과하지만, 사실 그 배경 속에는 명왕조가 티벳을 통치, 지배하려는 정치적 의도와 야심이 더욱 짙게 깔려있는 정치적 관계라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문헌에 기록된 당시의 교역량을 간단히 살펴보면 차발마제도가 건립되었던 명태조 25년(1392년), 티벳은 차발마(差發馬) 10,340여 필을 상납하고 하사받은 차는 고작 30여 만근에 불과하였다.[156] 이를 환산해 보면 말 1필과 차 30근을 맞바꾼 것이며, 이는 차발마제도가 아직 건립되기 전인 명초기에 말 1필에 차 1,800근을 지불한 것[157]에 비하면 너무나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이것이 명나라가 바라는 차발마제도 건립의 목적이었다.

명대의 다마무역 중에서 또 하나의 특이할만한 점은 바로 '조공호시(朝貢互市)'인데, 그 실체는 바로 조공의 형식을 갖춘 한,장 간에 이루어진 또 하나의 다마무역이었던 것이다. 당시 명나라는 티벳 각지에 흩어져 있는 티벳의 종교지도자 및 각

152) 티벳 고원의 대부분 지역은 해발 3000미터 이상인데다가 평균 온도가 0℃이하기 때문에 농업보다는 목축업이 비교적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야채나 과일 대신 차(茶)를 마심으로써 인체(人體)에 필요한 식물성의 영양소를 대신 섭취하게 되었다.

153) 티벳인들이 마시는 하루의 음차량(飮茶量)은 약 5~7리터 정도이다.

154) 티벳의 의약전적(醫藥典籍)에는 차(茶)가 감기、풍한(風寒)과 설사、복통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좋은 양약(良藥)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155) 『속문헌통고』(1963:2982)

156) 『明太朝實錄』권215, <洪武25년5월 甲辰條>

157) 『明史』권80, <食貨志, 茶法>, 214p

부족의 수령들에게 봉작(封爵)을 내리는 '분봉정책(分封政策)'을 실시하였다. 분봉정책에 의해 작위를 받은 티벳 각 부족의 수령들과 승려들은 해마다 줄을 이어 명나라 조정으로 조공을 오거나 혹은 사자(使者)를 파견하여 조공함으로써 명 왕조에 대해 신하의 예를 표하였다.

그들이 바친 조공품의 대부분은 말이었고, 명나라 조정에서 하사한 회사품(回賜品)의 대부분은 중국 내지에서 생산되는 차였다. 아울러 조공의 대가로 돌아오는 회사품은 차발마제도에 의한 불평등한 대가와는 전혀 다른 조공의 삼배에 달하는 후한 대가였다. 이 때문에 그들의 조공 회수와 조공 인원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티벳인들의 목적 또한 조공을 구실로 차를 얻어가는 데 있었다.[158] 그러므로 납공(納貢)과 상사(賞賜)로 이루어지는 조공호시는 티벳에 있어서 중요한 경제왕래였던 것이다.

명나라는 겉으로는 차발마제도를 통해서 티벳을 명나라의 직、간접의 통치하에 두었고 안으로는 조공호시를 통해 그들을 회유하는 양면성의 정책을 병행하였던 것이다.

역대 한장다마무역의 기능과 역할은 분명 '이차역마(以茶易馬)'였고 주요 품목 또한 티벳의 말(馬)과 중국의 차(茶)였다. 그러나 이 때 '다마'와 함께 부수적으로 교역이 이루어졌던 기타 물품들이 있었는데 극소수이긴 하나 티벳인들은 자신들의 특산품인 갓끈, 모포, 후추, 불상(佛像), 약재 등을 가져와 한족(漢族)의 종이, 비단, 철, 솥, 동기(銅器) 등의 생활필수품으로 바꾸어 갔다.

차의 국가 전매는 서북 소수민족의 목축업의 발달과 중국 내지의 다업(茶業) 생산의 발전을 촉진시켰으며, 나아가 중국의 천하통일과 소수민족과의 단결을 촉진시키는 등의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주게 되었다. 수대에 걸친 왕조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관성 있게 전승, 발전되어 온 다마무역은 중국 역대왕조에 있어서 변방의 통치와 안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정치, 경제적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의 일부를 충당하는 주요한 재원이기도 하였다.

---

158) 명나라가 조공을 오는 티벳 수령과 승려들에게 주는 사차의 규모는 명헌종(明憲宗)의 성화(成化) 18년(1482년)에 총 412명이 조공을 왔고, 일인당 받은 사차는 50근씩등 매우 컸다. 티벳의 수령들과 승려들이 받아간 사차의 총수량은 약 2만 6백근 이었다. 명무종(明武宗)의 정덕(正德) 13년(1518년)에는 조공을 온 티벳 승려들에게 내린 사차(賜茶)의 총수량이 무려 8만 9천근에 달했다. 이는 성화(成化) 연간(年間)의 사차 양의 4배로서 조공의 인원과 회수가 얼마나 많이 증가했나를 잘 입증해 준 것이라 하겠다. 이 때 티벳인들이 바친 공마(貢馬)의 대부분은 열등마(劣等馬)로서 티벳인들은 오직 차를 구해 돌아가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Ⅴ. 古文獻에 나타난 고려의 茶文化

1. 高麗의 文獻目錄과 茶文化 背景

고려는 차의 전성기였고 궁중에서 차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차의 중요한 위치만큼 궁중의 의례인 가례, 길례, 빈례, 흉례시는 진차의식이 있었고 이 의식에는 왕도 참석하여 의식을 거행하였다. 차는 왕의 하사품목에 들었으며 아끼는 신하일수록 부의품에 차가 포함되었다. 고려시대 차에 관한 책은 특별히 따로 나오지는 않았으나 '고려사류'인 『고려사』『고려국사』『고려사절요』『동국통감』『동국사략』의 역사서 가운데 특히 『고려사』, 『고려사절요』에 나타난 궁중에서 행한 차의례를 살펴보고 서긍이 기록한 『고려도경』을 통해 고려의 습속 중에 나타난 차문화를 조명해 보려 한다. 또한 당시의 학자들이 읊은 다시문을 기록한 '문집' 인 이규보의『동국이상국집』,이제현의『익제집』,이인로의『파한집』,최자의『보한집』,이색의『목은집』,이숭인『도은집』서거정의『동문선』등과 선사들의 다시문에 나타난 고려의 다사를 살피고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高麗文獻目錄 및 概括

1) 高麗史類

고려의 역사서는 과거 역사를 정리하고, 이를 거울로 정치적 교훈을 남기려는 의도로 조선시대에 쓰여 졌다. 『고려사』는 조선 초기 김종서 ·정인지 등이 세종의 교지를 받아 만든 고려시대의 역사책으로 세가(世家) 46권, 지(志) 39권, 연표 2권, 열전 50권, 목록 2권까지 총 139권으로 되어 있다.
『고려사류』는 고려시대 전체의 역사를 완성한 최초의 사서로 저술의 목적이 고려멸망의 당위성과 조선건국의 정당화에 있었다. 태조 때 정도전, 정총에 의해 37권으로 편찬되었으나 전하지 않는다. 편찬자가 통치이념을 정립하려는 목적의식이 강렬하게 나타나며,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고려사절요』는 편년체로 기전체의 『고려사』에 대한 수찬으로 만들어진 신권중심의 역사서이다. 『고려사』를 간추린 것임에도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비격식으로 자유롭게 쓰여 졌다. 『동국통감』은 조선 성종 때 서거정(徐居正) 등이 신라에서 고려 때까지의 역사사실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신화와 전설적인 것이 배제되고 역사적 교훈을 주는 사료들을 발췌하여 서술하였다. 『동국사략』은 최초의 고대사로 태종때 권근 등에 의해 정리되었다. 왕권의 미정립, 국가의 미정착 시대에 정주학적(程朱學的) 사대부들이 체험한 역사체험을 바탕으로 생겨난 시대정신에서 과거민족사를 정리한 것이다.

2) 文集類

고려는 우리 역사상 차가 가장 전성기를 맞이했으면서도 차에 대한 전문서가 보이지 않는다. 차가 음료가 아닌 의례에 쓰임으로써 함부로 다루지 않아서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차를 마신 많은 문인들이 차를 마시며 차에 대한 이야기를 시나 운문으로 기록해 놓았다. 그 문인들의 문집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동국이상국집』은 이규보(李奎報 : 1168~1241)의 시문집이다. 이규보는 차생활을 좋아하여 손수 차를 끓여 마신 차인으로, '다도일미(茶道一味)'를 주장하고 다시 40여 편을 남겼는데 칠언시 204행은 고려 다시의 절정이다.『익제집』은 이제현(李齊賢:1287~1367)의 전집이다. 충선왕 때 원에 유학하였으며 원나라에서 화전춘차(火前春茶)를 가져와 손수 달여 마시며 차인들에게 나누어 준 기록이 있다. 송광사 스님들로부터 차를 선물로 받고 쓴 장시(長詩)가 있어 그의 차생활을 엿볼 수 있다.『파한집』은 이인로(李仁老:1152~1220)가 지은 시화집(詩話集)이다. 그는 진정한 차맛을 알고 그 풍류를 즐기던 사람으로 남긴 다시가 많다.『보한집』고려 고종 때의 문신인 최자(崔滋:1188~1260)가 편집한 시화집으로 많은 다시가 수록되었다.『목은집』은 이색(李穡 : 1328~96)의 시문집으로 다시를 남겼다.『도은집』은 이숭인(李崇仁:1349~1392)의 시문집으로 내용은 시(詩) ·서(序) ·기(記) ·전(傳) ·찬(贊) ·장(狀) ·발(跋) ·표(表) 등이 실려 있다. 문학과 도학을 겸하여 국내외에 이름을 떨친 문인으로, 많은 다시를 남겼다.『동문선』은 서거정(徐居正 : 1422~92)이 처음 엮은 시문집으로 사(辭)·부(賦)·시(詩)·문(文) 등 여러 종류의 작품 4,300여 편이 실려 있다. 그 외 개인의 다시문에도 차를 주제로 한 시가 많이 보인다. 시문을 통하여 다사를 알 수 있다. <표7>은 문인들의 다시문을 정리한 것이다.

<표 7> 문인들이 남긴 다시

인명	제목
정지상(?~1135)	백률사서루(栢栗寺西樓)
임춘(?~?)	이랑중유의다점주수(李郎中惟誼茶店晝睡) 다향겸상인기(茶餉謙上人寄) 희서겸상인방장(戱書謙上人方丈) 사료혜수좌혜량(謝了惠首座惠糧)
김극기(?~?)	황룡사(黃龍寺) 실제(失題) 용만잡흥(龍灣雜興) 한송정(寒松亭)
곽여(1059~1130)	청연각친사쌍각용차(淸燕閣親賜雙角龍茶)
홍간(?~1304)	차운화김둔촌사시구공운(次韻和金鈍村四時歐公韻)
최자(1188~1260)	동전신정위선사관고(同前神定爲禪師官誥)
김지대(1190~1266)	유가사(瑜伽寺)
이연종(?~?)	사박치암혜다(謝朴恥庵惠茶)
이인로(1152~1220)	승원다마(僧院茶磨) 걸퇴시(乞退詩)
이규보(1168~1241)	우분운득악자(又分韻得岳字)

	복용전운증지(復用前韻贈之) 사일암거사정군분기다(謝逸庵居士鄭君奮寄茶) 숙빈강촌사(宿濱江村舍) 초당단거화자미신임초옥운(草堂端居和子美新賃草屋韻) 손비서냉천정기(孫秘書冷泉亭記) 태재기(泰齋記) 잠유감불사증당두노비구(暫遊感佛寺贈堂頭老比丘) 제황여정천사의사야경루(題黃驪井泉寺誼師野景樓) 방안화사당선사(訪安和寺幢禪師) 방암사(訪巖師) 방암선노용벽상서족시운(訪巖禪老用壁上書簇詩韻) 방장원연보견화차운답지(訪壯元衍寶見和次韻答之)
이제현(1287~1367)	송광화상기혜신명순필난도기정문하(松廣和尙寄惠新茗順筆亂道寄呈文下)
민사평(1295~1359)	송선주총법사유풍악(送善住聰法師遊楓岳) 총지사(聰智寺) 송운상인(送雲上人) 시사단계선생기향차(詩謝丹溪先生寄香茶)
이곡(1298~1351)	음주일수동백화부우덕린작(飮酒一首同白和父禹德麟作) 한송정(寒松亭) 차강릉객사동헌(次江陵客舍東軒)
유숙(?~1368)	차가야사주노시(次伽倻寺主老詩) 유소양강(遊昭陽江)
이색(1328~1396)	영천(靈泉), 점차(點茶), 문전수성(聞煎水聲) 다후소영(茶後小詠), 전다즉사(煎茶卽事) 봉답송광화상혜다급선(奉答松廣和尙惠茶及扇)
이종학(1361~1392)	야좌(夜坐), 즉사(卽事), 근절부작시(近絶不作詩)
정몽주(1337~1392)	석정전다(石鼎煎茶), 독역(讀易)
김구용(1338~1384)	자정토심둔촌우거(自淨土尋遁村寓居) 취후자안령아기서벽간(醉後子安令我起書癖間)
성석린(1338~1423)	차천사맹헌시운(次天使孟獻詩韻), 요동곡(邀東谷) 희답기우자혜송균다아(戱答騎牛子惠松菌茶芽)
이숭인(1349~1392)	다정실주주사(茶呈實周主事), 백렴사혜차(白廉使惠茶) 다일봉병안화사천일병정삼봉(茶一封幷安和寺泉一甁呈三峰) 제야용고인운(除夜用古人韻), 차민망운(次民望韻)
한수(1333~1384)	엄광대선사기혜아다(嚴光大禪師寄惠芽茶)
안축(1287~1348)	죽장고사(竹藏古寺), 격장호승조(隔墻呼僧條)
길재(1353~1419)	산가서(山家序)
이원(1368~1430)	유거즉사(幽居卽事), 정춘정(呈春亭) 다사가정시(次四佳亭詩), 숙관음사(宿觀音寺) 증허상인(贈虛上人), 우다명정암시(又次明正庵詩)

3) 『고려도경(高麗圖經)』

예종(睿宗) 붕어(崩御)의 조문사절로 인종 원년(1123)에 고려를 다녀간 송나라 서긍(徐兢 1091-1153)의『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은 서긍의 개인 기록이 아닌 송나라의 고려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글이라 할 수 있다.『고려도경』은 고려시대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기록한 책이다. 『고려도경』의 도자기, 의복, 선박의 그림은 그 시대 항해술을 짐작케 하는 자료이다. 또한 역사, 사회사, 조운제도, 운송제도, 운송수단, 경제사, 관료, 병제 등 다양하게 언급하였다. 이 논문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차에 대한 기록은 왕실의 차문화와 차도구및 다사(茶事)를 언급하고 있어 고려 차문화 연구의 귀한 자료가 된다. 고려시대의 차문화는 왕실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누렸다고 하나 방증 자료가 적어 자세한 정황을 알 수 없었다. 『고려도경』에서의 다사 언급부분은 그 짧은 내용으로도 고려인들이 차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궁궐에서의 차의 쓰임은 어떠했는지 차도구는 무엇을 사용했는지 등을 알 수 있다.

3. 文獻典籍에 나타난 高麗茶事 典籍考

1) 製茶

고려시대의 제차법에 관한 문헌은 발견치 못했다. 고려시대의 차는 단차를 가루 내어 만든 가루차가 주를 이루었다. 김명배(1996: 554)는 이제현과 한수의 문집에 잎차도 보인다고 하였다. 성종 때 최승로(崔承老),(927~989)가 올린 상소문에 성종이 불전에 올릴 가루차를 만들기 위해 직접 단차를 맷돌에 갈았던 기록이나 이인로의 <승원다마(僧院茶磨)>라는 시에 사원에서 가루차를 만드는 과정이 나온다.

바람이 바퀴를 주간하지 않으니 개미걸음처럼 더디고
달도끼 비로소 휘두르니 옥가루 날리네
불가의 놀이에는 종래부터 진실됨이 절로 있으니
갠 하늘에 우뢰소리 울리고 눈이 펄펄 내리네.[159]

가루차를 곱게 가루내기 위해 맷돌을 천천히 돌리는 모습을 개미걸음[160]으로 표현하였고 덩이차를 갈아 차 다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차법은 송의 제차를 모방하였으나 송의 연고차 제차법은 아니다. 송나라 사신이 말한 “고려의 토산차는 쓰고 떫어”라는 구절만 보아도 연고차의 압황하고 물에 적tu 말리는 과정이 고려에는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고려도 송의 제차법과 같았다면 쓴 맛이 나지 않았을 것이다. 고려는 찻잎을 따서 단차를 만들었으나 단차에 대한 제차법의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2) 點茶

고려의 점차법에 대해서 『대관다론』과 같은 자세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다만『고려

159) 이인로,<僧院茶磨>, ‘風輪不管蟻行遲 月斧初揮玉屑飛 法戲從來眞自在 晴天雷吼雪霏霏’ (김명배,1988:103)
160) 차를 맷돌에 빨리 갈게 되면 마찰열이 생겨서 찻가루의 색이 변한다.

도경』의 기록이나 문인들의 시문에 그 대강을 기록하고 있어 유추할 뿐이다. 찻잎의 가공방법에 의해서 차 달이는 법도 시대에 따라 변해갔다. 차 달이는 시문을 보면 대부분 자명(煮茗), 전차(煎茶), 점차(點茶), 팽차(烹茶)로 쓰고 있다. 당대의 자차법이 송에 와서는 점차법으로 바뀌었으나 고려의 문인들은 여전히 자명, 전차, 점차로 쓰고 있으며 모두 점차법의 다른 표현으로 차를 달인다는 표현이다. 차의 종류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이숭인의 '제야용고인운(除夜用古人韻)'의 시를 보면

섣달 그믐날 밤 산의 절에 이르니
남은 스님은 촛불의 불똥을 자르네
차를 달이니 병에선 지렁이 울고
글귀를 적으니 먹은 갈가마귀 깃치네
자정의 북소리 끊어지고
하늘의 북두자리도 기울었구나
내일 아침에는 해가 바뀌리니
떠돌이 신세라 생각은 끝이 없네.[161]

이 시는 떡차를 차병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차가 우러나기를 기다린다. 당대의 엄차법(淹茶法)으로 차를 우려 마시는 것으로 사료된다. 원감국사 다게(茶揭)의 '채소 삶고 차 달이기에는 즐거움이 넉넉하고' 를 보면 자차법으로 솥에서 끓여 마신 것 같다. '자명'은 당대 차를 솥에서 끓이던 용어이고, '점차'는 송대 가루차에 사용하는 용어고, '팽차' '전차'는 명대 이후의 잎차를 다관에 우렸던 용어다. 고려 차인들의 시에는 이런 용어가 구분 없이 사용되었다. <표 8>은 시인들이 시에 사용한 용어를 정리한 것이다. <표 8>에 나타난 용어를 보면 고려는 당나라의 자차법과 송나라의 점차법이 공존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시에 기록된 점차용어

161) 除夜到山家。留僧翦燭花。煮茶鮮叫蚓。題句墨翻鴉。更鼓三檛盡。天文北斗斜。明朝歲華改。漂泊意無涯。(『도은집』 권2)

文人	題目	點茶용어
정몽주	石鼎煎茶	煎茶
이규보	草堂端居和予美新賃草屋韻, 遊天磨山有作, 題黃驢井泉寺誼師野景樓 , 遊九品寺追晚, 訪安和寺懂禪師師請賦一篇	煮茗, 煎茶, 煎茶, 點茶, 煎茶
김수온	贈性哲上人	煮茗
보조국사	無題	煮茗
원감국사	丁丑三月十三日 遊眞覺寺	煮茗
이색	點茶	點茶
이숭인	除夜用古人韻, 題神孝寺祖師房	煮茶, 烹茶
정추	賦	煎茶
정사도	遊高住煮茗	煮茗
변계량	題靑溪山行上人院	煮茗

『고려도경』의 기록에 보면

> 또한 연회 때가 되면 뜰 가운데 차를 달여 은하(銀荷)로 덮고 천천히 걸어와 차를 내 놓는데, 의식의 진행자가 '다 돌렸오' 라고 말한 뒤에야 마실 수 있으므로 으레 냉차(冷茶)를 마시기 일 수였다.....매일 세 다례씩 내는 차를 맛보게 되는데, 뒤이어 또 탕(湯)을 낸다. 고려인은 탕을 약(藥)이라고 하는데... [162].

연회시에 다방의 관원이 차를 우려 모든 사람이 다 받은 후에야 그 차를 마시게 했다는 부분과 차를 마신 후에는 또 탕이 나온다는 부분에서 고려인들의 차풍을 엿볼 수 있다. 한애란(2007 :92)은 차가 식어 냉차가 되는 경우를 오늘날 한국 차문화 발전에 장애가 되며 차의 예법이 마시기 번거롭고 까다롭게 여겨지는 부분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궁중의 빈례라는 점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여긴다. 만약 의식이 없이 다반사로 사신을 대접했다면 무시한다고 여길 수도 있었으며 위계를 지키고 예의 바른 고려인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고려도경』의 기록에 고려인의 예의바름을 말한 내용을 보면

> 고려는 여러 이적(夷狄)의 나라 가운데서 문물과 예의를 갖춘 나라라 일컫고 있다. 그 음식은 조두(俎豆)[163]를 사용하고 문자는 해서(楷書)와 예서(隷書)에 맞

162) 覆以銀荷。徐步而進。候贊者云。茶遍乃得飮。未嘗不飮冷茶矣。.....日嘗三供茶。而繼之以湯。麗人。謂湯爲藥.....(『高麗圖經』제32권, 기명3;조동원외,2005: 383)

쳐 쓰고, 서로 주고받는 데 절하고 무릎을 꿇으니 공경하고 삼가는 것이 족히 숭상할 만한 것이 있다.[164]

고 기록되어 있다. 왕도 식은 차를 함께 마셨을 것으로 보아 왕의 배려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탕에 대한 기록은 주욱(朱彧 1119년)의 『평주가담(泙州可談)』[165]에

지금 세속은 손님이 도착하면 차를 내고 떠날 때에는 탕을 대접한다. 탕이란 달고 향내 나는 약재의 가루를 취하는데 혹은 차갑게 혹은 따뜻하게 내놓으나 감초를 넣지 않은 것이 없으며 이런 풍속은 천하에 보편화 되었다.[166]

고 하였다. 하지만 고려의 탕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겨진다. 차는 냉한 음료이니 탕이라면 뜨겁고 열나는 음료로 몸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인삼이나 한약재를 넣고 끓인 탕약이었기 때문에 藥이라고 말했을 것이며 고려의 빈례에서는 차와 함께 탕도 공존하였는데 이것은 송의 차 마신 후에 탕을 마시는 풍습과 같다고 보인다. 고려인들은 차는 냉한 음료라 여겨 인삼이나 한약재를 넣고 끓인 탕을 약으로 마셨다고 사료된다.
차를 마실 때는 다식도 먹었는데『고려사』에 보면 왕과 군신들이 모여 연회를 베푸는 대관전연군신의(大觀殿宴群臣儀)에

다식(茶食)이 이르면 교방(敎坊)이 치어(致語:임금께 올리는 송덕)와 구호(口號)를 드린 후 태자(太子) 이하 군관(群官)이 내려가 전정(殿庭)의 배위(拜位)로 나아가 재배(再拜)한다.[167]

고 한 것으로 미루어 차와 식반(食飯)을 올리고 반식(飯食)이 끝나면 다식을 올리고 다시 차를 올렸다. 충숙왕 때는 경신(庚申)에 왕이 영하(迎賀)하는데 유밀(油蜜)과 다식을 금지하였다[168]고 한 기록도 보인다. 차와 함께 유밀과가 발달하여 국가 대행사인 연등회, 팔관회, 제사 등에 필수품이었고, 왕공, 귀족, 사원에서 성행하였다.

3) 茶의 種類

다시문에 나타난 차의 종류는 많으나 그것이 다 고려시대에 음용했던 차인지에 대해서는

---

163) 제사(祭祀) 때, 신 앞에 놓는 나무로 만든 그릇의 한 가지

164) 高麗於諸夷中。號爲文物禮義之邦。其飮食用俎豆。文字合楷隸。授受拜跪。恭肅謹愿。有足尙者。(『高麗圖經』제22권 (雜俗一) 조동원외,2005:274)

165) 1119년에 송나라 주욱(朱彧)이 편찬한 책이다. 관제, 국전으로부터 토속, 민풍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수록하였으며, 저자의 아버지 주복(朱服)이 요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와 광주 태수로 있을 때 보고 들은 내용이 상당히 많다. 요나라는 탕을 먼저내고 차를 후에 낸다.

166) 今世俗客至則啜茶 去則啜湯..湯取藥材甘香者屑之, 或凉或溫 未有不用甘草者 此俗遍天下.(진조규, 외,1995:325)

167)『高麗史 』지22, 禮 대관전(大觀殿)에서 군신(群臣)을 연회(宴會)하는 의식

168) 高麗史 』 세가 35 / 충숙왕 후2년(1333) 윤(閏) 3월 “庚申, 王, 禁迎駕油蜜茶食”

의문이다. 고려는 송나라에 유학하고 돌아온 선비나 승려가 많아 그들의 학문과 식견은 일반인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으리라 여겨진다. 고려는 송과의 교역품목에 매번 차가 들어있었다. 또한 고려를 방문한 송의 사신에게 우리 토산차로 접대한 내용이 『고려도경』에도 나온다. 서긍은 우리 토산차를 쓰고 떫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송의 압황(壓黃)하고 물로 씻어서 진액을 다 빼버리고[169] 만든 송나라 차와는 달랐기 때문이다. 고려의 다시(茶詩)에 나타난 차의 종류로는 뇌원차(腦原茶)[170],대차(大茶), 유차(孺茶), 노아차(露芽茶), 영아차(嬰兒茶), 잎차(葉茶), 자하차(紫霞茶), 향차(香茶) 등이 있고, 그 외에도 명차(茗茶), 어차(御茶), 가명(佳茗), 아차(芽茶), 모차(茅茶), 산차(山茶), 야차(野茶), 녹태천(綠笞錢), 선차(仙茶), 방차(芳茶) 등의 다명(茶名)을 기록하고 있다(김명배, 1996 : 21). 또한 송의 사신이 선물로 가져온 차나, 송나라에서 수입해서 일반인이 사 마시는 송나라의 차인 용봉차(龍鳳茶),[171] 납차(蠟茶), 용봉명단(龍鳳茗團), 건계명(建溪茗), 증갱차(曾坑茶), 쌍각용차(雙角龍茶) 등 많은 종류의 다명을 볼 수 있다. 다시의 다명으로 존재하는 차가 실재 존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고려차의 종류는 왕의 하사품인 뇌원차와 대차, 토산차, 송에서 수입한 송나라 차가 존재했다. 다시에 보인 다명(茶名)과 고려사류에 기록된 차 종류를 살펴보면 <표9>과 같다.

<표 9> 고려차의 종류

토산차	송나라차
뇌원차(腦原茶),대차(大茶), 유차(孺茶), 노아차(露芽茶), 영아차(嬰兒茶), 잎차(葉茶), 자하차(紫霞茶), 향차(香茶), 명차(茗茶), 어차(御茶), 가명(佳茗), 아차(芽茶), 모차(茅茶), 산차(山茶), 야차(野茶), 녹태천(綠笞錢), 선차(仙茶), 방차(芳茶)	납차(蠟茶), 용봉명단(龍鳳茗團), 용봉차(龍鳳茶), 건계명(建溪茗), 증갱차(曾坑茶), 쌍각용차(雙角龍茶)

고려 왕실의 하사품에 뇌원차와 대차가 보인다. 대차는 왕실에서 하사하는 예물로 많이 사용하였는데 아직도 이 차가 떡차 형태의 단차인지, 산차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대차란 "입하(立夏) 전후에 딴 큰 찻잎으로 만든 연고차"(池本義男,1972: 56; 류건집,2007:142)라고 설명되어 있다. 차를 세는 수량단위로 규명해보면 석용운(釋龍雲)은「고려왕실의 유일한 잎차」라는 글에서

169) 송대의 차는 차의 진액이 다 빠지도록 눌러 차의 쓴맛인 카페인 성분을 없애서 부드러운 차를 만들었다.

170) 용뇌를 착향한 연고차로서 고려에서 만든 시기(989~1049)는 송나라에 만든 시기(976~1053)와 거의 같다.

171) ...중국의 납차(臘茶)와 용봉사단(龍鳳賜團)을 귀하게 여긴다. 하사해 준 것 이외에 상인들 역시 가져다 팔기 때문에...

고려의 대차는 잎차이지 떡차는 아니다. 뇌원차는 떡차로서 헤아리는 단위가 몇 각(角)이라고 하지만, 대차는 잎차로서 몇 근(斤)이라 한다.

고 했다. 즉 계량하는 단위의 용어가 '각(角)[172]'은 병차 형태에 쓰고, '근(斤)'은 산차 형태에 쓴다는 주장이다(석용운,1991;류건집,2007:142). 김명배(1996: 531)는 차의 계량 단위가 각이면 고형차이고, 근이면 잎차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고 하였다. 고려와 도량형법이 같았던 송나라 연고차인 봉단(鳳團)은 8병(餠)이 한 근이요, 소용단은 10병이 한 근이요, 밀운용(密雲龍)은 20병이 한 근이었다. 만약 근일 때 잎차라고 한다면 문종 32년(1078) 안도가 예물로 가져온 용봉차 10근도 잎차라고 보아야 하는 모순을 낳는다고 하여 떡차 쪽에 더 무게를 두었다. 대차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분분한 주장이 있으나, 『선화북원공차록』에 나오는 용봉차의 일반적인 크기가 직경 한 치 반(5센티미터 가량)인데, 용단에 소룡(小龍)과 대룡(大龍)이 있고 봉병에도 소봉(小鳳)과 대봉(大鳳)이 있어 크기가 달랐으니 유추가 가능하다.

조선 초기에는 사신에게 다례를 베풀고 차를 하사한 기록에 작설차(雀舌茶) 3두(斗)가 포함되었고[173] 정묘호란이 있은 뒤로 해마다 금나라에 폐백으로 보내는 품목에 천지차(天池茶)· 작설차(雀舌茶) 각 50봉이[174]이 들어있었다.

위의 기록을 근거로 천지차와 작설차는 잎차임이 확실하다. 잎차의 수량의 단위가 두(斗)나 봉으로 기록된바 '각'과 '근' 하고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대차가 잎차였다면 근보다는 두(斗)나 봉의 단위를 사용했을 것이며『고려도경』에서도 송과 고려의 도량형이 같다[175]고 한 걸로 보아 궁중에서 하사한 차는 단차다.

4) 鬪茶

송나라의 투차는 고려의 사원에서 명전회로 발전하였다. 명전은 '투차'라고도 하는데 송나라에서 유행한 것이 고려로 유입된 것으로 차를 겨루는 풍속이었다. 풍지(馮贄)의 운선잡기 (雲仙雜記)[176]의 기록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건안사람들은 투차를 명전이라 한다. 서로 겨룰 때는 세 가지의 점을 겨루는데 첫째는 차, 둘째는 물, 마지막으로 찻그릇으로 서로의 우월성을 밝혀서 우수하면 승리 한다.(김명배,1988 : 269-270)

건안의 투차는 다완에 격불한 찻물의 표면이 갈라지지 않고 오래 견디면 이긴다. 또 물의 승부는 여덟 가지의 공덕이 있는 물이 이긴다[177]고 하였다. 이러한 투차를 통하여 차문화는 더욱 발전하고 좋은 차를 만들기 위한 연구와 차의 빛깔을 아름답게 하는 도자기

---

172) 取小團之精者爲密雲龍。以二十餠爲斤而雙袋. 謂之雙角團茶 (『선화북원공차록』)

173) 1년 6월10일, 天使至, 上出仁政門外迎入 天使上殿, 請上坐北 上固辭, 天使跪請不已 上不得已南向近西而坐 天使坐東 行茶禮 上親贈人情物: 雀舌茶三斗 六張連幅油芚一事…… 遂設宴 上行酒.

174)『인조실록』14년 2월4일.

175)『고려도경』40권<권량>참조

176) 당나라 풍지(馮贄)가 찬한 것으로, 총 10권이며, 고금의 일사(逸事)를 두루 수록하고 있다.

177) 가볍고(輕), 맑고(淸), 차고(冷), 부드럽고(軟), 맛있고(美), 냄새가 없고(不臭), 마실 때 알맞고(調適), 마신 뒤에 탈이 없는 것(無患)이 이기는 것이다.

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좋은 샘물을 감별하는 능력을 키웠다. 영남의 한 사원에서 행한 '명전회'에서 읊은 이연종의 '차를 주신 박치암에게 사례하며(謝朴恥庵惠茶)'178)시는 고려 사원의 명전 풍경을 알 수 있다.

소년 시절에 영남 절간에 손님되어
차 겨루기 한가한 유희 여러 번 했다
용암 바위 봉산 기슭에서
죽림 속에 중들 따라 조취[鷹觜 :차]를 따다가
불 앞에서 말린 것 가장 좋다 하는데
더군다나 용천봉정 물까지 있음에랴
중들의 차 솜씨 바르기도 하여라
찻잔 속에 설유를 쉬지 않고 집어넣었다
…
죽창은 정오 햇빛에 향연이 뜨는데
낮잠 자다 일어날 제 차 한 잔 준비 되었네.
몇 번이고 머리 돌려 영남 작설 생각이 나
산중 친구는 소식이 없거니
하물며 당시의 경상이야
즐겨 이 사람 기억하여 내사(하사와 같다)품 나눠주려고
치암상국은 홀로 잊지 않고
초당으로 하인 보내 주었네.
…
영남에서 놀던 그때는 아직 동몽이어서
차 마시는 깊은 취미 몰랐었더니
이제 공의 선사를 받음으로써
옥천자와 같이 통령했소다.
때때로 두 겨드랑이 바람을 타고
봉래산 꼭대기로 날아올라가
서왕모의 자하상(자하주 술잔) 한 번 기울여서
종전 연화의 누를 말끔히 씻고
다시 구전진금단(신선이 되는 약) 가지고 와서
공의 진중한 마음 보답 하고저.

178) 이연종(李衍宗, 1224-1301) 은 공민왕때 밀직사(密直使)와 감찰대부(監察大夫)를 겸직했고, 벼슬에서 물러나 만년의 함양 부원군인 치암 박충좌(朴忠佐, 1287-1349)로부터 차를 선사받고 어린시절 사원에서 차 겨루기 한 추억을 시로 지었다. 『東文選』卷7.「謝朴恥庵惠茶」'少年爲客嶺南寺 茗戰屢從方外戲 龍巖巖畔鳳山麓 竹裏隨僧摘鷹觜 火前試焙云最佳 況有龍泉鳳井水 沙彌自快三昧手 雪乳飜甌點不已…竹窓日午篆煙斜 一甌要及睡新起 幾回回首憶南烹 山中故人無信使 何況當時卿相門 肯記疏頑分內賜 恥庵相國獨不忘 寄與頭綱草堂裏…南遊昔時方童蒙 不識茗飮有深致 今日因公輒賜龍 通靈也似玉川子 亦欲時乘兩腋風 飛向蓬萊山上墜 一傾王母紫霞觴 洗盡從前煙火累 還將九轉眞金丹 來謝我公珍重意'(『동문선』제7권)

채차하는 모습, 승려들의 제차, 하사받은 차에 대한 고마움, 차를 끓이는 물소리, 차를 마시고 난 후 신선이 된 기분, 거품을 말하는 '설유'와 '용천봉정'의 물은 모두 투차를 중시하는 것으로 명전회의 풍습을 알 수 있다.

5) 茶道具

고려시대의 차도구는 송 제도의 모방도 있었으나 고려청자는 독창성과 예술성이 세계적으로도 인정되었으며 최고의 품질과 멋을 지녔고 아름다웠다. 고려시대에는 국가의 중요한 의식에 차의례를 행하였기 때문에 다구는 중요한 기물이었다. 청자의 비밀은 아직도 재현하지 못하고 도자기에 금칠을 한 금화오잔은 남아 있지 않아 볼 수는 없지만 이름만으로도 그 화려함과 예술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차도구를 사용하였다는 것에서 고려의 차문화의 화려함과 차에 대한 극진함을 엿볼 수 있다.

(1)『고려도경』에 기록된 차도구

『고려도경』의 <다조(茶俎)>에 차도구의 기록이 있다

> 근래에는 차 마시기를 자못 좋아하여 더욱 차의 제구를 만든다. 금화오잔(金花烏盞)・비색소구(翡色小甌)・은로탕정(銀爐湯鼎)은 다 중국 제도를 흉내 낸 것들이다. 무릇 연회 때면 뜰 가운데서 차를 끓여서 은하(銀荷 은으로 만든 연잎 형상을 한 작은 쟁반)로 덮어가지고 천천히 걸어와서 내놓는다.....관사 안에는 홍조(紅俎)를 놓고 그 위에다 차의 제구를 두루 진열한 다음 홍사건(紅紗巾 붉은 색의 사포로 만든 상보)으로 덮는다. 179)

위의 내용으로 차를 마시는 잔인 금화오잔과 비색소구, 물을 끓이는 화로와 솥인 은로탕정, 은으로 만든 쟁반인 은하, 찻잔과 은하 위를 덮는 상보인 홍사건, 탕호 등의 차도구를 살펴볼 수 있다. 금화오잔은 금색 꽃무늬가 있는 검은 색의 찻잔이며, 비색소구는 비취색을 낸 자기로 만든 찻잔이다. 은로탕정은 은으로 만든 화로와 찻물을 끓이는 세발솥으로 서긍은 송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라 말했다. 또 『고려도경』에

> 도기의 빛깔이 푸른 것을 고려인은 비색(翡色)이라고 하는데, 근년의 만듦새는 솜씨가 좋고 빛깔도 더욱 좋아졌다.180)

고 하여 고려청자와 고려인의 솜씨가 뛰어남을 말하고 있다. 고려의 청자에 대한 송나라 태평노인(太平老人)의 『수중금(袖中錦)』의 기록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

179)故邇來。頗喜飮茶。益治茶具。金花烏盞, 翡色小甌, 銀爐湯鼎。皆竊效中國制度。凡宴則烹於廷中.覆以銀荷。徐步而進.....館中。以紅俎。布列茶具於其中。而以紅紗巾冪之(『高麗圖經』제32권, 기명3)

180) 陶器色之青者。麗人謂之翡色。近年以來。制作工巧。色澤尤佳.(『高麗圖經』32권 기명 3(器皿三) <도준>)

감서(監書), 내주(內酒), 단계의 벼루(端硯), 휘주의 먹(徽墨), 낙양의 꽃(洛陽花), 건주의 차(建州茶),.....고려의 비색(高麗秘色)은 천하의 제일이어서 다른 곳에서 본받더라도 마침내 따라가지 못한다.(김명배, 1993 :281).

위의 내용은 송에서도 고려청자를 천하제일로 여겼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고려청자는 송의 영향을 받아 9세기 중엽이후 만들어진다. 양질의 청자는 고려의 수도인 개성을 중심으로 귀족과 왕실에서 사용되었다. 양질의 청자는 정선된 바탕흙에 비취색의 유약을 입힌 청자로서 초기에는 당 오대 송나라의 도자기의 영향을 받았으나 12세기부터는 고려의 특징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섬세하고 부드러운 곡선의 조형미를 지니게 되며 푸른색의 유약은 은은하고 안정감을 주는 비취색을 띠게 된다. 이 시기에 상감기법인 상감청자가 등장하게 된다. 상감기법은 처음에 나전칠기와 금속공예에서 사용되던 기법을 고려자기에 응용한 것으로 고려청자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유약을 얇게 발라 투명하고 색깔은 푸르스름한 비색으로 상감무늬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청자가 탄생하였다. 고려청자는 도자기 역사 에서도 매우 독창적이었으며 1231년 몽고의 침입 이후 쇠하여 분청사기로 계승되었다. 아래 <표 10>은 『고려도경』에 나온 차도구를 정리한 것이다.

<표 10>고려도경에 나온 차도구

구분	종류	내용
물 끓이는 도구	은로탕정(銀爐湯鼎) 정로(鼎爐) 수부(水釜)	은으로 만든 화로와 찻물을 끓이는 솥 박산로와 같은데, 위에 꽃모양의 뚜껑이 없고 아래에는 세 발이 있다. 형상이 격정(鬲鼎 세발솥을 총칭한 말) 같은데 동(銅)으로 주조하였다.
다완, 잔	비색소구(翡色小甌) 금화오잔(金花烏盞)	비취색을 낸 자기로 만든 찻사발 금색 꽃무늬가 있는 검은색 찻잔
연다 도구	맷돌(碾)	가루차를 만든다.
물 저장 용기	정병(淨甁) 수병(水甁) 제병(提甁) 수옹(水瓮) 수앵(水甖) 탕호(湯壺)	긴 목과 넓은 배의 옆에 부리가 하나있고 물을 담는데 사용하고 용량은 3승이다. 만드는 데는 은 3근을 쓰며, 정사・부사・도할관・제할관의 자리에 설치한다. 높이는 1척 2촌, 배의 지름은 7촌, 용량은 6승이다. 팔각형으로 만들며 간혹 도금한 것을 쓴다. 속에는 숭늉이나 끓인 물을 넣는다. 바다에서 뱃사람에게 식수를 제공하는 큰독 물을 긷는 것으로 중국의 수통(水桶)을 본뜬 것이다. 위에 두 개의 귀가 있어서 쳐들 수 있다. 보온병으로 위에는 뚜껑, 아래는 받침이 있다.
상, 보조상	교상(絞床) 소조(小俎) 쟁반	궁궐 차의례시 필요한 상 작은 소반 나무 옻 칠한 쟁반
덮개(상보)	홍사건(紅紗巾)	붉은 색의 사포로 만든 상보

(2) 시문에 기록된 차도구

① 차솥(茶鼎)

솥(鼎)은 긴 다리가 셋 있어 화덕이 없어도 어디서나 쉽게 끓일 수 있는 용기로 차솥[181], 돌솥[182], 돌남비[183], 탕관 [184]으로도 불리며 찻물을 끓이는 용도로 쓰였다. 솥의 재료는 궁중에서는 은[185]으로 만든 은로탕정(銀爐湯鼎)을 썼고 일반에서는 돌과 쇠가 쓰였다.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의 詩인 <석정전다(石鼎煎茶)>[186]와 <독역(讀易)>에[187] 돌솥에 물을 끓였음을 알 수 있고, 이숭인의 시에선 석조라 하여 물을 끓이는 작은 남비를 사용했고 하연의 시에서는 탕관이 나온다.

② 차맷돌 (碾,磨)

고려시대의 차는 가루였고 이 차를 마시기 위해서는 맷돌을 사용했다. 맷돌의 재료로는 돌이나 나무를 이용했다. 차맷돌에 관한 기록은 이인로의 <승원다마(僧院茶磨)>라는 시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차를 갈 때 맷돌을 천천히 돌려 그 속도가 개미가 걸어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맷돌을 빨리 돌리면 마찰열 때문에 차가 손상되므로 천천히 돌려야 한다.

③ 찻사발(茶盞)

고세연(1993:124)은 고려의 다완은 대부분 청자 잔이라 했다. 이제현의 <松廣和尙寄惠新茗順筆亂道寄呈丈下 송광화상이 햇차를 보낸 은혜에 붓 가는대로 적어 방장 밑에 부쳐드리다>란 다시에 오지사발이 나온다.[188] 이규보의 시에 오지사발, 꽃사발, 찻잔이 나온다(유건집, 2007:22). 김극기(金克己)의 <황룡사>라는 시에도 '꽃무늬 찻사발에 흰 유화가 떠 오르네'[189] 라는 시구에도 꽃사발이 나온다. 궁중에서는 은과 청자를 사용하였으나 일반인은 꽃, 구름, 별모양이 그려진 사발, 오지사발도 사용하였음을 볼 수 있다. 차인의 소박함과 멋스러움을 엿볼 수 있다.

④ 다선(茶筅)

고려의 다사전적에서는 아쉽게도 다선(茶筅)이나 다시(茶匙)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없

---

181) 김천택의 시조 "송림(松林)에 객산(客散)하고 다정(茶鼎)에 연헐커늘"
182) 정몽주 『포은집』 권2 <石鼎煎茶>
183) 이숭인의 <茶一封幷安和寺泉一缾曾三峰>의 시에서 "好從石銚聽風聲"
184) 하연(河演)의 謝友人送水鐵湯罐 (김명배, 1988:126)
185) 서긍『高麗圖經』第32卷 기명3의 은로탕정(銀爐湯鼎)
186) 이규보의 <石鼎煎茶>보국(報國)에 공이 없는 늙은 서생 (報國無効老書生) 차 마시기 버릇되니 세정을 모르고 (喫茶盛癖無世情) 눈보라 휘날리는 밤 그윽한 서재에 홀로 누워 (幽齋獨巨風雪夜) 돌솥의 찻물 끓는 소리 즐겨 듣노라. (愛聽石鼎松風聲)
187) 이규보< 讀易> 돌솥에 찻물이 끓기 시작할 제 (石鼎湯初沸) 풍로에 피는 불빛은 붉다. (風爐火發紅) 물과 불은 천지에 쓰이니 (水火用天地)
188) 眩轉甕甌乳花吐 오지사발에서는 어지러이 맴도는 젖빛거품을 토하네.
189) 김극기 <황룡사>"花甕浮白乳"

었다. 김명배(1996:95) 는 다시(茶匙)에 대한 기록으로 1925년 中尾萬三(나까오)에 의해 고증된 것이 약간 손상된 채로 전한다. 中尾萬三은

> 하나의 시두(匙頭)에는 개원통보(開元通寶)가 붙어있고 다섯치 닷푼 가량의 자루 끝에 엽전의 지름보다 다소 넓은 구리쇠에 십여개의 작은 고리쇠가 달려있다. 다른 하나는 스쿠프 모양의 시두에 네 치 남짓의 자루가 있고 그 끝에는 지름 두 푼 쯤의 다섯 꽃잎 모양의 구리판이 있는데 작은 고리쇠가 달려 있다. 이 고리쇠는 차솔(茶筅)로 차를 격불하듯이 차의 거품을 일으키려고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고 하였다. 고세연(1993 :112)은 솔잎을 사용했다고도 하고 고래수염을 사용했다고도 했다. 다시에 사용되는 용어를 살펴볼 때 거품이 생겼다는 것은 알 수 있으나 거품 내는 기구에 대한 설명이 없어 확신 할 수 없다. 나까오의 주장대로라면 약을 뜨는 약시(藥匙)에 고리가 달려있다. 아래 <표 11>는 『고려도경』과 다시문에 나타난 차도구를 정리한 것이다.

<표 11> 고려의 차도구

구분	종류
물 끓이는 솥	돌솥, 돌냄비, 탕관, 은로탕정, 행로, 정로, 수부
다완, 잔받침	비색소구, 금화오잔, 탕잔, 오지사발, 꽃사발, 찻잔받침
연차도구	맷돌
차선	솔잎으로 만들었다 추측, 고리차술
찻상, 보조상	교상, 소조, 쟁반
상보	홍사건
주전자	수관자
물병	정병, 수병, 제병, 수옹, 수앵, 탕호

6) 數量單位

차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는 각(角)과 근(斤)이 주로 쓰였다. 성종 8년 최승로의 부의에 “뇌원차 200각(角), 대차(大茶) 10근”이라고 하였다. 각은 뇌원차 의 수량에 쓰였고, 근은 대차의 수량에 사용했다. 고려시대는 송나라의 차 수입이 많았고 송과 같은 도량형을 사용했다. ‘각’은 단차고 ‘근’은 산차 라는 주장이 있으나 송대 인종조 이후 부차한 기록에

희령7년 정해진 새로운 법에 의하면 재상이 죽었을 경우 납면차 50근, 참지정사는 차 30근, 추밀사는 50근을 하사했다.[190]

고 하였다. 납면차는 단차의 최상품인데 '근' 을 사용한 것을 보아도 뇌원차와 대차는 단차이며 고려의 차의 단위는 각과 근을 사용하였다.

7) 王室의 賜茶

고려시대의 차의 쓰임 중에서 차의례와 왕의 사차라 할 수 있다. 연보에 보여 지듯이[191] 목종(1009년)~인종(1130년)시에 이르러 관료나 백성들에게 차를 가장 많이 하사함으로써 차의 전성기를 이루며 차문화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차의례가 다양하게 선보였다. 이런 사차문화는 궁궐다의의 수준 높은 창의성과 함께 음차풍속이 확산되면서 고급 음료 문화의 면모로 갖추게 되었다고 본다. 왕이 차를 하사한 대상은 이웃나라에 보내는 예물, 신하, 백관, 승려,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 차를 하사하였다. 왕이 사차한 기록을 『고려사』『고려사절요』에서 살펴 <표 12>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12> 왕실의 사차 (부의품은 <표14>참조)

	왕	수령인	하사품목
1	태조 14년(931) 8월 계축(癸丑)에 보윤(甫尹)선규(善規) 등을 보내	신라왕 백관(百官)에게 군사와 백성 승니(僧尼)에게	안마(鞍馬)·능라(綾羅)·채면(綵綿) 채면(綵綿) 차(茶)와 복두(幞頭) 차와 향
2	성종 9년(990) 10월	서경(西京)에 품관(品官)으로 나이 80세 이상인 자 3품 이상에게 5품 이상에게 9품 이상에게 품관(品官) 이상의 모(母)와 처(妻)로서 나이 80세인 자 3품 이상에게 5품 이상에게는 9품 이상에게는	공복(公服) 한 벌 채(彩) 2필(匹)과 복두(幞頭) 2매(枚)와 차(茶) 10각(角) 채(彩) 1필(匹)과 복두(幞頭) 1매(枚)와 차(茶) 5각(角) 포(布) 14필(匹)과 차(茶) 2근(斤) 포(布) 10필(匹)과 차(茶) 1근(斤) 포(布) 6필(匹)과 차(茶) 2각(角)
3	현종 9년(1018) 2		차(茶)와 포(布)내리되 차등 있게

190) 『宋會要』 禮44 <贈茶>條.
191) <부록2> 고려다사연보참조

	월 무진(戊辰)다.	해(海)·노(弩) 2군(軍)의 교위(校尉), 선두(船頭) 이하에게	
4	문종 21년(1067) 9월 정유(丁酉)	국사(國師) 해린(海麟)에게	다약(茶藥), 금은 기명(器皿), 채단(綵段), 보물(寶物)을 하사(下賜)
5	숙종 4년(1099) 윤(閏) 9월	임신(壬申)에 상자사(常慈寺) 갑술(甲戌)에 승가굴(僧伽窟)	은향완(銀香椀)과 수로(手爐) 각 1좌(座), 금강자(金剛子)와 수정염주(水晶念珠) 각 1관(貫), 금대(金帶) 요(腰), 금화과(金化果)를 수놓은 번(幡), 차(茶), 향(香), 의대(衣帶), 금기(金綺)를 시주(施主)
6	예종 10년(1115) 8월	박경작(朴景綽) .	다약(茶藥)을 하사(下賜)
7	예종(睿宗) 인종(仁宗)	이자연(李子淵) / 이자현(李資玄)	차(茶)·향(香). 금백(金帛) 다탕과 도복 다약(茶藥)
8	예종2년	박경인	다약(茶藥)을 하사
9	예종(睿宗) 초	위계정	다약(茶藥) 2은합(銀盒)을 하사
10	문종 3년(1049) 3월	최보성(崔輔成)·조옹(趙) 등에게	각기 공복(公服) 1습(襲)과 복두(幞頭) 2매(枚)와 뇌원차(腦原茶) 30각(角)하사

80세 이상의 노인에게 술, 과일, 음식을 베풀고 술, 비단, 베, 차, 약 등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80세 이상의 노인에게 차는 약용[192]으로서의 의미가 컸다고 여겨진다.

8) 官· 士 · 民 · 寺의 飮茶類

(1) 왕실의 차문화

고려사류 중 『고려사』『고려사절요』를 중심으로 다사의 기록인 궁중 차의례를 살펴보면 고려시대 진차의식은 삼국시대의 헌차의식이 발전된 것으로 국가의 많은 의식에 차를 올리는 의식을 말한다. 차를 올리는 진차 의식의 대상은 신불(神佛), 오악삼신(五岳三神), 선왕(先王), 외국에서 온 사신일 때도 있다. 의식에 따라 대상과 진차의식의 절차도 각기 다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팔관회의 시초는 신라 진흥왕(眞興王) 12년, 551년 때이다. 고려 태조(太祖) 왕건(王建:918~943)은 고려를 세워 신라의 문화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 받아 계승, 발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고려 태조원년(918)에 팔관회(이만열, 1996:37)를 베풀도록 하였으며, 그의 훈요십조(訓要十條) 중에도 가을의 팔관회의 중요성을 언급

192)『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기재조에 보면 약재로 상공하였다.(<표1>참조)

하였다. 봄의 연등회와 함께 팔관회는 국가의 중요한 의식이었다. 행사 앞에는 반드시 진차의식을 가졌다. '진차'란 임금에게 차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다방이라는 차 전담 부서가 있어서 궁궐의례가 있을 때마다 다과를 담당했다. 왕실에서 차가 의례에 처음 사용된 것은 5세기 남제(南齊)때 무황제의 제사이고, 우리나라에서는 7세기 신라 문무왕 때 수로왕의 제사에서 비롯된다(최호,1994:161) 이후로 차의례는 궁정의 의례 중에는 제사에 많이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신라의 불교를 그대로 수용하여 호국불교로 불교의례가 국가적으로 행해졌으며, 왕이 친히 공덕재(功德齋)의 준비를 위해 다마를 가는 것으로 보아 궁정에서 차의례에 대한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김명배(1996: 45)는 고려의 궁궐의 차의례는 같은 시대인 오대, 북송, 남송, 원, 명나라의 예지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송나라에서도 황제가 차를 갈아 재를 지내는 경우도 있었기에 이는 더 규명할 과제라 생각된다. 그 외 세시명절이나 국가의 경사가 있는 날, 사신의 접빈에 차의례가 있었으며 공이 있는 신하나 외국의 사신에게 하사하는 용도로 차가 사용되었다.

궁중의 차의례를 항목별로 정리한 가례 총 55항의 의례 중 12항목에서 차의례가 행해졌고 길례 총 25항의 의례 중 문선왕묘의 시학헌작(侍學獻爵), 빈례 총 5항의 의례 중 3항목에서. 흉례 총 11항의 의례 중 제신상과 중형주대의에서 『고려사』<예지(禮志)>의 차 관련 의례가 언급되었다. 따라서 궁궐 차의례는 음차풍속이 확산되면서 다기의 고급화, 독창화 다양화등의 발전과정을 가지고 왔다.

가례는 왕실의 혼례, 왕자·공주의 탄생, 관례 등에서 왕비의 책봉례(冊封禮)까지의 의례를 포괄한다. 이 의례는 왕실의 장엄한 의례를 통하여 그 존엄성을 서민과 차별화하면서 동시에 연회에서는 왕실과 양반 사대부들간의 화목을 추구하려는 의미를 가진다.

길례는 신을 천·지·인(天·地·人)으로 분리하고 다시 대·중·소·사(大· 中· 小· 祀)로 차별화하면서 제신(諸神)에게 제사하는 의식에서 왕의 위상을 서술하고 있다.

빈례는 왕실 대 왕실, 즉 국가 대 국가 간에 사신을 맞고 보내는 의례이다. 이는 국제간의 사신교례(使臣交禮)를 의례로서 보이는 것이고, 국내적으로는 왕실과 사대부, 지방관서 간에 파생되는 관계질서를 의례로 구현한 것이다.

흉례는 국왕의 붕어(崩御), 국휼(國恤)을 정점으로 하고 점차 의례 내용을 간략히 하면서 서민층에까지 망자에 대한 슬픈 애도의 의례를 담고 있다. 국왕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함께 왕권의 계승을 혼란 없이 승계하려는 의미를 내재하는 질서적 의미가 있다.

군례는 왕실이 국가통치에 필수적인 군의 통솔 상 필요한 의례로서 왕만이 이 의례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군례에는 차의례가 보이지 않는다. 궁중의 차의례는『고려사』와『고려사절요』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표13>과 같다.

<표 13> 궁중의 차의례

예의종류	의식명	장소	참석인	내용
가례	책 태후의 (冊 태후의)	대관전 (大觀殿)	왕, 왕태후, 신하들	왕의 어머니를 왕태후로 책봉하는 의식
	왕비를 책봉하는 의식	대관전 (大觀殿)	왕, 왕비, 연반(筵伴)	국모인 왕비 책봉시 茶를 이용한 것은 茶가 상서로운

	(冊王妃儀)		책사	神物이라는 것
	왕의 맏아들을 낳았을 때 의식 (元子誕生嘉儀)	대관전 (大觀殿)	왕, 신하, 수명자, 사신	왕태후는 전한 사신에게 茶를 베풀고 대통을 이어갈 원자가 탄생하면 대관전에서 하례함
	왕태자를 책봉하는 의식 (冊王太子儀)	동궁(東宮) 대관전 (大觀殿)	왕, 왕태자, 신하들	책봉 의식 중 茶를 이용하는 것은 고려에서 정례화된 진차의식이다.
	왕자와 왕희를 책봉하는 의식 (冊王子王姬儀)	대관전 (大觀殿)	왕, 왕자, 왕희, 신하	왕과 왕희 책봉 시에도 茶를 올린 것은 역시 茶의 신성함과 중요성을 강조한 것
	공주의 결혼의식 (公主下家儀)	공주궁 (公主宮)	사위, 사신 일행	공주 혼례시 진차의식을 행한 것은 문헌상 최초 기록이며 일반인에게도 보급된 풍습이다.
	설날의 연회의식 (元會儀)	대관전 (大觀殿)	왕, 군신	새해 아침 임금께 하례하고 茶酒를 올린 것은 오늘날의 다례가 이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임
	왕태자가 명절에 동궁 관리로부터 축하받는 의식과 연회를 베푸는 의식 (王太子節日受宮官賀幷會儀)	여정궁 (麗正宮)	왕태자, 신료	왕태자가 명절에 여러 신료들에게 茶酒를 대접받고 베푸는 진차의식
	대관전에서 백관들을 위한 연회의식 (大觀殿宴郡臣儀)	대관전 (大觀殿)	왕, 왕태자, 영공 군신	왕이 명절이나 생일이나 책봉 후에 신하들로부터 하례 받고 茶와 酒를 대접받은 후 신하에게도 하사하는 의식
	노인들에게 선물을 주며 베푸는 연회의식 (老人賜設儀)	대관전 (大觀殿) 동락정 (同樂亭)	왕, 신하, 노인, 효자, 순손	8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연회를 베풀고 선물을 준 것은 노인들을 존경하는 거룩한 禮節로 여겼다.
	상원연등회의 의식 (上元煙燈會儀)	강안전 (康安殿)	왕, 신하들	고려 왕실에서 연등회같은 불교 행사에 진차의식을 행한 것은 그만큼 불교의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사실과 오랜 전통으로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중동팔관회의 의식 (仲冬八關會儀)	대관전 (大觀殿) 선인전	왕, 신하들	신라 때부터 내려온 가장 큰 풍속으로 가장 많은 참여와 가장 많은 물품을 이용, 온

		(宣仁殿)		백성이 하나 되어 거행, 가장 화려하고 성대한 진차의식이었다.
길례	문선왕묘 (文宣王廟)	묘당 (廟堂)	왕, 신하들	제사에 茶를 올리지 않고 참석한 신료들에게 茶를 下賜.
빈례	북조의 조서를 가지고 오는 사신을 맞이하는 의식 (北朝詔使儀)	건덕전 (乾德殿)	왕, 신하들, 사신 일행	중국 사신을 맞이할 때 茶로서 禮를 갖추어 의식을 행하고, 조서나 칙서를 받았을 때 진차의식이 이루어짐
	북조의 기복 고칙사를 영접하는 의식 (北朝起復告勅使儀)	건덕전 (乾德殿)	왕, 신하들, 사신 일행, 다방 관원	중국의 사신맞이 의식 진차의식
	조서를 가지고 오지 않은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의식 (迎大明無詔勅使儀)	정전 (正殿)	왕, 신하들, 사신 일행	북조의 사신맞이와는 차이가 있고 조서나 칙서를 가지고 온 사신에게는 진차의식을 행하지 않고 무조칙사에게만 정전에서 한다.
흉례	여러 신하들의 상사에 대한 의식 (諸臣喪)	?	조문사	대신들이 죽음에 부의(賻儀)를 하고 관직을 높여 대우를 극진히 함
	중한 죄신을 처결하는 의식 (重刑奏對儀)	내전(內殿) 남랑(南廊)	왕, 신하, 승선(承宣), 중방(重房), 원방(院房)	죄인에게 참형(斬刑)을 결정하기 전에 왕과 신하는 茶를 마시는 의식을 행하므로 공정하고 신중한 판결을 내리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① 嘉禮시 進茶儀

가례는 『고려사』<예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주로 황제 황태자 중심으로 관례, 혼례, 책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소는 대부분 대관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참석원은 왕과 왕태후, 왕비, 왕자, 왕희, 사신일행 신하들로 구성되었다. 이 의식에서 차는 우선순위로서 올려 졌고 예식전날 상사국에서는 대관에 진설한 뒤 먼저 차를 올리고 연회일 때는 주악(奏樂)이 따르고 미리 과안(果案)을 차려놓기도 하고, 글도 교환하고, 빈(賓)에게 선물을 주었다. 이범직(1991:133-136)은 『신당서』와 『송사』에 나타나는 가례를 융합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았다. 이은주(2001:38)는 고려왕실이 가례의식을 통하여 왕실의 위상을 유교이념으로 수식하고 권위를 서술하려 했던 것으로 보았다. 구영본(2007:82)은 고려사 예지의 가례는『주자가례』의 내용에 기초하면서 골격은 당(唐)의 가례와 비슷하다고 보았다. 혼례의식, 관례의식, 등극의식, 존호를 드리는 의식, 책봉의식 등 경사스러운 의식으로, 연등회, 팔관회도 이에 해당이 된다.

가) 태후 책봉 의식(冊太后儀)

태후를 책봉하는 의식은 차와 음식이 등장하지만 어떻게 마시는지 의식 절차는 생략되어

알 수가 없다. 기록의 내용에

왕이 내전에 들어가면 선물 실은 상이 앞에 가고 다음에는 행로(行爐)와 다담(茶擔)이 가고 다음에는 교상(絞床)과 수관자(水灌子) 순으로 나간다.[193]

위의 기록으로 보아 진차의 순서는 생략되었으나 차의례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나) 왕비 책봉 의식(冊王妃儀),

왕비를 책봉하는 의식은 태묘(太廟), 별묘(別廟), 경령전(景靈殿)에 고유 하는 것과 절차가 같으며 대관전 진설(大觀殿 陳設), 옥책을 발부하는 의식(臨軒發冊), 궁정진설(宮庭陳設), 궁정에서 책문을 받는 의식(宮庭受冊), 회빈(會賓), 부표(附表) 등의 의식을 거행한다. 회빈(會賓)의 순서에

집례관이 "揖"이라 찬하여 손님과 주인이 서로 읍하고 자리로 가 茶를 올린다. 술이 이르면 집례관이 주인과 손님을 인도하여 욕위(褥位)로 가서 선다. 재배하고 각자 자기 자리에 앉으면 차를 내어오고 술잔을 돌리고 처음과 같이 음식를 차린다.[194]

이와 같이 손님에게 진차의식을 행했는데 상마다 과일을 차려 주(主), 빈(賓)에게 진차하고 술을 권하고 음식이 나오는 이런 절차가 8번에 이르면 집례관이 주, 빈을 인도하여 읍한 후 휴식을 취하게 한 후 궁궐에서 꽃과 술을 보냈음을 전하고 다시 진차하고 술을 올린 후 음식을 올리는 것을 처음과 같이 한다. 이러한 의식 절차는 모든 책봉의식에 다 쓰였다.

다) 원자탄생가의(元子誕生嘉儀)

원자가 탄생하면 왕은 사흘 동안 정무를 쉬고 4일째 되는 날 축하하는 의식이 있는데 왕이 대관전에 예를 갖출 때는 절일(節日: 명절), 정지(正至), 정조(正朝), 동지(冬至)와 같이 하며 그 절차는 먼저 경령전에 고하고, 조서를 작성하여 사신을 파견하고, 연회를 베푸는 순서로 행한다. 손님을 접대할 때는 차와 술로써 대접했음이 아래 기록에 보인다.

손님과 주인이 마주 읍하고 각자 자리에 앉는다. 그 다음에 차를 내어 오고 다시 술이 나올 때는 주인과 손님이 술잔을 서로 주고받는다. 이것이 끝나면 밥상이 나온다.[195]

---

193)『고려사』권65 지19 예 <가례, 책태후의> 王入內 進物擔床前行 次行爐茶擔 次絞床·水灌子.

194)『고려사』권66 지20 예<가례 책왕비의> 執禮官, 贊揖, 賓主, 相揖就座, 進茶訖, 酒至, 執禮官, 引賓主, 出就褥位, 筵伴請獻, 賓辭, 筵伴請獻, 至于三, 賓, 稱不敢辭..

195)『고려사』권65 지19 <예 가례, 원자탄생가의> '賓主, 相揖就坐訖 進茶酒 酒至 賓主俱興 獻酬訖 設食 禮畢罷宴.'

라) 책왕태자의(冊王太子儀)

태묘, 경령전, 여러 릉(陵)과 사당에 고유(告由)하는 것은 보통의 절차와 같으며 전정(殿庭)의 진설은 왕비를 책봉하는 의식과 같다. 다만 남궁(南宮, 王后殿)과 동궁(東宮, 太子宮) 등의 장소가 달랐고 왕이 임석하여 책문을 발표하는 예식, 동궁궁정의 진설, 태자가 궁정에서 책문을 받는 예식, 연회, 부표(附表, 축하문), 왕태자의 알현(朝謁), 백관들의 축하(百官朝賀) 순으로 진행되었다.[196] 이 의식은 왕태자의 왕위계승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조정의 주요 관료가 모두 참여하였다. 진차의식은 왕비 책봉 때와 같다.

마) 책왕자왕희의(冊王子王姬儀)[197]

왕자, 왕희를 책봉하는 의식에서의 진차는 왕비 책봉 때와 같다.

바) 공주하가의(公主下家儀)

공주 혼례 의식의 순서는 친영(親迎), 동뢰(同牢), 현구고(見舅姑), 강사(降使)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진차의식은 강사(降使, 사신맞이)[198]때 행해진다.

다시 빈주가 서로 읍하고 자리에 나아가기를 마치면 차와 술을 베푼다. 차를 마시고 나면 술이 이르는데 주인과 손님이 함께 일어나 헌수(獻酬)한 후 음식을 베푼다.[199]

친영례에서 신랑의 부친이 아들에게 술을 권하고 술과 안주로 예를 갖춘 후 동뢰[200]가 끝나면 예를 갖추어 시부모를 뵌 후 사신 파견 순으로 이어지는데, 연회에서 조서를 가진 사람이 손님이 되고 신랑이 주인이 되어 차와 술을 내어와 서로 권한 다음 음식이 나온다. 고려의 왕가혼례에 차가 사용되었다는 귀중한 자료다. 왕실에서의 풍습은 일반 사가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사) 설날의 연회의식(元會儀)

설날 아침에 태자, 영공, 재신이 임금께 하례를 드리는 의식으로 이 때 임금께 진차의식이 행해졌다. 상식다방(尙食茶房)은 전날 연회를 준비한다.

> 다방에서 먼저 차를 올린다. 차를 마시고 나면 술을 올리는데 뇌주(酹酒)하기를 마치고 태자(太子), 영공(令公,) 재신(宰臣)들이 왕의 좌석 앞의 동쪽으로 가까이 나아가 엎드렸다가 일어나 영공은 술병을 거들어 잡고 태자가 헌수주(獻壽酒)를 따르면 다방원(茶房員)이 공손히 잔을 받든다. [201]

이와 같이 설날 아침 임금께 수주(壽酒)를 올리고 차도 올리는 진차의식이 행하여졌다. 왕실의 다례가 민간에서는 명절이면 조상에게 차를 올리는 다례를 행해졌던 것으로 사료된다.

---

196) 『고려사』 권66 지20 <예 가례 冊王太子儀>

197) 『고려사』 권67 지21 <예 가례 .冊王子王姬儀>

198) 축하손님은 중국사신이 '賓'이 되고 주최자인 '주인'이 함께 茶를 마시며 설다의(設茶儀)가 행해졌다.

199) 『고려사』 권67 지21 <예 가례 공주하가의> 賓主 相揖就座訖 設茶酒 酒至 賓主 俱興獻酬訖 設食.

200) 부부가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을 말한다.

201) 『고려사』 권67 지 21 <예 가례 元會儀> 茶房, 先進茶, 後行爵酒訖, 太子·令公·宰臣, 詣王座前, 近東, 俛伏興, 令公佐尊, 太子, 酌壽酒, 茶房員, 俠盞, ,

아) 태자절일수궁관하병회의(王太子節日受宮官賀幷會儀)
왕태자가 여러 군신으로부터 절일(節日, 每月 名節)에 하례를 받고 그들이 올리는 차와 술을 받고 그들에게 연회를 베풀어 차, 술, 음식을 대접한다. 궁궐의 보통절차와 대동소이하다.

> 사인(舍人)이 행두(行頭)를 인도하여 서쪽 계단으로 올라가 준소(尊所)에 나아가면 궁관(宮官)이 차와 술을 올린다. 202)

자) 대관전연군신의(大觀殿宴郡臣儀)
대관전에서 군신을 연회하는 의식 때 임금께 차를 올리고 군신에게도 차를 하사하는 의식이다.

> 근시관이 차를 올리면 집례관은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도 차를 권하고, 매양 술을 올리고 음식을 올릴 적마다 집례관은 몸을 국궁한다. 다음에 태자 이하의 백관들에게 차를 하사하면 태자 이하 백관들이 재배한다. 집례관이 찬음(贊飮)이라고 하면 태자 이하는 차를 마시고 읍 한다..... 다식(茶食)이 이르면 교방(敎坊)이 치어(致語)와 구호(口號)를 드린 후 태자(太子) 이하 군관(群官)이 내려가 전정(殿庭)의 배위(拜位)로 간다.203)

차 마시는 순서에 '다식(茶食)'204)을 올리는 것으로 보아 다식이 있었고 차 마실 때 올린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차) 상원연등회의(上元煙燈會儀)
왕실에서 봄에는 연등회(음력2월 15일) 가을에는 팔관회(음력11월 15일)의 2대 명절이 있는데 연등회는 신라시대의 토속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의식으로 진흥왕(眞興王) 12년(551년)에 시작되어 고려말까지 이어졌다. 고려 때 가장 큰 명절의 하나인 봄에 지내는 연등회는 부처를 섬기는 것으로, 등불을 밝히고 다과를 베풀고 음악과 춤으로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기며, 부처님을 즐겁게 하여 국가와 왕실의 태평을 비는 행사이다. 해마다 음력 2월 15일에 개최된 것을 의종(毅宗) 때부터 정월 보름에 행하였다. 연등회의 다례는 궁중의 강안전(康安殿)에 마련된 부계(浮階)에서 거행되었다. 『고려사』에 보면 연등회를 지낼 때 진차의식을 행하였다. 연등회의 절차는 소회(小會)일에 지내는 좌전(坐殿의식과 조진(祖眞)을 알현하는 의식이 있고 이어서 대회일의 본 행사(大會日 座殿)가 있다. 진차의식은 대회일 좌전 의식 때 있다.

---

202)『고려사』권67 지21 <예 가례 王太子節日受宮官賀幷會儀> 舍人, 引行頭, 就西階, 升詣尊所, 宮官, 進茶酒訖,,

203)『고려사』권68 지22 <예 가례 大觀殿宴郡臣儀> 近侍官進茶, 執禮官, 躬身勸, 每進酒進食, 執禮官, 皆躬身,…次賜太子以下群官茶, 太子以下群臣, 再拜, 執禮官, 贊飮, 太子以下飮訖, 揖.....至茶食, 敎坊, 呈致語, 口號訖, 太子以下群官, 降就殿庭拜位,

204) 고려 말기의 문신이며 학자인 이색(1328-96)이 읊은 '종덕 부추가 팔관 개복과 다식을 보내다.'(種德副樞送八關改服茶食)라는 시 내용 중에 '잘게 씹으니 단맛이 이와 혀에서 감도네.'(細嚼微甘生齒舌) 라는 다식에 관한 구절이 있다.

근시관(近待官)이 차를 올리면 집례관(執禮官)이 전(殿)을 향하여 국궁(鞠躬)[205]하고 술과 음식을 올릴 적마다 집례관이 모두 전을 향하여 국궁하고 권하였는데, 뒤의 행사에도 모두 이러한 예절을 본받았다. 다음에 태자 이하 시신(侍臣)에게 차를 하사하는데 차가 이르면 집례관의 찬배(贊拜)로 태자 이하가 재배(再拜)하고 집례관의 찬음(贊飮)으로 태자 이하가 모두 마시기를 마치고 읍(揖)한다. [206]

위의 기록을 보면 차, 술, 밥, 약, 꽃, 과일 등을 올리고 답례로 하사하는 절차와 의식은 대동소이하며 순서도 비슷하다. 다만, 차를 먼저 올린다는 점과 무도(舞蹈), 음악, 놀이, 공연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종(成宗)은 유학도(儒學徒)들이 번잡하고 소란하다는 반대로 중지하였으나, 현종(顯宗 元年, 1010)때 다시 실시한 것으로 보아[207] 국가의 중요한 의식(儀式)으로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김명배(1999 : 34))는 고려의 연등회가 조선시대에 영등(靈登), 서낭제(祭), 동제(洞祭) 등의 토속적인 풍신제(風神祭)로 변모되었다고 하였다.

카) 중동팔관회의(仲冬八關會儀)

팔관회는 신라 진흥왕 12년(551년)에 거행된 팔관회의 유습[208]을 계승한 민족적인 축제로 팔관회 의식은 송도에서는 음력 11월14일과 15일에 거행하였고 서경(평양)에서는 10월에 거행하였다. 팔관회는 소회일(14일)과 대회일(15일)로 나누어지는데, 진차의식은 소회일과 대회일에 모두 행하였다. 해마다 음력 11월 14일에 개최된 소회의 다례는 궁중에 있는 의봉문(儀鳳門) 동전(東殿)의 계단 아래에 마련된 부계(浮階)에서 거행되었다.

소회일의 다례는 다음과 같이 거행되었다.

① 다방에서 과일상을 왕의 좌석 앞, 술상은 좌 ·우, 꽃상은 남쪽에 차린다.
② 왼쪽 집례관이 태자와 상공(上公)을 인도하여 세소(洗所)에 나아가 손을 씻고, 근시관이 차를 올리면 집례관이 전각을 향하여 국궁(鞠躬)하여 권한다.
③ 왕도 신하에게 차를 하사한다.
④ 근대관이 王에게 차와 음선(飮膳)를 올리고 다음에 태자, 공(公), 후 (候), 백(佰) 및 추밀(樞密), 시신(侍臣)에게도 차와 음선를 베푼다.
⑤ 좌우 집례관이 배(拜)라고 하면 태자이하 추밀관, 대신들은 재배하고 자리에 앉아 차와 음식을 먹고 일어난 뒤 읍한다. 중계(中階) 시신들은 서서 음식을

205) 몸을 90도로 굽힌다.
206)『고려사』권69 지23<예 上元燈燈會儀 大會日 座殿> 近侍官進茶 執禮官 向殿躬身 勸每進酒進食 執禮官 皆向殿 躬身勸 後皆倣此 次賜太子以下侍臣茶 茶至 執禮官 贊拜 太子以下 再拜 執禮官 贊飮 太子以下 皆飮訖揖.
207)『고려사』권69 지23 <예, 역대 연등회> 顯宗元年閏二月, 復燃燈會, 國俗, 自王宮國都, 以及鄕邑, 以正月望, 燃燈二夜, 成宗, 以煩擾不經, 罷之, 至是復之, 二年二月, 設燃燈會于淸州行宮, 是後, 例以二月望, 行之.
208) 팔관회는 (11월 15일 전후 3일간)에 천령(天靈), 오악(五嶽), 명산, 대천, 용신(龍神)을 섬기는 것으로, 신라 때부터 내려온 가장 큰 명절 중의 하나이다

받는다.

⑥ 근대관이 왕께 차를 올린 다음에 태자, 공, 후, 백 및 추밀, 시신에게도 차를 드린다.

⑦ 집례관이 배라고 하면 태자 이하 추밀 시신이 모두 재배하고 차를 받아 마시고 읍한다.[209]

해마다 음력 11월 15일, 같은 곳에서 개최된 팔관회의 대회일의 다례는 다음과 같이 거행되었다.

① 왕은 신하들의 문안이 끝나면 대관전을 거쳐서 의봉루로 나가 향을 피우고 그 외의 절차는 소회일과 같다.

② 근시관이 차와 음선을 올리면 집례관이 전을 향하여 국궁한다.

③ 태자 이하 시신들에게 차와 음선을 준비해오고 집례관이 배라고 하면 태자 이하 대신들이 모두 재배하고 자리에 앉아 차와 음식을 먹은 후 읍한다.[210]

④ 전상(殿上)에 차, 술, 음식을 올리고 태자 이하 대신에게도 차, 술, 음식이 나온다.

⑤ 악(樂)을 시작하고 중지하는 것도 모두 소회의 의식과 같이 한다.[211]

팔관회의 진차의식은 신라 진흥왕(551) 때에 시작되어 고려 공양왕(1392)까지 840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 궁중에서의 차란 의례에 중요하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허충순(1988 : 11)은 고려의 왕실 의식에는 술과 차가 사용되었으나 차를 중히 여겼던 것으로 보았으며, 그것은 궁정에서 행한 불교의례가 비중 있게 다뤄지면서 술보다 차에 더 의미를 부여한 것 같다. 그러나 술은 군신이 동락(同樂)하는 성격이 강했고, 의식절차상 술이 없이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주령이 내려진 가운데에도 팔관회에서의 술의 사용은 예외로 하고 있었다.[212] 위의 내용들로 미루어 볼 때 왕궁 안에서는 가례 때 항상 다례가 베풀어진 것을 구영본 (2007:90)은 손님과 주인 간에 차는 공경의 예물로 여겨졌고 예의도 갖추었다고 말했다. 또한 홍금이(2002 : 78)는 만민이 갖는 통과의례적인 의식을 통하여 왕실과 서민에 이르기까지 친목화친의 목적으로 차가 쓰였다고 보았다.

본고에서는 가례에 차를 쓴 것은 왕이 차를 중요한 예물로 여겼고 귀한 예물을 의례에 사용하고 신하에게 차를 내려 선정을 베풀었다. 또한 왕의 차에 대한 의식이 고려를 끽다왕국으로 만들었고 팔관회의 다례의식은 고려의 차문화 발전과 전파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궁중의 다례의식으로 계승 발전되었다.

---

209) 『고려사』 권69 지23 <예 소회일>

210) 『고려사』 권69 지23 <예 소회일>

211) 『고려사』 권69 지23 <예 대회일>

212) 『고려사』 지39 <형법> 禁令 "今國有大喪, 理宜禁酒, 若有群飮歌舞者, 有職, 徵布七十匹, 白身, 決杖七十七, 四隣, 知而不告, 徵布五十匹. 지금 나라에 대상(大喪)이 있으니 도리에 마땅히 금주(禁酒)하여야 하는데 만약에 떼를 지어 술을 마시고 가무(歌舞)하는 자가 있으면 직(職)이 있는 자는 포(布) 70필(匹)을 징수하고 직(職)이 없는 자는 장(杖) 70을 칠 것이며 이웃[四隣]에서 알고도 아뢰지 않으면 포(布) 50필(匹)을 징수한다."

② 길례(吉禮)

길례란 원구(園丘), 사직(社稷)을 비롯하여 대묘(大廟) 및 흉례인 상례와 장례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제사의식을 가리킨다. 길례는 천신(天神), 지기(地祇), 인귀(人鬼)의 신위로 분류하고 대사(大祀)와 중사(中祀)와 소사(小祀)로 등차를 두어 천신에는 사(祀), 지기에게 제(祭), 인귀에는 향(享), 문선왕(文宣王)에는 석전(釋奠)을 행한다.[213] 『고려사』의 길례는 25종의 의례 중 차의례가 행해진 것은 중사인 문선왕묘 의식 후에 차를 내렸다.

가) 시학작헌문선왕의(視學酌獻文宣王儀)

문선왕묘의 제례의식은 고려 초부터 시행된 것으로 공자와 그의 제자들, 후학 문사들을 모신 묘당에 매년 봄, 가을로 상정일(上丁日)에 임금이 직접 거동하여 제사를 집전하였으며, 제단에 차를 올리지는 않지만 제사에 참석한 관료들에게 차를 하사하였다.

> 각문사(閣門使)가 왕지(王旨)를 전하여 자리에 나아가라 하고 차를 사하면 사인(舍人)의 찬배(贊拜)로 왕태자 재추(宰樞) 이하 군관(群官) 및 감(監) 학관(學官) 학생(學生)이 모두 재배한다. 왕태자 이하 군관이 당(堂)에 올라가 각각 자리 뒤에 나아가서면 사인이 "각각 자리에 나아가라"고 칭하면 왕태자 이하 모두 자리에 나아가고 차를 사하는 것이 끝나고 나면 감, 학관, 학생은 뜰 밑에 서서 차를 받는다.[214]

제례를 지낸 후 강서관(講書官)이 경서(經書)를 가지고 강(講)할 바의 글을 읽고 뜻을 풀이하면 시강자가 다례로 논란한다. 이를 마치면 임금이 왕세자와 관관(館官)·학관(學官) 학생들에게 차를 내려주는 의식을 행하였다. 왕이 학생들에게 차를 내려 주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왕이 그만큼 차를 귀히 여겼다는 것이고 왕의 선정(善政)이요 궁중의 차문화가 학생들에게로 전파되는 과정이 되었다.

③ 빈례

빈례는 주변국가와의 국제적인 외교관계를 다룬 것으로 외국 사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예절로 귀중한 의식이었다. 매번 중원(中原)의 사신이 올 때마다 왕은 친히 맞이하고 반드시 차와 술을 베풀었다. 주요 의식은 다음과 같은데, 이와 같은 의식은 조선조에까지 이어졌다.

『고려사』의 빈례에는 북조(北朝)[215]의 조사를 맞이하는 영북조조사의(迎北朝詔使儀), 기복고칙사를 맞이하는 영북조기복고칙사의(迎北朝起復告勅使儀)가 있으며, 대명(大明)의

---

213) 대사(大祀)는 원구(圜丘)·,방택(方澤)·,사직(社稷),·태묘(太廟)·,별묘(別廟)·,경영전(景靈殿)·제릉(諸陵)이 있고, 중사(中祀)는 적전(籍田)·,선잠(先蠶)·,문선왕묘(文宣王廟)가 있고, 소사(小祀)는 풍사(風師),·우사(雨師)·,운사(雲師),·영성(靈星)·,제주현문선왕묘(諸州縣文宣王廟) 등이 있다.

214)『고려사』지 16.예 <길례. 視學酌獻儀 > "閣門使, 傳宣就座, 賜茶, 舍人贊拜. 王太子, 宰樞以下群官, 及監·學官·學生, 皆再拜訖, 王太子以下群官升堂, 各就座後立, 舍人, 稱各就座, 王太子以下, 皆就座, 賜茶畢, 監·學官·學生, 於庭下, 立受茶 "

215) 북조(北朝)는 송(宋), 요(遼), 금(金)을 말한다.

조사를 맞이하는 영대명무조칙사의(迎大明無詔使儀), 사로사를 맞이하는 영대명사로사(迎大明賜勞使), 무조칙사를 맞이하는 영대명무조칙사의가 있다. 이 중에서 다례를 행한 것은 영북조조사의, 영북조기복고칙사의, 영대명무조칙사의 등이다.

가) 영북조조사의

영북조조사의는 고려에서 북조인 거란과 금나라의 조사를 맞이하는 의식으로 차의례는 태조부터 고종까지 310여 년간 거행되었다.

> 각사(閣使)가 객성(客省)에서 차[茶]와 주식(酒食)을 사(賜)하라는 교(敎)가 있음을 전하면 사인(舍人)의 갈(喝)로 재배(再拜)하고 인도하여 전문(殿門)으로 나간다. ..... 그런 다음 차[茶]를 올리는데 첫잔은 사신(使臣)에게 친히 권(勸)하며 수작(酬酌)하고 돌아와 재배(再拜)하고 자리[座]에 나아가 마신 후 서로 읍(揖)하고 돌아와 자리[座]로 가고 중(中) 하절(下節)에게도 주식(酒食)을 사(賜)한다.[216]

이은주(2001:30)는 조사를 맞이하는 의식은 왕이 몸이 편치 않아도 직접 조서를 받았으며, 의식에는 국신물색(國信物色, 국서와 예물)의 증정절차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 정묘(丁卯)에 태자에게 명하여 순천관(順天館)에 나아가 송사(宋使)를 인도하게 하니 창합문(閶闔門)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회경전 뜰로 들어왔다. 왕이 때마침 몸이 불편하였으므로 좌우로 하여금 부축케 하고 나와 조서를 받았다.……별사(別賜)한 것으로는 용봉차가 10근인데, 매 근을 금은으로 도금한 죽절합자(竹節合子)에 넣어 명금(明金) 5채(綵)로 장식하고 요화판 주칠갑(腰花板朱漆匣)에 담아서 붉은 꽃무늬 비단 겹보자기로 쌌다. 이 가운데 용차(龍茶)가 5근, 봉차(鳳茶)가 5근이었다.[217]

문종 때에 조사를 맞이하면서 용봉차 10근을 받았으며, 예종 때에는 제신들에게 용봉차를 하사하였는데, 이것들은 빈례의 의식절차에서 받은 것이다. 용봉차의 하사는 제신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고려시대에 중국과의 교류에 예물로 차를 주고받은 사례로는 정종(正宗) 4년(1038)에 거란에 토산차인 뇌원차(腦原茶)를 예물로 보냈고[218], 인종 8년(1130)에 금(金) 나라에 차를 보냈으며[219], 충렬왕 18년(1292)에도 원나라에 향차(香茶), 목과(木果) 등을 보냈다.[220] 한편 송나라에서는 고려의 사신들에게 용봉명단(龍鳳茗團) 혹은 용차와 봉차를 다른 예물과 함께 보내와[221] 고려와의 외교에 도움이 되고자 노

---

216)『고려사』권65 지19 예 <빈례 영북조조사의>…閣使, 傳有敎賜客省茶酒食, 舍人喝, 再拜, 引出殿門,..... 進茶, 初盞, 親勸使臣, 還酬再拜, 就座飮訖, 相揖還就座, 賜中下節酒食畢, 使臣, 再拜進步, 致辭再拜,

217)『고려사』문종 32년 6월, 丁卯, 命太子, 詣順天館, 導宋使, 至閶闔門下馬, 入會慶殿庭, 王適不豫, 使左右扶出受詔, … 今差左諫議大夫安燾·起居舍人陳睦, 賜卿國信物等, 具如別錄, 至可領也,…別賜龍鳳茶一十斤·每斤用金鍍銀竹節合子·明金五綵裝腰花板朱漆匣盛·紅花羅夾帕複·龍五斤·鳳五斤.

218)『고려사』세가 권6 정종 4년 7월 갑인.

219)『고려사』세가 권16 인종 8년 3월 기미.

220)『고려사』세가 권30 충렬왕 18년 10월 을사.

221)『고려도경』제6권 궁전2(정영전각);『고려사』세가9 (문종 32년 6월,1078),'別賜龍鳳茶一十斤·每斤用金鍍銀

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록들은 고려가 일본과 거란, 금나라, 송나라 사이에 차에 대한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차가 외교의 물품으로 귀하게 쓰여 졌음을 알 수 있다.

나) 영북조기복고칙사의

영북조기복고칙사의는 북조에서 보낸 기복고칙사를 맞이하는 의식으로 고려왕이 상주가 되면 금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기복(起復, 상중에 나와서 국사를 보는 것)하기를 명하고 삼년상이 끝나면 다시 사신을 보내어 기복을 파하게 하는 것이다. 기본 의례는 영북조조사의와 비슷하며

> 각사가 선전(宣傳)하여 사신(使臣)에게 다주(茶酒)를 올리라는 교(敎)가 있다고 하면 사인의 갈(喝)로 재배하고 사신을 인도하고 나가는데 다주(茶酒)의 예를 끝냈음을 치사(致辭)하고 왕이 답배한다.[222]

는 의식이 있다.

다) 영대명무조칙사의

명나라 사신으로 황제의 조칙(詔勅)을 휴대하지 않은 자를 맞이하는 의식이다. 북조의 조사를 맞을 때는 건덕전(乾德殿)에서 맞이하였지만 대명의 조사는 교외에 임시로 장막을 설치하고 맞이하기 때문에 차 대접은 생략되었다. 다만, 조칙을 갖지 않고 온 사신을 맞을 때는 교외로 나가지 않고 영빈관에서 맞이하기 때문에 차 대접을 하였다.

> 당일에 왕이 성 밖의 장막에 출영하는데 세자 이하 백관이 모두 호종하는 데 평상복으로 호종한다. 사신이 말에서 내려 왕과 마주 읍한 뒤에 함께 말을 타고 왕궁에 이른다. 정전(正殿) 가운데 이르면 사신은 동편에 서고 왕은 서편에 서서 한훤(寒暄, 계절에 따른 인사말)을 간략히 말하고 마주 앉아 차를 베푼다. [223]

사신맞이 접대는 왕실의례에서 갖는 중요성이 크다. 위의 빈례를 살펴보니 차를 의례로서 사차한 것은 차를 중히 여기고 왕이 사신에게 차를 하사함은 송과 대등한 왕의 권위를 지켰다는 것을 말한다. 차를 통한 빈례의식이 조선으로 이어졌는데 조선시대에는 더욱 엄격해지고 격식화된다. 조정에서 거행된 최대의 다례는 태평관(太平館)에서 明나라의 칙사(勅使)를 맞이한 연조정사의(宴朝廷使儀)이고 궁중에서 치러진 다례는 빈례가 가장 많았다.

④ 흉례

흉례는 국가 또는 왕실의 상(喪), 장(葬)에 관한 모든 의식으로 국가 규범적 예전(禮典)의 성격을 지닌다. 제신상(諸臣喪) 때에는 부의품(賻儀品)으로 차를 하사하였고, 무거운

竹節合子·明金五綵裝腰花板朱漆匣盛·紅花羅夾發複·龍五斤·鳳五斤.

222) 『고려사』 65 志 19 <빈례 迎北朝起復告使儀> 閣使, 宣傳有敎使臣茶酒, 舍人喝, 再拜, 引出使臣, 茶酒禮畢, 致謝, 王, 拜訖,.

223) 『고려사』 권65 지19 예 <빈례 영대명무조칙사의> 王, 進使臣前, 稍躬身, 問聖躬萬福, 使臣答後, 王, 北向跪, 叩頭興平身, 東西相向再拜訖, 略敘寒暄, 東西對坐, 設茶後, 王, 入內小歇, 世子與使臣, 相見再拜, 次諸君, 次宰樞, 次百官, 皆同 訖..

형벌을 내리는 중형주대의(重刑奏對儀)때에는 진차의식을 행했는데 임금께 차를 올리고 신하에게도 차를 하사하였다.

가) 제신상

고려 성종(成宗, 982-997)은 최지몽(崔知夢, 987卒), 최승로, 최량(崔亮, ?-995)의 부의에 뇌원차(腦原茶)와 대차를 하사하였다.[224] 최승로가 사망했을 때 상례품(喪禮品)으로 뇌원차 200각과 대차(大茶) 10근을 하사하였다. 최량이 사망했을 때에는 뇌원차 1,000각을, 한언공(韓彦恭)에게는 200각을, 서희(徐熙)에게는 뇌원차 200각과 대차(大茶) 10근을 하사하였다. 최승로가 사망한 연대는 989년으로 고려에서 주자를 받아들이기 이전부터 차가 조정에서의 하사품으로 상례의 부조 예품(禮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에 부의품으로 차를 하사한 예는 <표 14>와 같다.

224) 『고려사』 지,<예,흉례, 제신상> 成宗六年三月, 內史令崔知夢卒, 王, 聞訃震悼賻布千匹·米三百石·麥二百石·茶二百角·香二百斤·官庀葬事, 贈太子太傅, 謚敏休, 八年五月, 守侍中崔承老卒, 王慟悼下敎, 褒其勳德, 贈太師, 賻布千匹·麪三百石·粳米五百石·乳香百斤·腦原茶二百角·大茶十斤, 十四年四月, 平章事崔亮卒, 王, 慟悼, 贈太子太師, 賻米三百石·麥二百石·腦原茶千角, 以禮葬之, 謚匡彬'.

<표 14> 왕실의 부차

번호	왕(년도)	부의대상	부의품
1	성종(成宗) 6년	최지몽	포(布) 1,000필(匹), 쌀 300석(碩), 보리 200석(碩), 차(茶) 200각(角), 향(香) 20근(斤)을 부의했다.
2	성종(成宗)8년	최승로(崔承老)(최제안(崔齊顔))	포(布) 1,000필(匹)·면(麵) 300석(碩)·경미(硬米) 500석(碩)·유향(乳香) 200냥(兩)·뇌원차(腦原茶) 200각(角) 대차(大茶) 10근(斤)을 부(賻)하였다.
	성종(成宗)14년	최량(崔亮)	미(米) 300석(石) 맥(麥) 200석(石) 뇌뉜차(腦原茶) 천각(千角)을 부의(賻儀)
3	목종(穆宗) 6년	한언공(韓彦恭)	쌀 500석(石)·보리 300석과 포(布) 1,200필(匹)·차(茶) 200각(角)을 부의(賻儀)했다.
4	정종(靖宗) 6년	이주좌(李周佐)	미맥(米麥) 400석을 부의(賻儀)하였으며 차(茶) 및 의착(衣著)을 부의했다.
5	인종(仁宗)	이자연(李子淵) / 이자현(李資玄)	다약(茶藥)을 부의했다.
6	예종(睿宗)1년	위계정(魏繼廷)	다약(茶藥) 2은합(銀盒)을 부의했다..
7	예종(睿宗)2년	박인량(朴寅亮) / 박경인(朴景仁)	다약(茶藥)을 부의했다.
8	목종(穆宗) 원년(元年) 7월	서희(徐熙)	포(布) 천 필(匹) 모맥(麥) 300석(石) 미(米) 500석(石) 뇌원차(腦原茶) 200각(角), 대차(大茶) 10근(斤), 전향(香) 3백 냥(三百兩)을 부의(賻儀)했다.
9	문종(文宗) 원년(元年) 10월	황보영(皇甫穎)	미(米) 백석(百石) 맥(麥) 50석(石) 포(布) 400필(匹) 대차(大茶) 300근(斤) 향(香) 10근(斤)을 부의했다.

공로가 많은 신하들의 사망 시에 관작을 추증하고 차를 하사한다는 것은 고려 때에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관례로 보여지며, 죽은 이의 품계에 따라 장례에 쓸 만큼의 차를 최고의 품질인 뇌원차나 대차로 부의하였는데 그 수량을 보면 뇌원차 200각은 소단일 경우 4000덩이 이며 대단일 경우 1600덩이 이다. 한 덩이를 3명이 마셨다고 가정하면 소단일 경우 12000명이 마실 수 있는 양이다. 고려말 인구를 연구한 권태환, 신용하는 580만정도이고, 토니미첼은 490만, 이영구, 이호철은 750만 명으로 추정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1998:377). 이 인구에 비교해보면 부차한 차의 양은 많은 양으로 고려인들을 끽다왕국으로 부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나) 중형주대의

고려시대에는 죄와 법을 다룰 때에 격식을 갖춰 차를 마시고, 공정한 판단을 하고자 하였다. 관리들이 죄를 논함에 있어 삼가고 신중한 공무태도의 하나로 실천한 것은 '중형주대의[225]'와 '다시(茶時)'가 있다. 중형주대의는 관리들이 공무를 의논하기 전에 다례를 먼저 행한 것을 말한다. 다시는 차를 마시는 시간이라는 뜻이며 사헌부에서는 죄와 법을 다루는 대관이나 감찰들이 모여서 공무를 행하기 전에 다례를 먼저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행해졌다. 중형주대의의 의식절차를 살펴보면 중형을 내릴 때 임금에게 고하고 참결을 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때 모든 신하들이 내전의 남쪽 낭하에서 뵙고 진차하는 의식을 거행했다. 임금께 차를 올리면 왕은 신하들에게 차를 하사하였다.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왕이 내전(內殿)의 안쪽에 앉고 여러 신하들도 재배한 후 제자리에 앉는다. 다방참상원(茶房參上員)이 협호(夾戶, 별채)로부터 차를 들고 들어온다. 내시칠품원(內侍七品員)이 뚜껑을 연다. 집례가 전의 앞 기둥 밖으로 올라와서 왕과 마주보고 절한 후 차를 권하고 놓은 뒤 전 아래로 내려온다. 다음에 원방(院房)의 8품 이하가 재추에게 차를 올리며, 다시 전상(殿上)에 올라가 엎드려 차 마실 것을 청한다. 단필 주대원(丹筆奏對員, 임금의 물음에 대답하는 관원)이 "단필(丹筆)[226]로 참결[227]을 결정하시되 유인도(有人島)에 들어갈 자를 제외 하소서"라고 아뢴다. 형이 결정된 후 왕과 재추에게 약을 권하고 신하들은 재배한다. 신하들은 왕이 술과 과일을 하사한다는 분부를 전달받고 다례로 나간다.[228]

정영선(1996:95-96)은 중형을 결정한 후에 차를 마시는데 의례의 시작에 차로서 예를 갖추어 마신 차는 단순한 음료로서의 차로 쓰인 것이 아니고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음료로 쓰였다고 하였다. 중한 죄인을 처결하는 의식에서 죄인의 생과 사 앞에서 좀 더 공평하고 신중하며 억울한 죽음을 예방하기 위해 법정에서 차를 매개로 죄를 논하고 판결을 내릴 때 왕과 신하 모두가 차를 마셨다는 것은 차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부터 조선까지 행해진 사헌부(司憲府)의 '다시(茶時)'는 특수한 다례의 형식으로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영선(1999 :96)은 다시란 '차 마시는 시간'이라는 뜻인데 사헌부에서는 죄와 벌을 다루는 대관이나 감찰들이 모여서 공무를 의논하기 전에 다례를 먼저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사헌부의 업무에 대한 기록을 보면 차를 마신 것을 휴식으로 본 것이 아니고 업무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229] 정영선 (2000:103)

---

225)주대는『한한대사전』에 임금의 물음에 대답하여 말한다고 하였는데 고려의 형부 직책에는 주대원이 있었다.

226) 단필은 붉은먹과 붓을 말한다.

227) 참결(斬決) :목을 베는 형벌을 말한다.

228)『고려사』권64 예6 <흉례 중형주대의>. '茶房參上員, 從夾戶, 入進茶, 內侍七品員, 去盖子, 執禮, 上殿前楹外, 面拜勸茶, 放後下殿, 次院房八品以下, 進宰樞茶, 執禮, 又上殿, 伏面請茶出, 次丹筆奏對員, 入奏丹筆, 制斬決, 除入有人島, 畢後, 勸御藥, 及宰樞藥, 執禮, 引宰樞, 下庭褥位, 微喝再拜, 執禮承傳, 云宣賜酒果, 執禮, 微喝再拜引出.'

229)『태종실록』 5년 7월16일. "헌부(憲府)에서 아뢴 것이 윤당(允當)합니다. 감찰의 인원수가 많은 것은 오로지 각사(各司)의 분대(盆臺)때문이니, 각사(各司)에서 청대(請臺))하는 것을 하루 전 다시(茶時)에 본부(本府)에 통보하게 하고....."

은 공무 중에 다례를 행한 것은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로서 우리 민족이 차생활을 얼마나 심오하고 진지한 일로 여겼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왕실의 중형주대의는 공정한 판단을 하고자 하였고 관리들이 죄를 논함에 있어 삼가고 신중한 공무태도의 하나로 실천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왕실에서 차는 음료 중 가장 깨끗하고 고귀하며 사심 없는 '청렴'을 상징하는 정신까지 맑게 하는 도구라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2) 다방(茶房)제도

궁궐에서 다의를 전담하는 부서는 다방(茶房)으로 차 관련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부서로서 고려의 모든 큰 의식에는 차가 빠지지 않았으며 궐내에 차를 전담하는 기구인 다방을 설치하여 관원을 배치했다. 이는 고려 궁궐 차문화의 특징적인 면으로 기록된다. 다방이라는 관청에서 차를 공급하고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일을 했다. 이성우(1978:421-422;461)는 본래 다방은 진차가 임무였으나 차와 약이 동일시되고 마침내 궁중의 탕약조화(湯藥調和)까지도 다스리게 되었다고 하였다. 류건집(2006:160)은 그들의 주요한 소임(所任)은 진차례를 집행하고, 연회의 연단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임금의 순유 때 수행하여 차를 준비하고 달이는 일과 약도 곁들이며, 때로는 약방문(藥方文)을 모으며 임금의 시중드는 일도 했다. 물론 궁중의 차를 보관하거나 세자궁에 차를 올리는 일까지 맡아 했다. 왕이 신행(辛行)할 때 수반되는 다례를 봉행하는 행로(行爐)와 다담(茶擔)을 지고 뒤따르는 군사가 있었다. 다방과 행로 다담군사는 궁정의식이나 정전(正殿) 밖에서 차를 끓여 올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차도구 일체를 메고 나르는 일을 수행하였다.[230][231] 진차의 의식은 길(吉) · 흉(凶) · 빈(賓) · 가(嘉)의 행사에 빠짐없이 행해졌다. 수존소(壽尊所)의 행사장 준비[232] 및 진차 의식도 다방에서 주관했다. 이외에도 과안이며 주안(酒案)도 올리고 때로는 약도 올렸다.

이 제도는 조선에도 계승되어 다방은 이조의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되었는데, 차의 공급과 외국 사신의 접대를 맡았다. 구영본(2007:72)은 고려의 진차의식은 조선시대에는 '다례'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는데『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궁중 안에서 행해진 모든 다례의식을 '궁중다례'라고 한다고 하였다. 새로운 예전과 함께 고려시대에 행해진 차의례는 조선의 궁정에서도 계속 행해졌다. 다방에 소속된 관원으로는 지다방사(知茶房事), 다방태의소감(茶房太醫小監), 다방시랑(茶房侍郎), 다방별감(茶房別監), 다방참상원(茶房參上員)과 참외원(參外員), 다방좌우번(茶房左右番), 다방산직원(茶房散職員), 다방원(茶房員), 한다방남반원(閒茶房南班員), 한다방반색원(閒茶房飯色員)등이 있다.

(2) 문인들의 차문화

고려의 문인들은 자연에서 차를 마시며 스스로 취해 자신을 잠깐 잊는 무위자연의 차생활에 대한 시(詩)를 많이 지었다. 대표적인 시인으로는 이규보를 말할 수 있는데 40운의

---

230)『고려사』지18 흉례 <중형주대의>. 다방 참상원(茶房參上員)이 협호(夾戶)로부터 들어와 다호(茶戶)를 올리고 내시(內侍) 7품원(員)이 뚜껑을 벗긴다. 집례(執禮)가 전상(殿上)의 전영(前楹) 바깥으로 올라 면배(面拜)하고 차(茶)를 권(勸)하고 놓은 뒤에 전(殿)에서 내려온다.

231)『고려사』지 19 가례<태후책봉의> 연평련(延平輦) 및 자수대개(紫繡大盖)와 홍소개(紅小盖) 교상(絞床) 수관자(水灌子) 행로(行爐) 다담(茶擔)은 중문(中門)으로 전정(殿庭)에 들어가 열립(列立)하고 진물(進物)이 전정(殿庭)을 지나간 뒤에 돌아 나온다.

232) 왕이 태자와 제신(諸臣)에게 원정(元正)을 맞아 축복하례와 만세수주(萬歲壽酒)를 받는 곳이다.

시를 짓기도 하고 칠언시 204행을 지은 대표적인 문인이면서 차인이라 할 수 있다. 불교와 도교에 심취했던 이규보는 차를 마시는 일이 참선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그는「장원 방연보의 화답시를 보고 운을 이어서 답하다(房壯元衍寶見和次韻答之)」라는 시에서 다선일미를 말하고 있다.

초암의 다른 날 선방을 두드려
몇 권의 오묘한 책 깊은 뜻을 토론하리.
늙기는 했어도 오히려 손수 샘물 뜰 수 있으니
한 사발은 곧 이것이 참선의 시작이라네. 233)

이규보는 손수 차를 달이는 것을 좋아하였고 차를 마시기 위한 일체의 일(茶事)을 참선이라 여겼다.

내 이제 산집을 찾는 것이
술 마시기가 본뜻이 아니건만
올 때마다 마실 자리 베푸시니
얼굴 두꺼운들 어찌 땀이 나지 않겠소
스님의 인격이 진실로 높은 것은
오직 이 차를 마시기 때문이라네.
좋은 몽정차(蒙頂茶)를 혜산(惠山)물로 달여
한 사발에 한마디
점점 심오한 도의 내용으로 들어가네
이 즐거움 진실로 맑은 이야기인데
하필이면 어지럽게 취할까보냐.234)

위의 시에서 '스님이 인격이 높은 것은 차를 마시기 때문이라네' 라고 한 것은 인간의 인격과 차와의 관계를 결부시킬 만큼 차를 소중히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사원에서는 일반인들이 방문하면 술대접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규보는 술을 좋아했지만 차를 마시고 나누는 다담이 술과 견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고려는 이규보 외에도 많은 시인이자 차인들이 활동했던 시기다. 고려에 다시가 많은 것은 문인들의 음차생활이 많았다는 것이고 왕실에서 나온 음차풍이 많은 문인에게 영향을 주었다. 문인들은 승려들과도 교감이 많았다. 차를 마신 문인들은 '다선일미'를 말하며 차를 이용한 자기수양을 하였고 육우의 '정행검덕'이나 노동의 영향을 받았다. 문인들의 차생활은 검소하고 그들의 시 속에는 욕심 없음과 검박함이 드러난다. 이러한 음차풍은 일반인에게 영향을 미쳤다.

---

233)『동국이상국집』권13「房壯元衍寶見和次韻答之」"草庵他日叩禪居 數卷玄書討深旨 雖老猶堪手汲泉 一甌卽是參禪始".
234)『동국이상국집』권1 <古律詩> 「訪嚴師」'我今訪山家 飮酒本非意 每來設飮筵 顔厚得無泚 僧格所自高 唯是茗飮耳 好將蒙頂芽 煎却惠山水 一甌輒一話 漸入玄玄旨 此樂信淸淡 何必昏昏醉.'

(3) 서민의 차문화

서민들의 차문화는 특별한 기록이 없으나 왕이 차를 하사한 기록을 보면

목종10년 격구정에서 민간의 노인, 불구병자, 불구자에게 다약을 하사했다.

목종12년 격구정에서 80세 이상 노인과 독질자 635인에게 다약을 하사했다.

현종12년에 경성 남녀 90세 이상에게 차를 하사했다.

현종13년에 경성남녀 80세 이상과 독질자(毒疾者:위독한병)에게 차포 하사했다.

숙종9년 행어중 (幸御中) 촌부(村婦), 야로(野老)에게 차, 향을 하사했다.[235]

왕이 차를 하사한 대상은 백성이었다. 위의 기록으로 유추해 볼 때 차는 촌부, 야로까지도 차를 음료로 또는 약으로 마셨음을 알 수 있다. 고려의 팔관회와 연등회는 국가적인 행사다. 이 행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차의례를 보았고 그러한 음차풍은 자연히 일반인에게로 옮겨졌을 것이다. 고려에는 다점이 있어 일반인도 차를 사고 마실 수도 있었다. 차생산지 주변의 사람들의 차생활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고려는 왕실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차의 용도가 약이나 음료로 마시고 있었다.

(4) 사원의 차문화

불교에 의해 고려차는 융성해졌다. 불교가 전파되는 곳은 어디나 차생활을 하였다. 고려 불교행사 중 가장 큰 행사가 팔관회와 연등회이고 이때는 차의례가 행해졌다. 왕실에서 불교를 믿으니 백관과 백성 모두 신도가 되었다. 태조 때부터 시작된 숭불정책(崇佛政策)은 훈요십조(訓要十條) 에

우리나라의 대업은 반드시 부처님의 보호에 의한 것이니 선(禪), 교(敎)의 사찰을 세워 주지를 보내 분수(焚修)케 하여 그 업을 닦게 하라.

고 했다. 류건집(2007 : 175)은 대찰 흥왕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찰을 짓고 연등회와 팔관회는 물론 왕실과 귀족이 참여하는 백고좌(百高座) 등의 불사가 자주 행해졌다고 하였다. 이러한 왕실의 보호 아래 사원의 차생활은 자연스럽게 왕실, 귀족,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주었고 차는 불가의 공양물로 부처님께 올리게 되어 그 수요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 승려들은 고급차를 왕실에게 하사받기도 하고 신도들에게 공양받기도 하였다. 다촌(茶村)은 사원에 차를 만들어 바치던 마을로 통도사의 다촌이 유명하였다. 승려들은 차를 좋아하여 직접 제차하여 벗이나 귀인에게 주었다. 문인이나 은사(隱士) 들은 차를 받으면 감사의 뜻을 적은 글을 보내기도 하였다. 송광사 스님이 이제현(李齊賢)에게, 노규선사(老珪禪師)가 이규보(李奎報)에게, 엄광(嚴光) 대선사가 한수(韓修)에게, 겸상인(謙上人)이 임춘(林椿)에게 각각 차를 선물하였던 것을 보면 사원에서 토산차(土産茶)가 재배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문인들과 승려들 간의 교유가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제현이 송광화상에게 차를 받고 화답한 시인 「송광화상이 햇차를 보내준 은

235) <부록2>고려다사연보참조

혜에 대하여 붓 가는 대로 적어 방장실에 붙임(松廣和尙奇惠新茗 順筆亂道奇呈丈下)」에는 다음과 같은 회답시가 있다.

마른 창자 술 끓으니 연기가 나려 하고
늙은 눈 책을 보니 안개가 가린 것 같네
뉘라서 이 두 병을 자취없이 보낼 건가
나는 좋은 약을 얻어온 데가 있네
…
좋은 차 보내오고 안부를 물을 때면
장편 글로 보답하여 깊은 흠모 표하였네
두 늙은이 풍류는 유불의 으뜸
백 년 동안 생사가 아침저녁 같구나
…
가을 감[柿] 먼저 따서 나에게 부쳐주고
봄볕에 말린 작설 여러 번 보내왔네
대사는 옛 정분을 못잊어 그렇지만
나는 공도 없이 많이 받기 부끄럽네
…
맑은 향기는 덥기 전 봄에 따왔던가
고운 빛깔은 숲 속의 이슬을 머금은 듯
돌솥에 끓는 소리 솔바람 부는 듯
자기 잔에 도는 무늬 망울을 토한다
붓 솜씨도 노동을 본받을 수 없는데
육우를 따라 다경을 쓰겠는가 236)

노규선사가 이규보에게 차를 보내고 시를 청하자 그는 이렇게 답을 하였다.

…
시냇가 차 잎사귀 이른 봄에 싹트게 하여
황금 같은 노란 움 눈 속에 자라났네
선사는 어디에서 이런 귀중품을 얻었는가
손에 닿자 향기가 코를 찌르는구려
이글이글한 풍로(風爐)불에 직접 달여
꽃무늬 자기에 따라 색깔을 자랑하누나
입에 닿자 달콤하고 부드러워
어린 아이의 젖 냄새 비슷하구나 237)

사원의 승려들은 해마다 차를 만들어 보내면서 안부를 묻고, 차를 받은 문인들은 꼭 시

236)『익제집』익제문집4권「松廣和尙奇惠新茗 順筆亂道奇呈丈下」'枯腸止酒欲生煙 老眼看書如隔霧 誰敎二病去無 我得一藥來有素蹤…寄來佳茗致芳訊 報以長篇表深慕 二老風流冠儒釋 百年存沒猶晨暮…霜林虬卵寄曾先 春焙雀舌分亦屢 師雖念舊示不忘 我自無功愧多取 …香淸曾摘火前春 色嫩尙含林不露 颼颼石磎松籟鳴 眩轉 瓷甌乳花吐 未堪走筆效盧仝 況擬著經追陸羽'

237) 『동국이상국집』권13 '雲峯住老珪禪師 得早芽茶示之 予目爲孺茶 師請詩爲賦之', '…故敎溪茗先春萌 抽出金芽殘雪裏…師從何處得此品 入手先驚香撲鼻 塼爐活火試自煎 手點花瓷誇色味 黏黏入口脆且柔 有如乳臭兒與稚'

로써 답을 하였다.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좋은 차를 보내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과 차가 술을 깨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차의 효능과 차가 생산되는 시기의 찻잎의 모양, 차를 우리면서 행복해 하는 모습, 차의 맛 등을 표현하였다.
한수는 엄광 대선사로부터 차를 받고, 임춘은 스님으로부터 자순차(紫筍茶)를 선사받고 「차를 주신 겸상인에게 부치다(寄茶餉謙上人)」는 시로서 답을 하였다. 한수는 스님이 보낸 차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묘련사에서 차 맛을 알게 되었다고 하여, 당시의 문인과의 교유가 사원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고려는 왕실과 사원, 문인, 서민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영향을 미치며 차문화는 생활 깊숙이 들어왔다. <표 15>는 선사들의 시를 정리한 것이다.

<표 15> 선사들의 다시

인명	제목
대각의천(1055~1101)	화인이다증승(和人以茶增僧), 화인사차(和人謝茶) 화롱서운(花籠西韻)
진각혜심(1178~1234)	도백운암(到白雲庵), 인월대(隣月臺) 묘고대상작(妙高臺上作) 배선사장실자설다연(拜先師丈室煮雪茶筵)
진정천책(1206~)	사선사혜다(謝禪師惠茶)
원감충지(1226~1292)	산중락(山中樂), 유진각사(遊眞覺寺) 한중우시(閑中偶詩), 한중우서(閑中偶書) 문규봉시(問圭峰詩), 여시자(與侍者) 사금장대선사혜신다(謝金藏大禪師惠新茶)
백운경한(1299~1375)	어록(語錄), 직지심경(直指心經)
태고보우(1301~1382)	상수미암(上須彌庵), 무제(無題), 태고암(太古庵)
나옹혜근(1320~1376)	적다(摘茶), 일완다(一椀茶)

9) 茶의 效能

고려시대 차는 약용의 쓰임이 많았다. 차의 효능에 대해서는 많은 문인들의 글에 나타나며 특히 불가의 승려들이 체득한 경우가 많다. 승려들에게 차는 선방 수행을 위한 도구로 쓰였는데 그것은 정신을 맑게 하고 잠을 적게 하는 효능 때문이었다. 고려인들이 차를 질병치료에 썼다는 사실이 명나라 이일화(李日華)가 쓴 『육연제삼필(六硏齋三筆)』의 기록에

고려 의인(醫人)은 질병치료에 약으로 쓰는데 한 다례나 두 다례에 그치고, 세 다례에 이르면 지극히 많이 쓴다. 네 다례를 쓰는 자는 없다. 약의 성질은 전력(專

力)하면 달(達)하고 두 다례면 제(濟)요 세 다례면 조(調)이며 네 다례면 참(參)과 제(制)인데 거듭 다량(多量)이면 서로 견제(牽制)하여 주공(奏功)할 수 없다. 우연히 학질(瘧疾)과 이질(痢疾)에 매우 간략(簡略)한 두 처방(處方)을 경험(經驗)하고 지금 이에 기록(記錄)한다. 이질치료(痢疾治療)는 두 다례에 그치고, -대변색(大便色)이- 백색白(色)으로 한기질환(寒氣疾患)이면, 생강 1량에 세차 5전을 쓰는데, 하수(河水) 2사발에 달여 1사발이 되면 따뜻할 때 복용한다. 학질은 -병이- 오래고 근일이고 논할 것 없이 생하수오 5전·청피 3전·진피 2전을 쓰는데, 술 1사발과 하수 1사발(합 2사발)에 달여 1사발이 되어 따뜻할 때 복용하면 즉시 쾌유(快瘉)한다.[238]

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고려인들이 차를 약으로 처방하고 질병치료의 목적으로 복용했음을 알 수 있다. 학질과 이질에 처방하고 효과를 본 경험을 적었다. 약으로 먹었다는 기록은 있으나 어떻게 처방하여 마셨는지에 관한 기록은 없었다. 고려인들의 질병에 따른 차 약용법을 알 수 있는 기록이다. 문인들의 시에서도 차의 효능을 읊었는데 이규보의 "게시후관(憩施厚館)"[239]이란 시를 보면 '문원병'(文園病)[240]을 고친다고 하고 '방엄사(訪嚴師)'[241] 라는 시에서는 술의 해독에서 벗어나려고 차를 마신다고 하였다. 또한 스님의 인격이 고매 한 것도 차 때문이라 말했다. 최자는 '동전신정위선사관고(同前神定爲禪師官誥)'[242]의 시에서 목마르면 차를 마신다고 하여 갈증을 멈추게 하는 효능을 말했다. 원감국사의 '山居'라는 다게(茶偈)에도 "목마름에는 한 사발의 자순차를 마시네"라는 다게와 '시신필차신수서일게증시자(試新筆次信手書一偈贈侍者)' 라는 다게에 "날마다 차를 들고 내 갈증을 적시게 하네" 라고 하여 갈증해결에 차를 마신다고 말했다(김명배,1988: 237-263). 이규보의 '우분운득악자(又分韻得岳字)'[243]라는 시에서 "목마른 사람 차를 구하니 샘물이 마르려 하네" 라고 차가 갈증에 효험 있음을 읊고 있다. 승려와 문인 일반인도 차는 약이며

---

238)《六硏齋三筆》高麗醫人. 治疾用藥. 止一味, 兩味. 至三味則 極多矣. 未有至四味者。蓋藥性專則達. 二則濟. 三則調. 四則 參. 與制. 再多則相牽而不能奏功矣。偶傳虐痢二方甚簡而驗. 今錄於此。治痢止二味. 色白者患寒. 用生薑一兩. 細茶五錢。色赤者患熱. 用細茶一兩. 生薑五錢. 赤白雜者. 薑茶各五錢 : 河水二碗. 煎至一碗. 溫服。瘧疾不論久近. 用生何首烏五錢. 靑皮三錢. 陳皮二錢. 酒一碗. 河水一碗. 煎至一碗. 溫服卽愈。(진빈번,1999:440)

239)『동국이상국집』권6

240) 문원병은 한나라 孝文園令인 사마상여가 소갈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문원병은 소갈병을 말한다. 소갈은 당뇨병이다.

241)『동국이상국집』권1

242)『동문선』권27

243)『동국이상국집』권7

인격을 고매하게 만드는 수양의 음료로 마셨던 것으로 사료된다.

10) 茶店

다점이란 차 매매와 차 마시는 장소를 말한다. 고려시대에 다점이나 다방(茶房)이 있었다는 기록은 이숭인이 읊은 '희부일사염주(戱賦一師念珠)'라는 시에 '다방' 이라는 시어가 사용되었다.

짧은 순간의 순함 다함이 없고
다방과 술집은 서로 이어졌네
스님은 백팔염주로 아미타불에게 예의를 갖추니
저 아미타불이 스님을 이해 한다오[244]

라고 읊고 있어 차를 파는 다방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임춘(林椿)의 '다점주수'(茶店晝睡)라는 시의 제목에서 '다점'이 나온다.[245]

몸을 던져 평상에 누워 문득 이 몸 잊었더니
한낮 베개 위에 바람부니 잠이 절로 깨누나
꿈속의 이 몸은 머물 곳이 없었어라
건곤이란 도무지 이 한 장정인 것을
빈 다락에 꿈을 깨니 정히 넉점일세
흐릿한 두 눈 먼 봉우리 보누나
누가 알리, 유인의 한가한 멋을
한 자리 봄잠이 천종(千鍾)에 맞먹느니

고려에 다점이 있었던 기록은 『고려사절요』[246]에서도 볼 수 있는데 목종때 이미 차를 파는 다점(茶店)이 있었다. 차를 사기 위해서는 돈을 사용하고 또한 포(布)도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다.[247] 고려시대의 다점과 다방에서는 차를 상품(商品)으로 팔고 음료로 팔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본래 다방은 궁중에서 차를 담당하던 관리였으나 차를 파는 곳도 '다방', '다점'이라 불리었음을 알 수 있다. 차를 파는 상점이 있었다는 것은 차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고려인들의 차문화를 짐작할 수 있다.

---

244)『 陶隱集 』권3 念念循環無盡期。茶房酒肆也相隨。問師百八彌陀佛。邦箇彌陀解道帥。
245)『서하선생집 』권1 동문선 제19권 "頹然臥榻便忘形, 午枕風來睡自醒, 夢裏此身無處着, 乾坤都是一長亭, 虛樓夢罷正高春, 兩眼空濛看遠峯, 誰識幽人閑氣味, 一軒春睡敵千鍾"
246)『高麗史節要』 卷之二 <穆宗宣讓大王> "秋七月, 敎曰, 近覽侍中韓彥恭上疏, 言今繼先朝而使錢, 禁用麤布, 以駭俗, 未遂邦家之利益, 徒興民庶之怨嗟, 其茶酒諸店, 交易依前使錢外, 百姓等, 私相交易, 任用土宜 "

Ⅵ. 典籍을 通해 본 宋과 高麗 茶文化의 特徵

1. 典籍을 通해 본 宋과 高麗 茶文化의 特徵

지금까지의 다사전적을 통하여 고려와 송의 차문화를 살펴보았다. 양국의 제차, 음차, 차의 종류, 투차, 차도구, 수량, 사차, 왕실의 차문화 특징을 고찰해 보고 그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製茶

송과 고려의 제차법은 가루차를 마셨다는 것은 같으나 송은 특히 백차를 선호하던 점이 특기할 만하다.

송대 제차법의 특징은 개배(開焙),채차(採茶), 간차(揀茶), 증차(蒸茶), 착차(搾茶), 압황(壓黃), 연차(硏茶), 過黃(과황)의 순서로 차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찌고 갈아서 제작하는 연고차와 향과 고를 첨가하여 만드는 납면차가 나왔다. 송대는 백차를 귀하게 여겨 제차법도 엽록소를 제거하여 백차를 만들려 했다. 차를 말릴 때 뜨거운 물에 통과시키고 다시 말리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였다. 이렇게 만든 납면차는 황제를 위해 만든 것이다. 차를 많이 씻어 진향이 없어지니 용뇌와 사향을 첨가하여 만들었으나 투차에 사용하는 차에는 향을 첨가하지 않았다.

고려의 제차법을 기록한 전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송의 단차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승로가 올린 상소문의 내용이나 이인로의 <승원다마>라는 시에 단차를 맷돌에 간다고 하였다. 다만 송 사신인 서긍이 “고려 토산차는 쓰고 떫어” 라는 구절로 보아 송의 연고차 제차법과는 달랐다는 것을 토산차의 맛에서 알 수 있다.

2) 點茶

송은 점차법이고 고려는 자차법과 점차법이 공존했으며 차를 마신 후 탕을 마신 것은 송과 같은 습속이었다.
송대의 점차법은 송만의 특별한 것이었다. 단차 점차법은『대관다론』의 점차를 보면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방법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칠탕법에 의해 '교잔'을 만드는 것으로 다섯 번의 물을 붓고 일곱 단계를 거쳐 한 잔의 차를 만드는 정미한 방법은 송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특별한 점차법이다.
고려의 점차법은 시인들의 다시에 '자명' '점차' '전차' '팽차'라고 한 걸로 보아 자차법과 점차법이 공존하였고『고려도경』에 "매일 세 차례씩 내는 차를 맛보고, 뒤이어 또 탕(湯)을 낸다"고 하여 '다반사'가 생활화된 고려인들의 차생활을 엿볼 수 있다.

3) 茶의 種類

송과 고려는 동일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송대 차의 종류는 크게 단차와 산차로 나눌 수 있다. 단차는『선화북원공차록』과『북원별록』에 기록되어 있다. 산차(散茶)는 당나라 때도 존재했으며 송대에는 서민까지 음차생활을 하는데 공헌했다. 이후 명나라때 모두 산차로 바뀌게 되어 차생활의 저변확대와 발전에 기여하였다.
고려 차의 종류는 토산차, 궁중에서 쓰는 차, 그리고 송에서 수입한 차로 나눌 수 있다. 왕의 사차품목으로 뇌원차, 대차가 있고 다시(茶詩)에 유차(孺茶), 노아차(露芽茶), 영아차(嬰兒茶), 잎차(葉茶), 자하차(紫霞茶), 향차(香茶) 등 다명이 소개되었다. 또한 송의 사신이 선물로 가져온 차나 송나라에서 수입해서 일반인이 사 마시는 송나라의 차인 용봉차(龍鳳茶), 납차(蠟茶), 용봉명단(龍鳳茗團), 건계명(建溪茗), 증갱차(曾坑茶), 쌍각용차(雙角龍茶), 자순차 등의 중국다명(茶名)이 보이나 모두 존재했는지는 알 수 없다.
토산차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한 이유는 이미 송의 차를 수입하여 많은 사람들이 송의 차를 마시고 있었기 때문이다. 송 황실에서 보낸 용봉차 까지도 신하들과 같이 마셨으니 양국이 동일한 차를 마셨다고 할 수 있다.

4) 鬪茶

송과 고려는 투차로 인하여 차문화가 더 발전하였고 투차 풍속은 양국이 함께 누렸다.
송대 투차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상호간에 차의 품질을 겨루는 시합으로 당대에도 있었으나 송대에는 대중화되고 일반화되면서 놀이문화로 정착되었다. 투차는 차의 품질, 물의 맛, 차 품평을 겨루는 것 이외에 차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음차풍습이 대중화되었고 차의 공급이 확산되었다. 차가 고급화되고 종류 또한 다양해졌다. 고급차를 만들기 위한 제차법은 정미해지고 차를 우리는 다기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 문인들에게는 취미요, 교양이었으며 서민들 역시 음료보다는 오락적인 사교와 놀이로서 존재하였다.
고려의 투차는 송나라에서 유행한 것이 고려로 유입된 것으로 고려 사원에서 명전회로 발전하였다. 사원에서는 차를 만드는 일이 자기수양이라 여겼다. 송처럼 황실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투차열풍은 없었으나 사원에서는 명차거품을 말하는 '설유'와 명전에 중요한 물을 '용천봉정'이라고 한 것은 명전회의 풍습뿐 아니라 당시의 차문화는 송과 공

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차의 맛은 물이 좌우하므로 차를 우릴 때에 좋은 물을 가려야 함을 중요하게 여겼음도 알 수 있다. 투차를 통하여 차문화는 더욱 발전하고 좋은 차를 만들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차의 빛깔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도자기가 발전하게 되었고 좋은 샘물을 감별하는 능력을 키웠다.

5) 茶道具

송과 고려는 차도구의 명칭은 다르나 그 쓰임은 같다. 다만 송의 다롱, 침추, 호원외, 라합, 솔, 차선은 송만의 특별한 차도구였다.
송대의 차도구를 자세하게 기록한 『다구도찬』의 12가지 고려전적의 기록에 의거하여 양국의 차도구를 살펴보면 <표 16>과 같다.

<표 16> 송과 고려의 차도구

용도	송	고려
다롱 : 차 찔때 쓰는 기구	韋鴻臚(위홍려)	
침추 : 차 깨뜨리는 도구	木待制(목대제)	
다연 : 차를 연할 때 쓴다.	金法曹(금법조)	
다마 : 차 갈 때 쓰는 도구	石轉運(석전운)	맷돌
차 가루 뭉친 것을 풀어준다.	胡員外(호원외)	
라합 : 찻가루를 곱게 치는 체	羅樞密(나추밀)	
솔 : 가루를 쓸어 모으는 빗자루	宗從事(종종사)	
다완받침 : 다완을 받치는 받침.	漆雕秘閣(칠조비각)	찻잔받침
다완 : 토호무늬 잔이나 흑유의 다완.	陶寶文(도보문)	비색소구, 금화오잔, 탕잔, 오지사발, 꽃사발
탕병 : 물 따르는 도자기 주전자.	湯提點(탕제점)	정병(淨甁), 수병(水甁), 제병(提甁), 수옹(水瓮) 수앵(水甖), 탕호(湯壺), 수관자
차선 : 대나무를 가늘게 잘라 만든 점다시 격불 도구	竺副帥(축부수)	고리차술
행주 : 행다시 필요한 흰색 행주	司職方(사직방)	
물 끓이는 솥		돌솥, 돌냄비, 탕관, 은로탕정, 행로, 정로, 수부

찻상, 보조상		교상, 소조, 쟁반
상보		홍사건

위홍려(韋鴻臚), 목대제(木待制), 금법조(金法曹), 석전운(石轉運), 호원외(胡員外), 나추밀(羅樞密), 종종사(宗從事)는 가루차를 만드는 도구다. 『다록』과 『대관다론』은 점차법에 필요한 차도구만 소개되어 있어 제차법의 차도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고려에서도 점차도구만 언급하였다. 차도구 명칭은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그 사용에 있어 대동소이하다 할 수 있다.
고려와 송의 차도구는 명칭은 다르나 용도는 같았고 송의 차도구 중 일부는 송만의 특별한 것이다. 고려는 차를 손님에게 드릴 때 극진한 예의를 갖추어 냈음이 홍사건이나 찻상, 보조상에서 알 수 있다.

6) 數量單位

이미 서긍이 『고려도경』에서 밝혔듯이 송과 고려의 수량단위는 같다.
송대 차의 수량 단위는 구양수는 대단은 8병을 한 근[248]일각(一角) 으로 삼고 소단은 20병을 한 근으로 한다고 하였다.
고려 차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는 각과 근이 주로 쓰였는데

각은 20병을 1근으로 보자기 두 개에 나누어 싸고 쌍각 단차(雙角團茶)"라 했다. [249]

성종 6년 최지몽의 부의에 뇌원차 200각을 하사 하였다고 하였다. 뇌원차 200각을 하사함은 대단이었다면 1600병 정도이다. 송대의 1근의 무게는 596.82g이고 1각의 무게는 300g이었으니 200각은 60kg정도의 무게로 추정된다. 당시의 고려 인구를 비교하면 고려인들이 얼마나 많은 차를 마셨는지 알 수 있다.

7) 賜茶

송과 고려의 왕실은 사차대상이 다양했다. 송의 사차는 정치적인 목적이 농후하며 나라의 세원이요, 군비조달 및 이민족의 패미정책(覇縻政策)의 수단으로 이용된 반면 고려는 왕의 선정도구로 사용되었다.
송대 사차는 용차는 수레에 실어 천자에게 바쳐지고 집정(執政), 친왕(親王), 장주(長主), 황족이나 학사(學士) 장수, 사인(舍人), 근신, 관각(館閣)에게 하사된다고 하였다. 『속자치통감장편(續資治通鑑長編)』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민족, 장사, 서민, 승도에게도

248) 한근이 1각 이다. 송대의 1근은 596.82g이고 1각은 300g 이었다.
249) 取小團之精者爲密雲龍。以二十餠爲斤而雙袋. 謂之雙角團 20병을 1근 이라하고 보자기 두 개에 나누어 싸고 쌍각 단차라 한다. (진조규외, 1995:127)

사차하였다(표6 참조). 송대 왕의 사차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차는 정치적으로는 재각이나 제례에 하사됨으로써 위계질서를 표현하고 신하는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정치수단의 역할을 담당했다. 경제적으로는 나라의 세원을 담당하고, 국방비를 충당하고 다마무역으로 말을 사들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사회적으로는 궁중의 생활양식이 귀족, 관료, 사대부, 서민에게 까지 파급되는 요인이 되었다.
외국사신과 주변 이민족에게의 사차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민족에게 사차는 차와 말을 바꾸는 다마무역이 명, 청대까지 이어져 그들을 회유하고 종래는 토번을 복속시키는 다분히 정책적인 의도가 농후했으며 변방민족에 대한 패미정책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송대의 사차는 황제에게 이렇게 중요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차의 쓰임은 차의례를 제외하면 왕의 사차라 할 수 있다. 왕이 차를 하사한 대상은 이웃나라에 보내는 예물, 신하, 백관, 승려, 백성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계층에 차를 하사하였다.
고려의 왕실에서의 사차는 첫째, 가장 좋은 차는 의례에 사용하거나 신하들의 부의품으로 사용하였고 때때로 송나라 사신이 가지고 온 귀한 용봉사단[250]을 신하들과 함께 마시거나 나눠주는 행위는 왕의 배려로 보인다. 둘째, 제사나 의례에 왕이 차를 갈아 올리는 것은 차를 중요한 예품으로 받들어졌다는 것이다. 셋째, 궁중에서 귀하게 여기는 음차풍이 귀족과 관료, 학생에게로 전파되어 일반인에게로 전달되는 요인이 되었다. 넷째, 죄인을 처벌할 때도 차는 공정하고 바른 판결을 위한 철학적인 의미의 차로 여겨졌다. 다섯째, 이웃나라에 차를 예물로 보냈다는 기록이나 사신들을 영접할 때 차의례를 행한 것은 중요한 외교에 차가 이용된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고려와 송의 왕들은 차를 정치, 경제, 사회, 외교에까지 이용하였다. 송의 사차는 특히 정치적, 경제적인 목적이 두드러지고 고려는 왕이 예를 표시하는 선정도구로서 사용되었다.

8) 王室의 茶文化

송 황실 차문화는 황제를 위해 전운사를 두었고 정치적인 목적의 사차가 있다면 고려왕실 차문화는 궁중 차의례와 사차문화, 차의례를 담당한 다방을 들 수 있다.
송대 황실의 차문화는 공차제도라 말할 수 있다. 송대 공차의 번성은 휘종 시기가 최고 전성기로 공차의 수량은 47,100편에 달할 정도였다. 송은 황제를 위한 차를 만들기 위해 전운사가 북원에 머물며 차를 만들어 황제에게 공납하였다. 진상된 공차는 일반적으로 먼저 종묘에 봉납된 후 천자의 옥식으로 제공되고 외척에게 하사되었으며 근신, 장수, 사인, 관각 등 많은 양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신하와 이민족에게 하사의 용도로 쓰였다. 이렇게 송대 황실의 차는 황제의 정치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고려왕실의 차문화는 궁중차의례와 다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차의례는 왕과 왕태자, 신하, 사신 일행, 관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차의례 장소로는 의식에 따라 다양하다. 왕실의 차의례 중 중형주대의는 공정을 기하려 애썼던 고려만의 특별한 것으로 신중한 공무태도의 하나로 실천했는데 조선으로까지 이어진 왕실의 특별한 차문화였다. 고려는 왕실을 위해 특별히 차를 만들지 않고 가장 좋은 토산차를 상공하였다. 고려의 다방(茶房)은 진차례를 집행하고 연회의 연단을 준비하고 또한 임금의 순유 때 수행하여 차를 준비하고 달이는 일과 약도 곁들이며, 궁중의 차를 보관하거나 세자궁에 차를 올리는

250) 송나라의 용봉차는 차생산량이 적고 비싸서 일반인이 마실 수 있는 차가 아니었다.

일까지 궁중에서 행해지는 모든 차의례와 찻자리를 준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宋과 高麗의 茶文化의 特徵

송과 고려는 같은 문자를 쓰면서 같은 문화권에 있었다. 위의 여러 가지 차문화를 고찰해 본 결과 송대의 차문화 특징으로는 백차성행, 제차법의 엄밀함, 점차법의 상세함, 전매법, 다마무역, 전운사설치를 들 수 있고, 고려는 궁중의 차의례, 다방의 설치, 차세금의 미발달과 다서의 부족을 들 수 있다.

1) 宋代 茶文化의 特徵

(1) 백차의 유행

백차문화는 휘종시기에 발달한 것이며 송대에만 있는 차문화다. 송 이전, 이후에도 백차는 나타나지 않았고 휘종이 좋아하여 크게 유행하였던 차다. 차나무의 변종으로 나라 전체에 몇 그루 밖에 없어 그 수량이 극히 적었고 백차의 유행은 송대 제차법을 변화시켰다. 제차 과정 중 '압황'은 백차처럼 만드려고 했던 송대인들의 제차법이다. 백차는 차도구의 색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백차가 돋보이는 흑유 다완이 크게 유행하였다.

(2) 제차법의 정미함

송대 제차법은 8단계로 구분되며 압황과 연차는 송나라만의 특이한 차문화다. 당대에도 없었고 명대에도 없었다. 압황은 차의 쓴 맛과 색을 없애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 말리는 과정에서『선화북원공차록』에 '세색제일강은 수아로 만들며 12수의 물을 부어 다연에 갈며 12숙화한다' 고 하는데 12숙화에 대한 규명을 하지 못했다. 말리는 과정에 왜 물에 넣는지 알 수가 없다.송대의 제차법은 계속 연구할 과제다.

(3) 점차법의 상세함

송대는 자차법이 점차법으로 변한시기이고 차의 사치가 극에 달했다 할 수 있다. 휘종시기의 점차법이 특히 정교했으며 차문화사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시기이다. 또한 차도구 중 차선(茶筅)의 등장은 『대관다론』이후에 보이며 『다록』이 쓰여진 인종시에는 차시를 사용했다. 차선은 칠탕법으로 '교잔'을 만드는데 필요한 도구였다. 이렇게 점차법이 세밀해진 것은 투차의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다.

(4) 전매법시행

송대에 와서는 차가 국가의 전매품으로 확대되면서 소금, 철과 함께 국가의 주요 세원이 되었다. 문종 태화 9년에 왕애(王涯)의 건의에 의해 차의 전매제도인 '각차법(榷茶法)'이 실시되었다. 각차법은 엄격한 행정구역이 있으며 구역을 벗어날 수 없었고 차의 생산, 운반, 판매가 정부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차 전매 목적은 지방과 정부의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이고 또 다른 목적은 거란과 서하의 국경수비대의 군비조달을 위한 것이었다. 국가의 재정 및 군비의 도움 말고도 차 전매는 차를 이용하여 이민족의 외교에

유리한 고지에 있으려는 의도도 있었다. 이민족들은 음차풍습에 젖어 차와 말을 교환하였고 이러한 다마무역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전매법은 필요했다. 전매법은 외교관계에서 중요한 외교수단으로서 변방의 통치와 안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정치 경제적 수단이었을 뿐 아니라 나라의 중요한 재원이었다.

(5) 다마무역의 융성

다마무역은 청해(青海), 감숙(甘肅), 사천(四川), 서장(西藏) 등지의 소수민족에 대한 마필(馬匹) 정책과 무역제도다. 문성공주가 토번의 대왕인 송찬간포(松贊干布)에게 출가한 것이 티벳인의 음차기원이다. 이때부터 '다마무역'은 천여년 동안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 온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다. 다마무역의 시작은 티벳인(西藏人)들이 말이나 기타의 토산품을 이용하여 차를 교환해 간 일종의 '물물교역(物物交易)'형식의 무역의 형태였다가 당, 송대 군마(軍馬)의 중요성과 그 수요에 대한 인식이 절박해지면서부터 서북 변방민족에 대해 '이차역마(以茶易馬:차로써 말을 바꾸다)'의 정책을 시행하여 송나라의 시급한 군마의 문제를 해결해 줌과 동시에 날로 그 세력을 팽창해 가는 티벳을 회유하여 서북 변방의 안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에 큰 몫을 담당하였으며 수대에 걸쳐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

⑥ 전운사의 설치

송대의 전운사는 황제의 차밭인 북원을 관리하며 황제를 위한 차만을 만들어 공납하는 일을 한다. 오직 황제가 마시는 차만을 전담하는 부서다.

2) 宋代 茶文化의 隆盛

(1) 정치적이유

송의 차문화가 융성했던 이유는 정치적으로 왕은 신하와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차를 이용했고 외국 사신과 주변 이민족과의 좋은 관계 유지와 국방수호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이민족의 회유와 압박에 차가 계획적으로 이용 되었다.

(2) 경제적 이유

티벳과의 접경지역에 다마사(茶馬司)를 건립하고 다법을 제정하여 차(茶)의 판매를 국가의 전매로 하는 각차법을 시행하여 경제적으로 나라의 세원을 충당하고, 국방비를 충당하고 나라의 중요한 말을 사들이는데 드는 재원을 충당하였다. 차는 군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민족들의 차 교역도 나라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찻값을 비싸게 교역할 수 있어 국가의 재정수입에 도움이 되었다.

(3)사회적이유

사회적으로 차에 대한 관심이 전국민에게 퍼져 많은 종류의 차가 생산되었고 생산품의 다양화는 값싸고 질 좋은 산차의 출현을 도왔다. 명나라 주원장의 단차폐지령으로 인해 전면으로 확산된 산차문화는 도자기에도 영향을 미쳐 의흥(宜興) 자사호(紫沙壺)라는 독특한 다기문화를 출현시키게 되었다. 원나라의 산차 출현은 또 다른 차문화의 시작이었으며 새로운 차문화의 확산이었다. 또한 궁중의 생활양식이 귀족, 관료서민에게까지 파급되어 서민들은 일용지물(日用之物)이 되었다.

3) 宋代 團茶의 衰退

(1) 정치적이유

정치적으로 지나친 공차로 공차민의 생활이 어려웠고 다마무역은 남송이후 차 대신 은을 사용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웠으며, 사치스러운 차의 제조는 일부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문화로 단차의 대중화는 산차에 비해 어려웠다. 명나라 건국태조인 주원장이 1391년 단차의 제조를 폐지하는 칙령을 내렸는데 이 칙령으로 약 400년간 중국 차문화를 이끌어 왔던 복잡한 송대의 단차 대신에 산차가 빠른 속도로 유행하게 되었다.

(2) 경제적이유

경제적으로 나라에서 차를 전매하니 차세금이 너무 많아 공차민(貢茶民)의 반발이 일어났고 생활은 어려워졌다. 이민족과의 다마무역은 송에서는 전마(戰馬)를 얻을 수 있고 이민족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차를 얻을 수 있었지만 점차 말구입에 차 대신 은이나 비단을 사용하면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었다. 하지만 다마사들의 차 전매 수입은 증가하여 관리들의 치부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어 폐단이 많았다.

(3) 사회적이유

사회적으로는 비싼 단차보다는 싸고 질 좋은 산차가 많이 생산되고 있어 복잡하고 정교한 송대의 단차 대신에 산차가 빠른 속도로 유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송대의 화려한 점차법의 단차는 사라지고 산차를 우려 마시는 포차법의 시대가 되었다. 동군(東君) (1998: 60-64)은 중국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차문화의 발전이라고 보는 반면 일본에서는 차문화의 쇠퇴로 보았다고 했다. 송대의 점차법은 복잡하지만 그 정성을 생각하면 차가 수신의 도구요, 자기수양이라고 할 수 있다. 최고품만을 추구하며 만들던 단차와 칠탕법 등도 고증을 통해 되살려야 할 것이다. 중국의 산차는 전국민이 애음하고 있고 차문화의 확산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4) 高麗 茶文化의 特徵

(1) 궁중의 차의례

고려 궁중의 차의례는 가례, 빈례, 길례, 흉례에 다 행해졌으며 조선으로도 계승되었는데 그 중 중형주대의는 고려의 왕실에서 차에 대한 위상을 알 수 있으며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로서 우리민족이 차생활을 얼마나 심오하고 진지한 일로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예

라 할 수 있다.

(2) 다방의 설치

고려 궁중에 차를 전담하는 기구인 다방이 있었다. 다방의 소임(所任)은 차의례를 집행하고 연회의 연단을 준비하는 것이다. 또한 다방은 임금의 순유 때 수행하여 차를 준비하고 달이는 일과 약도 곁들이며 궁중의 차를 보관하거나 세자궁에 차를 올리는 일을 담당하였다.

(3) 다서전적의 부족

고려의 차문화에 대한 기록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고려는 송과의 교류가 많아 문화도 송과 공유하였다. 그 중 차문화도 송과 공유하였기 때문에 고려만의 문헌이 남아있지 않다.

(4) 차세금의 미발달

고려의 차는 토산물로 진상하는 차세는 있었으나 차세가 나라의 세원을 충당하지는 못했다. 후에 조공으로 인한 차세금이 증가하여 다농들이 힘들었으나 송처럼 국가의 주도로 차를 전매한 기록은 없다.

5) 高麗 茶文化의 隆盛

(1)정치적이유

정치적으로 궁중에서 행하는 차의례에 차가 이용되었고 불교의 도입으로 불교행사에 차가 빠지지 않았으며 왕은 차를 신하에게 하사하거나 부의품으로 사용하여 왕의 정치적 도구로서 차의 쓰임이 많았다. 궁중에서 사신에게 행하는 빈례의식에 차의례가 있었고 주변국에 차를 보냄으로써 외교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2)사회적이유

사회적으로는 연등회나 팔관회에서 행하는 차의례가 궁중의 차풍습이 관료, 사대부, 서민에게까지 파급되는 요인이 되었다. 한번 유입된 문화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무수한 변화가 오더라도 변하지 않고 남아있음을 알 수 있게 하며, 조선시대에 와서 차가 쇠퇴했다고 보기보다 잠재해 있었다고 보는 시각에서 찾을 수 있다.

6) 高麗 茶文化의 衰退

(1) 내적원인

일부 선각차인들이 말한 쇠퇴이유를 보면, 김운학(1983:17-18)은 내적 원인으로는 우리나라 물맛이 좋은 것과 숭늉과 담배, 술, 불교탄압으로 보았다. 식후 마셔야 될 차 대신에 구수한 숭늉으로 대신하게 되었고, 담배의 보급으로 차생활이 감소하게 되었는데, 담배를 연다(煙茶)라고 표현할 만큼 차를 대신하는 기호품으로 여기면서 애호하였다. 또한 텁텁한 곡주 막걸리는 손님에게 차로 하던 접대를 대신하였고 불교에 대

한 탄압정책을 들 수 있다고 하였다.
문일평(文一平,1977:5)은 『다고사(茶故事)』에서 불교의 폐멸과 차가 온 지 천여 년이 지나도 일반화되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 곳곳에 감천(甘泉)이 흐르고, 또 흔히 반탕(飯湯: 누룽지)을 마시는 습속으로 반탕의 맛이 일종의 곡차로서 그 풍미가 고삽(苦澁)한 박차(薄茶)에 비할 바가 아니어서 차의 보급에 장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일본인 諸岡 存, 家入一雄(모로오까,이에이리 가즈오,1983:7)은 『조선의 차와 선(朝鮮의 茶와禪)』에서 조선의 차가 사원 중심이었는데 주자학의 유입으로 쇠하게 되고, 양질의 물이 있고 담배와 술에 대한 애호가 차를 멀리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2)외적원인

윤경혁(2005:118-120)은 이러한 내부 쇠퇴 원인의 시각은 일본 수혜국 시각이며 차나무의 생태와 임진, 정유간의 우리나라 참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소치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윤경혁(2005: 118)은 임진(1592)에 일본이 1차 내침하고, 정유(1597)년 일본의 내침이 5년에 접어든 해에 년40회의 다례가 확인되고 전국토를 왜병이 장기간 침탈(侵奪) 유린(蹂躪)으로 다사가 급격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남부 차생산지의 양민학살로 인구가 급감되어 주곡경작(主穀耕作)마저 자유롭지 못해 산곡답(山谷畓)과 여전(畓田)[251]이 현재까지도 황무(荒蕪)하다고 말한다. 아래 <표 17>은 왜침(倭侵)과 다사와 왕조별 다례, 다방의 기사(記史)를 통계 내어 기록한 것이다.

<표 17> 倭侵과 茶事및 王朝別 茶禮, 茶房의 記史[252]

內 容		時 代 別	
		1349~1592	1593~1800
倭 侵 掠 奪		86 次	-
茶事 茶器 茶食 茶詩類		354 次	13
茶禮 및 茶房記事		222 次	1
茶詩 茶記 남긴 人物		44 人	2
茶貢物 産地分布	世宗,地理志	36 處	-
	東國輿地勝覽	39 處	-
參 考		全 期間	仁祖, 肅宗, 英宗, 正祖年間

조선 초기 200여 년간 다사기록이 많다가 1593년 이후의 다사는 거의 없어졌다. 이현숙(2001:12)은 차산지 연구에서『세종실록지리지(1454)』35곳,『동국여지승람(1484)』32곳,『신증동국여지승람(1530)』34곳,『고사촬요1(1613)』35곳,『동국여지지(1670)』32곳,『고사촬요2(1675)』31곳,『여지도서(1770)』28곳,『대동지지(1864)』37곳,『조선팔도기요(1891)』30곳,『여재촬요(1894)』25곳으로 조사하였다. 이 산지조사에 대해 윤경혁은 산지는 남아있으나 생산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후금(後金)의 침입으로 정묘호란(丁卯胡亂, 1627년)이 있었으며, 전쟁 후 조선은 후금에 조공으로 작설차(雀舌茶)를 바쳐야 했고[253] 병자호란이후에는 청나라에서 요구한 엽차(葉茶) 200담을 조공품으로 보내

251) 개간한지 세 해 또는 이태 지난 밭을 말한다.
252) 윤경혁,2005:56-161
253)『인조실록』 14년 2월 4일, 정묘호란이 있은 뒤로 해마다 금나라에 폐백으로 보내는 것은 잡색주(雜色紬)

야 했다. 이렇듯 조공을 위해 급격히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차의 재배 및 생산이 따르지 못하였다.

(3) 쇠퇴부정

내, 외적 쇠퇴의 주장에 반해 전완길(1988:12;16-30)은 조선에서도 차풍속은 이어졌으며 차의 유통량이 많았음을 네델란드 니코라스 위트센이 쓴 『조선국기(朝鮮國記)』에

> 조선 땅에는 다량의 차가 산출되고 있다. 그것을 가루 내어 熱湯 에 타 먹는데 온 몸을 찌푸리듯 하면서 이를 마신다.

는 기록에서 볼 수 있다 했다. 조선이 병자호란에서 패한 후 1637년 1월에 세공품목을 정한 바 황금 100냥, 백금 1000냥 등과 함께 차 1000포를 보내기로 하였는데(나만갑,1978:101) 차의 엄청난 생산량이 가능하였기에 이런 조약을 맺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차의 생산량이 많았다는 것은 음차가 특수계층의 것이 아닌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보았다. 조선의 제도에 혜민국의 음차법과 관리들의 다시, 사신들에게 제공되는 사차, 고려와 마찬가지로 조선에도 다방이 여전히 존재했고 관청에는 다모(茶母)가 배치되어 있었다는 점, 대한제국시 선교사의 기록에도 왕실에서 차를 대접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차 쇠퇴론을 주장한 학자들의 오류라고 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차의 쇠퇴 이유가 외적인 요인이라고 결론지었다. 그 근거로 첫째, 고려와 조선 초기 200여 년간 많던 다사가 왜침 이후 거의 소멸된 점을 들 수 있고, 둘째, 임진왜란이 끝난 후 경상도의 논과 밭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으니 차농사가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정묘, 병자호란 후에 조공품으로 차를 바쳐야 했기 때문에 차세금이 많았고, 위정자들의 종차(種茶)에 대한 지식도 무지했으며 넷째, 조선 건국 이후 나라에서 차를 제지하고 마시지 못하게 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 차의 쇠퇴는 내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외적인 영향이 더 컸다고 여겨진다.

6백 필, 백저포(白苧布) 2백 필, 백포(白布) 4백 필, 잡색 목면 2천 필, 정목면(正木綿) 5천 필, 표피(豹皮) 50장, 수달피 2백 장, 청서피(靑黍皮) 1백 60장, 상화지(霜華紙) 5백 권, 백면지(白綿紙) 1천 권, 채화석(彩花席) 50장, 화문석(花紋席) 50장, 용석(龍席) 1장, 호도(好刀) 8병(柄), 소도(小刀) 8병, 단목(丹木) 2백 근, 호초·황률·대추·은행 각 10두, 건시(乾柿) 50첩, 전복 10첩, 천지차(天池茶)·작설차(雀舌茶) 각 50봉이었는데, 금년에는 또 금나라에서 힐책함으로 인해 백주 2백 필, 백포 2백 필, 정목면 3천 필, 청서피 40장, 백면지 5백 권, 호도 12병, 소도 12병을 더 보냈다.

Ⅶ. 結　論

차에 대한 시원에 대해서 육우는 신농씨가 처음 약으로 음용하게 되었다는 설을 말하나 이것은 역사 이전의 사화이다. 기록의 시원은 B.C 200년전 주공단의『이아』<석목편>에 “가,고도(檟,苦荼)”라고 하여 가장 오래된 기록이 있고, 한대(漢代) 왕포가 편찬한『동약』의 기록으로 서한시대 파, 촉에서는 음차풍속이 보편화되고 차가 사대부의 생활필수품으로 시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차는 처음부터 음료가 아니었으며, 처음에는 약용으로 시작하여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식용·음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삼국시대(三國時代: 220-265)에 접어들면서 비로소 찻잎을 가공한 후 끓여 마시는 방법을 일부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당대(唐 : 618-907)는 음차풍습이 빠르게 전파되었다. 차생활이 일반화되고 차문화가 정착되기에 이른다. 당나라는 불교가 유입되어 불교문화가 융성해지고 특히 선종(禪宗)은 북방에 불교를 전파하여 차가 나지 않은 북방까지도 차를 마시는 풍습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음차문화가 궁정에서 민간으로 확산되면서 차는 공납의 대상이 되었다. 공다의 시행은 다원의 관리 및 감독관을 두었으며 새로운 차를 만들기 위한 제차기술이 발달하고 차 재배기술이 발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육우의 『다경(茶經)』은 당나라 국민의 차생활에 혁신을 가져왔다. 당대에 차가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또 다른 원인으로는 공다제도, 금주령, 남중국의 개발과 인구 증가 그리고 대운하 개통 등이다. 이렇듯 다양한 요인들이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것은 문인의 시회(詩會), 선방(禪房), 조정(朝廷)과 외교(外交),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차문화의 확산을 가져오게 하였다.

송대(宋, 960-1279)는 당대의 ‘귀족문화’가 ‘사대부문화’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음차문화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남쪽지방에서 문인들은 차모임을 조직하였으며 차에 관한 저술활동도 지속하였다. 북원지방은 당나라의 정통 차문화를 계승하게 되고 수많은 명차를 생산하게 되었다. 복건(福建)의 건안에서 단병차의 모태인 연고차(硏膏茶)와 납면차(臘面茶)를 만들게 되면서 남당은 중국다사에 큰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 송대에 이르면 차는 생활필수품인 땔감, 쌀, 소금 등과 함께 중요한 물품이 되었다. 그런데 차가 궁정에서 의례와 사차 등으로 쓰임에 따라 다법이 시행되고 국가가 차를 전매하는 전매법이 시행되었다. 전매법으로 인하여 이민족들은 차를 사려면 국가를 통해서만 가능해졌고 나라에서는 차가 정치적으로 이민족의 회유와 압박에 쓰였다. 황실에서의 차문화는 관료뿐만 아니라 사대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사실은 많은 다시와 다선일미의 미학이 보여주듯이 문학 정서를 풍부하게 하는데도 차가 큰 기여를 해 문인 사대부들의 생활양식에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

명나라(1368-1662) 건국태조인 주원장(朱元璋, 1368-1398)이 1391년 단차의 제조를 폐지하는 칙령(團茶廢止令)을 내렸는데 이 칙령으로 약 400년간 중국 차문화를 이끌어 왔던 연고차의 점차법이 중국역사에서 사라지고 포차법(泡茶法) 시대가 되었다. 잎차로 우려 마시는 포차법(泡茶法)은 기존의 점차법보다 간편하고 차의 향기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기게 되었고 잎차 다도구인 의흥의 자사호를 발전시켰다.

우리나라에 차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에 대한 의견은 많다. 하지만 정확한 문헌의 기록

으로는 흥덕왕때 대렴이 당나라에서 차씨를 가져오면서부터 차의 재배가 시작되었다. 신라시대에는 차의 재배가 시작되면서 차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고려시대에 이르면 더욱 융성하게 발전하게 된다. 신라에서는 궁정과 사찰, 화랑 등 일부 상류계층이 차를 즐겨 차가 생활 속에 퍼졌다.
고려시대에는 국가적 행사인 팔관회(八關會)와 연등회(燃燈會) 등 중요한 의례에 차가 올려지면서 차문화는 더욱 융성해졌다. 송과의 교류로 인하여 고려의 궁중에서는 송의 차문화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궁중의 의례에 차가 쓰이면서 차를 담당하는 '다방'이 생겼으며 왕은 하사품이나 부의품으로 뇌원차나 대차를 하사하였다. 왕의 사차는 하나의 제도로서도 굳혀졌다. 음차문화는 길거리에 다점이 생기면서 사대부와 일반 서민에게까지 풍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유교 도입은 많은 문화를 바꾸게 했는데 그 중 차문화도 포함되었다. 특히 병자호란과 임진왜란의 영향으로 음차풍속이 크게 저조하였으나 조선후기에 오면서 우리의 차문화사에 큰 위치를 차지하는 다산(茶山)초의(草衣)를 비롯하여 추사(秋史)와 같은 선비, 문인(文人)들이 차문화를 이끌고 초의스님의 『동다송』,『다신전』은 사라져가는 우리의 차문화를 다시 일으키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고 여러 계층에 영향을 미쳤다.
전하여져 내려오는 다학(茶學)의 대표적인 전서로는 당나라 때는 육우의『다경(茶經)』등 7종이 있고, 오대(五代) 때는 전촉(前蜀)의 모문석(毛文錫)의『다보(茶譜)』, 송대는 휘종황제 조길(趙佶)의『대관다론(大觀茶論)』등 26종, 명대는 허차서(許次紓)의『다소(茶疏)』,나름(羅廩)의『다해(茶解)』등 56종, 청대(淸代) 진감(陳鑒)의『호구다경주보(虎丘茶經注補)』등 11종이 있다. 이상의 전서들 외에도 역대 사적(史籍), 필기(筆記), 잡고(雜考), 자서(字書), 류서(類書)에서 문예(文藝) 등에 이르기까지 차에 관한 수많은 기록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만 해도 수백 종에 이른다. 다서의 내용은 『다경』과 같은 종합적인 내용과 복건지역의 차를 말하는 지방성 다서인 종차(種茶)와 다원(茶園) 관리내용, 채차(採茶)와 제차(製茶)에 관한 내용, 수질(水質) 품평과 다탕(茶湯) 조제에 관한 내용. 품차(品茶)와 팽차 및 음차 용기(用器)에 대한 내용의 다서 등 다양하다.
 고려시대 차에 관한 다서(茶書)는 특별히 따로 나오지는 않았으나 '고려사류'인『고려사』,『고려국사』,『고려사절요』,『동국통감』,『동국사략』의 역사서 중 특히『고려사』,『고려사절요』에 나타난 궁중에서 행한 차의례를 살펴보고 서긍이 기록한 『고려도경』을 통해 고려의 습속 중에 나타난 차문화를 조명해 보려 한다. 또한 당시의 학자들이 읊은 다시문을 기록한 '문집' 인 이규보의『동국이상국집』,이제현의『익제집』,이인로의『파한집』,최자의『보한집』,이색의『목은집』,이숭인『도은집』서거정의『동문선』등과 선사들의 다시문등이 있다.
典籍을 通해 본 宋과 高麗 茶文化를 제차, 음차, 차의 종류, 투차, 차도구, 수량, 사차, 왕실의 차문화로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송대 제차법은 개배, 채차, 간차, 증차, 착차, 압황, 연차, 과황의 순서로 차를 만든다. 차를 말릴 때 뜨거운 물에 통과시키고 다시 말리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였고 압황으로 인하여 진향이 없어지니 용뇌와 사향을 첨가하여 만들기도 하였다. 고려의 제차법은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송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 여기지만 연차 및 압황의 과정은 없었다.
송대 점차법은 다완에 찻가루를 넣고 다선으로 격불하여 마셨다. 고려의 음차법은 특별히 따로 기록하지 않았으나 고려의 빈례를 보면 송과 같은 음차법이다.

차의 종류로는 송대는 단차와 산차가 있었는데 그 종류는 다양했다. 고려차의 종류는 송에 비해 많지 않으나 크게 토산차와 임금이 하사한 차, 송나라에서 수입하여 마시는 차로 고려는 송의 차를 수입하여 같은 차를 마시고 있었다.
투차는 송과 고려에서 유행하였으나 송의 투차는 대중화되고 일반화되면서 다회와 놀이문화로 정착된 반면 고려는 사원에서 명전회로 발전하였다. 투차는 송이 더 널리 보급되었고 고려는 승려와 문인들 사이에서 선호되었다.
송과 고려의 차도구는 명칭은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고 특히 고려는 차를 낼 때 극진한 예의를 갖추어냈음이 홍사건이나 찻상, 보조상에 잘 드러난다.
송과 고려의 차의 수량 단위는 송은 대단은 8병을 한 근으로 삼고 소단은 20병을 한 근으로 한다고 하였다. 고려는 차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는 각(角)과 근(斤)이 주로 쓰였는데, 각은 20병을 1근 이라 하고 보자기 두 개에 나누어 싸고 쌍각 단차라 한다고 하였으므로 각은 20병을 말한다. 그러므로 두 나라의 차를 세는 수량은 같았다.
송과 고려의 사차문화는 송대는 친왕, 근신, 대신, 장수 및 일반 서민, 승도에게도 행해졌다. 고려는 이웃나라에 보내는 예물, 신하, 백관, 승려,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 차를 하사하였다. 송과 고려의 왕들은 차를 정치, 경제, 사회, 외교에까지 이용하였는데 송은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민족 회유에 쓰인 반면 고려는 선정을 위한 도구였다.
차문화를 고찰해 본 결과 송대의 차문화 특징은 엄밀한 제차법과 정교한 칠탕법, 황제가 좋아하여 유행되었고 차의 제차방법을 바꾸게 한 백차, 나라에서 차를 전매하는 전매법, 차와 군마를 바꾸는 다마무역, 황제의 차밭을 관리하고 황제를 위한 차만을 만들어 바치는 전운사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고려의 차문화 특징은 왕실의 차의례 중 중형주대의라 할 수 있다. 고려의 왕실에서 차에 대한 위상을 알 수 있으며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로서 우리민족이 차생활을 얼마나 심오하고 진지한 일로 여겼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차가 약 처방으로 쓰였다는 기록은 고려인들이 차를 약용으로 이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송도 차를 약용으로 이용하였으나 처방으로 사용한 예는 발견치 못했다.
송과 고려에서 차가 융성했던 이유는 정치적으로 왕이 차를 이용하여 정치를 하여 신하와 백성들을 잘 다스렸으며 특히 송은 이민족을 회유하는데 차를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차는 송에서 세원의 큰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국방비를 충당하고 다마무역을 통해 말을 사들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고려의 경우 그러한 경제의 기여도를 찾지 못했다. 사회적으로 양국 모두에게 있어 궁중의 차생활이 귀족, 관료, 사대부, 서민에게까지 파급되었다. 외교적으로는 외국사신과 주변 이민족에게의 사차가 주변국과의 좋은 관계유지와 국방수호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특히 송은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송의 차문화 쇠퇴는 단차문화의 쇠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원인은 정치적으로 지나친 공차로 사치에 빠져 나라 통치의 어려움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차세금이 너무 비싸 공차민(貢茶民)의 반발이 일어났고 생활은 어려워졌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비싼 단차보다는 질 좋은 산차가 많이 생산되었다.
고려의 차가 융성했던 이유는 정치적으로 왕실에서 차의 쓰임이 많았기 때문이다. 연등회나 팔관회에서 행하는 차의례는 궁중의 차풍습을 관료, 사대부, 서민에게까지 파급하는 역할을 하였다. 사신에게 행하는 빈례의식에 차의례가 있었고 주변국에 차를 보냄으로써 외교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융성했던 고려의 차문화가 서서히 쇠퇴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의 내적 원인이라기보다 조선시대의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의 외적 영향이라 본다. 외적인 요인의 근거는 고려와 조선 초기 200여 년간 많던 다사가 왜침 이후 거의 소멸된 점과 임진왜란이 끝난 후 경상도의 전답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던 데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정묘, 병자호란 후에 조공품으로 차를 바쳐야 했고 조선 건국 이후 나라에서 차를 제지하고 마시지 못하게 한 기록이 없는데도 차문화가 결국 쇠퇴하게 된 것으로 미루어 외적인 영향이 컸다는 걸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역사상 차문화가 가장 화려하고 융성했던 송과 동시대인 고려의 차문화를 고찰해 보았다. 하지만 송나라의 풍부한 다서와 다사전적에 비해 고려의 문헌은 그리 많지 않아 본격적인 비교를 해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양국에서 차는 음료 이전에 정신적인 도구로 그 위상이 높았다. 송대의 차는 국가의 주도로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는데 그 예가 전매법과 다마무역이다. 차는 배고픔을 달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가 안정되지 않고서는 일반화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차문화가 쇠퇴하게 된 이유도 왜침에 의한 경제적 빈곤인 점을 들면 차문화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고급문화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런 고급문화도 생활화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전국민 음차생활이 가능할 수 있고 한번 유입된 문화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무수한 변화가 오더라도 변하지 않음을 티벳과 우리나라 차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 중국이 차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할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나라 차문화는 발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다만 종차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제차법의 다양화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여건이 갖추어지면 우리나라의 차문화는 더욱 발전하리라 생각된다.

이 글을 쓰면서 송대의 제차법을 재현해 보지도 않고 연구를 한다는 자신이 부끄럽고 이 글을 읽는 이에게 죄송할 뿐이다. 시간을 내어 송대의 단차를 문헌의 기록대로 제차 해 볼 것을 기약하며 단차제차법 의문에 대해서는 후속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參 考 文 獻

1. 史料

『高麗史』.

『高麗史節要』.

장옥서(張玉書)等編,『康熙字典』,臺南:大孚書局有限公司.

고야왕(顧野王)撰,『玉篇』,中文出版社.

『詩經』,(『十三經注疏』臺北:藍灯文化事業公司出版)

『楚辭』,(『十三經注疏』臺北:藍灯文化事業公司出版)

김부식(金富軾), 『三國史記』.

일연(一然),『삼국유사』.

강휴복(江休復),『嘉祐雜志』,(朱自振等編.『中國茶葉歷史資料選輯』,農業出版社,1981)

고염무(顧炎武),『日知錄』,(『四部備要』臺北:中華書局,1965)

구양수(歐陽修),『歸田錄』,(『四部備要』臺北:中華書局,1965)

굴원(屈原),『楚辭』,(『國學基本叢書』臺北: 商務印書館印行, 民國57)

『舊唐書,』(1991), 上海:上海古籍出版社

남효온,『秋江先生文集』.

당경(唐庚),『鬪茶記』,(朱自振 等編(1981).『中國茶葉歷史資料選輯』, 農業出版社,)

도곡(陶穀),『茶茗錄』,(陳彬蕃,『中國茶文化經典』.光明日報出版社(1999)

마단림(馬端臨), (文獻通考』,臺北: 新興書局, 民國52(1963).

모로하시 데츠지(諸橋轍次),『大漢和辭典』 大修館書店 1960.

모문석(毛文錫),『茶譜』,(文淵閣『四庫全書』臺灣: 臺灣商務印書館印行, 民國75)

文淵閣『四庫全書』臺灣: 臺灣商務印書館印行, 民國75(1986).

明『太祖實錄』, 臺北: 中央硏究院, 歷史語言硏究所出版, 1966.

방원영(龐元英),『文昌雜錄』,(朱自振等編,『中國茶葉歷史資料選輯』,農業出版社1981)

봉연(封演), 『封氏聞見記』,臺北: 世界書局 1963.

장여지(莊茹芝),『續茶譜』,(朱自振等編.『中國茶葉歷史資料選輯』,農業出版社,1981)

상거(常璩),『華陽國志』(文淵閣,『四庫全書』臺灣:臺灣商務印書館印行, 民國75)

서거정(徐居正),『東文選』.

신농(神農),『食經』.

『三國志』,(『二十五史』, 경인문화사)
심안노인(審安老人),『茶具圖贊』,(布目潮渢編『中國茶書全集』,東京:汲古書院, 1987)
심괄(沈括)『本朝茶法』(朱自振等編.『中國茶葉歷史資料選輯』,農業出版社,1981)
_____『夢溪筆談』(朱自振等編.『中國茶葉歷史資料選輯』,農業出版社,1981)
_____『補筆談』(朱自振等編.『中國茶葉歷史資料選輯』,農業出版社,1981)
심덕부(沈德符)『野獲編』(朱自振等編.『中國茶葉歷史資料選輯』,農業出版社,1981)
섭청신(葉淸臣),『述煮茶泉品』,(文淵閣『四庫全書』臺灣:臺灣商務印書館印行, 民國75)
송자안(宋子安),『東溪試茶錄』,(文淵閣『四庫全書』臺灣:臺灣商務印書館印行, 民國75)
『宋會要輯稿』,臺北:世界書局 1977.
『續文獻通考』,臺北: 新興書局 1963.
『新唐書』,(『二十五史』, 경인문화사).
왕포(王褒),『僮約』,(朱自振等編.『中國茶葉歷史資料選輯』,農業出版社,1981)
육우(陸羽), 『茶經』.
육정찬(陸廷燦),『續茶經』,布目潮渢編『中國茶書全集』東京:汲古書院 1987.
육유(陸游),『入蜀記』(朱自振等編,『中國茶葉歷史資料選輯』,農業出版社,1981)
왕수(王洙),『王氏談錄』,(朱自振等編.『中國茶葉歷史資料選輯』,農業出版社,1981)
양억(楊億),『양문공담원(楊文公談苑)』,(文淵閣『四庫全書』臺灣: 臺灣商務印書館印行, 民國75)
왕벽지(王闢之),『澠水燕談錄』,(朱自振等編.『中國茶葉歷史資料選輯』,農業出版社,1981)
오자목(吳自牧),『夢粱錄』,(文淵閣『,四庫全書』臺灣: 臺灣商務印書館印行, 民國75)
웅번(熊蕃),『宣和北苑貢茶錄』,(文淵閣『四庫全書』臺灣: 臺灣商務印書館印行, 民國75)
양시(楊時),『龜山集』(陳彬蕃,『中國茶文化經典』光明日報出版社1999)
양연지(楊(羊)衒之),『洛陽伽藍記』,(『四部備要』臺北:中華書局,1965)
이규보(李奎報:),『東國李相國集』.
이제현(李齊賢),『益齋集』.
이인로(李仁老):,『破閑集』.
이숭인(李崇仁),『陶隱集』.
이색(李穡), 『牧隱集』.
임춘(林椿),『西河先生集』.

이방,『太平廣記』,(陳彬蕃,『中國茶文化經典』,光明日報出版社,1999)
이일화(李日華)『六硏齊二筆』(陳彬蕃,『中國茶文化經典,』光明日報出版社,1999)
장우신(張又新),『(煎茶水記』,(布目潮渢 編 『中國茶書全集』,東京:汲古書院.1987)
조여려(趙汝礪),『北苑別錄』,(文淵閣,『四庫全書』,臺灣:臺灣商務印書館印行, 民國 75)
장읍(張揖),『廣雅』,(文淵閣,『四庫全書』,臺灣: 臺灣商務印書館印行, 民國75)
장연옥(張延玉)等,『明史』,上海: 上海古籍出版社1991.
장여지(莊茹芝),『續茶譜』(朱自振等編.『中國茶葉歷史資料選輯』, 農業出版社,1981)
『朝鮮王朝實錄』.
주공단,『爾雅』,(『十三經注疏』臺北: 藍灯文化事業公司)
주강(周絳),『補茶經』,(朱自振等編,『中國茶葉歷史資料選輯』農業出版社,1981)
주밀(周密),『癸辛雜識』,(朱自振等編,『中國茶葉歷史資料選輯』,農業出版社,1981)
주욱(朱彧),『泙州可談』,(文淵閣『四庫全書』臺灣: 臺灣商務印書館印行, 民國75)
전이(錢易),『南部新書』,(朱自振等編『中國茶葉歷史資料選輯』,農業出版社,1981)
채양(蔡襄),『茶錄』(布目潮渢 編『中國茶書全集』 東京:汲古書院,1987)
최자(崔滋),『補閑集』.
초의(草衣), 『東茶頌』.
탈탈(脫脫),『宋史』, (楊家駱主編『中國學術類編』,臺北:鼎文書局, 民國69)
팽승(彭乘),『墨客揮犀』,(朱自振等編『中國茶葉歷史資料選輯』,農業出版社,1981)
허차서(許次紓),『茶疏』,(文淵閣『四庫全書』臺灣:臺灣商務印書館印行,民國75)
호거사(壺居士),『食忌』,(朱自振等編,『中國茶葉歷史資料選輯』,農業出版社,1981)
황유(黃儒), 『品茶要錄』,(布目潮渢編『中國茶書全集』東京:汲古書院.1987)
휘종조길(徽宗趙佶),『大觀茶論』,(布目潮渢編『中國茶書全集』東京:汲古書院.1987)
허신(許愼)撰,『說文解字 』, 臺北: 天工書局

2. 單行本

1) 韓國

구영본,『한국의 전통문화와 예절』,서울 :형설출판사,2003.
구영본, 신미경,『글로벌시대의 차문화와에티켓』,서울:도서출판 형설, 2006.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30년』,서울: 국사편찬위원회편집부, 1998.
고세연,『차의 미학』,서울 : 도서출판 초의, 1993.
권태원,『우리의 차문화와 다례』, 서울 : 경인문화사, 2001.

김동곤,『진감국사와 최치원』,동남기획, 2000.
김명배,『韓國의 茶書』, 서울 : 탐구,1983당.
_____ 『韓國의 茶詩鑑賞』 , 서울 : 大光文化社,1988.
_____『茶道學』, 서울 : 學文社,1984.
_____『中國의 茶道』, 서울 : 明文堂, 1985.
_____『다도학 논고』 , 서울 : 大光出版社, 1996.
_____『다도학 논고Ⅱ』 ,서울 : 大光出版社, 2001.
김명배 역, 모로오카(諸岡 存, 家入一雄공저),『朝鮮의 茶와 禪』. 서울: 보림사, 1983.
김봉건 옮김, 치우치평,『다경도설』, 서울 : 이른아침, 2005.
김상현·김봉호,『生活茶藝』, 서울 : 太平洋博物館, 1984.
김순희 옮김, 야나기무네요시, 『다도와 일본의 미』,서울 : 소화,1998.
김운학,『韓國의 茶文化』,서울 : 玄岩社 1983.
羅萬甲著, 尹在瑛譯, 『丙子錄』, 서울: 正音社, 1978.
류건집,『韓國茶文化史』 上, 下, 서울 : 이른아침, 2007.
무산,『한국역대고승들의 茶詩』 , 서울 : 출판 명상, 2000.
박종기,『5백년 고려사』, 푸른역사, 1999.
박영희,『東茶正統考』, 서울 : 호영출판사,1985.
석도윤·,이다현공역, 棚橋篁峰箸. 『중국 茶 문화』, 서울 : 하늘북, 2006.
석용운,『韓國茶藝』 , 서울 : 도서출판 초의, 1988.
僧家大學院 역주, 一然,『 三國遺事』, 서울 : 大韓佛敎曹溪宗敎育院 1998.
왕총련저, 김하림·이상호 옮김,『중국의 차문화』, 서울 : 에디터 2004.
윤경혁 편저,『茶文化年譜』, 서울 : 弘益齋, 2005.
_____역저,『茶文化古典』, 서울 : 弘益齋, 1999.
_____역주,『增補 茶文化古典』, 서울 : 弘益齋 , 2004.
_____ _譯著,『杏園茶文化古典』, 서울: 弘益齋 ,2006.
尹在瑛 譯, 이능화. 『朝鮮佛敎通史』, 서울 : 박영사, 1980.
이광주,『동과서의 茶 이야기』,서울: 한길사 , 2005.
이만열, 『한국사 연표』, 서울:역민사, 1996.
이범직, 『한국 중세 예사상 연구』, 서울 : 일조각,1991.
정영선, 『한국의 차문화』, 서울 : 너럭바위,1990.
_____『다도철학』, 서울 : 너럭바위, 2000.
조동원,김대식,이경록,이상국,홍기표, 徐兢,『高麗圖經』, 서울:황소자리,2005.
짱유화 신역, 육우,『茶經』, 경북 : 남탑산방,2000.
천병식,『한국의 茶詩』, 아주대출판부,1996.
최계원, 『우리茶의 再照明』,전북 : 三陽出版社,1983.
최규용, 『금당다화』,서울 : 금당다우,1979.
최범술, 『韓國의 茶道』, 서울 : 寶蓮閣,1980.
崔順子譯,(諸岡 存,家入一雄공저),『朝鮮의 茶와 禪』,서울 :삼양출판사,1982.
최태경, 『동아漢韓大辭典,』, 서울: 두산출판사.
허홍식, 『고려시대 연구』, 경기도 : 한국정신문화연구원,2000.
효동원『茶香禪味』, 서울 : 비봉출판사,1986.

_____『茶香禪味2』, 서울 : 도서출판 보림사,1989.

2) 외국

郭孟良, 『中國茶事』, 山西古籍出版社, 2003.
董尙勝, 王建榮 編著, 『茶史』, 浙江大學出版社,2003.
賈大泉, 陳一石, 『四川茶業史』, 巴蜀書社,1988.
方豪, 『宋史』,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8.
梁子,『中國唐宋茶道』,陝西 人民出版社,1997.
姚國坤, 胡小军 編著,『中國古代茶具』, 上海文化出版社,1999.
陸天羽 編著,『飮茶漫談 』, 臺灣:國家出版社,1993.
朱自振 等編,『中國茶葉歷史資料選輯』, 農業出版社,1981.
朱自振 編,『中國茶葉歷史資料續輯』, 東南大學出版社,1991.
朱自振, 沈漢 著,『中國茶酒文化史』, 文津出版社,1992.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編輯部編,『中國大百科全書』,北京: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1992.
陳偉明,『唐宋飮食文化發展史』, 臺灣:學生書局,1995.
陳祖槼 . 朱自振 ,『中國茶葉歷史資料選集』, 弘益齋,1995.
陳彬蕃,『中國茶文化經典』, 光明日報出版社,1999.
陳宗懋,『中國茶經』,上海文化出版社,1988.
陳椽 編著,『茶業通史』, 農業出版社, 1984.
浙江省茶葉學會,『浙江茶葉』 ,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4.
中國茶葉博物館,『品茶設茶』, 浙江人民美術出版社, 1999.
蕭慧娟, 許玉蓮 編著,『約會中國茶』 , Malaysia : 紫藤集團, 1999.
蔡榮章,『現代茶藝』, 台灣:茶業改良場,中華民國 七十三年.
趙自强,『中國歷代茶具』, 深圳: 廣西美術出版社,1999.
朱小明, 『茶史茶典』, 臺北:世界文物出版社,中華民國69년.
孔令敬,『中國茶 五感の 世界』, 東京:日本放送出版協會,2002.

3) 기타

布目潮渢 編, 『中國茶書全集』, 東京:汲古書院,1987.
東君 , 『茶から茶道へ』, 東京: 新日本印刷柱式會社,1998.
池本義男, 『中國茶書茶關係語』, 名古屋1972.
宮內廳書陵部藏,『茶道古典全集』.

3. 硏究論文

강승희(2006), 다시를 통해 본 목은 이색의 사상연구, 원광대학교 동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연숙(2002), 고려, 조선시대 말차 다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 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현숙(2002), 朝鮮後期 祭儀의 時間, 空間的意味에 대한 考察,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영본(2001), 韓國 茶生活敎育場 硏究,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_____ (2007), 한국 茶儀禮에 대한 史的 考察 ,성신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구자완(2005), 韓國과 中國의 「차 끓이기」용어와 方法의 歷史的 考察, 성 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건우(2006), 차문화공간의 현대적 해석과 공간조성연구, 원광대학교 동양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숙희(2003), 정호다완에 관한 연구, 경희대 아트퓨전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영인(2005), 중년기여성의 차문화교육 요구도 조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 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옥수(2003),우리나라 찻잔의 조형미에 관한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재남(2007), 복건다사와 공부차의 고찰,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김재임(2001), 조선시대 다화에 나타난 차문화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창배(2006), 회화와 다문화에 대한 연구, 예원예술대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김경희(2006), 조선후기 궁중진연을 통해 본 차문화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 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길자(1998), 中國歷代茶詩硏究,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명배(2000), 백장청규의 다례 연구, 한국차학회지 6(1), 1-30.

_____(1999), 신라·고려시대의 다례, 다도학 논고, 9-45.

_____(1986), 한국 다도의 구조적 특징,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1), 55-65.

김미숙(2003), 韓國 佛敎寺刹의 獻供茶禮,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수(2003), 茶詩를 통한 한· 중 음차문화 고찰.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김진숙 (2001), 다경을 통해 본 당대의 음차문화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_____(2005), 陸羽 茶經中 飮茶觀點的 硏究, 中國;浙江大學 博士學位論文.

김정규(中華民國74年), 中韓兩國飮茶禮俗之硏究, 臺灣:國立臺灣師範大學國文 硏究所博士論文.

_____(1995), 中國 茶禮 硏究, 중국문학연구, 1-26.

박숙희(1994), 韓國茶禮硏究,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순주(2003), 한국 傳統茶會의 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박옥녀(1998), 韓國 茶文化 硏究, 성신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박양례(2006), 조선시대사대부의 관혼상제의 다례와 복식, 원광대학교 동양 학대학원 석사논문
박준식, 이순영(2005), 석·박사 학위논문을 통해 본 한국 차문화 관련 연구동 향의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2), 31-48.
박영환(2003). 漢藏茶馬貿易對明淸時代漢藏關係發展的影響 사천대학 역사문 화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1999), 明淸時代漢藏茶馬貿易 대만 동해대학 역사연구소 석사학위 논문.
_____(2005), 중국 고대의 다서소고 季刊《茶談》 가을호.
_____(2006), 불교가 중국 차문화(茶文化)에 미친 영향 季刊《茶談》봄호 .
_____(2006), 중국차문화의 변천과정. 禪과文化 제3기, 한국선문화학회 179-205.
서은미(1998), 北宋 茶 專賣의 施行 基盤과 茶法의 變遷,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_____(1999), 北宋代 四川茶와 茶馬貿易, 부산사학 37, 127-144.
_____(2003), 宋代 福建地域 茶 生産의 特徵과 地域文化, 中國史硏究 제24 집, 175-207.
_____(2004), 茶書와 宋代 茶文化, 中國史硏究 32집, 131-162.
손영숙(2006), 高麗後期 佛家의 飮茶風俗에 관한 考察, 성신여자대학교 문화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혜경(2005), 中國 點茶文化 發展史 에 關한 硏究, 한서대학교 건강증진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신미경(2002), 東茶頌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_____(2004). 東茶頌 이전의 다서, 한국차학회지. 9(3), 15-23.
오미경(2005), 빅토리아시대 영국의 차문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원경(1996), 北宋 茶의 普及과 茶法에 관한 硏究,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2003), 婚禮, 喪祭禮中의 茶禮俗, 중국사연구 22, 129-159.
_____(2003), 투차를 통해본 송대 차문화, 중국학보, 273-394.
유정림(1986), 南宋代 四川 茶馬貿易의 展開,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명희(2003), 朝鮮時代 迎使茶禮儀 硏究,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육선자(2002), 한국음차공간의 역사적고찰,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이소영(1990), 한국 현대도제 차주전자 디자인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 업미술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이순영(2005), 해방이후 한국 차문화 관련 문헌에 관한 분석적 연구, 계명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연희(2004), 중국 차문화의 변천.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옥(1999), 五禮에 나타난 茶禮 硏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은주(2001), 高麗時代 宮廷儀禮에 나타난 茶禮硏究, 숙명여자대학교 전통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일희(2002), 高麗時代 禪茶詩 硏究,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_____(2004), 生態的 觀點에서 본 茶文化空間에 관한 硏究. 성신여자대학 교 생활과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주향(2002), 朝鮮時代 茶文化와 茶服 硏究,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이혜자(1994), 한국 고전시가속의 다도사상,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사학위 논문.
이현숙(2001), 朝鮮時代 茶 産地 硏究,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장정현(2003), 朝鮮時代 茶樂 硏究,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전완길(1987), 高麗時代의 茶文化論,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연 구, 185-205.
_____ (1998), 조선차문화론 서설 ,한국차문화학회지 제4호 (12) 16-30.
정상구(1995), 韓國茶詩에 표현된 禪思想 에 관한 연구, 한국차학회지 1(1), 5-44.
정영선(1993), 韓國茶文化에 나타난 儒家思想」,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_____(2002), 고려의 茶禮에 관한 연구」다문화연구지, 제11권, 5-31.
정재숙(2007), 한국차문화의 미학적연구, 원광대학교 동양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기정(2005), 한중 문화교류를 통한 백제 차문화 고찰, 중국인문과학 제31 집, 619-636.
진복선(2003). 祭祀茶禮와 接賓茶禮의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원석사학위논문.
최진영(2003), 한재 이목의 차정신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최은하(2005), 중국다시연구, 군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기정(2003), 朝鮮時代 喪·祭禮를 통해본 獻茶禮 考察, 성신여자대학교 문 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승희(2002), 朝鮮時代 小盤과 現代 茶床 硏究,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애란(2007), 고려시대 동북아시아의 말차(末茶)문화에 관한 비교연구, 성균 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충순(1988), 韓國傳承茶禮의 時代的 考察,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황을순(1988), 韓國茶의 由來와 그 禮俗에 관한 小考,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

문.
홍금이(2002), 高麗時代 宮中茶禮 考察,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ABSTRACT

Characteristics of Song and Goryeo Tea Cultures Based on Books of Tea

Shin, Mee-Kyeong
Dept.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Song and Goryeo dynasties were the glory days in the history of tea. During the Song Dynasty, everyone from the King to the commoner enjoyed tea drinking in his daily lives, and tea was considered as indispensable to living as salt or rice. The tea culture of the Goryeo Dynasty originated in the tea drinking customs of the royal court, which spread to the bureaucrats, the gentry and the common people. Many books of tea were published during these times. In the Song Dynasty, records of teas grown in the King's tea garden were kept by officials in charge of the garden. Books written by the gentry from this period carry many descriptions of all affairs of tea as well as tea poems. Books of on tea culture from the Goryeo Dynasty have not been found, but many of the history books from this period contain descriptions of the tea ceremonies of the royal household.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examinations of books of tea from the two dynasties.

The tea cultures of the Song and Goryeo dynasties had strict rules for making tea, ornate infusing methods, and a widespread practice of tea competitions. Delicate teas of high quality were developed during these times, bringing more variety to teas and the tea equipment became more elaborate and

refined. Tea also played a vital role in the King's handling of politics, economics, culture and foreign affairs.

One of the traits of the Song Dynasty's tea culture was the Jeonunsa, which was the bureau responsible for taking care of the King's tea garden as well as the making and offering of teas solely for the King. Another trait of the tea culture of this period was the development of the white tea, which emerged during the King Huijong era. The white tea culture greatly influenced the tea making methods, tea equipment and tea competitions practices. This was also when the law of the state's monopoly on tea was enforced. This law ensured that the buying and selling of tea was controlled by the state and was used as a political means to govern and conciliate other nations. There was also the tea-horse trade with minor ethnicities in regions such as Cheonghae, Gamsuk, Sacheon and Seojang, providing a solution to Song Dynasty's shortage in military horses as well as conciliating the fast growing Tibet and keeping the northwestern borders secure. Furthermore, it played a major role in the state's finances and politics.

The outstanding features of the tea culture in the Goryeo Dynasty are the royal court's tea ceremonies and the tea house system.

Junghyeongjudaeui, a royal tea ritual of asking the King's decision on a severe case of crime, is a custom unique to Goryeo and a good example of how profound and serious tea was considered in at the time. The tea houses of this period were in charge of preparing the tea ceremonies of the royal court. Existing records of the Goryeo Dynasty's tea culture lack descriptions of the tea making and drinking methods of the time, but it is inferred that they shared similarities with those of the Song Dynasty.

The tea cultures of the Song and Goryeo dynasties flourished and declined due to the following reasons.

When the tea culture of the Song Dynasty flourished, it was because tea was used by the King to govern his servants and the common people and was an important resource for replenishing the nation's taxes. This was the period when the lifestyles of the royal court spread to the commoners, and tea challenging came to be widely practiced. Also, tea became a political means for conciliating neighboring nations.

The decline of the Song Dynasty's tea culture can be viewed as the decline of the brick tea(團茶) culture, which indulged in extravagant and high costing formalities in the royal court, causing problems in governing the nation. While on the one hand, the state-designated tea farmers were suffering from the extremely high taxes on tea, on the other hand, high quality leaf teas were beginning to manufactured in stead of expensive brick teas.

When the tea culture of the Goryeo Dynasty was in its prime, the use of tea in the royal court was diverse and extensive. The tea rituals carried out in

Buddhist assemblies such as the lotus lantern ceremony or the festival of the eight vows, had the effect of spreading the tea customs of the royal court to the bureaucrats, gentry and the common people. Tea rituals were included in contributory ceremonies for the God of Death. Often offered to neighboring countries as a diplomatic measure, tea became a significant element in foreign policy.

The main reason for the gradual decline of the Goryeo Dynasty's tea culture can be found in external influences such as the Imjin War, the Jeongmyo War and the Byeongja War of the Joseon era. The grounds for pointing to the external influences are in the near extinction of the affairs of tea after the foreign invasions, even though they had been kept all through the Goryeo Dynasty and the first 200 years of the Joseon era. Also, after the Imjin War, there were almost no paddies and dry fields left in the Gyeongsang Province. Furthermore, the fact that the tea culture deteriorated even though tea continued to be offered as a tribute after the Jeongmyo and Byeongja wars, and that there are no records of the state forbidding tea drinking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Joseon Dynasty, suggests strong external influences.

<부록 1> 송대다사연보

960	북송 개국(960-1126)
970(唐開寶3)	도곡 찬 「천명록(荈茗錄)」
977 (太平興國 2)	「태평어람(太平御覽)」: 이방(李昉) 등 봉칙찬집(奉勅撰集)한 일천권 인용서(引用書) 1690종. 태종(太宗)이 일 3권(日 三券)씩 1년동안에 열료(閱了) 명칭을 어람으로 함. 이 무렵 고려의 <연등회>, <팔관회> 성행.
979 (唐開寶 8)	서거정등(徐居正等) 찬(撰) 「구오대사(舊五代史)」, 다약, 차 하사한 기사.
宋興國 4	오임신(吳任臣) 찬 「십국춘추(十國春秋)」 차의 공납(貢納) 기사(十國末 978)
983	「태평어람」 인문(引文) <천태기(天台記)> 「태평어람」 "단구출대명 복지생우익(丹丘出大茗 服之生羽翼)"이라는 다사 보임.
987 (雍熙 4)	약사 찬 「태평환우기」에 "검남서도 검남동도 강남동도 강남서도 최남도 영남도" 등의 다사가 상세히 기록.
987	중원 통일(中原 統一). 복건성 북원에 용단모 고형차규격(龍團模固形茶規格) 설치되다.
1001 북송	왕우칭(王禹偁)의 (954-1001) 다시(茶詩). (五言 '元' '韻' 16行)
1010 (大中祥符 3)	양억(楊億) 찬 「양문공담원(楊文公談苑)」에 차제품(茶製品) 등의 다사 기록
1012 (대중상부 5)	주강(周絳)의 「보다경(補茶經)」 찬
1015? (대중상부 8)	전이찬(錢易撰) 「남부신서(南部新書)」에 공다량(貢茶量) 등의 다사 기록.
1033 (宋天聖 6)	정위(丁謂) 영다시(詠茶詩) (오언율 증운(五言律 蒸韻)) 일대소용봉단(一大小龍鳳團), 시어정위성어군모(始於丁謂成於君謨) 등 다사.
1046 (慶曆 6)	섭청신(葉淸新) 「술자다소품(述煮茶小品)」을 찬(攢). (약 510字)
1049 (皇祐 元)	채양 「茶錄」 저술 : 단차 완성. 기호(嗜好)의 소용단 창제. (약 700字)
1060 (嘉祐 5)	① 다시를 많이 남긴 매요신 타계. ② 구양수 등. 「신당서(新唐書)」에 다법, 공다, 각차법 기록.
1061	① 소송(蘇頌) 등 찬한 「도경본초(圖經本草)」에 다사가 보인다.

(가우 6)	② 구양수 「신오대사(新五代史)」 산차(産茶), 매차(賣茶) 등의 다법 기록
1063 (가우 8)	구양수가 찬한 「집고록 발미(集古錄 跋尾)」 권 8에 다사 기록.
1064 (治平 元)	① 구양수 「용다록 후서(龍茶錄 後序)」에 다사가 기록. ② 송자안(宋子安)의 「동계시차록(東溪試茶錄)」 찬. (약 3000字)
1065 (치평 2)	팽승(彭乘)이 찬한 「묵객휘서(墨客揮犀)」 권 4 "채군모선별차 후인막급(蔡君模善別茶 後人莫及)" 등의 다사 기록.
1067 (치평 4)	구양수 찬 「귀전록(歸田錄)」에 다사 기록. 구양수 : 대명수기(大明水記), 부차산수기(浮茶山水記), 품차요록(品茶要錄), 집고록발미(集古錄跋尾), 용다록후서(龍茶錄後序)와 많은 다시가 있다.
1072 (熙寧 5)	황유(黃儒)가 「品茶要錄」 찬.
1078 (元豊 元)	① 석문영(釋文瑩) 찬 「옥호청화(玉壺淸話)」 권 2에 건덕초(乾德初)(963)에 오주의 차화장(茶貨場)이 44처였다는 다법 기사 기록. ② 각차법, 다마법 경정(更定) * 「원풍구성지(元豊九城志)」에 구성의 차장(茶場) 기록이 상세.
1080 (원풍 3)	고승(高承) 찬 「사물기원(事物紀原)」에 납차(蠟茶)의 기록. <용차>, <소단>, <경정>, <석유>의 차와 <榷茶>에 다법 기록.
1083 (원풍 6)	소식의 「동파잡기(東坡雜記)」 다사 기록.
1085 (원풍 8)	① 주장장(주장장) 「오군도경속기(吳君圖經續記)」 中 <잡록(雜錄)>에 다사 기록. ② 범진(범진)의 「동재기사(東齋記事)」 권 1에 다세법(茶稅法) 기사 권 4에 몽정차(蒙頂茶) 기록. ③ 방원영(龐元英) 「문창잡록(文昌雜錄)」에 다사 기록. ④ 팽승(彭乘) 「속묵객휘서(續墨客揮犀)」에 다사 기록.
1086 (宋)	사마광(司馬光) 「집고록(集古錄)」 권 15, 권 17, 권 19, 권 20에 각차(榷茶)에 관한 다법 기록.
1090 (원우 5)	① 양언령(楊彦齡) 「양공필록(楊公筆錄)」 다사 기록. ② 위진(魏秦) 찬 「동헌필록(東軒筆錄)」 권 12 다법 기록.
1093 (元祐 8)	① 심괄(沈括) 「본조다법(本朝茶法)」에 북원(北苑)과 몽산(蒙山)과 건계(建溪) 다법 기록 (약 3100字)

	② 북송 심괄 「몽계필담」에 다세(茶稅), 차화장(茶貨場), 산차(産茶), 각차법(榷茶法) 등의 다법 기록. ③ 심괄 「보필담」 권 2 <궁정(宮政)> 다법 기록.
11C 후기	① 유엄(劉弇 찬 「용운집(龍雲集)」에 1/10의 다세(茶稅)와 제품(製品)의 소개 등 다사 기록. ② 진승(진승) 찬 「별설(別說)」에 차의 개괄(概括) 기사. ③ 범정민(范正敏) 찬 「둔재한람(遯齋閑覽)」: 동다송인용구가 기록 : “금건안위천하제일(今建安爲天下第一)“ ④ 「갈상지문(葛常之文)」에 ‘정위로부터 채군모소단 양선차 노동’ 등의 茶說이 보인다.
1095 (紹聖 2)	왕벽지(王闢之) 찬 「민수연담록(澠水燕談錄)」에 ‘건차(建茶)’의 설명이 보인다.
1097 (소성 4)	장순민(張舜民) 찬 「화만록(畵墁錄)」에 양선차 건계 등의 다사
1098 (元符 元)	조설지(晁說之)가 찬한 「조씨객어(晁氏客語)」에 몽정차 기사
1101 (建中靖國元)	진사도(陳師道) 찬 「후산총담(後山叢談)」에 다사 기록
1107 (大觀 元)	① 휘종 황제의 「대관다론(大觀茶論)」이 저술됨과 공다의 폐해가 늘다. 대관다론은 20편으로 현대 말차의 점차 설명이 상세하다.(약 2800자) ②왕공(王鞏) 찬 「갑신잡기(甲申雜記)」에 칠보차(七寶茶) 하사 기사
1110 (대관 4)	왕득신(王得臣)이 찬 록사(鹿史) 다법 기사. 「문견근록(聞見近錄)」에 蔡君模始作小團茶入貢… 다약사(茶略史) 기록.
1112 (政和 2)	당경(唐庚)이 「투차기(鬪茶記)」를 찬.(약4000여자)
1115 (정화 5)	북원의 공다량(貢茶量)이 4만 7천여 근에 달했다. 또 새롭게 3만 그루의 차를 증식.
1116 (정화 6)	구종석(寇宗奭) 찬 「본초연의(本草衍義)」 정위(丁謂)「북원별록(北苑別錄)」 모문석(毛文錫) 「茶譜(다보)」 채종안(蔡宗顔) 「다산절대(茶山絶對)」에 다사 기록.
1119 (宣和 元)	주욱(周彧) 찬 「평주가담(萍州可談)」에 ① "손님이 오면 차를 마시고 갈 때는 탕을 마신다."는 차 마시는 법 기록.

	② 태학생이 다회를 가져 차를 마셨다는 다회 기록.
1121-1125 (선화 6)	웅번(雄蕃) 찬 「선화북원공차록(宣和北苑貢茶錄)」"다사의 실상과 다수(茶樹), 다명(茶名), 다아(茶芽), 공신과(貢新銙)의 종류 등 역대 다서 중 가장 상세하고 많은 주해를 붙여 저술했다.(약 1800여자)
1125 (선화 7)	왕공(王鞏) 찬 「수수잡록(隨手雜錄)」에 차생활 기록
12C 전	범치명(范致明) 찬 「악양풍토기(岳陽風土記)」 옹호차(灉湖茶) 기사
12C 상 (北南宋交期)	소주(蘇籀) 찬 「란성선생유언(欒城先生遺言)」에 蜀 각차제(榷茶制)에 의한 헌납(獻納)이 백만관(百萬貫)에 이른 해(害)를 말한 다법 기사.
1135 (南宋紹興5)	섭몽득(葉夢得) 찬 「피서록화(避暑錄話)」에 북원차 등의 기사. 섭몽득 찬 「석림연어(石林燕語)」<권 8, 고사> 소용단의 다사 기록.
1139 (소흥 9)	장계유(莊季裕) 찬 「계륵편(鷄肋編)」에 차제품과 제법(製法)의 설명 기사.
1140 (소흥 10)	주변(朱弁) 찬 「곡유구문(曲洧舊聞)」에 사마온공과 촉공의 차와 다기 휴대 기사가 보인다.
1142 (소흥 12)	왕관국(王觀國) 찬 「학림(學林)」 4권에 「爾雅」, 「詩經」, 「모시훈(毛詩訓)」 등 당시까지 '茶'자의 상세한 내력(來歷)을 기록. 8권에 차의 가품(佳品)을 계절별 (사전(社前)→화전(火前)→한식전(寒食前)→우전(雨前)) 및 茶芽의 크기와 색 제조와 점 등 상세히 기술했다.
1145 (소흥 15)	쇠퇴하던 송의 공다액 복구되고 북원에 일만 그루의 다수를 새로 식재.
1148 (소흥 18)	채조(蔡絛) 찬 「철위산업담(鐵圍山業談)」 권 6에 건구단차(建甌團茶) 등 다사.
12C (남송)	소주(蘇籀) 찬 「란성선생유언(欒城先生遺言)」에 일만여관의 성도다장(城都茶場) 기사.
1157 (소흥 27)	오증(吳曾) 찬 「능개재만록(能改齋漫錄)」에 북원차, 면주(綿州) 녹차, 건차, 차돌, 다사(茶詞) 등의 다사 기록. 다마의 이해(利害)를 부시(賦詩)한 차법 기사 (약 1500여 자)
12C 중반 (남송)	요관(姚寬) 찬 「요씨잔어(姚氏殘語)」에 다법 기록. ("소흥진차 자범문호시(紹興進茶 自范文虎始)")
1158 (소흥 28)	왕십붕(王十朋) 찬 「회계풍속부(會稽風俗賦)」에 구양공의<귀전록> 노동의 <칠완차>의 내용 기록한 다사.
1150년대	정초(鄭樵) 찬 「통지(通志)」에 도, 가, 설, 천, 명 등 다사.

(12C)	
1159년 南宋 淳熙9	홍매(洪邁) 찬「객재삼필(客齋三筆)」에 촉의 각차법(榷茶法)의 과중(過重)을 기록.
1164 (南宋隆興 2)	갈립재(葛立才) 찬 「운어양추(韻語陽秋)」권 5에 다시 기록. (맹간의 기신차..)
12C 중기	① 요관(姚寬) 찬 「서계총어(西溪叢語)」에 북원차(北苑茶) 기사. 茶芽 설명 상세. "매일아~호위수아." ② 이석(李石) 찬 「속 박물지(續博物志)」 권 上 ③ 주익(朱翌) 찬 「기각요잡기(奇覺療雜記)」 권 上. 차의 제조(製造)와 끽법(喫法)이 같지 않음. 곧 전차(煎茶)가 많음을 기록. ④ 「시악사(施岳詞)」에 보월(步月) 말리(茉莉)) 차 기록.
1167 (乾道 3)	① 「만구지(蠻甌志)」에 차의 소사(小事) (육우가 노예를 던져버린..) 기록. 경뇌협, 훤초대, 자용향.. ② 호자(胡仔) 편찬 「소계어은총화(沼溪漁隱叢話)」에 다사와 다시(약 2800여 자) ③ 주필대(朱必大) 찬 「구화산록(九華山錄)」 김지장스님 구화산차 맛은 북원차 맛을 대적할 만 하다.
1171 (건도 7)	증민행(曾敏行) 찬 「독성잡지(獨醒雜誌)」에 다사 기록.
1178 (淳熙 5)	주거비(周去非) 찬 「령외대답(嶺外代答)」에 차소사 기록.
1182 (순희 9)	이수(李壽) 찬 「속자치통감장편(續資治通鑑長編)」 <권 236 神宗> 희령5(1072) 왕안석(王安石)의 다고가(茶高價)에 대한 다사.
1186 (순희 13)	조여려(趙汝礪) 찬 「북원별록(北苑別錄)」(약 2800자)
1188 (순희 15)	궐명(闕名) 찬 「금수만화곡(錦繡萬花谷)」에 "북원차 사만전" 등의 다사 기록.
1192 (소희 3)	① 비쇠(費衰) 찬 「양계만지(梁谿漫志)」에 육홍점의 호차(好茶)에 대한 다사 기록. ② 정대창(程大昌) 찬 「연번로속집(演繁露續集)」 납차(蠟茶)는 납차(臘茶)라는 기록이 기재.
12C (남송)	① 형개(邢凱) 찬 「탄재통편(坦齋通編)」에 산곡(山谷)의 말을 인용해 '?차(?차)' 소개 다사. ② 조언위(趙彥衛) 찬 「운록만초(雲麓漫鈔)」에 육우의 납면(蠟面)을 이씨가 경정(京挺)이라 호(號) 했다는 등의 다사 기록.
1192	주휘(周煇) 찬 「청파잡지(淸波雜志)」 권 4에 다사 소개.

(南宋紹熙 3)	
1196 (慶元 2)	홍매(洪邁) 찬 「용재삼필(容齋三筆)」에 “收十之三...蜀茶盡榷民始病矣... 天下茶法既通 蜀中獨行禁榷...”다법 기사.
1200 전후 (남송)	동위(董煟) 찬 「구황활민서십유(救荒活民書十遺)」에 다법 기사.
1202 (嘉泰 2)	이심득(李心得) 찬 「건염이래조야잡기(建炎以來朝野雜記)」 <갑집(甲集)>에 동남차법, 강남차, 건차, 촉차 榷貨務都茶場 등의 다법 기록.(약 3000자)
13C 초 (南宋)	진곡(陳鵠) 찬 「기구속문(耆舊續聞)」 8권에 다사 기록.
1210 (嘉定 3)	육유(陸游)(1125-1210)가 찬 「육유시화시구(陸游詩和詩句)」 <건안설, 추흥유거(建安雪, 秋興幽居)> 등 몇 구의 다시 기록.
1212 (가정 5)	장호(張淏) 찬 「운곡잡기(雲谷雜記)」 권 2에 차자(茶字) 전적 소개.
1214 (가정 7)	고사손(高似孫) 찬 「염록(염錄)」 다사 소개.
1223 (가정 16)	장여지(莊茹芝)의「속다보(續茶譜)」 원본 유실. 「적성지(赤城志)」에 인용 다사 기록.
1225 (寶慶 元)	진원정(陳元靚) 찬 「세시광기(歲時廣記)」에 다법 기록.
1227 (보경 3)	왕영(王栐) 찬 「연익시모록(燕翼시謀錄)」 <권 2> 다법 기록.
1237 (嘉熙 元)	위료옹(魏了翁) 「공주선다기(邛州先茶記)」에 차자(茶字)를 문헌고증 했는데 성음반절(聲音反切)의 운통(韻統) 변천을 상세히 설명.(康熙字典 茶字引解) 왕애(?~835)의 각차법 상진에 다세 세증을 기록.
1240 (가희 4)	조희곡(趙希鵠) 찬 「조변류편(調變類編)」에 물 끓이는 다사 소개.
1250 (淳祐 10)	사승조(史繩祖) 찬 「학재점필(學齋佔畢)」에 차학을 소개.
1257 (寶祐 5)	① 고재편록(雇載編錄) 「고금합벽사류외집(古今合璧事類外集)」에 차산지(茶産地)와 효능(效能)이 간단히 기록. ② 나대경(羅大經)의 「학림옥로(鶴林玉露)」에 찻물 끓이는 단계를 설명하는 다사.
13C	임홍(林洪) 찬 「산가청공(山家淸供)」에 다사 소개.
1269 (咸淳 5)	심안노인(審安老人) 찬 「다구도찬(茶具圖贊)」에 다구 12가지를 그림과 함께 소개.

1274 (함순 19)	오자목(吳自牧) 찬 「몽양록(夢粱錄)」에 보운차(寶雲茶), 향림차(香林茶), 백운차(白雲茶) 등을 기록.
1279 전 (祥興 2전)	구제(舊題) 소식 「사고제요(四庫提要)」 <격물추담(格物麤談)>에 다사 기록.
1285	송나라 멸망.

<부록 2 > 고려다사 연보

연대	내용
918	고려 건국. 喫茶王國의 始作
931 (太祖 14)	「高麗史」卷二 태조세가(太祖世家)에 태조가 軍民에게 茶, 僧尼에게는 茶香 하사.
981	七月 景宗 붕어, 이 해 罷 팔관회
982	최승로가 時務28條 올려. 成宗의 碾茶를 만류함.
987	궁중의례에 진다례. 內史令 崔知夢이 卒하자 成宗이 布 千匹 米 三百石 茶 二百角 香 二百斤을 하사함.
989	「고려사」 : 최승로가 죽자 성종이 포 천필, 맥 삼백석, 경미 오백석, 유향 천근, 뇌원차 이백각, 대차 십근을 부의.
995	청자호(靑瓷壺) (순화 4년 명호 (醇化 4年 銘壺))를 만들다.
996	平章事 최량(崔亮) 졸. 성종이 미 삼백석, 면(麵) 이백석, 뇌원차 천각을 부의.
998 (목종 元)	태보(太保) 서희(徐熙) 졸 하자 포 천필, 맥 삼백석, 미 오백석, 뇌원차 2백각, 대차 십근, 향 삼백량 부의.
1002 (목종 5)	① 고려의 목종이 시중의 상소를 들어 금지했던 전(錢)을 다점(茶店), 주점(酒店)에서 전(錢) 대신 포(布) 사용토록 허용. ② 시중 한언공(韓彦恭)이 졸 하자 목종(穆宗)이 미 오백석, 맥 삼백석, 포 천이백필, 차 이백각을 부의했다.
1007 (목종 10)	목종이 격구정(擊毬定)에 행차하여 민간의 노인, 불치병자, 불구자를 인견하고 주식(酒食), 백포(帛布), 다약(茶藥)을 하사했다.
1009 (목종 12)	목종이 격구정에서 80세 이상의 노인과 독질자(篤疾者 : 위독한 병) 635人에게 주식, 포백, 다약 등을 차등있게 하사했다.
1010 (현종 원년)	다시 팔관회, 연등회 열림
1011 (현종 2)	고려에서는 선조 숭배의 연등회를 2月 15日로 정하고 여기에 太子 이하 조정의 신하들에게 차를 하사하는 의식 거행.
1018 (현종 9)	현종이 海, 노(弩) 二軍의 교위(校尉) 선두(船頭) 이하에게 차포(茶布)를 하사.
1021 (현종 12)	현종이 경성 남녀 90세 이상에게 주식, 다약, 포백 등 하사.
1022 (현종 13)	현종이 경성 남녀 80세 이상과 독질자(篤疾者)에게 차포 등 하사.
1038 (靖宗 4, 宋 明道 2)	七月거란(契丹)에 보낸 사은서(謝恩書)에 뇌원자(腦原茶) 등을 보내준 다사(茶事) 기사가 보인다.
1040 (정종 6)	정종이 이주좌(李周佐)가 卒하자 미맥 사백석과 차, 의저(衣著) 등을 하사.
1047 (문종 원년)	문종이 다방 태의소감(太醫小監) 김징악(金徵渥)의 치사(致仕)에 연장석치(延長措置) 등 기사 기록.
1049	문종이 80세 이상의 최보성(崔輔成) 등 국로(國老)에게

(문종 3)	뇌원차(腦原茶) 30角 등을 하사.
1061 (문종 15)	고려청자 초기 발달.
1066 (문종 20)	국사(國師) 해린(海麟)이 환산(還山)함에 다약(茶藥) 등을 하사한 기록.
1096-1105 (숙종 1~10 송철, 휘종)	개성에 다녀간 宋 손목(孫穆)이 353개의 당시(當時) 고려 언어를 기록하고 설명한 「계림유사(鷄林類事)」 완성.
1097 (숙종 2)	숙종이 전공(戰功) 세운 김한충(金漢忠) 강증(康拯)에게 차포 등을 내린 기사. 시중(侍中) 최사추 (崔思諏)가 치사(致仕)하자 다약, 의백(衣帛) 등을 하사.
1099 (숙종 4)	숙종이 삼각산에 행어(幸御)하여 차향 등을 내린 다사.
1104 (숙종 9)	행어중(幸御中) 촌부(村婦) 야로(野老)에게 다향 등을 내린 기사와 기우제(祈雨祭)에 차향과 어의를 보낸 다사.
1107 (예종 2)	예종이 문장가 위계정(魏繼廷)에게 다약 은합(銀盒) 등을 하사.
1115 (예종 10)	병마사(兵馬使) 박경작(朴景綽)에게 다약(茶藥) 등을 내림.
1117 (예종 12)	① 송사(宋使)가 가져온 용봉단차를 연회(宴會)에 쓰다. ② 서북면 병마사(西北面 兵馬使)로 떠나는 박경작에게 다약(茶藥)을 하사.
1122 (예종 17)	잔치에 송조(宋朝)에서 보낸 용봉명단(龍鳳茗團)을 쓰도록 함.
1124 (인종 2 송선화 6)	고려 왕실의 궁중다방(茶房) 및 생활양식을 기록한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완성.
1125 (인종 3)	① 이자겸을 조선국공(朝鮮國公)에 봉(封)하고 아들에게 상서호부랑중지다방사(尙書戶部郞中知茶房事)를 명(命)했다. ② 이자현이 병들자 문병하고 차와 약을 내렸다. ③ 대간(臺諫)의 간(諫)으로 내시(內侍) 14人과 다방(茶房) 5人을 내침.
1127 (인종 5)	송, 오(遼)와 용봉명단(龍鳳茗團) 등 빈번한 차 교류
1130 (인종 8)	金에 보낸 물목(物目)에 다포 등이 보인다.
1158 (의종 12)	의종이 태평정(太平亭) 중미정(衆美亭) 등을 짓고 환락(歡樂)에 빠짐.
1159 (의종 13)	현화사(玄化寺) 행어(幸御)에 양원(兩院) 승(僧)이 다정(茶亭)을 설치하고, 화려하게 사치하고 왕가(王駕)를 맞이함.
1164 (의종 14)	가을에 귀법사(歸法寺), 현화사(玄化寺) 달령다원(獺嶺茶園)에 행어(幸御)
1170 (의종 24)	육유(陸游) 찬 「입촉기(入蜀記)」 다사 기록.

1178 (명종 8)	고려 어사대(御史臺. 후 사헌부)의 정액(正額) 중 내시 12, 다방(茶房) 6 등을 삭감(削減)하다.
1180 (명종 10)	고려자기 융성.
1184 (명종 14)	태후(太后)의 상월(祥月)에 팔관회를 올림.
1186 (명종 16)	장군(將軍) 다약송(車若松) 등 43人을 내시원(內侍院)과 다방에 겸속(兼屬)하게 한 다사.
1192 (명종 26)	명종(明宗)이 연경궁(延慶宮)에 이어(移御)하고 팔관회(八關會)를 올림. 이 시기에 대숙승(大叔僧) 통요일(統寥一)의 「걸퇴시(乞退詩)」와 이에 차운(次韻)한 군신간(君臣間)의 화답시(和答詩)는 고려의 차생활 문화, 특히 자고반(鷓鴣班)에 대한 내용은 당시의 음차애음(飮茶愛飮)을 확인할 수 있는 물증이다.
1213 (고종 2)	이규보 40여운 시 “공작(孔雀)” 짓다. 동방 삼국의 시 달인이라 할 만 하다.
1241 (고종 28)	이규보(李奎報) 타계 七言詩 204行은 음차왕국 고려다시의 절정이다.
1250 (고종 37)	고종이 최항(崔沆)의 재혼에 내시(內侍) 다방(茶房) 등을 호위(護衛)하여 보냄.
1236-1251 (고려대)	차의 융성과 고려 청자의 전성기.
1255 (고종 42)	최자(崔滋)가 이인로 「파한집(破閑集)」에 「보한집(補閑集)」 간행. 많은 茶詩 수록.
1260 (원종 원)	「파한집(破閑集)」 하권에 “기재황공순익(奇才黃公純益)”의 건차(建茶)를 얻고 쓰다를 “계사(啓事)”로 답(答).
1267 (원종 8)	이윤보(李允甫)의 다시가 「고려사」, 「동국이상국집」, 「보한집」 등에 전한다.
1285 (충렬왕 11)	일연(一然)(1203-1289) 「삼국유사(三國遺事)」 완성. 가락국기에 허황후 다사 기록.
1290 (충렬왕 16)	충렬왕이 5품 이하 문관(文官)과 내시(內侍) 다방(茶房) 등을 종군(從軍)토록 함.
1292 (충렬왕 18)	元에 귀화한 홍군상(洪君祥)이 돌아가자 장군 홍선(洪詵)을 보내어 향차목과(香茶木果) 등을 보냄.
1298 (충렬왕 24)	王이 근시(近侍) 다방(茶房) 등 회복(回復)케 하여 초등(超等)을 加함.
1308 (충렬왕 34)	① 왕이 근시, 다방(茶房) 등의 정액(正額)을 조정함. ② 근시다방(茶房)을 파(파)함. ③ 9月 행어(행어)한 충렬왕에게 주지(住持) 인조(仁照)가 차와 육선(肉饍)을 올림.
1312 (충선왕 4)	① 근시다방 회복 ② 충선왕 전위(傳位). 연등회.
1356 (공민왕 5)	왕이 봉은사(奉恩寺)에 행어하여 僧 보처(普處)의 설법(說法)을 듣고 내전(內殿)에서 맞으니 태후(太后)와 공주가 다과(茶菓)를 관(觀)한 다사.
1365	신돈의 어전(御前)에서의 음차 기사.

(공민왕 14)	
1367 (공민왕 16)	「묘련사 석지조기(妙蓮寺 石池竈記)」에 강릉 한송정 석지조 탐방기를 소개하는 다사 기록.
1368 (공민왕 17)	공민왕이 명춘(明春)에 다반제절(茶飯諸節)의 일을 상기(想記) 다반(茶飯) 기사.
1369 (공민왕 18)	의봉루(儀鳳樓)에서 팔관회.
1373 (공민왕 22)	국서(國書)와 조서(詔書)에 다반연(茶飯宴) 기사가 많음.
1378 (禑王 5)	①섭자기(葉子奇) 찬 「초목자(草木子)」 다사 기록. ② 양지(陽地) 조차(早茶)의 후미(厚味)에 대한 설명.
1389 (昌王 元)	내시(內侍) 다방(茶房) 원수(員數) 조정.
1392 (창왕 2)	飮茶王國 고려 멸망.